연구보고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최인재** **염유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책임연구원_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염유식(연세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_ 김언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Ⅵ'의 연구목적은 지난 4개년 간의 청소년행복지표의 비교 분석과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아울러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시범사업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의 분석과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청소년행복지표의 조사·분석 및 국제비교 ②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3개 지역) 운영 및 성과분석 ③ 청소년활동 관련 마을공동체사업(4개 지역)을 통한 요인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④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시범사업, 설문조사, 현장 면접조사, 콜로키움, 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협력망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단위에 청소년활동 시설·공간인프라 및 놀이·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청소년활동지도자' 양성 및 관리체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청소년 행복 수준에 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자 함. 아울러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2차 자료를 통해 OECD 국가 간의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집단면접조사(FGI),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특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주도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모델 개발 연구의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사회지표 자료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실행계획서를 분석하였고,「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과「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관련 내용 검토, 국내·외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마을공동체 운영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표의 측정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7년 교육통계 연보'를 통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시범사업의 세부영역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으로 범위를 한정한 후,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활동 및 정책제언, 사전·사후분석, 참가자 집단면접(FGI) 등을 수행하였음.

● **(현장면접조사)** 마을공동체조성 사례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4개 지역에 대한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집단면접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였음.

● **(콜로키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행복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25일 경기도 의정부 '몽실학교' 운영 담당자를 초빙하여 '학교-지역 연계 마을학교 운영사례'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운영한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만들기'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음(2018. 5. 25).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부서 담당자, 시범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들과 연구진이 함께 3회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현황 및 국내·외 동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3년 간(2015~2017) 연속으로 실시한 전북 군산시(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주요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중요성으로 다양한 생활기술 습득,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 형성, 자아개념 성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을공동체 운영의 참여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 국내·외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에 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영국, 미국 등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은 직접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고, 행복수준에 대한 정량적 측면은 행정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주관적 지표(9개 영역: 주관적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영역) 조사결과 해가 거듭될수록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

● 성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교급별 분석에서는 교급이 증가할수록 부적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음.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등의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강원, 전북, 경북 등의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객관적 지표(7개 영역: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및 환경 등) 분석 결과에서는 신체활동 실천율이 작년에 비해 조금 증가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으나 자살률, 흡연률, 음주율 등 청소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유지되거나 작년에 비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지표들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음.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심층 분석

-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 삶의 만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음.
- 연령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작동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이른 나이에 만족도가 감소하는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만족 수준이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각 영역에서의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는 불만족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 보다는 만족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임(특히, 환경, 안전, 관계 영역).
- 주관적 웰빙, 건강 영역에서는 자신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도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4)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평가

-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3개 지역)을 실시하였고, 각 시범사업의 주요활동 내용 및 자체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였음.
-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활동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 종료 후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리더십 및 시민성 역량 등의 영역이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5)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 3개 기관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FGI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는 '댄스동아리'이고, 동아리활동 시작의 계기는 '관심 있는 동아리를 직접 선택하였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동아리활동 과정에서 개선과 지원 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활동에 따른 일정한 보상'을 꼽았으며, '활동 공간과 활동 예산 부족 및 홍보필요'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음.
- 지역적 특성과 대상을 고려하여 4개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문 문항별 인터뷰 내용 분석 및 각 지역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① 학습 및 진로탐색의 중요한 기회 ② 인간관계, 자신감, 자존감 향상 ③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 ④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1)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강화 및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2)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 제고 3)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여건 조성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제도 및 시스템 구축:** 1) 지역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제' 도입 2) 청소년진로탐색활동과 지역 사업체 연계 협력망 구축 3) 지역 생활권 청소년동아리 교류활성화 플랫폼 구축
- **마을공동체에 청소년활동 시설·공간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1) 읍·면·동 단위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 설치 확대 2)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

젝트 기획·운영 기반 구축 3)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연계

- **지역사회 '민간청소년활동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2) 청소년(청년)의 지역사회 '**일자리지원 멘토단네트워크**' 운영 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지원 '**마을청소년돌보미**' 운영 4) 시·군·구(동)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센터(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지정 운영

차 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연구보고 18-R11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13
4. 연구추진 체계 ····· 18

Ⅱ.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국내외 동향 ·· 19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년(2015~2017)의 성과와 시사점 ····· 21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중요성 ····· 27
3.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안 ·· 29
4. 청소년동아리와 마을공동체에 관한 국내외 사례 ····· 32

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45
1. 조사개요 ····· 47
2. 모집단 분석 ····· 48
3. 표본설계 ····· 55
4. 가중치와 모수추정 ····· 63
5.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 67
6. 조사결과 ····· 81
7. 소결 ····· 210

Ⅳ.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국제비교 ····· 215
1. 연령-기간-코호트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 ····· 217
2.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 233
3. 소결 ····· 252

Ⅴ.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평가 ····· 255
1. 2018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 257
2. 서울시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 260
3.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 273
4. 전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내용 및 논의 ·· 280
5. 시범사업 효과 분석 ····· 288

Ⅵ.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307
1.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 시범 지역 FGI 분석 ··· 309
2. 청소년참여 마을공동체 현장 사례조사 ····· 316
3.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340

Ⅶ. 연구 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 과제 제언 ····· 343
1. 정책추진 방향 ····· 345
2. 정책과제 발굴 및 활용방안 ····· 346

참고문헌 ····· 369

부 록 ····· 379

표 목차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 7
표 Ⅰ-2 연차별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2018~2022) ····· 9
표 Ⅰ-3 2018년 주요 연구내용 ····· 11
표 Ⅰ-4 청소년 행복수준 설문조사 내용 ····· 14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 17
표 Ⅱ-1 영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영역 및 주요 활동 내용 ····· 33
표 Ⅱ-2 미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주요 내용 ····· 34
표 Ⅲ-1 조사일정 ····· 47
표 Ⅲ-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49
표 Ⅲ-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 50
표 Ⅲ-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 51
표 Ⅲ-5 초등학교×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 52
표 Ⅲ-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 53
표 Ⅲ-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 54
표 Ⅲ-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56
표 Ⅲ-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 57
표 Ⅲ-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 58
표 Ⅲ-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 59
표 Ⅲ-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 60
표 Ⅲ-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지표(설문지) 구성 및 출처 ··· 69
표 Ⅲ-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 ····· 74
표 Ⅲ-1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 81
표 Ⅲ-1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 82
표 Ⅲ-1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 83
표 Ⅲ-1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 84
표 Ⅲ-1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 85

표 Ⅲ-2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 86
표 Ⅲ-2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 87
표 Ⅲ-2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 88
표 Ⅲ-2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유데모니아 ····· 89
표 Ⅲ-2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 90
표 Ⅲ-2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 91
표 Ⅲ-2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 92
표 Ⅲ-2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 93
표 Ⅲ-2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 94
표 Ⅲ-2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 95
표 Ⅲ-3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 96
표 Ⅲ-3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 97
표 Ⅲ-3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 98
표 Ⅲ-3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 99
표 Ⅲ-3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 선생님) ····· 100
표 Ⅲ-3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 101
표 Ⅲ-36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 102
표 Ⅲ-37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 103
표 Ⅲ-3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 104
표 Ⅲ-3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사이버공간) ····· 105
표 Ⅲ-40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종교단체) ····· 106
표 Ⅲ-41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대중매체) ····· 107
표 Ⅲ-4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 108
표 Ⅲ-4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 109
표 Ⅲ-4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 110
표 Ⅲ-4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 111
표 Ⅲ-4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 112
표 Ⅲ-4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113
표 Ⅲ-4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 114
표 Ⅲ-4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 115
표 Ⅲ-5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 116
표 Ⅲ-5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 117
표 Ⅲ-5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 118
표 Ⅲ-5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 119
표 Ⅲ-5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 120

표 Ⅲ-5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 121
표 Ⅲ-5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 122
표 Ⅲ-5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 123
표 Ⅲ-5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 124
표 Ⅲ-5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 125
표 Ⅲ-6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 126
표 Ⅲ-6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 127
표 Ⅲ-6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 128
표 Ⅲ-6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위기상황 대처능력 ····· 129
표 Ⅲ-6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 130
표 Ⅲ-6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 131
표 Ⅲ-6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 132
표 Ⅲ-6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 133
표 Ⅲ-6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칙 개정권 ····· 134
표 Ⅲ-6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 135
표 Ⅲ-7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 136
표 Ⅲ-7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 137
표 Ⅲ-7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 138
표 Ⅲ-7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 139
표 Ⅲ-7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 140
표 Ⅲ-7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 141
표 Ⅲ-7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 142
표 Ⅲ-7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 143
표 Ⅲ-7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 144
표 Ⅲ-7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택만족도 ····· 145
표 Ⅲ-8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거지형태(자가) ····· 146
표 Ⅲ-81 청소년 비만율(BMI) ····· 148
표 Ⅲ-82 청소년 비만율(BMI) (2012~2017) ····· 149
표 Ⅲ-83 청소년 자살률 ····· 150
표 Ⅲ-84 청소년 자살률 (2011~2016) ····· 151
표 Ⅲ-85 신체 활동 실천율 ····· 152
표 Ⅲ-86 신체활동 실천율 (2012~2017) ····· 153
표 Ⅲ-87 평균수면시간 ····· 154
표 Ⅲ-88 평균수면시간 (2012~2017) ····· 155

표 Ⅲ-89 청소년 흡연율 ····· 156
표 Ⅲ-90 청소년 흡연율 (2012~2017) ····· 157
표 Ⅲ-91 청소년 음주율 ····· 158
표 Ⅲ-92 청소년 음주율 (2012~2017) ····· 159
표 Ⅲ-93 스마트폰 과의존율 ····· 160
표 Ⅲ-94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6) ····· 161
표 Ⅲ-95 학업중단율 ····· 162
표 Ⅲ-96 학업중단율 (2012~2017) ····· 163
표 Ⅲ-97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164
표 Ⅲ-9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0~2017) ····· 165
표 Ⅲ-99 학업성취도 ····· 166
표 Ⅲ-100 학업성취도 (2015~2016) ····· 167
표 Ⅲ-101 사교육비 지출액 ····· 168
표 Ⅲ-102 사교육비 지출액 (2012~2017) ····· 169
표 Ⅲ-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 170
표 Ⅲ-104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2~2017) ····· 171
표 Ⅲ-105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 172
표 Ⅲ-106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1~2016) ····· 173
표 Ⅲ-107 청소년 범죄 피해율 ····· 174
표 Ⅲ-108 청소년 범죄 피해율 (2014, 2016) ····· 175
표 Ⅲ-10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76
표 Ⅲ-11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2~2016) ····· 177
표 Ⅲ-111 학교폭력 발생률 ····· 178
표 Ⅲ-112 학교폭력 발생률 (2016) ····· 179
표 Ⅲ-113 자원봉사 참여율 ····· 180
표 Ⅲ-114 자원봉사 참여율 (2011~2017) ····· 181
표 Ⅲ-115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182
표 Ⅲ-116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2017) ····· 183
표 Ⅲ-117 문화여가 지출비용 ····· 184
표 Ⅲ-118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2~2016) ····· 185
표 Ⅲ-119 동아리활동 참여율 ····· 186
표 Ⅲ-120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1~2017) ····· 187
표 Ⅲ-121 문화예술시설 비율 ····· 188
표 Ⅲ-122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1~2016) ····· 189
표 Ⅲ-123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 190

표 Ⅲ-12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2~2017) ····· 191
표 Ⅲ-125 청소년 지도사 비율 ····· 192
표 Ⅲ-126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6~2017) ····· 193
표 Ⅲ-127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194
표 Ⅲ-128 지역경제수준 (2011~2016) ····· 195
표 Ⅲ-129 지니계수 ····· 196
표 Ⅲ-130 지니계수 (2012~2017) ····· 197
표 Ⅲ-131 사회복지지출 비율 ····· 198
표 Ⅲ-132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2~2017) ····· 199
표 Ⅲ-133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 200
표 Ⅲ-13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2~2017) ····· 201
표 Ⅲ-135 경제활동 참가율 ····· 202
표 Ⅲ-136 경제활동 참가율 (2012~2017) ····· 203
표 Ⅲ-137 실업률 ····· 204
표 Ⅲ-138 실업률 (2012~2017) ····· 205
표 Ⅲ-139 통학 소요시간 ····· 206
표 Ⅲ-140 통학소요시간 (2010, 2015) ····· 207
표 Ⅲ-141 녹지접근성 ····· 208
표 Ⅲ-142 녹지접근성 (2012~2017) ····· 209
표 Ⅳ-1 분석 대상자 특성 ····· 220
표 Ⅳ-2 국제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 국가, 대상 연령 ····· 235
표 Ⅳ-3 국제 비교에 사용된 영역 및 설문 문항 ····· 236
표 Ⅴ-1 2015~2017년도 시범사업 영역 ····· 259
표 Ⅴ-2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 260
표 Ⅴ-3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 273
표 Ⅴ-4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 280
표 Ⅴ-5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 289
표 Ⅴ-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92
표 Ⅴ-7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 292
표 Ⅴ-8 인간관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 294
표 Ⅴ-9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 296
표 Ⅴ-10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 298
표 Ⅴ-11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 300
표 Ⅴ-12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 302
표 Ⅴ-13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 304

표 Ⅵ-1 시범사업 참가자 FGI 실시 지역 및 대상 ····· 310
표 Ⅵ-2 청소년 동아리 선택 동기와 활동에 대한 느낌 ····· 311
표 Ⅵ-3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영향과 활동 후 변화에 대한 생각 ····· 313
표 Ⅵ-4 청소년동아리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 314
표 Ⅵ-5 사례 분석의 선정 기준 및 조사내용 ····· 317
표 Ⅵ-6 청소년참여 마을공동체 특성 비교 ····· 338
표 Ⅶ-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분석과 관련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 347
표 Ⅶ-2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 348
표 Ⅶ-3 조사대상의 일반 현황에 따른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 350
표 Ⅶ-4 2018년 시도별 청소년동아리활동 국고 배정 현황 ····· 354
표 Ⅶ-5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358
표 Ⅶ-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제, 추진기관 및 관련 부처 ····· 36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도 ····· 18
그림 Ⅱ-1 Community School 발전 모형 ····· 36
그림 Ⅲ-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 82
그림 Ⅲ-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 83
그림 Ⅲ-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 84
그림 Ⅲ-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 85
그림 Ⅲ-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 86
그림 Ⅲ-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 87
그림 Ⅲ-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 88
그림 Ⅲ-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유데모니아 ····· 89
그림 Ⅲ-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 90
그림 Ⅲ-1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 91
그림 Ⅲ-1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 92
그림 Ⅲ-1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 93
그림 Ⅲ-1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 94
그림 Ⅲ-1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 95
그림 Ⅲ-1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 96
그림 Ⅲ-1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 97
그림 Ⅲ-1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 98
그림 Ⅲ-1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 99
그림 Ⅲ-1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 선생님) ····· 100
그림 Ⅲ-2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 101
그림 Ⅲ-2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 102
그림 Ⅲ-2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 103
그림 Ⅲ-2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 104
그림 Ⅲ-2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사이버공간) ····· 105
그림 Ⅲ-2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종교단체) ····· 106
그림 Ⅲ-2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대중매체) ····· 107
그림 Ⅲ-2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 108
그림 Ⅲ-2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 109
그림 Ⅲ-2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 110
그림 Ⅲ-3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 111

그림 Ⅲ-3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 112
그림 Ⅲ-3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113
그림 Ⅲ-3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 114
그림 Ⅲ-3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 115
그림 Ⅲ-3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 116
그림 Ⅲ-3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 117
그림 Ⅲ-3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아침 식사율 ····· 118
그림 Ⅲ-3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 119
그림 Ⅲ-3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 120
그림 Ⅲ-4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 121
그림 Ⅲ-4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 122
그림 Ⅲ-4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 123
그림 Ⅲ-4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 124
그림 Ⅲ-4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 125
그림 Ⅲ-4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 126
그림 Ⅲ-4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 127
그림 Ⅲ-4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 128
그림 Ⅲ-4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위기상황 대처능력 ····· 129
그림 Ⅲ-4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 130
그림 Ⅲ-5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 131
그림 Ⅲ-5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 132
그림 Ⅲ-5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징계 소명권 ····· 133
그림 Ⅲ-5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칙 개정권 ····· 134
그림 Ⅲ-5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 135
그림 Ⅲ-5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 136
그림 Ⅲ-5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 137
그림 Ⅲ-5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 138
그림 Ⅲ-5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 139
그림 Ⅲ-5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 140
그림 Ⅲ-6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 141
그림 Ⅲ-6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 142
그림 Ⅲ-6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 143
그림 Ⅲ-6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 144
그림 Ⅲ-6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택만족도 ····· 145
그림 Ⅲ-6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거지형태(자가) ····· 146

그림 Ⅲ-6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비만율 (2017) ·· 149
그림 Ⅲ-6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자살률 (2016) ·· 151
그림 Ⅲ-6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신체활동 실천율 (2017) ·· 153
그림 Ⅲ-6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평균수면시간 (2017) ·· 155
그림 Ⅲ-7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흡연율 (2017) ·· 157
그림 Ⅲ-7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 (2017) ·· 159
그림 Ⅲ-7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6) ·· 161
그림 Ⅲ-7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업중단율 (2017) ·· 163
그림 Ⅲ-74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급당 학생 수 (2017) ····· 165
그림 Ⅲ-7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업성취도 (2016) ·· 167
그림 Ⅲ-7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액 (2017) ·· 169
그림 Ⅲ-7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7) ····· 171
그림 Ⅲ-7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6) ····· 173
그림 Ⅲ-7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범죄 피해율 (2016) ·· 175
그림 Ⅲ-8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6) 177
그림 Ⅲ-8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률 (2016) ····· 179
그림 Ⅲ-8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2017) ····· 181
그림 Ⅲ-8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7) · 183
그림 Ⅲ-84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6) ···· 185
그림 Ⅲ-8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7) ···· 187
그림 Ⅲ-8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6) ···· 189
그림 Ⅲ-8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7) 191
그림 Ⅲ-8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7) ·· 193
그림 Ⅲ-8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6) ····· 195
그림 Ⅲ-9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및 17개 시도별 지니계수 (2017) ·· 197
그림 Ⅲ-9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7) ···· 199
그림 Ⅲ-9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 생활 수혜비율 (2017) ····· 201
그림 Ⅲ-9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2017) ····· 203
그림 Ⅲ-94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실업률 (2017) ···· 205
그림 Ⅲ-9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통학 소요시간 (2015) ·· 207
그림 Ⅲ-9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녹지접근성 (2017) ··· 209

그림 Ⅳ-1 연령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 221
그림 Ⅳ-2 기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 만족 확률 ····· 222
그림 Ⅳ-3 출생 코호트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 222
그림 Ⅳ-4 연령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기간, 코호트 효과를 보정) ····· 224
그림 Ⅳ-5 기간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연령, 코호트 효과를 보정) ····· 224
그림 Ⅳ-6 코호트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25
그림 Ⅳ-7 연령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기간, 코호트 효과 보정) ·· 226
그림 Ⅳ-8 기간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연령, 코호트 효과 보정) ·· 227
그림 Ⅳ-9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연령, 기간 효과 보정) ·· 228
그림 Ⅳ-10 성별에 따른 연령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0
그림 Ⅳ-11 성별에 따른 기간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0
그림 Ⅳ-12 성별에 따른 코호트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1
그림 Ⅳ-13 성적에 따른 연령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1
그림 Ⅳ-14 성적에 따른 기간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2
그림 Ⅳ-15 성적에 따른 코호트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 232
그림 Ⅳ-16 주관적 웰빙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37
그림 Ⅳ-17 관계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38
그림 Ⅳ-18 건강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39
그림 Ⅳ-19 학교생활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40
그림 Ⅳ-20 안전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41
그림 Ⅳ-21 환경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
(Children's World) ····· 242
그림 Ⅳ-22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HBSC) ····· 245
그림 Ⅳ-23 주관적 건강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246
그림 Ⅳ-24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 247
그림 Ⅳ-25 소속감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248
그림 Ⅳ-26 어울림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PISA) ····· 249

그림 Ⅳ-27 외로움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PISA) ····· 250
그림 Ⅴ-1 시범사업 운영 절차 ····· 258
그림 Ⅴ-2 학교, 성별, 지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 293
그림 Ⅴ-3 학교, 성별, 지역별 인간관계 변화 추이 ····· 295
그림 Ⅴ-4 학교, 성별, 지역별 문제해결 역량 변화 추이 ····· 297
그림 Ⅴ-5 학교, 성별, 지역별 성취동기 역량 변화 추이 ····· 299
그림 Ⅴ-6 학교, 성별, 지역별 리더십 역량 변화 추이 ····· 301
그림 Ⅴ-7 학교, 성별, 지역별 시민성 역량 변화 추이 ····· 303
그림 Ⅵ-1 홍동마을공동체 네트워크 ····· 321
그림 Ⅵ-2 몽실학교 협력네트워크 ····· 326
그림 Ⅵ-3 삼각산 재미난 마을 네트워크 ····· 330
그림 Ⅵ-4 부산 반송마을 운영 네트워크 ····· 335
그림 Ⅷ-1 정책과제 발굴 절차 ····· 346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 체계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와 생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대 변화 요인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서부터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 스펙트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협의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교육제도와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과 청소년활동 등이 이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과학 기술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넘어 인공지능을 결부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가 청소년들에게 아직은 초보적인 체험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교육과 진로 및 직업체험, 지역사회 활동 등에서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명제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청소년들의 삶과 생활 방식에 미칠 영향을 다면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단위 진로 및 직업체험 위주의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2017년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공동

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명칭은 행정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마을학교', '교육나눔공동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지역의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성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이 연구는 지난 5년(2013~2017)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라는 과제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개발하여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과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행복마을 공동체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2018~2022)간의 연구 방향은 청소년 행복지표조사와 국제비교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혹은 청소년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지원방안에 관한 영역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 연구에서는 핵심 내용을 2개의 영역으로 선정하여 양적조사와 현장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을 보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4개년 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하였고, 각 지표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였다. 아울러 금년에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2차 자료를 통해 OECD국가들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참가자들에 대한 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와 마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특성화 요인을 분석하였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 하였다.

이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1-1 '청소년 참여 확대'의 세부과제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과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를 포함하여,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제적인 정책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주도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모델 개발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지난 5년(2013~2017)간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주요 성과[1)]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

1) 본 연구는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제 특성상 5년간 진행되어 온 연구과정에 대해 전년도 과제(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에서 정리한 내용 일부를 간략하게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을 시작으로 그간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2014년부터 과제의 명칭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로 변경되었고, '마을'이 '지역사회'로 그리고 '조성방안'이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Ⅰ'의 수행을 위해 1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지정 운영하였다. 동시에 이전에 개발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제4차 년도인 2016년에는 지난 3년(2013~2015)간의 지표개발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지표에 대한 최근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Ⅱ'를 실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사업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제5차 년도인 2017년에는 청소년이 행복지표 9개 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고, 연령-기간-코호트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조성 사례연구를 위해 현장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과 마을공동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투입요소와 추진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위별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출발 시점인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된 연차별 연구 및 사업 내용과 개요 그리고 주요 성과를 〈표 I-1〉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3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보고서 발간
2014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2차 년도부터 본원 고유사업예산으로 운영)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 (1차 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시군구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 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 의견 보고서 발간
2016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수정·보완, 행복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지역사회 청소년행복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최근 3년간 변화추세 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안) 마련
	사업	• 시범사업 2차 년도 실시 • '아동·청소년친화도시'정책담당자 간담회 운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모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로드맵 구상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7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수정·보완 및 조사 실시(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화 모형 개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핵심지표 영역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제언 제시 • 전국의 마을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
	사업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차 년도 실시 • 시범사업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정책 대안 제시	• 시범사업 지역과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 및 단위사업 개발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 출처: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Ⅴ. p. 6 재구성.

2) 향후 5년(2018~2022)간 연차별 연구 및 사업 추진 개요

지난 5년(2013~2017)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2018~2022)간 추진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 각 지표영역과 세부항목에 대해 전국 17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비교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행복관련 지표결과의 축적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의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그 실효성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조아래 현안이슈를 중심으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표 Ⅰ-2〉에 제시하였다.

표 Ⅰ-2 연차별 연구 및 사업 추진계획(2018~202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연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문항조정 및 비교분석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지자체 대상 조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지자체 대상 조사, 국제비교조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아동친화 도시 운영 지자체 대상 조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 지자체 대상 조사, 국제비교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청소년활동과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및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시범사업: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방안)	청소년 정책 참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옴브즈맨,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연계 추진)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청소년참여 정보망 구축 방안 연구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모델개발과 시범사업 연계 추진)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 지구 조성 제도적 기반 연구(조례, 영향평가제도, 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중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지역 운영센터와 연계)

3) 2018년 주요 연구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 분석 과정에서 2018년도를 포함한 4개년 간의 심층 분석과 청소년 행복감에 관해 OECD국가 간 국제비교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항목의 검토와 일부 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4년차 시범사업을 3개 지역에서 추진하였다. 금년도 시범사업 설계의 특징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의 방향과 일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 대상으로 현장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운영의 특성화 요인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연구 결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년도의 차별성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특히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 현장 사례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국제 비교, 시범사업 운영의 주요 활동 결과 정리 및 시사점 분석, 마을공동체활동의 특성화 요인 분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반영한 금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핵심 사항을 〈표 Ⅰ-3〉과 같이 요약·제시하였다.

표 Ⅰ-3 2018년 주요 연구내용

연구 영역	세부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심층 분석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분석 및 17개 시·도 비교, 16~18년 성별, 교급별 비교분석 • 4차 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변화 추세에 대한 심층적 분석 • 각 시·도별 비교분석과 OECD 국가 간 청소년 행복수준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실시 및 면접조사와 효과 분석	•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3개 지역) •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으로 범위 한정 • 시범사업 사전사후 참가자 조사를 통한 참여효과 분석 • 시범사업 결과와 참가자 집단면접 분석을 토대로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방안 제언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화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2018 시범사업 3개 지역, 마을공동체 4개에 대한 현장면접조사 실시 • 청소년 집단면접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실시로 특성화 요인 분석 및 운영 모형 정립 •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심층 분석

2018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관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의 실태 진단을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국제비교 등 향후 지표조사의 발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17개 시·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4차 년도에 접어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변화를 연령-기간-코호트별 분석을 통해 심층 분석하였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행복수준 차이가 나이를 먹음에 따른 효과(Aging effect)인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정시기의 효과(Period effect)인지, 세대 차이에 따른 효과(Cohort effect)인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검토하고 영역별 필요한 정책과제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 2018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효과 분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도부터 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은 관련 사례를 찾기 힘들었던 관계로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단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행정기관 주도, 민-관 연계 협력, 시민단체중심 및 협동조합 형태)과 지역특성(농산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등을 고려하여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한편, 2018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내용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금년도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세부영역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의 활동 영역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모집방식은 기존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기 개발된 설문지를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시범사업 지역에 전달하고, 사업 운영진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종료 후에는 조사된 설문지를 연구진이 회수하여 사업참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3개 지역 참가자 중 운영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5명씩 총 15명에 대해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동아리활동 운영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와 사업운영 효과조사 및 집단면접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특성화 요인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앞서 제시한 2018년도 3개 지역에서 운영된 시범사업인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의 운영결과 정리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조성 사례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4개 지역에 대한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현장면접조사는 청소년 대상 집단면접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마을공동체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운영의 특성화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교육나눔공동체 지원 및 실행 등과 관련된 보고서와 기초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와 구체적인 실천전략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현장면접조사 질문지의 주요 항목을 구성하였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보고서 등을 분석과정에 활용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을 위해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사회지표 자료 그리고 청소년 정책실행계획서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객관적 지표조사 결과에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7년 교육통계 연보'를 통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2017년 현재 전국의 만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방식은 집단 설문조사로 표집절차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기입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이며, 목표 표본 수는 약 9,000명 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지표의 분석 및 제시방법은 각 지표별 2015~2018년도 4개년 조사결과에 대해 17개 시·도별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도 전체 결과와 함께 16년~18년 3개년 간의 성별, 교급별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Ⅰ-4 청소년 행복수준 설문조사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표집 틀	• 청소년: 2017 교육통계 연보	
표본 수	• 재학청소년 약 9,000명	
표집방법	•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 조사방법: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조사시기	• 2018년 5월~7월	

3)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효과 조사

이 연구의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시범사업」을 제3차 년도 연속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도에는 그동안의 연구와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내용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소주제가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 활동 모형정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의 활동 영역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였다. 모집방식은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차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기 개발된 설문지를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시범사업 지역에 전달하고, 사업 운영진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종료 후에는 연구진이 설문지를 회수하여 참여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와 효과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국내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4) 면접 조사

표본추출은 유의표집 방식으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면접은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식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혹은 집단 면담 기법을 적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면담 참가자들의 대화가 주제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집단면담은 면담

진행자가 연구 의제의 질문들이 보다 확실하게 다루어지도록 훨씬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표집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표본 추출 전략의 유형인 '의도적 표집'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들을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연령대와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Michelle OReily, Nisha Dogra 공저, 김동렬 역, 2017).

질문지는 반구조적 면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질문 방식이나 순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중에 청소년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다양한 답변들을 토대로 질문을 수정하거나 참가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타 연구방법

(1)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 지표내용, 성과측정 설문지 개발 정책과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 콜로키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행복마을조성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경기도 의정부 '몽실학교' 운영 담당자를 초빙하여 '학교-지역 연계 마을학교 운영 사례'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원내외 참가자들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 운영 방안과 지역 주민의 협조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3) 정책포럼

금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한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2018. 5. 25).

포럼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발표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상상하는 마을공동체 형태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 제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부서 담당자, 시범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들과 연구진이 함께 3회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횟수	주요 내용	참석대상	개최시기
1회	• 2014~2017년까지 추진된 연구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청소년행복지표 활용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연구진 등	2월
2회	• 학교 밖 및 위기청소년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 청소년행복지표 연구내용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5월
3회	• 청소년행복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방안 •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간의 연계 및 지원방안 • 2018 연구결과에 따라 발굴된 정책과제의 타당성 검토	지자체, 청소년동아리활동 시범사업 담당자, 연구진 등	10월

4. 연구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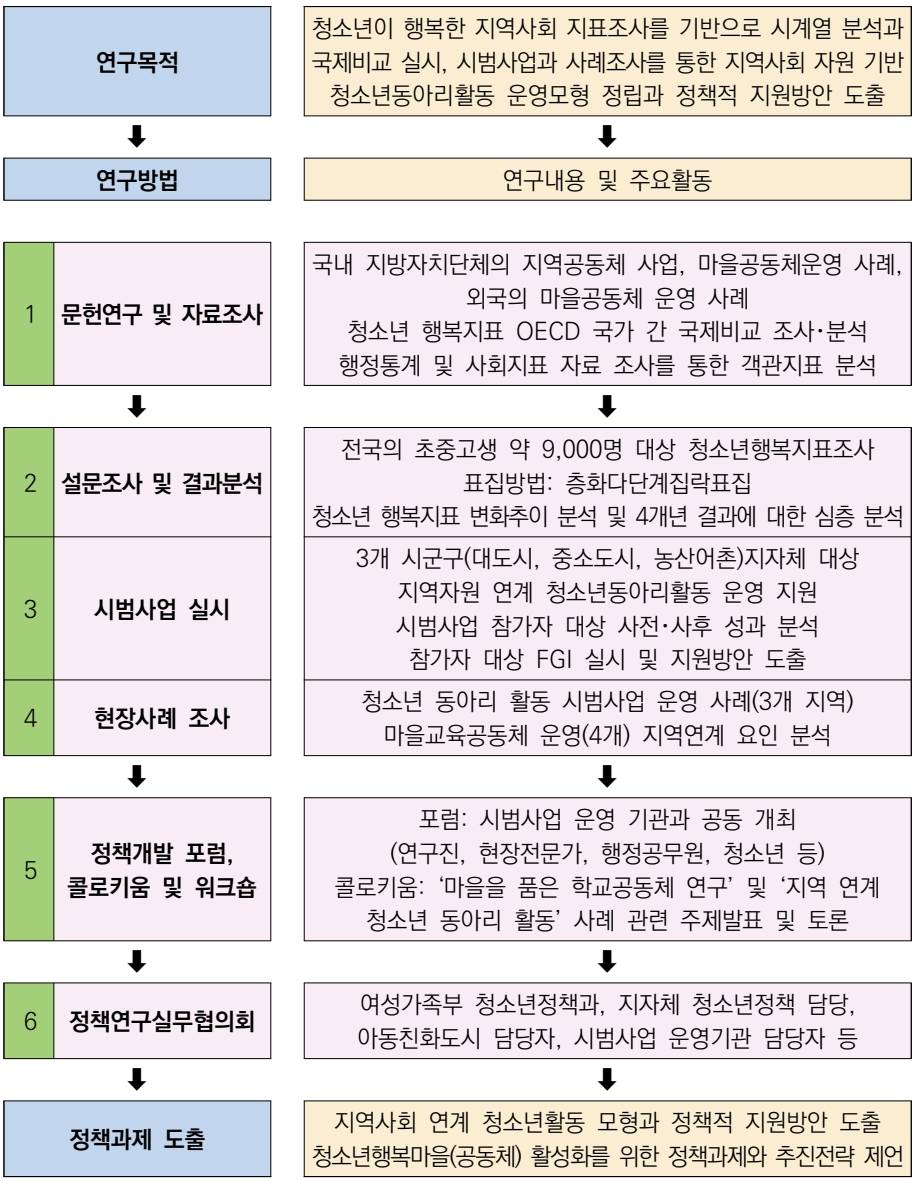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도

제2장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국내외 동향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년(2015~2017)의 성과와 시사점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중요성
3.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안
4. 청소년동아리와 마을공동체에 관한 국내외 사례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국내외 동향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년(2015~2017)의 성과와 시사점[2)]

1) 시범사업 추진 개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3개년 간 추진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도에는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서 총 23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참가한 청소년들의 누적 합계는 총 1,862명이었다. 2016년도에는 경제영역(청소년협동조합, 청소년프리마켓), 참여영역(청소년의회 및 사회참여네트워크), 활동영역(지역사회 청소년 역사·문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누적 합계 총 2,918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2017년도에는 '달그락 Youth Market. 청소년의회, 청소년상상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총 3,817명의 누적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2)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지난 3년 간(2015~17) 운영한 군산시 들꽃청소년 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집필한 내용임.

2)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3년(2015~2017)간 실시한 전북 군산시(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삶의 공간을 꿈꾸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개인과 공간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다. 지역사회의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이다.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의 자치공간이며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희망하며,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둘째,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조직화하는 일로써 청소년자치조직을 구성하였다.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2018년 4월 현재 15개의 자치기구 195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조직이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회의로서 매년 선거로 선출이 된다. 2017년은 달고나당이 선출되었다. 청소년들을 돕고 지원하는 비청소년인 청소년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등이 조직되어 매달 모임을 갖고 활동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있으면서 위원회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매달 회의를 진행한다.

셋째, 매년 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업 영역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 경제, 참여, 관계 등 3가지 영역 사업에 청소년들이 연인원으로 1,862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경제영역에서 청소년협동조합과 프리마켓, 참여영역에서 청소년의회 및 사회참여네트워크, 활동영역에서 지역사회 역사·문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2,918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시범사업은 지난 2년과는 다르게 영역과 무관하게 달그락 유스마켓과 청소년의회, 청소년상상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총 3,817명이 참여하였다.

넷째, 지자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였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본 사업 가운데 청소년참여 포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취합하여 시의회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안하여 2015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불량식품 유통방지,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회 조례와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 어린이청소년정책 창안대회, 진로체험 지원 등의 정책들을 시 사업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청소년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정책 제안 영역을 지역상황에 맞추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청소년인권참여, 청소년문화, 청소년교육진로, 청소년복지안전, 청소년경제 등 다섯 개 영역으로 다시 배열하고 청소년들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지방선거 관련하여 정책들을 개발하였다.

3) 정책적 시사점

앞서 기술한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실천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행복마을이라는 가치에 대한 성찰과정과 이에 따른 청소년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 달그락은 청소년 중심의 NG(P)O로서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공간 자체를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관계력'을 만들고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청소년 친화적인 곧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나름의 가치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가운데 활동

이 이루어진다. 행복이라는 뜻의 주관적 의미의 해석은 청소년 각자의 몫이다. 지역사회가 10대 이후에 떠나는 곳이 아닌 젊은이들도 떠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살만한 공간이 되도록 활동을 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모으고 조직화하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에 대한 가치 등 청소년자치연구소의 비전을 나누고 연대하며 조직화하여 시민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한다.

둘째,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진로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자치기구로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회를 선거로 선출하여 연대한다. 경제, 참여, 관계 등 초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원의 모델에 따른 활동 영역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년 사업계획에서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변화)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활동을 기획하여 경제, 참여,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 안에 프리마켓, 청소년옴부즈퍼스, 기자단 등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청소년자치기구의 활동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다. 자치기구별로 지속적인 활동이 동력이 되어 개별 또는 연대해서 지역사회에 실제적인 영향과 변화를 일구는 활동이다. 예들 들면 청소년기자단은 지역 일간지와 MOU를 맺고 달그락달그락 지면을 만들어 청소년의 관점으로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청소년의 삶과 환경을 청소년들이 취재하여 3년여간 매주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가운데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지역의 조례와 함께 지자체 정책 반영을 실제 이끌어냈다.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할 때에는 실제 그 정책의 전문성과 권한이 있는 시의원, 도의원, 시행정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그 과정에 청소년지역사회

참여 수준은 높아지면서 청소년이 원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 청소년의회 조례뿐만 아니라 전국 유일의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또한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가운데 정책제안 활동으로 청소년의회 조례를 제안하였고 어린이 홈페이지, 진로지원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제안 활동이 있었는데 이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치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의원과 달그락 청소년들이 연합하여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성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지지하고 고민을 나누며 실천하는 비청소년인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소 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등 네 개의 위원회와 꿈청지기 청소년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진 진로자원활동가 그룹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월에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이 있고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고 토론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 가운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전문성과 재원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내에 위원회 등의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 가운데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민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지원한다. 청소년참여 포럼에 분과별 전문 멘토로 참여하기도 하고, 달톡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청소년프리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한다. 청소년잡지출판 기념회에서도 지역에 작가들과 이웃들이 함께 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이웃들의 관계와 지원에 힘입어 활동이 자연스럽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 혼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통합적으로 함께 사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합적인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달그락달그락은 플랫폼 공간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들을 기획하는데, 년 초 개별 청소년자치기구가 조직화 되고 청소년들이 각각의 1년 사업기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대표자회의가 조직된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년 연합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후반기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개별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청소년 개인의 활동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가 조금 더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신들이 관심 있는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진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는데 그 활동과 연결된 영역의 학습과 토론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개발하여 발표한다. 그 발표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공무원, 시·도의원 등과 함께 토론 논의하여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도록 도우며 기성세대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한다.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중요성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대다수는 사실상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 등을 전전하면서 주로 학업에만 열중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들은 왜 내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또한 교과 중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머리가 영리하고 사리판단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견디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학급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직감하면서 심한 경우 자괴감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임형택, 2017:163).

아이는 똑똑하고 사리 판단력은 뛰어나지만 학교 성적은 안 나오는 반면,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높아 답답한 심정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비록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과 온라인 상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선뜻 고민을 꺼내기는 힘든 것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과 열등감이 점차 커지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답답함 심정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풀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이 또 다른 꿈을 꾸고 다양한 재능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자칫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현해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과 교사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지역의 인재를 잘 기르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절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실하

게 학교에 출석하고 방과 후에는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운동이나 악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외부의 강압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편안하고 부담 없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나도 한 모둠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이고 스스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 조성 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

동아리는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모인 동호회, 모임, 카페 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의 대부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자치기구와 청소년시설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아리활동이 고교생활의 꽃이라고 여길 만큼 다양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명문동아리가 그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아리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의 특성과 청소년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달그락청소년과 정건희 외, 2018:334).

첫째, 청소년들이 주체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 집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다. 둘째, 또래집단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1호; 달그락 청소년과 정건희 외, 2018:334에서 재인용).

3.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마을이 학교다' 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문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주로 국가의 주도하에 가정과 학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일정한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미래세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젊은 층의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혹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지역사회와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참가자들의 물리적인 연대 혹은 공간적인 기반 구축을 넘어 각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실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부모가 되어 건전한 성장과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공공기관, 사회단체, 사업체, 시설 및 단체 등이 공동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서용선 외, 2016:80)."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지역사회가 하나의 배움과 활동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통한 생태체험과 역사 유적지를 활용한 현장탐방활동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의 확대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공공기관, 시장, 농장,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사업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진로 및 직업체험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서용선외, 2016:82-83).

첫째, 지역과 마을 단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발굴해야 한다. 마을의 의미를 공간과 추억, 주민, 주변 환경 등이 매우 유효한 교육 자원이자 활동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주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자원맵(Resource-Map)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마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자원으로 참가하는 인적자원들에 대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교사와 멘토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활동가들 간의 상호 협력을 요하는 파트너십과 팀워크를 발휘해야할 때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강의를 포함하여 참가자들 간의 토의와 워크숍 등을 통한 연수와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양한 교육자원과 지역사회 인프라 간의 네트워킹이다. 지역에는 이미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사한 기관이나 자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원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됨으로 인해 그 활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과 마을단위에서 이러한 자원들과 물리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킹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주민들은 기부, 협력, 의사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서용선외, 2016:80-81).

첫째, 재능 기부는 일반주민이나 학부모를 비롯하여 지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직업적, 문화적, 예술적 재능을 마을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관이전 종사자를 비롯하여 은퇴자와 귀농 혹은 귀촌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에서부터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모델을 실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방과후 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통한 매점운영, 수학여행 준비를 위한 기금마련 플리마켓 등과 같은 지역사회 협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의사결정에 참여이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마을학교 사업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실례로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에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해당 지구의 사업과 관련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실천해야 한다. 마을의 거주민을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구분하려는 기존의 접근방식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세대통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중심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참가자들에게 그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하여, 그 성장의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순환적 구조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서용선외, 2016:80-81)." 특히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을을 하나의 생태적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주인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과 직업 관련 기초역량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적 가치, 역사와 문화, 시민의식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인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동아리와 마을공동체에 관한 국내외 사례

1) 국내외 청소년동아리 정책 및 활동 내용

우리나라 청소년동아리 정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에 근거하고 있다. 추진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2년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60개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는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000개, 그리고 2017년에는 2,500개 동아리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10).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강화 방안으로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된 지자체의 경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동아리연합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도, 관리, 컨설팅 및 예산과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11).

동아리 활동 신청 시 대분류 기준표에는 사회참여영역, 수리과학,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문사회, 역사, 미디어, 요리, 스프츠, 외국어 진로, 기획, 취미, 비공연 문화예술, 특이공연 문화예술, 대중(공연) 문화예술 등 15개로 구분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8:14).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지원 정책은 17개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도 각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동아리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비슷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기를 초·중·후기로 나누어 초기에는 주로 흥미 위주의 활동, 협동을 통한 사회성 및 책임감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기는 직업과 일 경험 그리고 후기는 실제 직업 멘토 및 직업과 연계되는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의 리더십과 사회참여, 시민의식 형성이라는 점에 있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영역으로는 ① 농사와 수확, ② 지역사회봉사활동 ③ 직업흥미 및 탐색, ④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말 동아리활동, ⑤ 청소년 사회참여, 청소년포럼, 청소년의회 동아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의 주요 목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 내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흥미 있는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을 통해 직업세계를 알아 가는 것 등이다. 또한 청소년 포럼 및 의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동아리 영역과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영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영역 및 주요 활동 내용

동아리명	내용	목표
농사와 수확 (Roots)	야채, 과일 등을 심고 수확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꿈
지역사회 봉사활동 (Reaching out Project for the Elderly)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차(Tea) 봉사	어르신과 청소년들간의 교류증대로 사회통합을 유도
직업 흥미 및 탐색 (DIY, HYPER 뮤직 세션, Blush 미용, 메이크업 등)	• DIY: 목공 외 소품을 만들고 판매 • HYPER: 드럼, 심벌즈, 작사 작곡, 공연, 음반 만들기 등 • Blush: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흥미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을 통해 진로와 연계, 또한 동아리 운영시 약물, 음주 인식교육, 성 건강, 카운슬링, 멘토링을 결합하여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 동아리	부모님과 함께 자전거타고 해안가 등 탐방	가족관계를 다지고 학부모 참여 유도
청소년 사회참여, 청소년포럼,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고 실제 의회 및 정치인들을 찾아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행사

* 출처: https://www.holtyouthproject.org.uk/activities (인출 2018년 4월 5일).

미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영역은 ① 건강한 먹거리, 농업교육 ② 예술, 연극, 스포츠 동아리활동 ③ 직업훈련 및 도제교육 ④ 멘토링, 튜터링 ⑤ 시민의식 및 리더십 내용으로 큰 틀에서 영국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미국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주요 내용

내용	세부내용
Health, Food, Agriculture	건강과 먹거리, 농업 관련
Art, Sports, Recreation	예술, 연극, 스포츠 등
Job training and Apprenticeship	직업훈련 및 도제교육
Mentoring	멘토링, 튜터링
Citizenship and Leadership	시민의식 및 리더십

*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Youth Program). available at: https://www.doleta.gov/youth_services/discretionary.cfm (인출 2018년 4월 26일).

영국 내 청소년동아리활동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슈는 인력 및 재정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와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방법 등이다(Checkoway and Gutierrez, 2006). 또한 미국의 경우는 영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치료적 차원의 지원에 머물러 있고(Quinn, 1999), 더 많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위해 인력 및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활동 참여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접근이 용이한 'ubiquity(어디에나 만연해 있는)' 개념의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프로그램(Quinn, 1999:100)이 지역 사회 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MOU(양해각서)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운영 국외 사례[3)]

(1) 미국

미국은 지역별로 학교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교육의 차이가 인종의 차이로 연결되면서 교육에 있어 지역과 인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 건설에 주목하게 되었다(양준호 외, 2016). 그 중 Community School은 지역사회기반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ommunity School은 학교와 다른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하는 장소이자 파트너십의 집합체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가정과 학계,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및 보건 등 지역사회의 파트너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학교가 그 중심역할을 한다[4)]. 즉, 학교는 하루 종일, 저녁과 주말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기초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방과 후 교사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보건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양준호 외, 2016).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연계되어 협업하고 아동과 가족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파트너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학교는 서로가 공유된 자산을 활용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Community school은 [그림 Ⅱ-1]과 같이 지역사회 내 조직과 인프라 구축, 개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상호적 순환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내용은 충북대학교 오정아 교수가 집필한 내용임.
4) www.communityschool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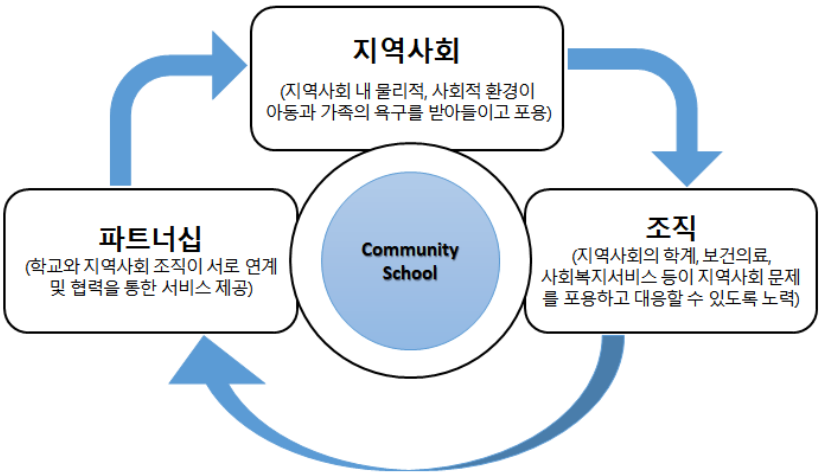


그림 II-1 Community School 발전 모형

* 출처: communitiesinschools.org 웹사이트 내용 참고

미국은 약 274개의 유·초·중등학교에서 Community school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Community school은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 미국에서 이렇듯 많은 Community School 운영이 가능한 것은 공교육체제가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Community School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mmunity school에 관심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 중간 지원조직이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정부 및 민간재원을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양준호 외, 2016).

대표적인 Community School 사례로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Youth Development Institute'와 'The Children's Aid Society Community Schools', 'Communities In Schools, Inc' 등이 있다(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 2018). 먼저 Youth Development Institute(YDI)는

모든 청소년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학교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YDI는 청소년이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기술 지원과 정보제공, 정책지원 및 연구와 평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양준호 외, 2016). YDI가 추진하는 Beacons Community Schools(BCS)는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미니애폴리스 및 덴버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5].

- 학교 또는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청소년 발달을 지향하고 기관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
- BCS는 지역사회 청소년 발달 모형을 기본으로 함
- 청소년,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성과에 대한 참여기관과 책임을 공유

두 번째로 Children's Aid Society Community School(CAS)은 뉴욕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형성한 결과 현재 뉴욕시에 22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CAS는 1987년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기획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인근 모든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학교 교육을 시작하였다. 내부적으로는 CAS는 주요 지도부가 기존의 자원을 재편성하였고 외부적으로는 1990년 뉴욕시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구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1992년 맨하튼에 2개의 커뮤니티 스쿨을 개원했다. CAS는 국공립학교 센터(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School)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와 강점에 맞게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CAS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6].

5) http://www.ydinstitute.org/history/
6) http://www.communityschools.org/:Case Study: Sustaining Our Community Schools

- 포괄성(Comprehensiveness): CAS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아동과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일관성(Coherence): 공동의 계획과 의사결정은 학교, CAS 및 학부모와 관련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방과 전 및 방과 후, 휴일 및 여름 프로그램)은 통합되어 운영된다.
- 헌신(Commitment): CAS 및 파트너, 학교는 학생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CAS 사업 시행 결과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학교에 대한 학생의 태도 변화, 부모의 참여 증가, 정학 받는 학생이 감소하였고, 낙서, 이웃과의 폭력 등이 감소하였으며 특수교육을 받거나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학생의 기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Communities In Schools, Inc(CIS)[7]는 공립학교 내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학교 직원과 협력하여 요보호학생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에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며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8]. CIS 지부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배정하고 학교, 지역, 기업 및 재단 등과 협력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CIS지부 및 코디네이터와 학교지원팀은 학생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목표를 조정하여 서비스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한다.

학교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학교 지도부 혹은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학생이 학교를 일탈할 수 있는 위기학생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 욕구사정을 한 후 지원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 욕구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7) communitiesinschools.org 참고
8) communitiesinschools.org 참고

코디네이터는 학교 지원팀과 함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와 파트너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실 안·밖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학교기반 서비스,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화된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코디네이터는 가족과 교사 그리고 학생 등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들과 만나 서비스 지속 및 중단 또는 수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CIS는 학교 전체 및 개별 학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모델을 평가를 통해 학생의 졸업비율을 높이고 중퇴율을 낮추며 학생의 출석비율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미국 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게 된다.

(2) 독일

독일의 모든 단위학교는 교과, 온종일학교, 진로교육 및 교육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교육을 위해 학교 외부에 있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 때 주 교육부는 학교가 해당 지역의 파트너와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9]. 특히 온종일 학교는 독일 초·중등 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현대사회 약화되고 있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대관계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오후 4시경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을 학교 정규 수업시간으로 편성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독일 정부는 온종일 학교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온종일 학교는 독일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김상철, 2014).

9)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 2017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① 힐링스캄프 초등학교

독일의 힐링스캄프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특수학급과 같이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아우스지들러(Aussiedler)[10]와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2007년 이후에는 독일어가 부족한 이주아동을 위해 특별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류방란 외, 2011). 2015년부터 2016년 독일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 난민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힐링스캄프 초등학교는 이민자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주민을 위한 학급을 '국제학급'으로 명명하여 온종일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

힐링스캄프 초등학교의 온종일학교는 지역의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지역의 대학,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전문가 협회 등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및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종일학교 형태의 지원학급은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6세부터 11세의 학생들에게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류방란 외, 2011), 교사나 상담교사는 편지나 전화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의 적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는 학부모의 밤, 학급 축제, 요리 프로그램 견학 등에 참여한다(Kibèd, 2013).

② 쾰른시의 학습하는 지역(Learning Regions)

쾰른시의 "학습하는 지역"은 지역의 평생 학습의 영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쾰른시의 학습하는 지역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11]. 학습하는 지역의 주요 운영자는 쾰른시와 퀼른시 상공회의소, 수공업 회의소, 지역의 수공업자 협

10) 300년 전에 러시아로 이민 간, 독일계 교포들로 독일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11) https://www.bildung.koeln.de/ausbildung_studium/artikel/artikel

회, 소매상협회, 독일노동조합연합 등이다. 학습하는 지역은 가능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혁신적 콘셉트를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 '학습 지역 – Netzwerk Köln eV'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쾰른 교육 포털 bildung.koeln.de의 운영 및 편집 지원
-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조언
- 문해력 및 기초 교육을 위한 쾰른 동맹의 조정
- "건강한 생활공간을 위한 쾰른 연합"의 조정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이 과정에서의 협력
- 멀티 플레이어 교육센터
- 교육 마케팅 : 홍보, 의회, 학습 축제, 행동 동맹

(3) 일본

일본은 2008년 사회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제12조 1)는 내용과 함께 지역의 사회교육시설 설치, 학교시설 이용, 학습기회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제시(제12조 2)하면서 교육공동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4월 17일 중앙 교육위원회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에서 '감소하는 출산과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스쿨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문무과학성 중심으로 커뮤니티 스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약 10%를 커뮤니티 스쿨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2017년 4월 1일 현재, 전국의 11.7%가 커뮤니티 스쿨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학교운영에 관여하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만들기' 추진법(地教行法 第47条 の6)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커뮤니티 스쿨에서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협동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즉, 일본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그 중심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동하여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2015년 12월 개정된 중앙 교육 심의회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지역창생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의 연대 및 협동과 향후 추진방안'의 내용을 근거로 학교운영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그 역할 등의 내용은 개정된「지방 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7). 여기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 교장이 만드는 학교 운영의 기본 방침을 승인
-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육위원회 또는 교장에게 말할 수 있다.
- 교직원의 임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커뮤니티 스쿨은 학생,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배움과 체험활동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형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습득하고 지역사회 주체로서 자각

12) 2017년 개정된 지방 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운영 협의회 설치 노력 의무화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 할 수 협의회의 위원으로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
-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의견에 대한 범위에 대해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것
- 여러 학교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
- 협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력 의무화

하게 된다. 반면, 교직원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학교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된다. 또한 부모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학교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유능감이 높아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지역의 방범 및 방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文部科学省, 2016).

이는 2016년 일본 문무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발표한 커뮤니티 스쿨의 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커뮤니티 스쿨의 도입으로 학교와 지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평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었고, 지역과 연계한 협력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리직의 전출과 상관없이 학교 운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교장 등 관리직의 리더십과 학교 조직력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4) 정책적 시사점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공통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 운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Community School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이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 및 개입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보였고,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연방주의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정부주도로 교육공동체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와

법률과 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향후 더 많은 공립학교를 커뮤니티 스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세 국가의 교육공동체 사업은 운영된 이래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개별단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합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학교와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의존했다면 의사결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 등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결정 조직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지역사회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강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졌겠지만, 각 지역이 자신들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특색 있는 학교가 구축될 수 있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해마다 커뮤니티 스쿨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조정하여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 및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 조사개요
2. 모집단 분석
3. 표본설계
4. 가중치와 모수추정
5.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6. 조사결과
7. 소결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13)]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절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층화 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표집 한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 표집→조사대상 학교 리스트 정제 및 확정→공문 및 안내문 발송→사전접촉→면접원 선발 및 교육→학교방문→학생조사 진행→학생설문지 현장 확인 및 수거→설문지 최종 수합→데이터 검수→자료입력 완료→가중치 작업 실시→최종데이터 산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 Ⅲ-1 조사일정

구분	내용	일정
조사준비	조사대상 학교 리스트 정제·확정	4월 17일
	조사대상 학교 공문발송 및 사전접촉	4월 20일~
	면접원 선발 및 교육	4월 23일~26일
조사 실시 및 검수	본 조사 실시	5월 2일~7월 20일
	대체표본(총7차) 송부 및 발송	5월 4일~6월 26일
	데이터 검수 실시	7월 11일~7월 13일
	자료입력 완료	7월 24일
	가중치 작업 진행 및 최종데이터 확정	7월 26일~8월 14일

13)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분석방법

주관적 지표는 성별(남/여), 교급별(초/중/고)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 4개년 동안 진행한 17개 시·도별 현황을 분석하여 그 변화과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도시규모별(시지역, 도지역),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로 비교 분석하였고, 17개 시·도별 현황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지표의 특성에 따라 6년 이하의 자료를 제시한 것도 있음)의 시계열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Ⅲ-2〉와 〈표 Ⅲ-3〉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343,4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16,061명(30.3%), 중학교 1,370,382명(31.6%), 고등학교 1,657,021명(38.1%)이다(〈표 Ⅲ-2~4〉 참조). 지역×학교급×학년별×성별 학생 수 분포는 〈표 Ⅲ-5〉~〈표 Ⅲ-7〉에 제시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Ⅲ-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5,523	70,048	67,579	73,778	76,568	75,229	601	601	601	383	383	383
경기	129,555	118,190	111,809	120,923	123,672	119,356	1,248	1,245	1,245	624	624	622
인천	27,761	24,704	23,930	25,537	26,756	25,839	248	245	249	133	133	133
강원	13,349	12,168	12,305	13,268	13,683	13,966	323	337	333	163	162	162
충북	14,857	13,363	13,092	14,128	14,436	14,505	263	263	262	127	126	127
충남	20,480	18,563	17,721	18,938	19,184	18,788	397	398	398	189	188	188
대전	14,860	13,703	13,252	14,577	15,104	14,883	148	148	148	88	88	88
세종	3,500	3,207	2,904	3,106	2,919	2,536	43	43	43	22	22	22
경북	22,240	20,121	19,758	21,144	22,107	22,081	409	401	399	274	271	273
경남	33,120	29,490	28,334	30,553	31,453	31,086	510	507	504	269	267	266
부산	26,461	24,032	23,562	25,834	27,339	26,917	307	307	307	173	173	172
대구	22,191	20,167	20,281	21,868	23,692	22,841	228	228	228	125	123	121
울산	11,652	10,378	9,976	10,682	11,221	10,763	118	119	119	63	63	62
전북	17,201	15,607	15,692	17,101	17,792	18,044	392	390	391	209	209	209
전남	16,362	14,945	14,470	15,877	16,475	16,757	416	412	413	252	250	249
광주	15,829	14,400	13,958	15,219	16,372	15,994	155	155	155	90	90	90
제주	6,883	6,389	6,139	6,351	6,688	6,452	115	116	114	45	45	45
합계	**471,824**	**429,475**	**414,762**	**448,884**	**465,461**	**456,037**	**5,921**	**5,915**	**5,909**	**3,229**	**3,217**	**3,212**

표 Ⅲ-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4,150	64,830	63,231	12,670	13,634	13,327	18,108	17,533	17,789	1,950	1,964	2,045
경기	106,704	120,516	116,190	3,795	3,769	3,695	18,672	19,001	19,297	2,550	2,549	2,475
인천	19,246	21,761	21,391	1,776	2,014	1,940	6,781	7,110	7,087	814	819	688
강원	12,325	13,684	13,656	155	153	145	3,113	3,354	3,081	180	175	202
충북	9,956	11,131	10,722	1,521	1,531	1,500	4,713	4,985	4,991	251	236	207
충남	14,990	16,185	15,535	1,885	1,896	1,989	5,110	5,822	5,597	248	234	215
대전	10,177	12,011	11,792	2,655	2,588	2,578	3,384	3,538	3,369	429	422	381
세종	2,248	2,034	1,713	201	201	203	134	145	138	194	193	193
경북	17,811	19,785	19,656	2,574	2,665	2,646	5,877	6,365	6,251	224	214	178
경남	26,628	29,897	29,600	2,508	2,716	2,671	4,986	5,248	5,201	518	512	462
부산	18,455	21,313	20,954	3,104	3,471	3,480	7,948	8,410	8,469	1,178	1,114	1,067
대구	15,532	17,781	18,053	4,774	5,440	5,433	5,902	6,186	6,089	325	320	287
울산	8,749	10,315	10,260	963	992	1,033	2,850	2,888	2,902	229	230	221
전북	15,268	16,943	16,471	1,012	1,000	961	4,519	5,017	4,922	222	219	182
전남	11,893	13,402	13,234	1,906	2,201	2,160	5,649	6,034	5,979	205	206	173
광주	13,451	15,192	14,813	1,069	1,081	1,091	3,587	3,990	4,030	97	93	94
제주	4,981	5,456	5,162	.	.	.	2,021	2,150	2,108	142	141	119
합계	**362,564**	**412,236**	**402,433**	**42,568**	**45,352**	**44,852**	**103,354**	**107,776**	**107,300**	**9,756**	**9,641**	**9,189**

표 Ⅲ-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8	186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4	362	353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80	79	8	8	8	31	31	31	6	6	5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6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7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2	10	9	1	1	1	1	1	1	2	2	2
경북	116	116	117	12	12	12	56	56	56	3	3	3
경남	139	138	138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1	81	81	14	14	14	41	41	42	7	7	7
대구	51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8	37	36	4	4	4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8	78	78	8	8	8	55	55	54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4**	**1,533**	**1,522**	**158**	**158**	**158**	**590**	**590**	**590**	**66**	**66**	**65**

표 Ⅲ-5 초등학교×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8,714	36,132	34,903	36,809	33,916	32,676	38,234	39,774	39,227	35,544	36,794	36,002
경기	66,188	60,578	57,451	63,367	57,612	54,358	62,153	63,878	61,875	58,770	59,794	57,481
인천	14,152	12,732	12,261	13,609	11,972	11,669	13,122	13,739	13,372	12,415	13,017	12,467
강원	6,958	6,282	6,399	6,391	5,886	5,906	6,920	7,081	7,327	6,348	6,602	6,639
충북	7,672	6,819	6,792	7,185	6,544	6,300	7,405	7,543	7,623	6,723	6,893	6,882
충남	10,617	9,604	9,089	9,863	8,959	8,632	9,755	9,924	9,890	9,183	9,260	8,898
대전	7,559	7,075	6,884	7,301	6,628	6,368	7,539	7,785	7,815	7,038	7,319	7,068
세종	1,711	1,642	1,465	1,789	1,565	1,439	1,543	1,472	1,271	1,563	1,447	1,265
경북	11,519	10,514	10,280	10,721	9,607	9,478	11,207	11,654	11,734	9,937	10,453	10,347
경남	17,050	15,285	14,736	16,070	14,205	13,598	16,122	16,622	16,414	14,431	14,831	14,672
부산	13,612	12,389	12,215	12,849	11,643	11,347	13,272	14,285	14,052	12,562	13,054	12,865
대구	11,336	10,485	10,642	10,855	9,682	9,639	11,427	12,480	12,244	10,441	11,212	10,597
울산	5,996	5,422	5,251	5,656	4,956	4,725	5,652	5,979	5,650	5,030	5,242	5,113
전북	8,826	8,005	8,235	8,375	7,602	7,457	8,842	9,148	9,539	8,259	8,644	8,505
전남	8,379	7,620	7,404	7,983	7,325	7,066	8,284	8,565	8,720	7,593	7,910	8,037
광주	8,275	7,456	7,224	7,554	6,944	6,734	7,914	8,566	8,325	7,305	7,806	7,669
제주	3,510	3,350	3,265	3,373	3,039	2,874	3,342	3,508	3,464	3,009	3,180	2,988
합계	**242,074**	**221,390**	**214,496**	**229,750**	**208,085**	**200,266**	**232,733**	**242,003**	**238,542**	**216,151**	**223,458**	**217,495**

표 Ⅲ-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6,619	32,445	31,304	8,698	9,325	9,207	8,449	8,021	8,193	723	738	732
경기	55,398	62,555	59,966	1,837	1,820	1,747	10,099	10,380	10,502	816	826	796
인천	9,883	11,191	11,147	1,005	1,182	1,188	3,505	3,650	3,676	410	386	282
강원	6,122	6,855	6,726	85	87	77	2,020	2,256	2,029	94	78	91
충북	4,925	5,543	5,295	923	894	874	2,609	2,832	2,813	95	87	66
충남	7,435	8,118	7,868	1,114	1,098	1,187	3,014	3,414	3,247	90	77	66
대전	4,766	5,645	5,617	1,896	1,839	1,834	1,934	1,997	1,916	199	171	151
세종	1,076	1,006	836	94	89	82	117	119	125	94	109	104
경북	8,514	9,688	9,457	1,649	1,673	1,722	3,851	4,136	4,120	111	95	79
경남	12,796	14,632	14,191	1,975	2,145	2,181	3,315	3,435	3,353	233	225	149
부산	8,955	10,631	10,400	1,690	1,934	1,917	4,859	5,108	5,205	509	454	433
대구	7,610	8,833	8,689	2,533	2,910	2,976	3,714	3,869	3,852	166	178	144
울산	4,495	5,247	5,187	531	556	566	1,731	1,772	1,815	97	87	75
전북	7,199	8,130	7,853	882	871	833	2,742	3,056	2,994	77	78	61
전남	5,444	6,244	6,134	1,388	1,645	1,607	3,347	3,515	3,493	97	90	69
광주	6,615	7,629	7,338	675	682	671	1,980	2,226	2,191	73	80	81
제주	2,552	2,737	2,604	.	.	.	1,129	1,192	1,196	65	52	48
합계	**180,404**	**207,129**	**200,612**	**26,975**	**28,750**	**28,669**	**58,415**	**60,978**	**60,720**	**3,949**	**3,811**	**3,427**

표 Ⅲ-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7,531	32,385	31,927	3,972	4,309	4,120	9,659	9,512	9,596	1,227	1,226	1,313
경기	51,306	57,961	56,224	1,958	1,949	1,948	8,573	8,621	8,795	1,734	1,723	1,679
인천	9,363	10,570	10,244	771	832	752	3,276	3,460	3,411	404	433	406
강원	6,203	6,829	6,930	70	66	68	1,093	1,098	1,052	86	97	111
충북	5,031	5,588	5,427	598	637	626	2,104	2,153	2,178	156	149	141
충남	7,555	8,067	7,667	771	798	802	2,096	2,408	2,350	158	157	149
대전	5,411	6,366	6,175	759	749	744	1,450	1,541	1,453	230	251	230
세종	1,172	1,028	877	107	112	121	17	26	13	100	84	89
경북	9,297	10,097	10,199	925	992	924	2,026	2,229	2,131	113	119	99
경남	13,832	15,265	15,409	533	571	490	1,671	1,813	1,848	285	287	313
부산	9,500	10,682	10,554	1,414	1,537	1,563	3,089	3,302	3,264	669	660	634
대구	7,922	8,948	9,364	2,241	2,530	2,457	2,188	2,317	2,237	159	142	143
울산	4,254	5,068	5,073	432	436	467	1,119	1,116	1,087	132	143	146
전북	8,069	8,813	8,618	130	129	128	1,777	1,961	1,928	145	141	121
전남	6,449	7,158	7,100	518	556	553	2,302	2,519	2,486	108	116	104
광주	6,836	7,563	7,475	394	399	420	1,607	1,764	1,839	24	13	13
제주	2,429	2,719	2,558	.	.	.	892	958	912	77	89	71
합계	**182,160**	**205,107**	**201,821**	**15,593**	**16,602**	**16,183**	**44,939**	**46,798**	**46,580**	**5,807**	**5,830**	**5,762**

3.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 s)^2}{N\,d^2 + (z\ s)^2}$$

여기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727명, 중학교: 2,840명, 고등학교: 3,433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0%P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7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학년 (3개) :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Ⅲ-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71,824	1,316,061 (30.3%)		2,727 (30.3%)		2,592 (28.6%)	
		5	429,475						
		6	414,762						
중학교	중학교	1	448,884	1,370,382 (31.6%)		2,840 (31.6%)		2,772 (30.6%)	
		2	465,461						
		3	456,037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62,564	1,177,233 (27.1%)	1,739,458 (38.8%)	2,439 (27.1%)	3,433 (38.1%)	2,430 (26.8%)	3,687 (40.7%)
		2	412,236						
		3	402,433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유형 2 (자율고)	1	42,568	132,772 (3.1%)	275 (3.1%)	450 (5.0%)
	2	45,352			
	3	44,852			
유형 3 (특성화고)	1	103,354	318,430 (7.3%)	660 (7.3%)	675 (7.5%)
	2	107,776			
	3	107,300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756	28,586 (0.7%)	59 (0.7%)	132 (1.5%)
	2	9,641			
	3	9,189			
합계			4,343,464(100%)	9,000(100%)	9,051(100%)

표 Ⅲ-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42	467	378	46	197	59
경기	745	754	711	67	84	
인천	158	162	129			
강원	78	85	82	44	95	
충북	86	89	66			
충남	118	118	97			
대전	87	92	70			
세종	20	18	12			
경북	129	135	119	74	221	
경남	188	193	178			
부산	153	166	126			
대구	130	142	106			
울산	66	68	61			
전북	100	110	101	43	62	
전남	95	102	80			
광주	92	99	90			
제주	40	40	32			
합계	**2,727**	**2,840**	**2,439**	**275**	**660**	**59**

표 Ⅲ-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8.4	16.7	12.6	1.5	7.9	
경기	31.0	26.9	23.7	2.2	3.4	
인천	6.6	5.8	4.3			
강원	3.3	3.0	2.7	1.5	3.8	
충북	3.6	3.2	2.2			
충남	4.9	4.2	3.2			
대전	3.6	3.3	2.3			
세종	0.8	0.6	0.4			
경북	5.4	4.8	4.0	2.5	8.8	2.7
경남	7.9	6.9	5.9			
부산	6.4	5.9	4.2			
대구	5.4	5.1	3.5			
울산	2.8	2.4	2.0			
전북	4.2	3.9	3.4	1.4	2.5	
전남	4.0	3.6	2.7			
광주	3.8	3.5	3.0			
제주	1.7	1.4	1.1			
합계	**113.6**	**101.4**	**81.3**	**9.2**	**26.4**	**2.7**

* 총계: 334.6개

표 Ⅲ-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9(3)	6(2)
경기	27(9)	24(8)	21(7)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36(108)개

표 Ⅲ-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60	90	225	132
경기	648	672	630	90	75	
인천	144	168	90			
강원	72	84	90	90	75	
충북	72	84	90			
충남	144	84	90			
대전	72	84	90			
세종	72	84	90			
경북	144	168	90	90	225	
경남	216	168	180			
부산	144	168	90			
대구	144	168	90			
울산	72	84	90			
전북	72	84	90	90	75	
전남	72	84	90			
광주	72	84	90			
제주	72	84	90			
합계	**2,592**	**2,772**	**2,430**	**450**	**675**	**132**

* 총계: 9,051명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Ⅲ-9〉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Ⅲ-10〉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단순비례배분에 의해 조사될 예상 학교 수는 대략 총 334.6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3명(학년 당 약 14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 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4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Ⅲ-12〉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0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5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Ⅲ-11〉 및 〈표 Ⅲ-12〉와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Ⅲ-11〉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4.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는 h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는 h층에서 i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 r_{hi}}$$

여기에서 r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과 $N_{h(2)}$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text{if } Y_{hij} = c_k \\ 0,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1}\sum_{i=1}^{n_h}(e_{hi\cdot} - \overline{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right)/w...$$

$$\overline{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right)/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overline{Y}) = \sqrt{\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5.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기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4회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는 크게 주관적 지표 9개 영역과 객관적 지표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서정아, 김희주, 2016).

1) 주관적 지표

(1) 주관적 웰빙영역: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 상태, 유데모니아 및 성격특성
(2) 관계영역: 전반적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모관계,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및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 및 중앙정부), 가족 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및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 건강영역: 전반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 카페인 이용량, 아침 식사율, 및 질병유무
(4) 교육영역: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 만족도
(5) 안전영역: 전반적 안전 만족도,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및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및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6) 참여영역: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아동권리인지, 징계 소명권, 학칙 개정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및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7) 활동영역: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공간 및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놀이친구 접근성

(8) 경제영역: 가정경제 만족도

(9) 환경영역: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및 주택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객관적 지표

(1) 건강영역: 청소년 비만율(BMI), 청소년 자살률, 신체 활동 실천율, 평균 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스마트폰 과의존율

(2) 교육영역: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3) 안전영역: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청소년 범죄 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4) 참여영역: 자원봉사 참여율

(5) 활동영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6) 경제영역: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7) 환경영역: 통학 소요시간, 녹지 접근성

주관적 지표는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행정통계, 통계청의 사회조사, 행정기관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에 관해 각 영역과 세부지표 그리고 설문문항에 관한 내용들이다.

표 Ⅲ-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지표(설문지)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	OECD(2013)
	정서상태	1) 즐거운	문 2-1~6)	OECD(2013) 서은국, 구재선(2011)
		2) 편안한		
		3) 행복한		
		4) 불안한		
		5) 슬픈		
		6) 우울한		
	유데모니아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 한다	문3-1)	OECD (2013)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문3-4)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문3-5)	
		6)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문3-6)	
	주관적 인식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문3-7)	PISA2012 (OECD, 2017)
		8)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문3-8)	
		9)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3-9)	
	성격특성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문4-1)	YHCI(2015) Q4-1), 2)
		걱정이 많은	문4-2)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관계	전반적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5	YHCI(2015) Q5
	가족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1)	YHCI(2014) Q9-1)
	부모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2)	YHCI(2015) Q6-2)
	교우 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3)	YHCI(2014) Q9-2), 3), 4)
	교사 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6-4)	
	이웃과의 만족도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문6-5)	
	일반 신뢰도	부모님(보호자)	문7-1)	YHCI(2014) Q15-1), 2), 3), 4)
		친구들	문7-2)	
		학교 선생님	문7-3)	
		이웃 사람들	문7-4)	
		처음 만난 사람들	문7-5)	YHCI(2016) Q7-5), 6)
		다른 나라 사람들	문7-6)	
		우리나라 전체	문7-7)	김경준 외 (201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7-8)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문7-9)	YHCI(2016) Q7-9),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문7-10)	
		지역사회 전문기관	문8-1)	YHCI(2014) Q16-1), 2), 3)
		지방정부	문8-2)	
		중앙정부	문8-3)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가족 간의 대화시간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9	YHCI(2015) Q9-11)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 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문10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11	
건강	전반적 건강 만족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2	YHCI(2015) Q12
	주관적 건강상태	나는 신체적으로(몸이) 건강하다	문13-1)	YHCI(2014) Q1-1), 2)
	스트레스 정도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3-2)	
	고 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문14	YHCI(2015) Q14), Q15)
	아침 식사율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문15	
	질병유무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문16	YHCI(2015) Q16, Q16-1
		1)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2)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문16-1	
교육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7	YHCI(2015) Q17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문18-1)	YHCI(2016) Q18-1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 한다	문18-2)	YHCI(2015) Q18-2), 3)
	진로교육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 한다	문18-3)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안전	전반적 안전 만족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9	YHCI(2015) Q19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20-1)	YHCI(2014) Q10-1), 2), 3), 4)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 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20-2)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문20-3)	
	위기 상황 대처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문20-4)	
	생활주변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 정도	나의 생활 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문20-5)	YHCI(2015) Q20-5)
참여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우리 사회적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문21	YHCI(2015) Q21
	아동권리 인지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문22-1)	YHCI(2015) Q22-1), 2), 3), 4), 5)
	징계 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2)	
	학칙 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3)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문22-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 한다	문22-5)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측정문항	출처
활동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3	YHCI(2015) Q23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4-1)	YHCI(2014) Q14-1), 2), 3), 4)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4-2)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문24-3)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문24-4)	
경제	가정경제 만족도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5	YHCI(2014) Q25
환경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6	YHCI(2015) Q26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7-1)	YHCI(2015) Q27-1), 2)
	주택 만족도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문27-2)	
	주거지 형태	거주하는 집의 형태	문28	

* 주: 1) 문 3-7~9) 문항의 경우 PISA데이터와 비교분석을 위해 2018년도에 추가된 문항임. 추가 문항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은 4장에서 다루었음.

* 출처: 위 표는 성윤숙, 홍성효(2015). pp. 110~113의 표를 재구성 함.

■ YHCI 2013: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연구
■ YHCI 2014: 김지경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2년차 연구
■ YHCI 2015: 성윤숙, 홍성효(2015).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3년차 연구
■ YHCI 2016: 서정아, 김희주(2016):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4년차 연구
■ PISA 2012: OECD (2017), PISA 2012.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pisa2012database-downloadabledata.htm.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표 Ⅲ-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건강	건강 상태	청소년 비만율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 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중(kg)/[신장(m)]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04-207.
		청소년 자살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명 (10만 명당)	10~24세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건강 결정요인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40-145.
		평균 수면시간	조사시점 직전 지난 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	시간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58-261.
		청소년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청소년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	중·고등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02-105.
		스마트폰 과의존율	스마트폰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	%	본지표의 분석 대상 10~19세	1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원자료.
교육	교육 기회	학업 중단율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사망, 자살 제외)	(학업중단 학생 수/ 학생 수) ×100	%	초·중·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명	초·중·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학업 성취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	중3, 고2	1년	교육부(2016),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사교육비 지출액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만원	전 연령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안전	사고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십만 명 당)	(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 등록연앙인구) × 100,000	명 (십만 명당)	10~24세	1년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6월 8일 인출.
		청소년 안전 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명 (십만 명당)	10~24세	1년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8년 4월 4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에서 2018년 4월 4일 인출.
안전	범죄	청소년 범죄 피해율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절도, 사기, 손괴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	·	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 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 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10만 명당 건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1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3월 27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학교폭력 발생률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욕설, 폭행, 왕따, 괴롭힘 등을 당한 학생의 비율	·	%	초4~고3	1년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참여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	%	13세 이상	2년	통계청(2017). 2017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활동	활동 상태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지난 1년 동안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 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	13~24세	2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2017 사회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8년 6월 21일 인출.
		문화여가 지출비용	한 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	원	15세 이상	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240.
활동	활동 상태	동아리 활동 참여율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 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	%,회	9~24세	3년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원자료.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문화예술 시설비율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	(문화예술 시설수/ 인구수)× 100,000	인구 10만 명당 개소	전 연령	1년	통계청(2017), 한국의 사회지표, pp. 384-385.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 시설수 /10~ 24세 청소년 인구)× 100,000	인구 10만 명당 개소	9~24세	1년	여성가족부(2017). 2016청소년백서, p.467-468.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3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청소년 지도사 비율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수련시설 수	명	-	1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67~468.
경제	소득/ 소비	지역경제 수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시도))	지역 내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	백만 원	전 연령	1년	통계청(2018).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1 + (1 / N) − [2/(m . N^2)] [SUM (N − i + 1) y_i]	·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 근로자	분기 / 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복지	사회복지 지출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 예산 규모) X 100	%	전연령	1년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아동 청소년 국민 기초생활 수혜비율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 ×100,000	인구 10만 명당 수혜자수	10~24세	1년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	15세 이상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실업률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	%	15세 이상	1년	통계청,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환경	주거 기반	통학 소요시간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	·	분	12세 이상	5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517# 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녹지 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도시 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녹지면적/ 인구)	㎡	전연령	1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7년말 도시공원현황 2018년 9월 7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9월 7일 인출.

6. 조사결과

1) 주관적 지표 조사결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를 토대로 각 지표별 2018년도 전체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고, 성별, 교급별 분석 결과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17개 각 시·도별 결과는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개년 간의 변화 결과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는 9,021명(남:4,684명, 여:4,337명)이었고, 초등학교 2,733명, 중학교 2,846명, 고등학교 3,441명이었다. 각 시·도별 조사대상자 수 및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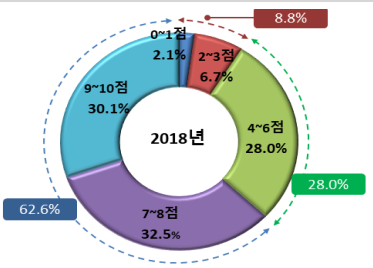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전체		9,021	100	전체		9,021	100
성별	남자	4,684	51.9	지역	서울	1,470	16.3
	여자	4,337	48.1		부산	452	5.0
학교급	초등학교	2,733	30.3		대구	429	4.8
	중학교	2,846	31.6		광주	531	5.9
	고등학교	3,441	38.1		인천	270	3.0
지역규모	대도시	3,642	40.4		대전	329	3.7
	중소도시	4,428	49.1		울산	233	2.6
	읍면지역	951	10.5		세종	64	0.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069	89.4		경기	2,426	26.9
	한부모가정	653	7.2		강원	241	2.7
	조손가정	108	1.2		충북	285	3.2
	기타	173	1.9		충남	346	3.8
	무응답	18	0.2		전북	388	4.3
학업성적	높은 수준	2,961	32.8		전남	324	3.6
	중간	3,815	42.3		경북	445	4.9
	낮은 수준	2,240	24.8		경남	663	7.4
	무응답	6	0.1		제주	124	1.4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①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62.6%, 보통(4~6점) 28.0%, 부정 응답(0~3점) 8.8%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과 제주(7.41)가 가장 높았고, 충남(3.73)과 전북(6.66)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다.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4개년 간의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6.93)에 비해 16년(7.12)에는 증가했지만 17년(6.97)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고, 18년(7.00)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14)]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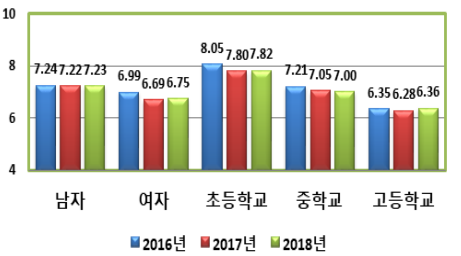


그림 Ⅲ-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표 Ⅲ-1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15)]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93**	6.78	7.36	7.17	7.05	6.82	6.78	6.69		6.83	7.16	6.83	7.17	6.84	6.59	6.99	7.15	7.16
16년	**7.12**	6.93	7.34	7.12	7.02	7.27	7.28	7.70	6.81	7.00	7.02	7.25	7.31	7.15	7.34	7.12	7.29	7.05
17년	**6.97**	6.81	7.05	7.22	7.16	6.98	6.70	7.16	7.26	6.97	6.66	7.18	7.30	6.73	7.14	6.78	6.94	7.41
18년	**7.00**	6.96	**7.41**	7.18	7.14	6.81	6.99	7.07	7.16	7.02	6.85	6.99	***6.73***	***6.66***	6.96	6.85	7.04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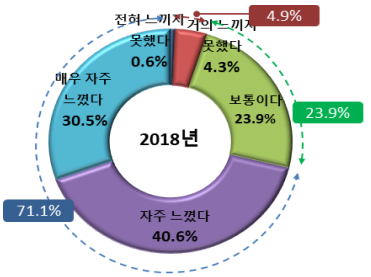
14) 각 문항의 무응답 비율은 지면 관계상 따로 표기하지 않음(이하 동일)
15) 17개 시·도별 결과표에서 볼드체는 긍정결과 선순위, 이탤릭체는 부정결과 선순위를 나타냄(이하 동일)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즐거운

긍정 응답은 71.1%, 보통 23.9%, 부정 응답은 4.9%

- 성별 비교에서 15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16~18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급이 높아질수록 즐거운에 대한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에서는 울산(4.0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06), 부산(4.04) 순이었으며, 전북(3.85)과 충남(3.8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91)에 비해 16년(3.96)에는 증가했고 17년과 18년도는 3.96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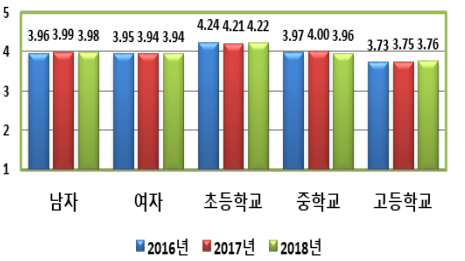


그림 Ⅲ-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표 Ⅲ-1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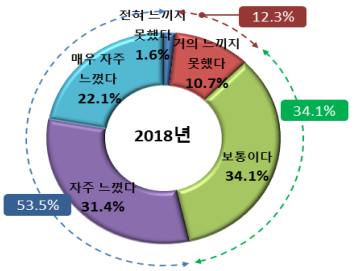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1**	3.89	4.10	3.92	3.97	3.82	3.94	3.83		3.89	3.95	3.85	3.93	3.83	3.82	3.87	3.98	4.03
16년	**3.96**	3.93	4.04	3.93	3.93	4.05	4.01	4.14	3.68	3.93	3.87	4.04	4.02	3.88	3.95	3.93	3.97	4.02
17년	**3.96**	3.94	4.01	4.08	4.05	3.87	3.90	3.99	4.04	3.94	3.90	3.97	4.05	3.84	4.02	3.91	3.99	4.18
18년	**3.96**	3.97	4.04	4.03	4.01	3.88	3.97	**4.09**	4.01	3.96	3.94	3.88	***3.84***	***3.85***	3.92	3.93	4.00	**4.06**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편안한

긍정 응답은 53.5%, 보통 34.1%, 부정 응답은 12.3%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3.77)과 제주(3.77)가 가장 높았고, 강원(3.50)과 충남(3.48)은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편안한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58)에 비해 16년(3.61)에는 증가했고 17년은 3.60으로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감소했으나 18년도에는 다시 조금 증가(3.62)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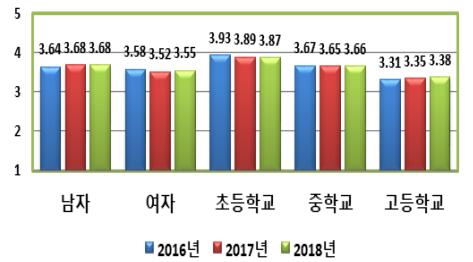


그림 Ⅲ-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표 Ⅲ-1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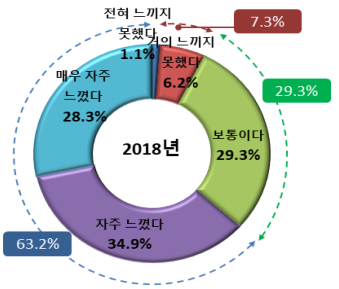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8**	3.57	3.78	3.69	3.66	3.48	3.57	3.52		3.57	3.56	3.44	3.59	3.49	3.45	3.59	3.61	3.71
16년	**3.61**	3.54	3.70	3.65	3.57	3.69	3.62	3.82	3.38	3.56	3.52	3.60	3.72	3.57	3.66	3.61	3.69	3.72
17년	**3.60**	3.56	3.66	3.78	3.70	3.54	3.45	3.58	3.68	3.59	3.41	3.67	3.74	3.46	3.70	3.52	3.64	3.72
18년	**3.62**	3.62	3.74	3.71	3.68	3.60	3.61	**3.77**	3.72	3.60	***3.50***	3.59	***3.48***	3.52	3.56	3.53	3.66	**3.77**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행복한

긍정 응답은 63.2%, 보통 29.3%, 부정 응답은 7.3%

- 성별 비교에서는 16~18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4.00)과 세종(3.96)이 높았고, 충북(3.75)과 전북(3.70)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행복한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85, 3.90, 3.91), 18년도에는 크게 감소(3.83)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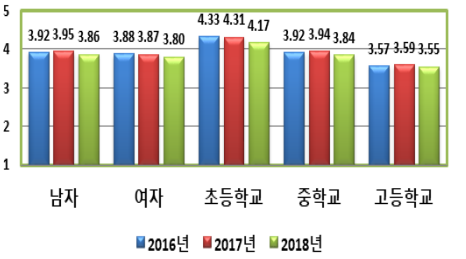


그림 Ⅲ-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표 Ⅲ-1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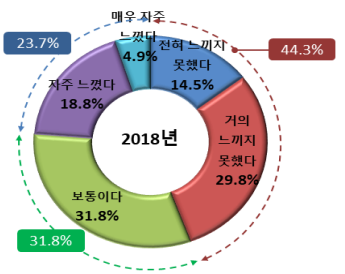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5**	3.84	4.01	3.82	3.94	3.69	3.79	3.71		3.85	3.80	3.73	3.87	3.81	3.75	3.86	3.93	3.92
16년	**3.90**	3.86	3.97	3.83	3.89	4.04	3.95	4.09	3.53	3.89	3.83	3.97	3.99	3.82	3.93	3.90	3.91	3.90
17년	**3.91**	3.85	3.93	4.04	3.99	3.81	3.88	3.93	4.00	3.92	3.78	4.02	4.06	3.81	3.97	3.83	3.93	4.04
18년	**3.83**	3.82	3.92	3.93	3.87	3.83	3.81	**4.00**	**3.96**	3.84	3.78	***3.75***	3.79	***3.70***	3.82	3.76	3.82	3.92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불안한

긍정 응답은 23.7%, 보통 31.8%, 부정 응답은 44.3%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불안한 정서의 평균이 높아졌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2.84)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2.77), 경기(2.74) 순이었으며, 경남(2.57)과 부산(2.49)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불안한에 대한 4개년 간의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73)에 비해 16년(2.69)에는 감소했지만 17년은 2.76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시 크게 증가하였고, 18년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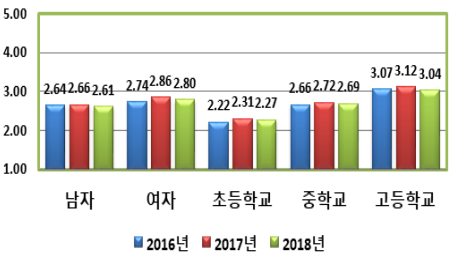


그림 Ⅲ-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표 Ⅲ-2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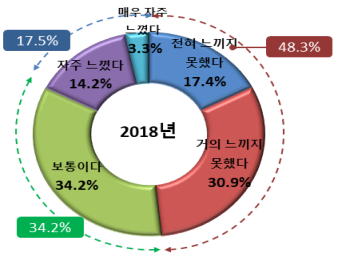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73**	2.90	2.61	2.56	2.72	2.68	2.79	2.75		2.75	2.69	2.96	2.61	2.63	2.78	2.55	2.59	2.76
16년	**2.69**	2.88	2.50	2.53	2.71	2.68	2.70	2.54	3.00	2.69	2.82	2.67	2.62	2.71	2.53	2.58	2.66	2.83
17년	**2.76**	2.84	2.62	2.58	2.65	2.65	2.80	2.77	2.57	2.80	2.89	2.76	2.79	2.85	2.73	2.66	2.73	2.62
18년	**2.70**	***2.77***	**2.49**	2.65	2.70	2.72	2.64	2.68	2.68	2.74	2.65	2.67	2.72	2.65	2.66	***2.84***	**2.57**	2.71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슬픈

긍정 응답은 17.5%, 보통 34.2%, 부정 응답은 48.3%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슬픈 정서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2.7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과 충남(2.63) 순이었으며, 대구(2.45)와 부산(2.43)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슬픈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15년(2.52)에 비해 16년도(2.50)에는 감소했지만 17년은 2.56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18년도에는 다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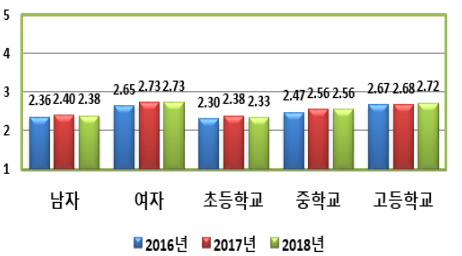


그림 Ⅲ-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표 Ⅲ-2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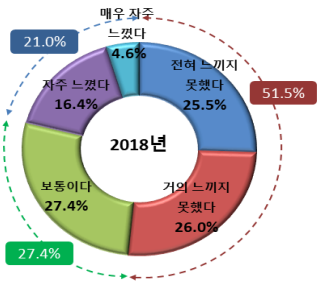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52**	2.62	2.38	2.34	2.46	2.62	2.60	2.61		2.55	2.40	2.58	2.40	2.53	2.51	2.43	2.46	2.55
16년	**2.50**	2.58	2.38	2.32	2.50	2.49	2.46	2.27	2.56	2.56	2.56	2.45	2.44	2.53	2.44	2.38	2.50	2.63
17년	**2.56**	2.61	2.46	2.43	2.49	2.51	2.59	2.57	2.36	2.54	2.73	2.63	2.58	2.59	2.56	2.59	2.56	2.40
18년	**2.55**	2.56	**2.43**	**2.45**	2.55	***2.71***	2.48	2.53	2.51	2.55	***2.63***	2.50	***2.63***	2.62	2.60	2.62	2.49	2.55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우울한

긍정 응답은 21.0%, 보통 27.4%, 부정 응답은 51.5%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2.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2.59), 강원(2.54) 순이었으며, 대구(2.34)와 부산(2.30)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우울한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46)에 비해 16년도(2.43)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17년도에는 2.50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18년도에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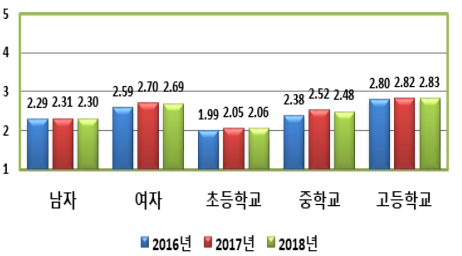


그림 Ⅲ-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표 Ⅲ-2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46**	2.58	2.33	2.28	2.43	2.47	2.56	2.55		2.50	2.38	2.61	2.31	2.47	2.46	2.33	2.32	2.44
16년	**2.43**	2.55	2.33	2.26	2.38	2.39	2.38	2.23	2.57	2.49	2.50	2.31	2.38	2.48	2.36	2.30	2.40	2.55
17년	**2.50**	2.55	2.46	2.42	2.41	2.48	2.50	2.52	2.41	2.50	2.59	2.50	2.54	2.51	2.46	2.51	2.48	2.29
18년	**2.49**	2.52	**2.30**	**2.34**	2.50	2.49	2.40	2.45	2.38	2.50	2.54	2.49	***2.69***	2.53	2.49	***2.59***	2.42	2.44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③ 유데모니아

낙관성 3.55, 자율성 3.86, 가치감 3.90, 성취감 3.82,
긍정성 3.68, 회복단력성 3.48

- 6가지 속성을 통합한 유데모니아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8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84), 제주(3.80) 순이었으며, 충남(3.62)과 강원(3.59)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유데모니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68)에 비해 16년도(3.72)는 증가했지만 17년도(3.71)에 감소했다가 18년도에는 다시 조금 증가(3.72)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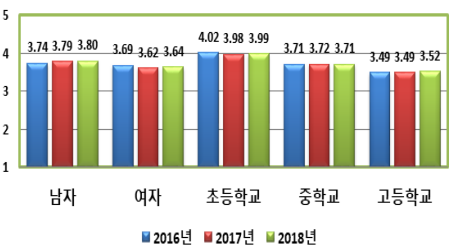


그림 Ⅲ-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유데모니아

표 Ⅲ-2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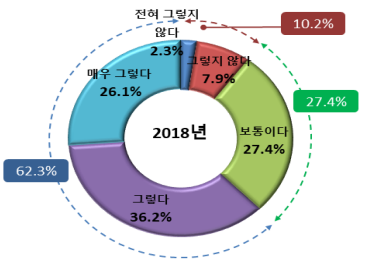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8**	3.71	3.85	3.78	3.72	3.63	3.63	3.58		3.64	3.77	3.60	3.69	3.60	3.54	3.61	3.70	3.76
16년	**3.72**	3.71	3.81	3.73	3.67	3.84	3.82	3.90	3.50	3.69	3.69	3.72	3.71	3.63	3.63	3.71	3.71	3.72
17년	**3.71**	3.69	3.74	3.85	3.73	3.79	3.68	3.74	3.80	3.72	3.59	3.65	3.74	3.60	3.78	3.61	3.65	3.83
18년	**3.72**	3.73	**3.85**	**3.84**	3.74	3.73	3.71	3.78	3.78	3.73	***3.59***	3.68	***3.62***	3.64	3.68	3.64	3.71	3.80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④ 성격특성: 외향적인

긍정 응답 62.3%, 보통 27.4%, 부정 응답 10.2%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3.87), 대구(3.85) 순이었으며, 전남(3.59)과 강원(3.58)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외향적인 성격특성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9, 3.73, 3.75, 3.76).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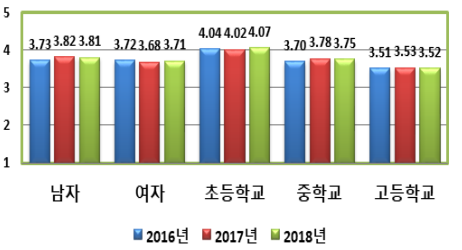


그림 Ⅲ-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표 Ⅲ-2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16]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9**	3.77	3.78	3.75	3.70	3.62	3.66	3.51		3.68	3.62	3.53	3.69	3.58	3.51	3.64	3.73	3.75
16년	**3.73**	3.78	3.74	3.73	3.75	3.91	3.84	3.75	3.47	3.74	3.63	3.73	3.64	3.61	3.68	3.67	3.64	3.58
17년	**3.75**	3.77	3.86	3.88	3.89	3.75	3.82	3.84	3.76	3.74	3.62	3.65	3.72	3.55	3.73	3.69	3.67	3.77
18년	**3.76**	3.79	**3.89**	3.85	3.79	3.75	3.81	**3.87**	3.75	3.76	**3.58**	3.61	3.76	3.64	**3.59**	3.74	3.75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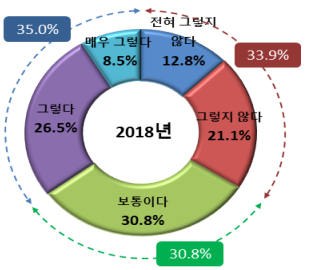
16) 중립적인 특성이기에 볼드체로만 표기함(이하 동일)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④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긍정 응답 35.0%, 보통 30.8%, 부정 응답 33.9%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3.10)과 전북(3.07)이 높았고, 부산(2.76)과 충북(2.78)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06)에 비해 16년도(3.07)는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17년도(3.06)에는 1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8년도에는 크게 감소(2.97)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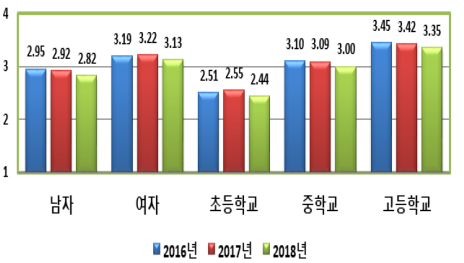


그림 Ⅲ-1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표 Ⅲ-2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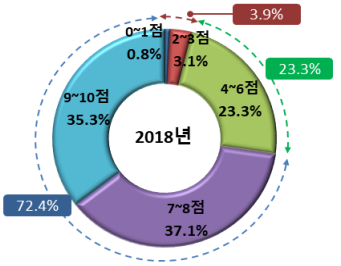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06**	3.12	2.97	2.94	2.98	3.05	3.19	3.17		3.09	2.91	3.30	3.00	3.04	3.09	3.05	2.97	3.00
16년	**3.07**	3.13	2.97	3.01	2.99	3.00	3.03	2.88	3.40	3.07	3.15	3.05	3.04	3.16	3.08	2.99	3.07	3.22
17년	**3.06**	3.09	2.98	3.01	2.91	3.00	2.97	3.06	2.94	3.07	3.12	3.09	3.14	3.09	3.06	3.12	3.14	3.04
18년	**2.97**	2.99	**2.76**	2.87	3.00	2.86	2.93	2.96	2.82	3.01	2.96	**2.78**	3.04	***3.07***	2.91	***3.10***	2.93	2.88

(2) 관계 영역 - ①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72.4%, 보통(4~6점) 23.3%, 부정 응답(0~3점) 3.9%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8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7.85), 대구(7.74) 순이었으며, 강원(7.28)과 전북(7.15)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7.45)에 비해 16년도(7.54)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17년도(7.53)와 18년도(7.51)에는 감소하였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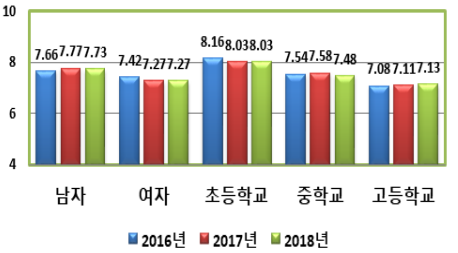


그림 Ⅲ-1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표 Ⅲ-2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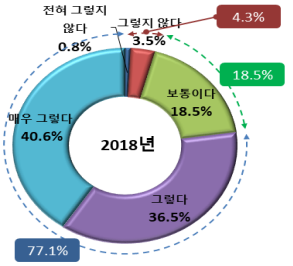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45**	7.54	7.81	7.62	7.46	7.23	7.41	7.22		7.40	7.48	7.17	7.66	7.06	7.14	7.39	7.55	7.48
16년	**7.54**	7.51	7.78	7.56	7.42	7.81	7.73	7.93	7.15	7.49	7.27	7.62	7.56	7.47	7.50	7.44	7.61	7.28
17년	**7.53**	7.46	7.70	7.80	7.85	7.45	7.41	7.64	7.58	7.55	7.22	7.42	7.60	7.27	7.71	7.34	7.41	7.75
18년	**7.51**	7.49	**7.85**	7.74	7.52	7.53	7.56	7.56	7.49	7.55	***7.28***	7.44	7.40	***7.15***	7.40	7.30	7.51	**7.86**

(2) 관계 영역 - ② 가족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 77.1%, 보통 18.5%, 부정 응답 4.3%

- 성별 비교에서는 16~17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18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과 제주(4.22) 순이었으며, 광주(4.05)와 충남(4.0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02)에 비해 16년도(4.10)에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4.10)에는 16년도와 동일한 평균을 보였고, 18년도(4.12)에는 다시 조금 증가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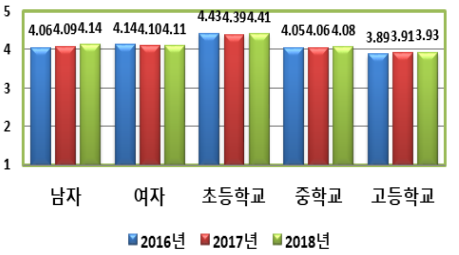


그림 Ⅲ-1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표 Ⅲ-2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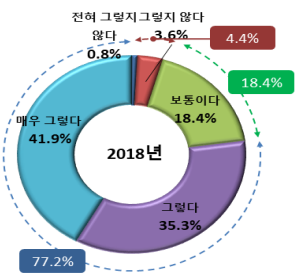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02**	4.00	4.19	4.12	4.09	3.98	3.95	3.96		3.98	4.08	4.01	4.09	3.97	3.94	4.05	4.02	4.21
16년	**4.10**	4.06	4.21	4.02	4.03	4.19	4.18	4.24	3.88	4.05	4.07	4.15	4.22	4.06	4.18	4.04	4.15	4.11
17년	**4.10**	4.05	4.08	4.26	4.19	4.08	4.09	4.18	4.19	4.11	3.97	4.12	4.18	4.00	4.17	3.99	4.04	4.27
18년	**4.12**	4.12	4.16	**4.23**	4.21	***4.05***	4.17	**4.22**	4.19	4.11	4.08	4.07	***4.03***	4.07	4.08	4.14	4.13	**4.22**

(2) 관계 영역 - ③ 부모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 77.2%, 보통 18.4%, 부정 응답 4.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4.24)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4.23), 대구(4.22) 순이었으며, 광주(4.07)와 충남(4.0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04)에 비해 16년도(4.10)에 크게 증가하였고, 18년도(4.14)에는 16년도(4.10)와 17년도(4.1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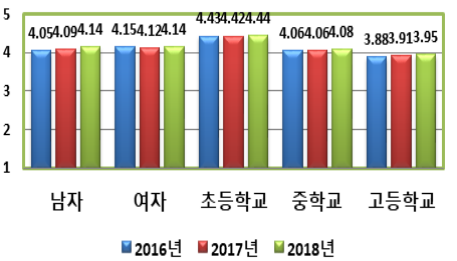


그림 Ⅲ-1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표 Ⅲ-2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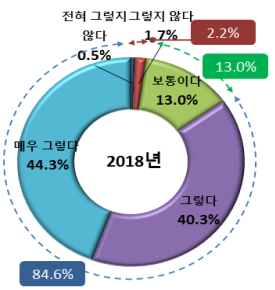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04**	4.02	4.21	4.16	4.12	3.97	3.98	3.99		3.99	4.07	4.04	4.09	3.97	3.88	4.05	4.01	4.17
16년	**4.10**	4.04	4.21	4.03	4.03	4.21	4.18	4.28	3.87	4.06	4.06	4.21	4.20	4.06	4.11	4.04	4.17	4.13
17년	**4.10**	4.07	4.12	4.25	4.17	4.12	4.09	4.18	4.19	4.11	3.98	4.17	4.19	3.98	4.16	3.97	4.05	4.27
18년	**4.14**	4.12	4.18	4.22	**4.24**	***4.07***	4.16	**4.23**	4.20	4.13	4.11	4.08	***4.05***	4.08	4.11	4.14	4.15	4.20

(2) 관계 영역 - ④ 교우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 84.6%, 보통 13.0%, 부정 응답 2.2%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4.4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4.36), 인천(4.32) 순이었으며, 경북(4.20)과 충남(4.1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우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23)에 비해 16년도(4.29)에는 증가한 반면, 17년도(4.27) 및 18년도(4.26)에는 근소하게 감소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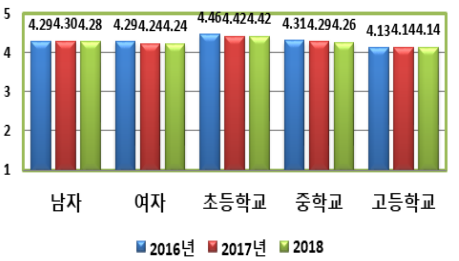


그림 Ⅲ-1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표 Ⅲ-2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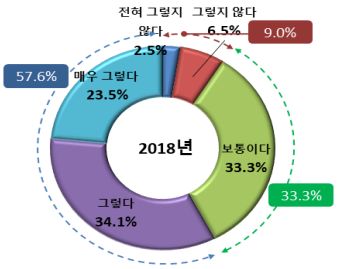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23**	4.28	4.37	4.27	4.26	4.13	4.22	4.14		4.23	4.18	4.08	4.27	4.12	4.10	4.16	4.25	4.29
16년	**4.29**	4.26	4.35	4.31	4.27	4.38	4.35	4.39	4.23	4.29	4.26	4.33	4.31	4.20	4.21	4.26	4.29	4.22
17년	**4.27**	4.28	4.31	4.38	4.36	4.30	4.30	4.30	4.28	4.28	4.11	4.20	4.32	4.15	4.33	4.18	4.22	4.33
18년	**4.26**	4.24	4.27	**4.36**	4.32	4.31	4.30	4.31	4.30	4.27	4.21	4.23	***4.15***	4.23	4.29	***4.20***	4.25	**4.42**

(2) 관계 영역 - ⑤ 교사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은 57.6%, 보통 33.3%, 부정 응답은 9.0%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과 제주(3.85)가 가장 높았고, 강원(3.49)과 전북(3.4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교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교사관계 만족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7, 3.65, 3.67, 3.70).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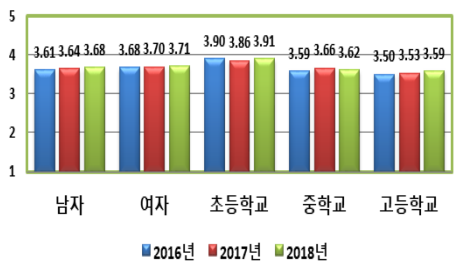


그림 Ⅲ-1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표 Ⅲ-3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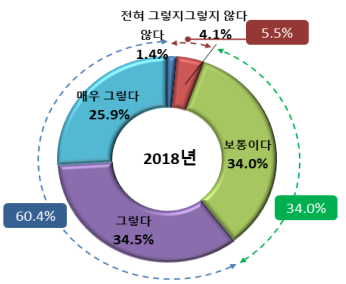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7**	3.61	3.78	3.54	3.66	3.36	3.48	3.56		3.59	3.61	3.56	3.57	3.41	3.50	3.46	3.51	3.62
16년	**3.65**	3.65	3.72	3.70	3.52	3.70	3.72	3.89	3.65	3.66	3.66	3.64	3.70	3.48	3.40	3.62	3.58	3.70
17년	**3.67**	3.65	3.79	3.84	3.75	3.65	3.63	3.65	3.58	3.68	3.60	3.55	3.83	3.43	3.59	3.54	3.64	3.74
18년	**3.70**	3.71	**3.76**	3.70	3.73	**3.76**	3.69	3.69	**3.85**	3.74	***3.49***	3.65	3.68	***3.46***	3.69	3.64	3.65	**3.85**

(2) 관계 영역 - ⑥ 이웃관계 만족도

긍정 응답 60.4%, 보통 34.0%, 부정 응답 5.5%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9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93), 광주(3.87) 순이었으며, 충북(3.69)과 전북(3.6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웃관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7, 3.76, 3.77, 3.80).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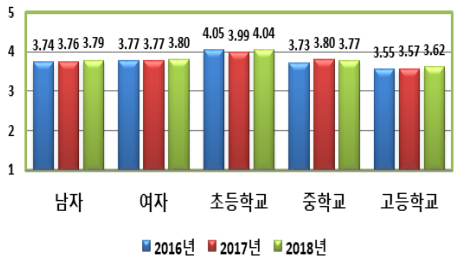


그림 Ⅲ-1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표 Ⅲ-3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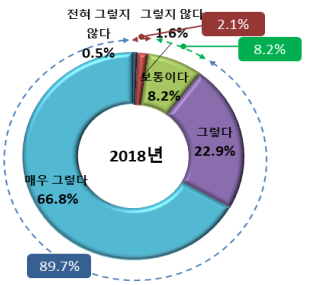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7**	3.70	3.87	3.72	3.75	3.63	3.60	3.66		3.62	3.68	3.58	3.67	3.55	3.57	3.78	3.72	3.68
16년	**3.76**	3.75	3.87	3.80	3.82	3.87	3.81	3.90	3.36	3.71	3.68	3.78	3.83	3.60	3.77	3.67	3.78	3.85
17년	**3.77**	3.73	3.89	3.98	3.80	3.69	3.78	3.83	3.81	3.75	3.66	3.69	3.77	3.63	3.87	3.70	3.81	3.74
18년	**3.80**	3.79	**3.97**	**3.93**	3.82	3.87	3.81	3.83	3.81	3.76	3.73	***3.69***	3.77	***3.63***	3.82	3.80	3.83	3.7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부모님(보호자)

긍정 응답 89.7%, 보통 8.2%, 부정 응답 2.1%

- 성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4.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4.61), 대전(4.60) 순이었으며, 광주(4.49)와 전북(4.4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해가 지남에 따라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였는데(4.50, 4.53, 4.55), 18년도(4.54)에는 조금 감소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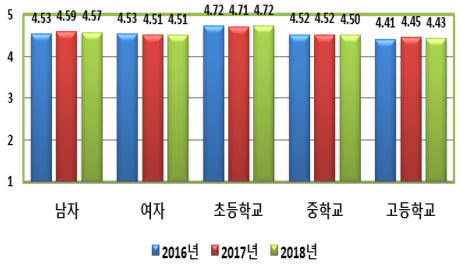


그림 Ⅲ-1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표 Ⅲ-3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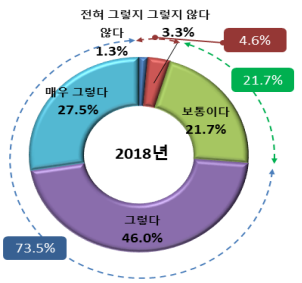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50**	4.46	4.63	4.58	4.53	4.53	4.41	4.41		4.48	4.49	4.41	4.58	4.46	4.39	4.54	4.52	4.58
16년	**4.53**	4.50	4.57	4.53	4.47	4.58	4.61	4.66	4.41	4.51	4.50	4.61	4.63	4.49	4.47	4.53	4.58	4.46
17년	**4.55**	4.53	4.56	4.67	4.54	4.60	4.58	4.61	4.53	4.56	4.41	4.56	4.55	4.46	4.61	4.53	4.51	4.64
18년	**4.54**	4.51	4.56	4.59	4.55	***4.49***	4.60	**4.61**	**4.62**	4.54	4.54	4.52	4.52	***4.48***	4.55	4.54	4.55	4.54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친구들

긍정 응답 73.5%, 보통 21.7%, 부정 응답 4.6%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남(4.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 인천, 충북(4.00) 순이었으며, 강원(3.86)과 경북(3.8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를 4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85)에 비해 16년도(3.95)에 증가했지만 17년도(3.93)에는 근소하게 감소했고, 18년도(3.95)에는 다시 조금 증가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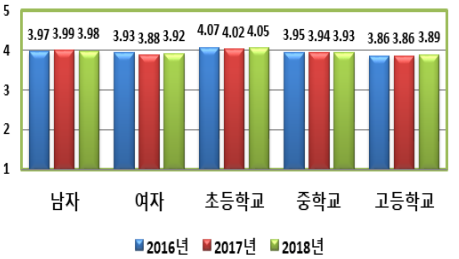


그림 Ⅲ-1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표 Ⅲ-3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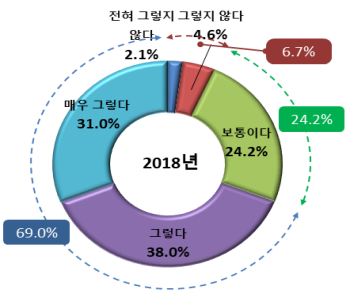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5**	3.88	3.93	3.92	3.83	3.71	3.86	3.87		3.86	3.78	3.74	3.89	3.75	3.76	3.74	3.85	3.92
16년	**3.95**	3.93	4.04	3.96	3.95	4.06	4.03	4.08	3.85	3.95	3.91	4.01	3.94	3.81	3.96	3.93	3.88	3.87
17년	**3.93**	3.94	4.07	4.08	4.01	3.90	3.92	3.95	3.96	3.94	3.81	3.92	3.92	3.77	3.94	3.87	3.83	4.01
18년	**3.95**	3.89	3.94	**4.00**	**4.00**	3.94	3.98	3.96	3.93	3.99	***3.86***	**4.00**	3.91	3.92	**4.02**	***3.85***	3.97	3.96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학교 선생님

긍정 응답은 69.0%, 보통 24.2%, 부정 응답은 6.7%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4.0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99), 대전(3.98) 순이었으며, 충남(3.82)과 전북(3.68)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를 4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3, 3.89, 3.90, 3.91).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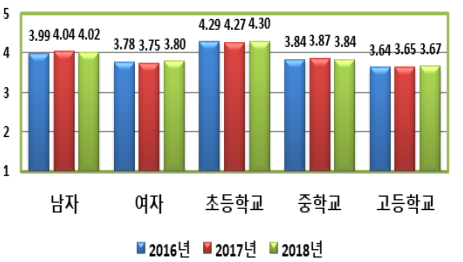


그림 Ⅲ-1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 선생님)

표 Ⅲ-3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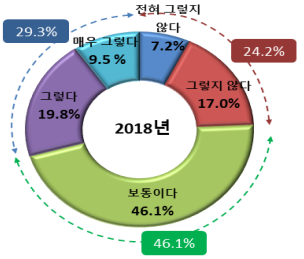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3**	3.83	3.94	3.87	3.91	3.80	3.81	3.73		3.82	3.87	3.72	3.88	3.78	3.80	3.85	3.79	3.89
16년	**3.89**	3.86	3.99	3.99	3.88	3.93	4.01	4.05	3.61	3.90	3.87	3.97	4.00	3.73	3.62	3.94	3.82	3.80
17년	**3.90**	3.86	3.97	4.07	3.99	3.91	3.89	3.93	3.80	3.94	3.80	3.87	3.95	3.68	3.82	3.85	3.83	3.98
18년	**3.91**	3.93	3.90	**3.99**	3.92	3.93	3.98	3.87	3.98	3.95	3.86	3.92	***3.82***	***3.68***	3.91	3.83	3.93	**4.0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이웃 사람들

긍정 응답은 29.3%, 보통 46.1%, 부정 응답은 24.2%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1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 제주(3.15), 강원(3.14) 순이었으며, 충남(2.94)과 전북(2.9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웃 사람들 신뢰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95)에 비해 16년도(3.06)에는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3.05)에는 신뢰도가 조금 감소했으나 18년도(3.07)에는 다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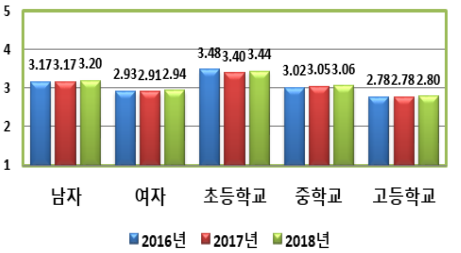


그림 Ⅲ-2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표 Ⅲ-3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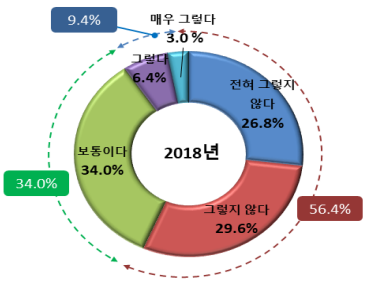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95**	2.93	3.07	3.05	2.96	2.93	2.95	2.95		2.88	3.02	2.92	2.95	2.91	2.87	3.03	3.01	3.07
16년	**3.06**	3.04	3.15	3.04	3.12	3.12	3.11	3.25	2.92	3.00	3.03	3.10	3.11	2.92	3.11	3.10	3.07	3.04
17년	**3.05**	3.01	3.11	3.21	3.02	2.96	3.04	3.13	3.04	3.03	2.95	3.04	3.06	2.97	3.17	3.07	3.03	3.18
18년	**3.07**	3.06	**3.15**	**3.17**	3.10	3.09	3.12	3.13	3.08	3.04	3.14	3.09	***2.94***	***2.91***	3.08	3.13	3.12	**3.15**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처음 만난 사람들[17]

긍정 응답은 9.4%, 보통 34.0%, 부정 응답은 56.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2.4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2.40), 경북(2.36) 순이었으며, 충남(2.19)과 전북(2.1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거듭 될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3, 2.26, 2.29).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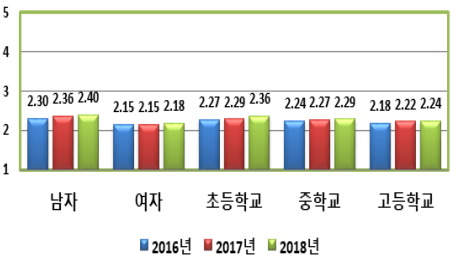


그림 Ⅲ-2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표 Ⅲ-36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23**	2.28	2.24	2.12	2.25	2.20	2.31	2.30	2.01	2.21	2.23	2.26	2.17	2.15	2.30	2.29	2.17	2.24
17년	**2.26**	2.30	2.26	2.29	2.26	2.22	2.29	2.40	2.26	2.26	2.31	2.27	2.15	2.23	2.27	2.23	2.10	2.39
18년	**2.29**	2.26	2.31	2.33	2.35	2.21	**2.40**	**2.42**	2.30	2.29	2.27	2.26	***2.19***	***2.10***	2.30	2.36	2.34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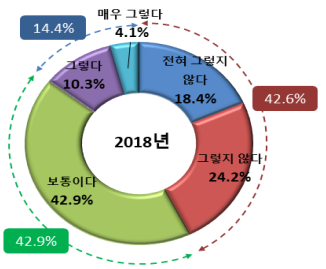
17)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다른 나라 사람들[18)]

긍정 응답 14.4%, 보통 42.9%, 부정 응답 42.6%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과 울산(2.65)이 가장 높았고, 인천, 세종(2.64) 순이었으며, 강원, 충남(2.43)과 전북(2.3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3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도(2.59)에 비해 17년, 18년도(2.57)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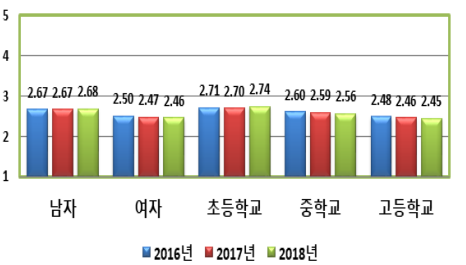


그림 Ⅲ-2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표 Ⅲ-37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59**	2.68	2.64	2.51	2.56	2.61	2.62	2.82	2.55	2.59	2.49	2.60	2.52	2.45	2.52	2.51	2.52	2.53
17년	**2.57**	2.62	2.59	2.66	2.63	2.49	2.63	2.68	2.65	2.58	2.54	2.61	2.50	2.47	2.62	2.48	2.39	2.65
18년	**2.57**	2.60	2.62	2.57	2.64	2.55	**2.65**	**2.65**	2.64	2.59	2.43	2.62	***2.43***	***2.34***	2.49	2.55	2.61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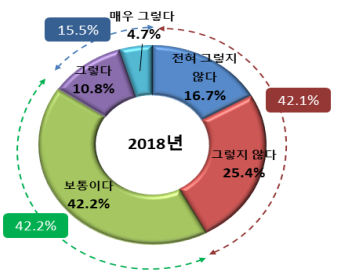
18)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우리나라 전체

긍정 응답 15.5%, 보통 42.2%, 부정 응답 42.1%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2.8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2.79), 울산(2.71) 순이었으며, 충남(2.47)과 전북(2.3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4년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6, 2.57, 2.58, 2.61).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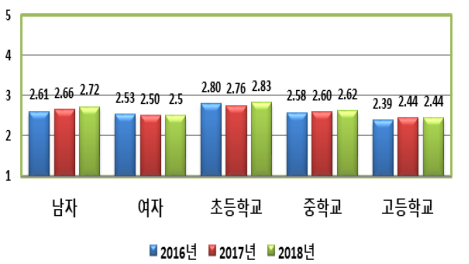


그림 Ⅲ-2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표 Ⅲ-3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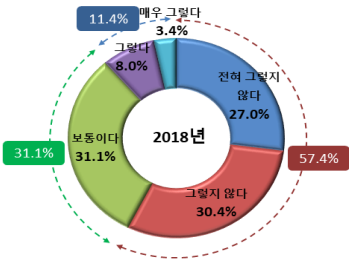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56**	2.57	2.71	2.68	2.59	2.49	2.62	2.35		2.49	2.53	2.50	2.57	2.52	2.39	2.60	2.65	2.67
16년	**2.57**	2.58	2.71	2.49	2.61	2.62	2.64	2.70	2.35	2.54	2.50	2.57	2.61	2.47	2.56	2.63	2.60	2.51
17년	**2.58**	2.61	2.67	2.72	2.61	2.57	2.59	2.69	2.57	2.56	2.55	2.67	2.52	2.58	2.56	2.47	2.44	2.68
18년	**2.61**	2.61	**2.79**	2.59	2.71	2.61	2.64	**2.81**	2.58	2.62	2.50	2.53	***2.47***	***2.37***	2.55	2.64	2.63	2.61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긍정 응답 11.4%, 보통 31.1%, 부정 응답 57.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2.4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2.42), 인천(2.39) 순이었으며, 충남(2.22)과 세종(2.19)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사이버 공간 신뢰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4, 2.28, 2.29, 2.30).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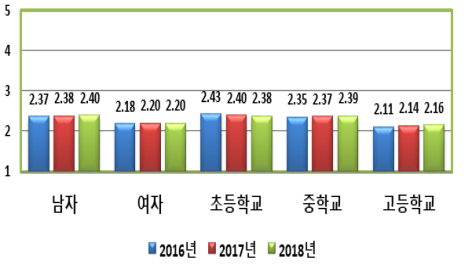


그림 Ⅲ-2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사이버공간)

표 Ⅲ-3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사이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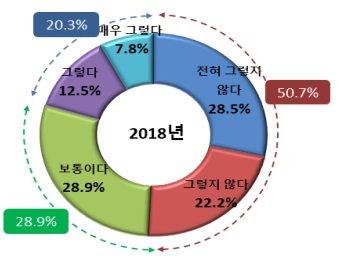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24**	2.26	2.30	2.24	2.20	2.28	2.29	2.15		2.18	2.18	2.30	2.27	2.19	2.18	2.24	2.35	2.29
16년	**2.28**	2.29	2.34	2.14	2.26	2.26	2.34	2.51	2.30	2.26	2.21	2.24	2.28	2.32	2.37	2.26	2.32	2.28
17년	**2.29**	2.33	2.31	2.26	2.32	2.20	2.38	2.45	2.26	2.24	2.34	2.46	2.25	2.23	2.36	2.24	2.23	2.45
18년	**2.30**	2.28	2.25	2.30	2.39	2.33	2.33	**2.46**	***2.19***	2.26	2.37	2.38	***2.22***	2.25	2.29	**2.42**	2.33	2.35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19)]

긍정 응답 20.3%, 보통 28.9%, 부정 응답 50.7%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2.5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2.56)순이었으며, 울산, 경남(2.37)과 대구(2.28)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0, 2.53, 2.49).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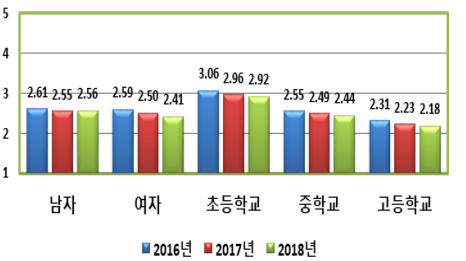


그림 Ⅲ-2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종교단체)

표 Ⅲ-40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종교단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60**	2.66	2.51	2.34	2.61	2.69	2.54	2.72	2.79	2.63	2.63	2.47	2.67	2.69	2.69	2.47	2.56	2.55
17년	**2.53**	2.55	2.49	2.52	2.62	2.35	2.66	2.44	2.64	2.53	2.44	2.57	2.58	2.65	2.61	2.40	2.42	2.62
18년	**2.49**	2.55	2.46	***2.28***	**2.56**	2.54	2.54	***2.37***	2.38	2.50	2.41	2.55	2.38	**2.58**	2.55	2.48	***2.37***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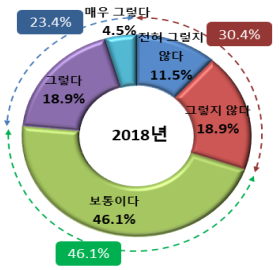
19)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조직신뢰도: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20]

긍정 응답 23.4%, 보통 46.1%, 부정 응답 30.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6년도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7년도와 18년도의 경우 중학교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3.0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00), 인천(2.95) 순이었으며, 강원(2.72)과 충남(2.7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신문·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2.86)에 비해 17년도(2.92)에 신뢰도가 조금 더 증가하였으나, 18년도(2.86)는 16년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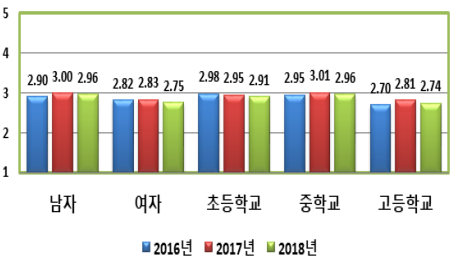


그림 Ⅲ-2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대중매체)

표 Ⅲ-41 2016~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대중매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86**	2.88	2.92	2.83	2.79	2.89	2.84	3.03	2.42	2.86	2.84	2.79	2.92	2.80	2.86	2.90	2.82	2.90
17년	**2.92**	2.95	2.92	3.00	2.94	2.93	2.92	2.99	2.87	2.90	2.87	2.95	2.88	2.84	2.93	2.89	2.89	3.01
18년	**2.86**	2.86	2.92	2.88	2.95	2.80	**3.01**	2.85	2.89	2.85	***2.72***	2.74	***2.70***	2.77	2.77	2.95	2.89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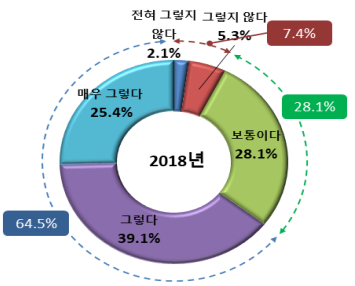
20)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지역사회 전문기관

긍정 응답 64.5%, 보통 28.1%, 부정 응답 7.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9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3.93), 부산(3.90) 순이었으며, 강원(3.66)과 충북(3.6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17년도까지는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66, 3.81, 3.84), 18년도(3.80)에는 조금 감소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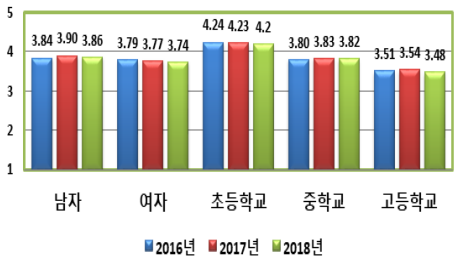


그림 Ⅲ-2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표 Ⅲ-4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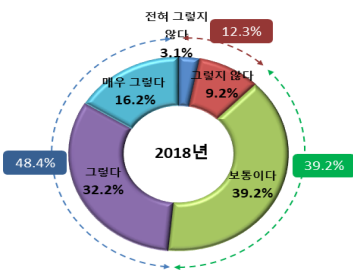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6**	3.63	3.89	3.77	3.80	3.68	3.67	3.52		3.58	3.64	3.54	3.66	3.56	3.57	3.77	3.70	3.76
16년	**3.81**	3.78	3.84	3.84	3.82	3.97	3.91	4.00	3.55	3.76	3.71	3.81	3.94	3.72	3.85	3.86	3.84	3.84
17년	**3.84**	3.81	3.88	3.99	3.87	3.76	3.87	3.79	3.82	3.87	3.65	3.76	3.89	3.70	3.87	3.77	3.83	3.98
18년	**3.80**	3.83	3.90	3.87	3.88	3.82	3.86	3.85	**3.93**	3.78	***3.66***	***3.60***	3.77	3.72	3.79	3.77	3.84	**3.94**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지방정부

긍정 응답은 48.4%, 보통 39.2%, 부정 응답은 12.3%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65), 인천(3.57), 순이었으며, 충남(3.38)과 충북(3.3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17년도까지는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30, 3.45, 3.50), 18년도(3.49)에는 조금 감소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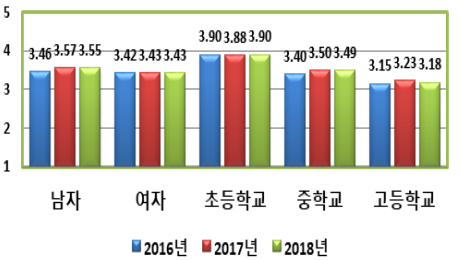


그림 Ⅲ-2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표 Ⅲ-4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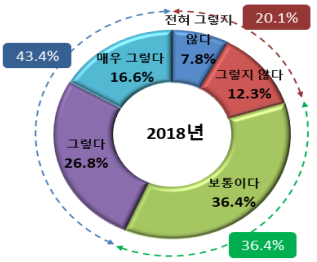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0**	3.29	3.54	3.42	3.39	3.35	3.34	3.21		3.22	3.42	3.25	3.32	3.16	3.19	3.38	3.31	3.40
16년	**3.45**	3.38	3.53	3.48	3.51	3.60	3.53	3.62	3.15	3.38	3.36	3.44	3.56	3.37	3.51	3.52	3.47	3.51
17년	**3.50**	3.47	3.58	3.66	3.55	3.55	3.56	3.44	3.51	3.50	3.33	3.47	3.52	3.46	3.59	3.43	3.48	3.67
18년	**3.49**	3.51	**3.68**	3.51	3.57	3.45	3.54	3.55	3.57	3.48	3.43	***3.35***	***3.38***	3.42	3.49	3.42	3.51	**3.65**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중앙정부

긍정 응답 43.4%, 보통 36.4%, 부정 응답 20.1%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5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48), 울산(3.46) 순이었으며, 대구(3.20)와 충북(3.1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중앙정부 신뢰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4, 3.10, 3.25, 3.32).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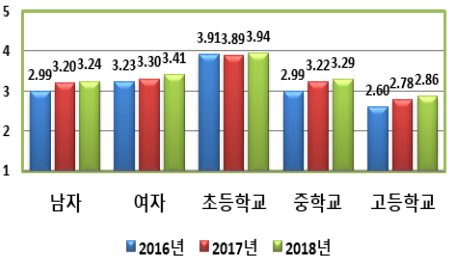


그림 Ⅲ-2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표 Ⅲ-4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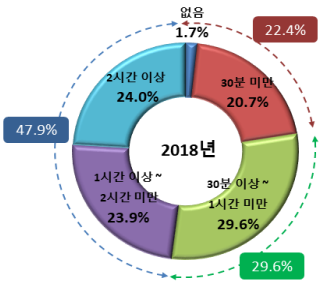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84**	2.81	3.08	2.93	3.00	2.88	2.75	2.75		2.77	2.84	2.74	2.82	2.82	2.77	2.96	2.90	2.95
16년	**3.10**	3.00	3.23	3.01	3.07	3.37	3.24	3.26	3.02	3.04	3.11	3.03	3.20	3.10	3.24	3.12	3.16	3.19
17년	**3.25**	3.21	3.29	3.49	3.36	3.24	3.40	3.16	3.33	3.21	3.18	3.19	3.25	3.23	3.31	3.13	3.24	3.43
18년	**3.32**	3.33	**3.54**	***3.20***	**3.48**	3.31	3.26	3.46	3.39	3.29	3.32	***3.11***	3.28	3.28	3.36	3.28	3.35	3.45

(2) 관계 영역 - ⑧ 가족 간의 대화시간

1시간 이상 47.9%, 30분~1시간 29.6%, 30분미만 22.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3.66), 충남(3.55), 순이었으며, 전남(3.37)과 충북(3.2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9, 3.45, 3.46, 3.48).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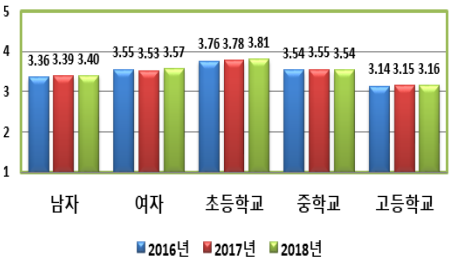


그림 Ⅲ-3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표 Ⅲ-4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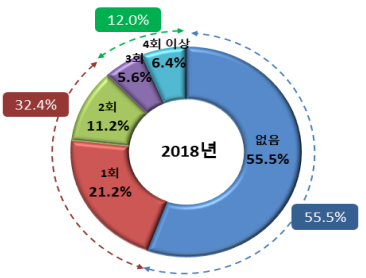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9**	3.51	3.41	3.42	3.49	3.40	3.38	3.25		3.51	3.21	3.38	3.45	3.46	3.24	3.35	3.45	3.33
16년	**3.45**	3.46	3.46	3.40	3.44	3.54	3.44	3.25	3.21	3.49	3.35	3.48	3.62	3.40	3.24	3.45	3.45	3.43
17년	**3.46**	3.46	3.43	3.56	3.54	3.41	3.38	3.38	3.49	3.55	3.52	3.48	3.47	3.30	3.27	3.33	3.35	3.50
18년	**3.48**	3.52	**3.69**	3.47	3.52	3.44	3.42	3.45	3.42	3.47	**3.66**	***3.27***	3.55	3.42	***3.37***	3.42	3.44	3.41

(2) 관계 영역 - ⑨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없음 55.5%, 1~2회는 32.4%, 3회 이상 12.0%

- 성별 비교에서는 16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17년도와 18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2.1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2.10), 강원(2.04) 순이었으며, 대구(1.69)와 제주(1.64)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4, 1.68, 1.69, 1.86).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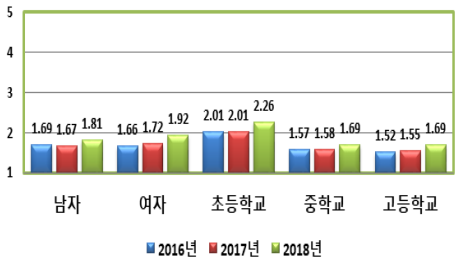


그림 Ⅲ-3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표 Ⅲ-4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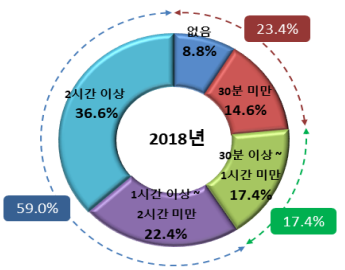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1.64**	1.60	1.68	1.47	1.65	1.65	1.66	1.46		1.68	1.58	1.64	1.78	1.82	1.71	1.58	1.61	1.63
16년	**1.68**	1.62	1.60	1.77	1.66	1.71	1.66	1.65	1.39	1.67	1.66	1.71	1.97	1.81	1.75	1.59	1.64	1.63
17년	**1.69**	1.55	1.59	1.78	1.57	1.73	1.78	1.75	1.51	1.74	1.78	1.71	1.75	1.79	1.84	1.68	1.68	2.01
18년	**1.86**	1.74	1.84	***1.69***	1.88	1.75	1.83	2.03	**2.10**	1.87	2.04	1.88	**2.17**	1.98	1.98	1.78	1.91	***1.64***

(2) 관계 영역 - ⑩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시간 이상 59.0%, 30분~1시간 17.4%, 30분미만 23.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년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3.7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3.77), 충북(3.75) 순이었으며, 대구(3.52)와 세종(3.48)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4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2, 3.54, 3.55, 3.64).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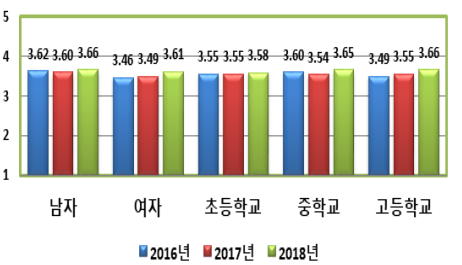


그림 Ⅲ-3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표 Ⅲ-4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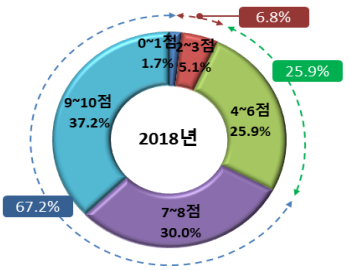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2**	3.57	3.49	3.38	3.53	3.36	3.43	3.29		3.62	3.55	3.38	3.64	3.65	3.38	3.47	3.38	3.63
16년	**3.54**	3.59	3.32	3.61	3.42	3.53	3.52	3.51	3.60	3.62	3.46	3.53	3.63	3.43	3.68	3.44	3.52	3.22
17년	**3.55**	3.58	3.54	3.51	3.60	3.64	3.34	3.72	3.50	3.51	3.52	3.67	3.51	3.47	3.63	3.58	3.54	3.58
18년	**3.64**	3.57	3.63	***3.52***	3.73	3.71	3.60	3.67	***3.48***	3.63	**3.79**	3.75	3.60	3.63	**3.77**	3.60	3.65	3.65

(3) 건강영역 - ① 전반적 건강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67.2%, 보통(4~6점) 25.9%, 부정 응답(0~3점) 6.8%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7.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7.65), 울산(7.48) 순이었으며, 강원(7.03)과 전남(7.0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반적 건강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33, 7.36, 7.37), 18년도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7.31).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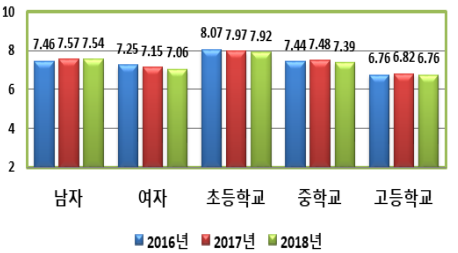


그림 Ⅲ-3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표 Ⅲ-4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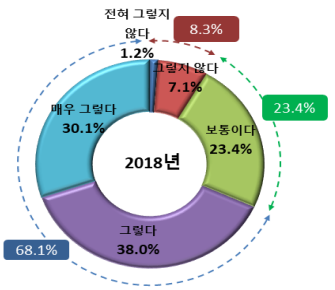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33**	7.34	7.66	7.53	7.52	7.22	7.35	7.18		7.27	7.40	7.19	7.52	6.95	6.83	7.24	7.41	7.49
16년	**7.36**	7.26	7.66	7.42	7.31	7.69	7.60	7.91	7.29	7.30	7.04	7.14	7.56	7.10	7.33	7.33	7.44	7.09
17년	**7.37**	7.25	7.50	7.61	7.73	7.24	7.48	7.58	7.47	7.41	6.99	7.15	7.38	7.02	7.48	7.28	7.27	7.75
18년	**7.31**	7.28	**7.68**	**7.65**	7.45	7.29	7.33	7.48	7.36	7.31	***7.03***	7.21	7.14	7.10	***7.00***	7.09	7.36	7.44

(3) 건강영역 - ② 주관적 건강상태

긍정 응답 68.1%, 보통 23.4%, 부정 응답 8.3%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4.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4.01), 부산(3.99) 순이었으며, 광주, 강원, 충남(3.81)과 전남(3.7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91)에 비해 16년(3.89)에는 근소하게 감소했지만, 17년(3.90)에는 근소하게 증가했고, 18년도(3.89)에는 다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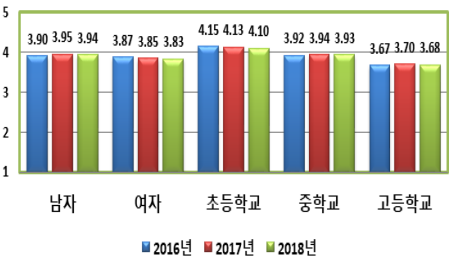


그림 Ⅲ-3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표 Ⅲ-4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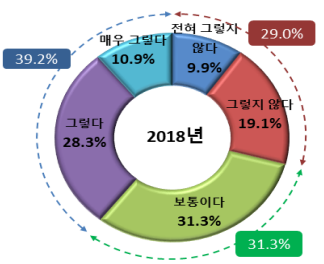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1**	3.94	4.07	3.98	4.01	3.82	3.91	3.86		3.89	3.98	3.81	3.92	3.71	3.76	3.84	3.88	4.00
16년	**3.89**	3.86	4.03	3.90	3.82	4.01	3.99	4.02	3.71	3.89	3.75	3.80	3.99	3.72	3.85	3.88	3.87	3.80
17년	**3.90**	3.89	3.95	4.05	3.99	3.93	4.00	3.96	3.97	3.91	3.73	3.84	3.86	3.78	3.89	3.84	3.88	4.01
18년	**3.89**	3.89	3.99	**4.01**	3.96	***3.81***	3.87	**4.02**	3.96	3.87	***3.81***	3.88	***3.81***	3.83	***3.72***	3.82	3.93	3.89

(3) 건강영역 - ③ 스트레스 정도

긍정 응답 39.2%, 보통 31.3%, 부정 응답 29.0%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3.2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3.25), 경북(3.23) 순이었으며, 부산(2.91)과 세종(2.8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4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11, 3.13, 3.14), 18년도(3.11)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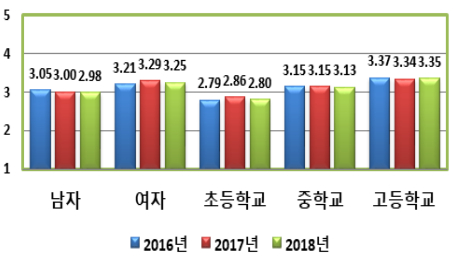


그림 Ⅲ-3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표 Ⅲ-5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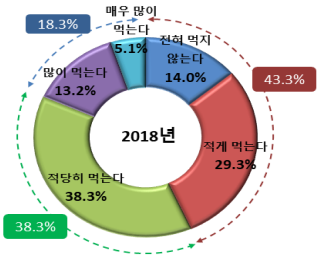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11**	3.17	3.00	2.93	3.07	3.17	3.33	3.15		3.13	2.80	3.25	3.04	3.08	3.17	3.13	3.05	3.07
16년	**3.13**	3.21	3.02	3.08	3.18	3.02	3.12	2.79	3.33	3.15	3.14	3.18	3.16	3.19	3.12	3.03	3.10	3.23
17년	**3.14**	3.20	3.07	3.05	3.06	3.19	3.12	3.10	3.00	3.10	3.23	3.22	3.24	3.21	3.09	3.15	3.18	3.04
18년	**3.11**	3.11	**2.91**	3.04	3.11	3.10	3.10	3.02	**2.87**	3.15	3.10	3.02	***3.25***	***3.27***	3.07	3.23	3.08	3.06

(3) 건강영역 - ④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많이 먹음 18.3%, 적당히 38.3%, 조금 29.3%, 전혀 안 먹음 14.0%

- 성별 비교에서는 16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17년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18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북(2.8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2.78), 대전(2.76) 순이었으며, 부산(2.53)과 세종(2.4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4, 2.54, 2.63, 2.66).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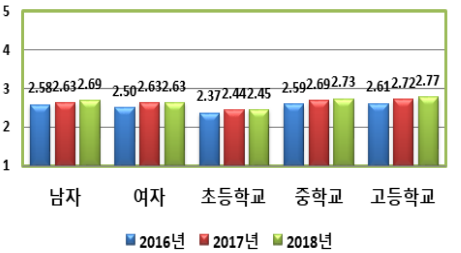


그림 Ⅲ-3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표 Ⅲ-5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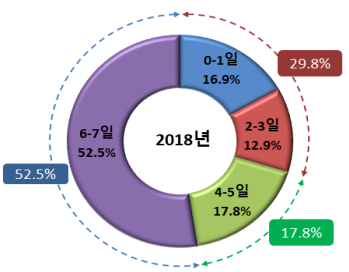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44**	2.40	2.38	2.43	2.38	2.43	2.49	2.56		2.45	2.42	2.59	2.35	2.50	2.45	2.48	2.46	2.44
16년	**2.54**	2.44	2.54	2.53	2.58	2.51	2.46	2.47	2.49	2.52	2.63	2.65	2.62	2.56	2.66	2.60	2.65	2.50
17년	**2.63**	2.62	2.58	2.51	2.64	2.56	2.48	2.68	2.43	2.60	2.59	2.69	2.72	2.66	2.78	2.72	2.75	2.50
18년	**2.66**	2.62	**2.53**	2.57	***2.78***	2.66	2.76	2.73	**2.44**	2.66	2.67	***2.82***	2.76	2.62	2.67	2.57	2.75	2.59

(3) 건강영역 - ⑤ 아침 식사율

6~7일 52.5%, 4~5일 17.8%, 0~3일 29.8%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를 한 날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5.1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5.13), 부산(5.05) 순이었으며, 충북(4.42)과 전북(4.3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12, 4.98, 4.91, 4.78).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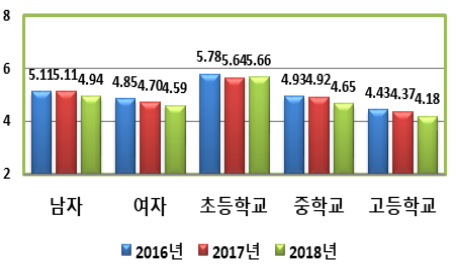


그림 Ⅲ-3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아침 식사율

표 Ⅲ-5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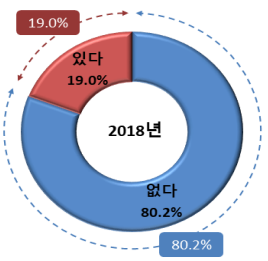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5.12**	5.10	5.29	5.12	5.08	5.12	5.05	4.88		5.08	5.29	5.02	5.50	4.99	4.84	5.15	5.19	5.29
16년	**4.98**	5.12	4.94	5.03	5.35	4.96	4.85	5.47	4.11	5.03	5.01	4.73	5.13	4.76	4.50	4.84	4.84	4.83
17년	**4.91**	4.80	4.78	5.18	4.93	4.57	4.92	5.11	5.37	5.11	4.67	5.11	4.87	4.55	4.94	4.82	4.67	5.42
18년	**4.78**	4.73	5.05	**5.13**	4.73	5.03	4.44	4.71	**5.14**	4.89	4.47	***4.42***	4.68	***4.32***	4.48	4.79	4.84	4.84

(3) 건강영역 - ⑥ 질병유무(있다)

질병 있다 19.0%, 질병 없다 80.2%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조사년도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남(2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21.2%), 인천(20.7%) 순이었으며, 전북(14.1%)과 대구(13.4%)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질병유무(있다)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19.1%)에 비해 16년도(21.3%)는 증가했지만 17년도(18.1%)에는 감소했고, 18년도(19.0%)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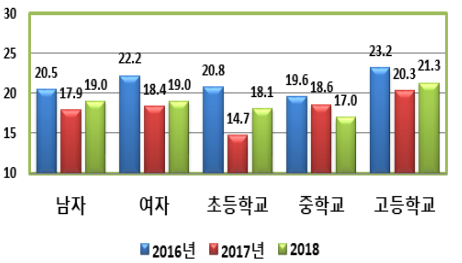


그림 Ⅲ-3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표 Ⅲ-5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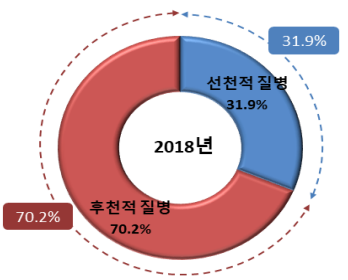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19.1**	21.1	17.4	12.1	17.9	18.3	24.2	18.3		16.6	15.9	24.7	19.5	23.5	18.4	24.9	20.7	25.6
16년	**21.3**	21.0	20.0	25.1	15.9	22.7	24.2	17.6	17.5	20.1	18.1	35.2	28.1	21.9	19.2	16.1	21.6	25.2
17년	**18.1**	20.1	20.4	18.2	17.2	11.3	17.8	13.5	17.8	17.2	15.6	17.1	19.5	27.4	18.4	15.7	18.6	18.9
18년	**19.0**	18.5	19.5	**13.4**	20.7	19.5	15.1	15.1	16.5	***21.2***	16.3	16.8	19.5	**14.1**	19.0	19.9	***21.3***	19.0

(3) 건강영역 - ⑥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후천적 질병 70.2%, 선천적 질병 33.2%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교가 후천적 질병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8년도에는 고등학교가 높았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89.6%)과 대전(83.4%)이 높았고, 대구(62.5%)와 경북(61.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질병유무(후천적 질병)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69.3%)에 비해 16년도(70.7%)는 증가했지만, 17년도(68.0%)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8년도(70.2%)에는 다시 조금 증가했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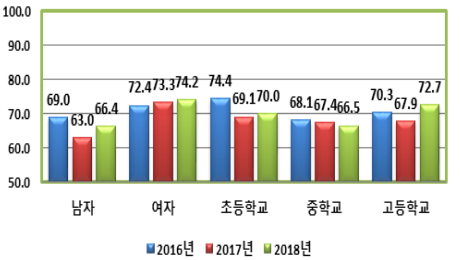


그림 Ⅲ-3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표 Ⅲ-5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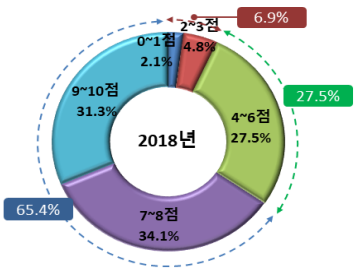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9.3**	68.9	70.1	70.1	71.0	63.1	78.1	64.5		69.7	76.4	66.5	70.7	64.0	77.1	57.1	66.1	80.4
16년	**70.7**	70.9	70.3	73.2	72.7	74.3	64.9	85.8	54.4	66.5	83.2	66.5	82.7	74.3	73.7	63.6	69.0	73.2
17년	**68.0**	64.7	76.9	58.3	60.5	54.5	65.1	74.1	68.3	66.4	61.3	70.0	73.2	75.4	73.0	77.3	73.8	62.7
18년	**70.2**	68.0	78.3	**62.5**	67.6	69.7	**83.4**	**89.6**	76.1	69.2	83.2	81.5	74.6	70.1	71.2	**61.0**	64.0	68.8

(4) 교육영역 - ①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65.4%, 보통(4~6점) 27.5%, 부정 응답(0~3점)은6.9%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7.46)과 세종(7.40) 순이었으며, 충북(6.85)과 전북(6.6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8, 7.10, 7.11, 7.14).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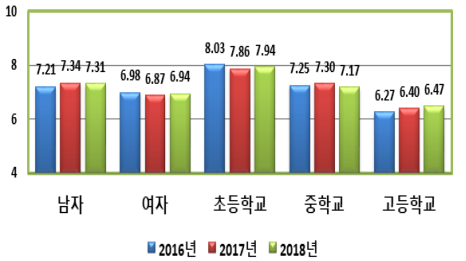


그림 Ⅲ-4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표 Ⅲ-5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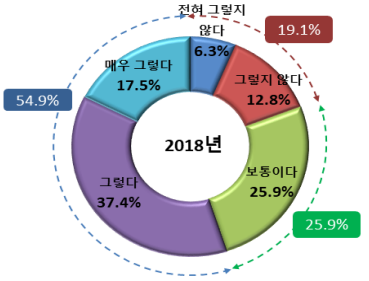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08**	7.14	7.57	7.08	7.29	6.89	7.06	6.74		7.02	7.18	6.86	7.32	6.65	6.65	6.91	7.23	7.27
16년	**7.10**	7.12	7.37	7.21	6.80	7.42	7.24	7.66	6.54	6.98	6.96	7.20	7.14	6.98	6.88	7.08	7.06	7.09
17년	**7.11**	7.02	7.42	7.47	7.36	7.04	7.00	7.21	7.15	7.18	6.68	6.94	7.28	6.81	7.15	6.69	7.05	7.42
18년	**7.14**	7.07	**7.46**	7.20	7.38	7.22	6.99	7.20	7.40	7.20	6.95	***6.85***	6.96	***6.64***	7.17	6.90	7.17	**7.70**

4) 교육영역 - ②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긍정 응답 54.9%, 보통 25.9%, 부정 응답 19.1%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중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3.7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3.54)과 인천(3.52) 순이었으며, 광주와 전남(3.25), 충북(3.2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2, 3.35, 3.45, 3.47).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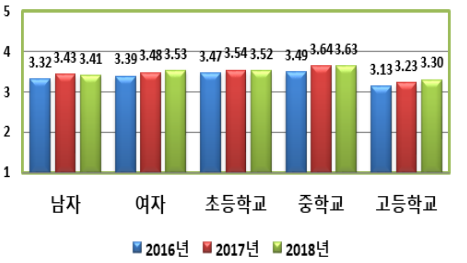


그림 Ⅲ-4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표 Ⅲ-5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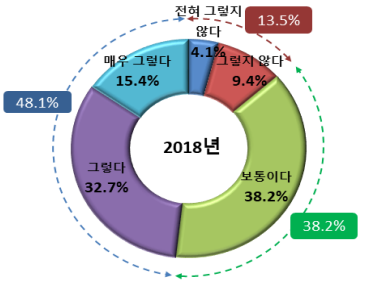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22**	3.33	3.23	3.28	3.36	3.16	3.14	3.11		3.22	3.11	3.11	3.39	3.05	3.07	3.18	3.06	3.29
16년	**3.35**	3.40	3.26	3.36	3.40	3.58	3.38	3.70	3.47	3.32	3.23	3.19	3.50	3.31	3.27	3.42	3.13	3.37
17년	**3.45**	3.50	3.49	3.45	3.69	3.42	3.29	3.58	3.50	3.48	3.44	3.17	3.45	3.29	3.50	3.37	3.30	3.56
18년	**3.47**	**3.54**	3.45	3.47	3.52	***3.25***	3.51	**3.72**	3.45	3.51	3.49	***3.23***	3.46	3.36	***3.25***	3.49	3.42	3.36

(4) 교육영역 - ③ 교과과정 만족도

긍정 응답 48.1%, 보통 38.2%, 부정 응답 13.5%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3.6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60), 인천(3.58) 순이었으며, 충북(3.33)과 강원(3.2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교과과정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5)에 비해 16년도(3.45)는 증가했지만 17년도(3.43)에는 감소하였고, 18년도(3.46)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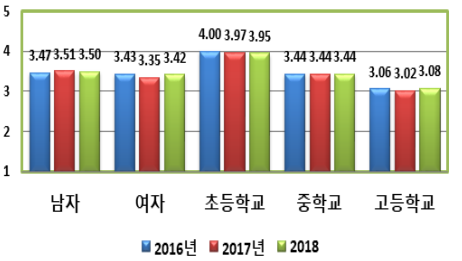


그림 Ⅲ-4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표 Ⅲ-5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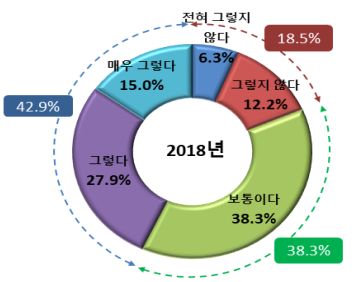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5**	3.41	3.60	3.31	3.47	3.26	3.40	3.06		3.30	3.39	3.15	3.33	3.33	3.28	3.39	3.38	3.39
16년	**3.45**	3.46	3.62	3.45	3.37	3.65	3.50	3.83	3.32	3.36	3.41	3.41	3.54	3.37	3.35	3.52	3.42	3.58
17년	**3.43**	3.42	3.54	3.51	3.54	3.43	3.46	3.38	3.51	3.43	3.39	3.38	3.55	3.24	3.40	3.27	3.40	3.57
18년	**3.46**	3.46	3.52	3.47	3.58	3.47	3.48	3.48	**3.61**	3.47	***3.24***	***3.33***	3.45	3.37	3.46	3.35	3.49	**3.60**

(4) 교육영역 - ④ 진로교육 만족도

긍정 응답은 42.9%, 보통 38.3%, 부정 응답 18.5%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3.4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47), 부산(3.43) 순이었으며, 경북(3.18)과 전북(3.15)이 타 시도에 비해 진로교육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0)에 비해 16년도(3.35)는 증가했지만 이후 17년도와 18년도(3.33)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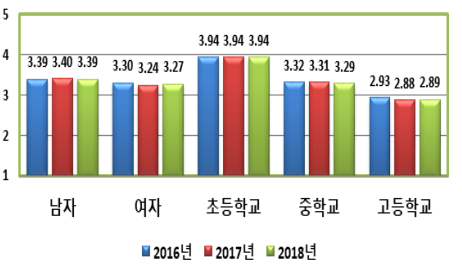


그림 Ⅲ-4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표 Ⅲ-5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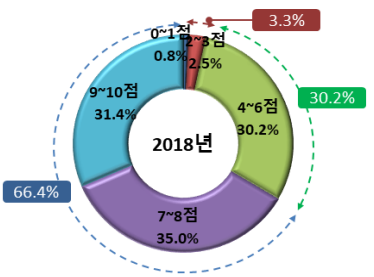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0**	3.34	3.52	3.23	3.45	3.36	3.37	3.11		3.24	3.23	3.10	3.31	3.31	3.21	3.37	3.28	3.43
16년	**3.35**	3.32	3.60	3.36	3.38	3.60	3.45	3.74	3.13	3.25	3.10	3.31	3.48	3.37	3.31	3.27	3.26	3.53
17년	**3.33**	3.33	3.41	3.31	3.50	3.35	3.24	3.24	3.25	3.34	3.23	3.33	3.42	3.21	3.44	3.11	3.23	3.52
18년	**3.33**	3.32	3.43	3.37	**3.47**	**3.48**	3.27	3.28	3.36	3.35	3.23	3.2	3.24	***3.15***	3.33	***3.18***	3.41	3.39

(5) 안전영역 - ① 전반적 안전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66.4%, 보통(4~6점) 30.2%, 부정 응답(0~3점) 3.3%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7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7.65), 부산(7.63) 순이었으며, 경북(6.95)과 전북(6.8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전반적 안전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7년도(7.24)에는 근소하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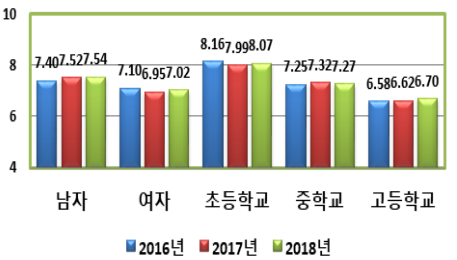


그림 Ⅲ-4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표 Ⅲ-5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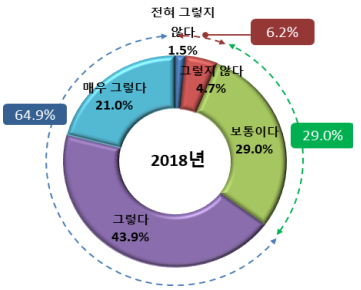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08**	7.18	7.53	7.18	7.27	6.93	7.09	6.88		6.93	7.22	6.75	7.17	6.70	6.79	7.00	7.17	7.51
16년	**7.26**	7.22	7.48	7.29	7.09	7.60	7.31	7.88	6.67	7.18	6.93	7.19	7.45	7.05	7.10	7.36	7.26	7.33
17년	**7.24**	7.25	7.59	7.60	7.52	7.18	7.24	7.26	7.33	7.23	6.75	7.11	7.26	6.81	7.43	6.78	7.24	7.73
18년	**7.29**	7.40	7.63	7.50	7.45	7.44	7.31	7.28	**7.65**	7.28	7.07	7.09	7.18	***6.87***	7.12	***6.95***	7.21	**7.71**

(5) 안전영역 - ② 학교시설 안전도

긍정 응답 64.9%, 보통 29.0%, 부정 응답 6.2%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91), 울산(3.90) 순이었으며, 충남, 전북(3.71)과 충북(3.59)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2, 3.72, 3.73, 3.78).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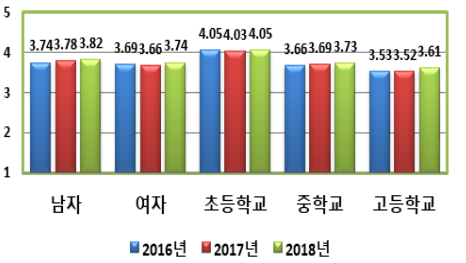


그림 Ⅲ-4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표 Ⅲ-6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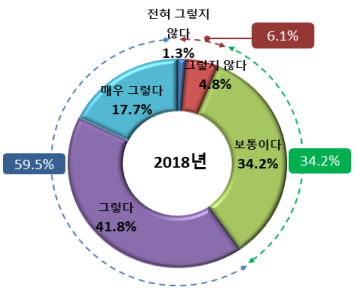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2**	3.69	3.88	3.70	3.69	3.57	3.60	3.43		3.54	3.62	3.52	3.65	3.41	3.60	3.52	3.60	3.86
16년	**3.72**	3.72	3.98	3.68	3.74	3.85	3.73	3.92	3.87	3.65	3.59	3.73	3.75	3.64	3.64	3.76	3.70	3.78
17년	**3.73**	3.78	3.90	3.80	3.83	3.65	3.86	3.68	3.88	3.72	3.58	3.60	3.71	3.44	3.76	3.58	3.72	3.78
18년	**3.78**	3.80	3.85	3.75	3.86	3.82	3.83	3.90	**4.04**	3.79	3.74	***3.59***	***3.71***	***3.71***	3.73	3.72	3.76	**3.91**

(5) 안전영역 - ③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긍정 응답 59.5%, 보통 34.2%, 부정 응답 6.1%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3.9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86), 부산(3.77) 순이었으며, 강원(3.57)과 충북(3.5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지역사회 시설안전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도 3.56, 16년도 3.64, 17년도 3.66, 18년도 3.70).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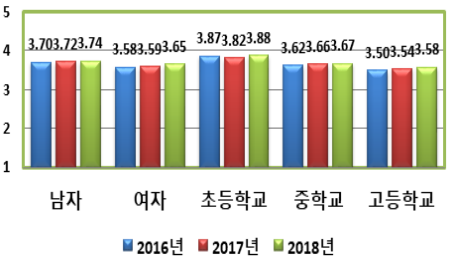


그림 Ⅲ-4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표 Ⅲ-6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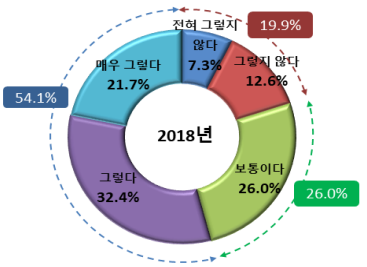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6**	3.60	3.75	3.62	3.61	3.50	3.58	3.55		3.50	3.51	3.47	3.60	3.47	3.53	3.46	3.54	3.71
16년	**3.64**	3.66	3.86	3.60	3.63	3.82	3.70	3.89	3.80	3.59	3.46	3.61	3.67	3.55	3.64	3.62	3.58	3.63
17년	**3.66**	3.72	3.82	3.72	3.71	3.61	3.77	3.72	3.75	3.63	3.51	3.56	3.67	3.51	3.68	3.55	3.59	3.79
18년	**3.70**	3.74	3.77	3.75	3.75	3.7	3.69	3.75	**3.98**	3.68	***3.57***	***3.52***	3.63	3.64	3.59	3.65	3.72	**3.86**

(5) 안전영역 - ④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긍정 응답 54.1%, 보통 26.0%, 부정 응답 19.9%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근소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3.7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3.70)이 높았으며, 세종(3.26)과 충북(3.19)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에 대한 4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47)에 비해 16년도(3.54)는 증가했지만 17년도(3.50)와 18년도(3.49)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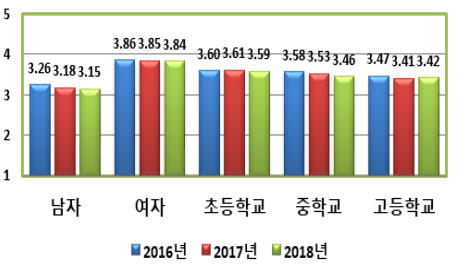


그림 Ⅲ-4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표 Ⅲ-6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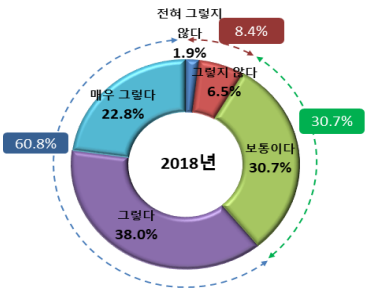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7**	3.53	3.52	3.36	3.47	3.35	3.49	3.42		3.52	3.27	3.43	3.44	3.41	3.43	3.36	3.45	3.51
16년	**3.54**	3.55	3.53	3.37	3.58	3.66	3.69	3.49	3.50	3.54	3.58	3.54	3.56	3.61	3.37	3.44	3.60	3.88
17년	**3.50**	3.46	3.47	3.60	3.52	3.66	3.44	3.33	3.51	3.49	3.57	3.47	3.55	3.54	3.56	3.45	3.58	3.43
18년	**3.49**	3.52	3.40	3.36	3.66	3.30	3.38	***3.70***	**3.26**	3.49	3.50	**3.19**	***3.74***	3.47	3.42	3.66	3.41	3.39

(5) 안전영역 - ⑤ 위기상황 대처능력

긍정 응답 60.8%, 보통 30.7%, 부정 응답 8.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86), 대구(3.83) 순이었으며, 충북(3.61)과 전남(3.57)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3.65, 3.69, 3.74), 18년도(3.73)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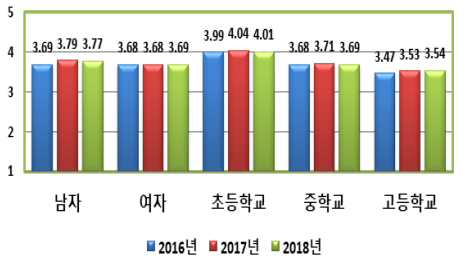


그림 Ⅲ-4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위기상황 대처능력

표 Ⅲ-6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위기상황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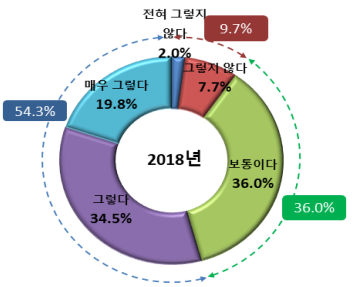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5**	3.64	3.84	3.77	3.79	3.54	3.71	3.58		3.60	3.65	3.52	3.70	3.52	3.53	3.69	3.68	3.68
16년	**3.69**	3.65	3.83	3.85	3.58	3.86	3.76	3.90	3.43	3.65	3.56	3.69	3.63	3.56	3.72	3.65	3.71	3.72
17년	**3.74**	3.70	3.90	3.88	3.90	3.65	3.78	3.72	3.80	3.75	3.53	3.61	3.72	3.66	3.73	3.66	3.69	3.71
18년	**3.73**	3.74	**3.86**	3.83	**3.88**	3.73	3.71	3.72	3.78	3.72	3.66	***3.61***	3.65	3.70	***3.57***	3.68	3.78	3.69

(5) 안전영역 - ⑥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긍정 응답 54.3%, 보통 36.0%, 부정 응답 9.7%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3.8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78), 인천(3.76) 순이었으며, 강원(3.42), 충남(3.3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에 대한 4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7, 3.55, 3.59, 3.62).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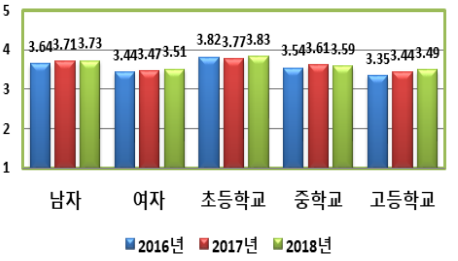


그림 Ⅲ-4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표 Ⅲ-6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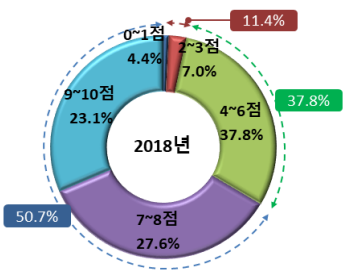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7**	3.43	3.62	3.44	3.68	3.53	3.48	3.58		3.42	3.43	3.39	3.47	3.45	3.31	3.56	3.54	3.40
16년	**3.55**	3.56	3.64	3.54	3.59	3.71	3.66	3.95	3.63	3.52	3.33	3.53	3.52	3.49	3.43	3.54	3.47	3.30
17년	**3.59**	3.59	3.74	3.74	3.73	3.41	3.59	3.74	3.61	3.59	3.42	3.59	3.65	3.42	3.53	3.53	3.50	3.62
18년	**3.62**	3.66	**3.78**	3.71	3.76	3.67	3.67	3.56	**3.83**	3.61	***3.42***	3.57	***3.37***	3.58	3.49	3.54	3.69	3.54

(6) 참여영역 - ①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50.7%, 보통(4~6점) 37.8%, 부정 응답(0~3점) 11.4%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졌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6.8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6.83), 광주(6.77) 순이었으며, 강원(6.14)과 경북(6.0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07, 6.18, 6.31, 6.42).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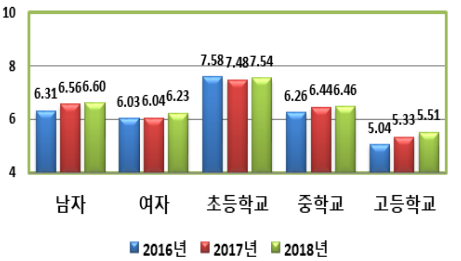


그림 Ⅲ-5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표 Ⅲ-6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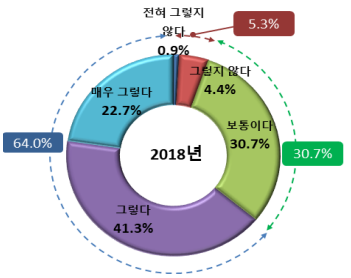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07**	6.02	6.58	6.12	6.48	6.04	6.06	5.56		5.95	5.83	5.83	6.21	5.99	5.96	6.22	6.26	6.20
16년	**6.18**	5.87	6.56	6.14	6.08	6.49	6.40	6.72	5.82	6.10	6.01	6.04	6.47	6.18	6.29	6.23	6.35	6.19
17년	**6.31**	6.23	6.43	6.49	6.64	6.45	6.17	6.27	6.33	6.34	6.10	6.17	6.46	6.24	6.22	5.96	6.27	6.71
18년	**6.42**	6.43	**6.87**	6.44	6.64	6.77	6.60	6.40	6.65	6.36	***6.14***	6.15	6.32	6.19	6.53	***6.01***	6.50	**6.83**

(6) 참여영역 - ② 아동권리 인지

긍정 응답 64.0%, 보통 30.7%, 부정 응답 5.3%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9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 대구(3.92), 광주(3.84) 순이었으며, 충북과 경북(3.6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5, 3.71, 3.79, 3.81).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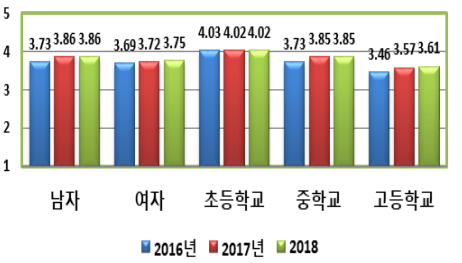


그림 Ⅲ-5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표 Ⅲ-6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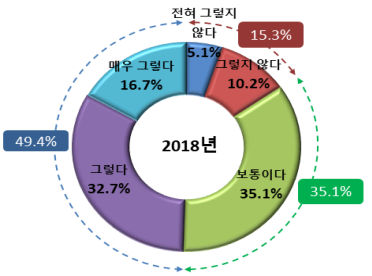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5**	3.65	3.81	3.77	3.78	3.65	3.61	3.56		3.62	3.62	3.53	3.66	3.64	3.48	3.57	3.64	3.76
16년	**3.71**	3.69	3.84	3.70	3.69	3.87	3.80	3.87	3.39	3.70	3.61	3.65	3.70	3.73	3.64	3.63	3.68	3.68
17년	**3.79**	3.79	3.90	3.89	3.93	3.75	3.73	3.77	3.83	3.81	3.73	3.65	3.81	3.71	3.89	3.64	3.72	3.82
18년	**3.81**	3.83	**3.92**	**3.92**	**3.95**	3.84	3.80	3.77	3.81	3.80	3.70	***3.66***	3.77	3.73	3.70	***3.66***	3.81	3.81

(6) 참여영역 - ③ 징계 소명권

긍정 응답 49.4%, 보통 35.1%, 부정 응답 15.3%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6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 세종(3.57) 순이었으며, 경북(3.27)과 충북(3.2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징계 소명권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6)에 비해 16년도(3.38)는 증가했지만 17년도(3.37)에는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18년도(3.46)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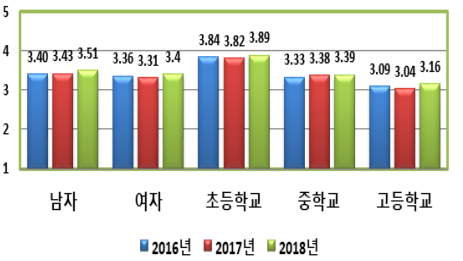


그림 Ⅲ-5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징계 소명권

표 Ⅲ-6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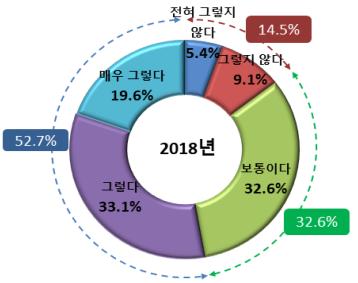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6**	3.37	3.51	3.34	3.47	3.32	3.35	3.22		3.41	3.37	3.17	3.34	3.26	3.14	3.31	3.37	3.38
16년	**3.38**	3.35	3.45	3.39	3.40	3.47	3.48	3.63	3.27	3.40	3.29	3.31	3.30	3.31	3.22	3.45	3.37	3.33
17년	**3.37**	3.29	3.46	3.48	3.55	3.38	3.43	3.34	3.55	3.42	3.37	3.27	3.50	3.16	3.38	3.23	3.30	3.44
18년	**3.46**	3.43	**3.57**	3.43	**3.60**	3.42	3.5	3.39	**3.57**	3.51	3.49	***3.25***	3.42	3.36	3.49	***3.27***	3.41	3.56

(6) 참여영역 - ④ 학칙 개정권

긍정 응답 52.7%, 보통 32.6%, 부정 응답 14.5%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7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3.71), 전남(3.61) 순이었으며, 경북(3.38)과 충남(3.3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34, 3.37, 3.45, 3.52).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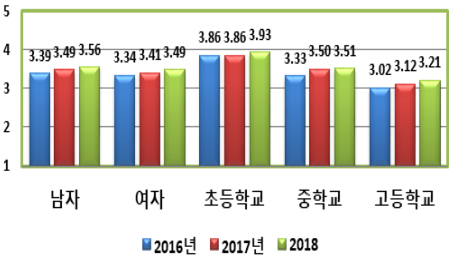


그림 Ⅲ-5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칙 개정권

표 Ⅲ-6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칙 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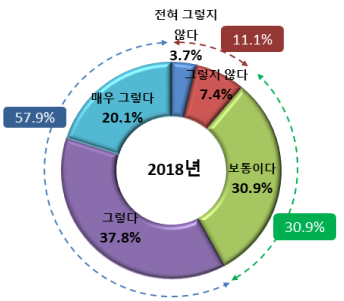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4**	3.41	3.47	3.22	3.38	3.42	3.28	3.16		3.41	3.40	3.11	3.19	3.12	3.26	3.26	3.32	3.39
16년	**3.37**	3.31	3.67	3.27	3.39	3.53	3.31	3.57	3.17	3.42	3.35	3.17	3.25	3.29	3.25	3.26	3.21	3.59
17년	**3.45**	3.38	3.45	3.53	3.65	3.63	3.44	3.27	3.61	3.56	3.47	3.23	3.62	3.20	3.51	3.17	3.31	3.55
18년	**3.52**	3.51	3.54	3.47	**3.76**	3.56	3.39	3.39	**3.71**	3.59	3.44	3.43	***3.33***	3.46	3.61	***3.38***	3.52	3.51

(6) 참여영역 - ⑤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긍정 응답 57.9%, 보통 30.9%, 부정 응답 11.1%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9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81), 세종(3.80) 순이었으며, 전남(3.59)과 강원(3.5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54, 3.60, 3.63, 3.68).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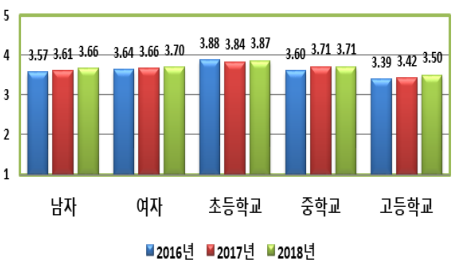


그림 Ⅲ-5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표 Ⅲ-6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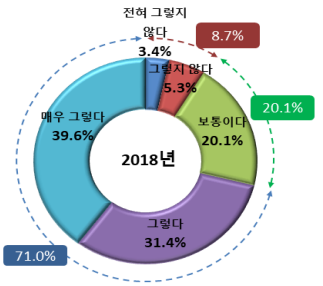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4**	3.58	3.76	3.45	3.55	3.46	3.54	3.48		3.54	3.49	3.59	3.47	3.35	3.38	3.57	3.48	3.82
16년	**3.60**	3.57	3.91	3.48	3.62	3.79	3.66	3.83	3.40	3.57	3.54	3.52	3.62	3.49	3.47	3.56	3.54	3.77
17년	**3.63**	3.58	3.76	3.74	3.80	3.84	3.69	3.53	3.67	3.65	3.58	3.55	3.71	3.47	3.67	3.42	3.55	3.66
18년	**3.68**	3.63	**3.81**	3.60	**3.90**	3.69	3.67	3.67	3.80	3.70	***3.52***	3.67	3.63	3.63	***3.59***	3.65	3.61	3.76

(6) 참여영역 - ⑥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긍정 응답 71.0%, 보통 20.1%, 부정 응답 8.7%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4.1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11), 세종(4.09) 순이었으며, 울산(3.89)과 충북(3.8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95)에 비해 16년도(3.90)는 감소했지만 17년도(3.96)에 이어 18년도(3.98)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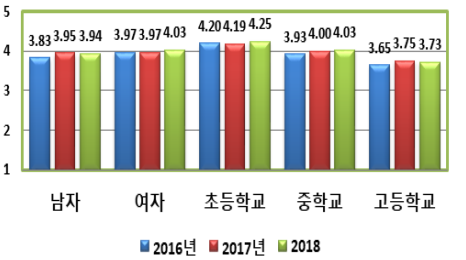


그림 Ⅲ-5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표 Ⅲ-7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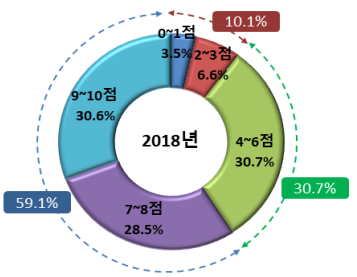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5**	3.98	4.07	3.98	4.07	3.86	4.00	3.71		3.92	3.87	3.80	3.97	3.96	3.89	4.00	3.88	4.08
16년	**3.90**	3.89	3.99	3.96	3.88	4.06	3.98	4.03	3.37	3.87	3.82	3.85	3.87	3.88	3.93	3.82	3.86	4.13
17년	**3.96**	3.91	4.09	3.98	4.13	3.97	3.91	3.87	4.13	3.98	3.82	3.87	4.02	3.98	4.02	3.83	3.89	4.05
18년	**3.98**	3.94	4.04	3.97	**4.16**	3.92	3.96	***3.89***	4.09	3.99	4.02	***3.82***	4.01	3.99	3.99	3.98	3.97	**4.11**

(7) 활동영역 - ①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긍정 응답(7~10점) 59.1%, 보통(4~6점) 30.7%, 부정 응답(0~3점) 10.1%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7.2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7.18), 제주(7.11) 순이었으며, 충북(6.57)과 경북(6.4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전반적 청소년활동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6.86, 6.80, 6.79), 18년도(6.85)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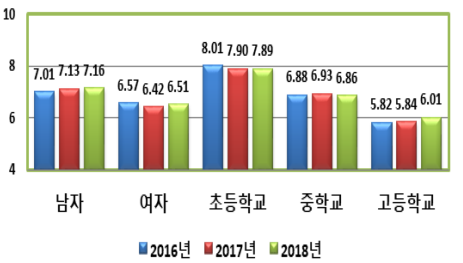


그림 Ⅲ-56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표 Ⅲ-71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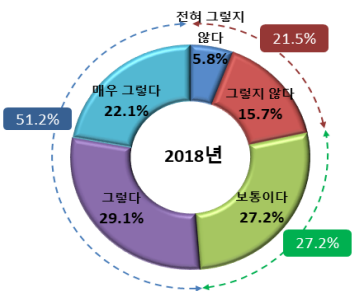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86**	6.89	7.17	6.95	7.16	6.67	6.67	6.35		6.85	6.89	6.47	6.98	6.92	6.47	6.76	6.99	7.08
16년	**6.80**	6.77	6.97	6.74	6.28	7.13	6.70	7.33	6.41	6.86	6.29	6.67	6.77	6.80	6.90	6.72	6.84	6.70
17년	**6.79**	6.76	7.01	7.00	7.01	6.85	6.68	6.52	6.85	6.86	6.41	6.81	6.95	6.43	6.78	6.36	6.71	7.33
18년	**6.85**	6.89	**7.27**	6.90	**7.18**	6.85	6.84	6.78	6.68	6.82	6.70	***6.57***	6.66	6.64	6.82	***6.46***	6.94	7.11

(7) 활동영역 - ②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긍정 응답 51.2%, 보통 27.2%, 부정 응답 21.5%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과 제주(3.56), 경남(3.54) 순이었으며, 강원(3.30), 경북(3.2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42)에 비해 16년(3.39)은 감소했지만, 17년(3.41)에 이어 18년도(3.46)에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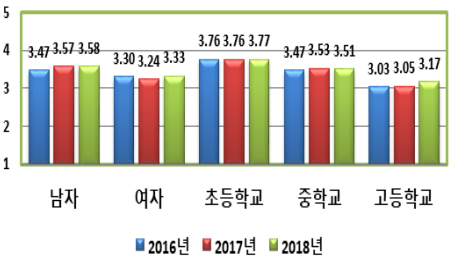


그림 Ⅲ-57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표 Ⅲ-72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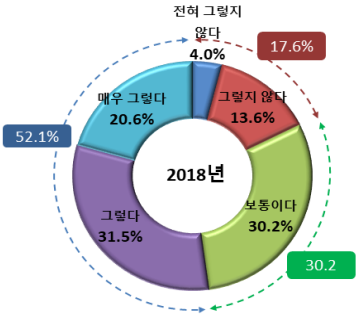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2**	3.47	3.45	3.49	3.49	3.28	3.38	3.24		3.48	3.33	3.19	3.35	3.52	3.18	3.25	3.43	3.46
16년	**3.39**	3.40	3.46	3.40	3.22	3.52	3.30	3.47	2.78	3.44	3.22	3.28	3.35	3.46	3.36	3.28	3.33	3.28
17년	**3.41**	3.42	3.49	3.42	3.45	3.39	3.38	3.18	3.52	3.44	3.37	3.33	3.36	3.29	3.47	3.29	3.45	3.60
18년	**3.46**	3.51	**3.56**	3.40	**3.62**	3.39	3.41	3.44	3.48	3.45	***3.30***	3.49	3.42	3.39	3.53	***3.20***	3.54	**3.56**

(7) 활동영역 - ③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긍정 응답 52.1%, 보통 30.2%, 부정 응답 17.6%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 인천, 제주(3.61)가 높았고, 강원(3.37), 충남(3.3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여가활동 공간만족도는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1, 3.46, 3.49, 3.51).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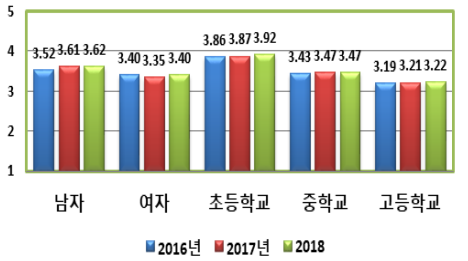


그림 Ⅲ-58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표 Ⅲ-73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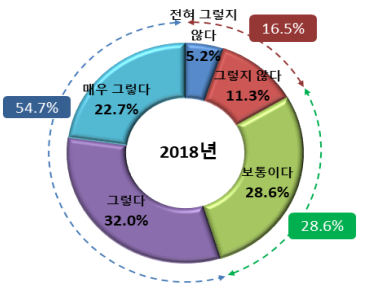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1**	3.38	3.44	3.41	3.55	3.34	3.37	3.40		3.45	3.45	3.37	3.41	3.37	3.37	3.29	3.45	3.35
16년	**3.46**	3.40	3.60	3.47	3.34	3.70	3.45	3.79	3.18	3.52	3.22	3.45	3.38	3.48	3.39	3.34	3.40	3.33
17년	**3.49**	3.49	3.59	3.55	3.53	3.52	3.43	3.50	3.49	3.52	3.35	3.37	3.54	3.31	3.51	3.41	3.38	3.68
18년	**3.51**	3.50	**3.61**	3.54	**3.61**	3.55	3.49	3.46	3.59	3.57	***3.37***	3.53	***3.30***	3.43	3.40	3.40	3.51	**3.61**

(7) 활동영역 - ④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긍정 응답 54.7%, 보통 28.6%, 부정 응답 16.5%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3.62)과 경남(3.61) 순이었으며, 대전(3.46)과 충남(3.46)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는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4, 3.47, 3.50, 3.56).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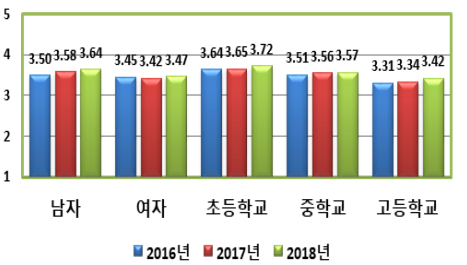


그림 Ⅲ-59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표 Ⅲ-74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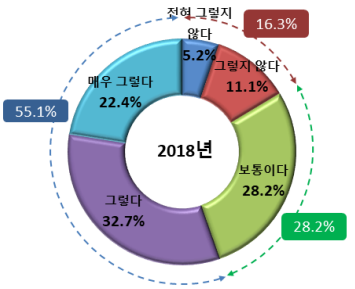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4**	3.45	3.58	3.45	3.51	3.34	3.38	3.35		3.43	3.65	3.30	3.51	3.32	3.18	3.44	3.45	3.50
16년	**3.47**	3.49	3.63	3.48	3.36	3.56	3.57	3.52	3.22	3.39	3.45	3.56	3.51	3.42	3.47	3.48	3.55	3.37
17년	**3.50**	3.49	3.56	3.66	3.58	3.50	3.39	3.58	3.51	3.51	3.43	3.49	3.55	3.43	3.57	3.40	3.40	3.62
18년	**3.56**	3.54	**3.70**	3.60	3.60	3.59	***3.46***	**3.62**	3.49	3.56	3.48	3.53	***3.46***	3.50	3.48	3.58	3.61	3.59

(7) 활동영역 - ⑤ 놀이친구 접근성

긍정 응답은 55.1%, 보통 28.2%, 부정 응답은 16.3%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16년에는 초등학교, 17년, 18년도에는 중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69), 울산(3.65)순이었으며, 전북(3.43)과 경북(3.4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놀이친구 접근성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53)에 비해 16년(3.48)은 감소했지만 17년(3.54)에 이어 18년도(3.56)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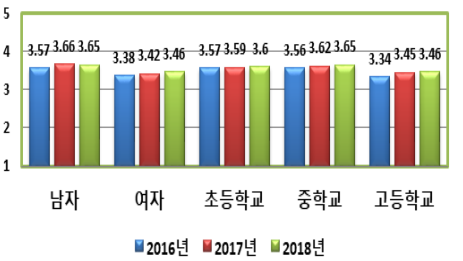


그림 Ⅲ-60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표 Ⅲ-75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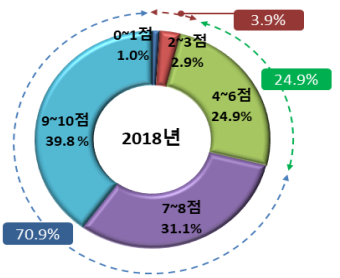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3**	3.60	3.60	3.60	3.68	3.45	3.49	3.54		3.57	3.52	3.36	3.53	3.41	3.34	3.41	3.48	3.35
16년	**3.48**	3.46	3.65	3.51	3.50	3.70	3.56	3.73	3.02	3.45	3.39	3.47	3.41	3.37	3.47	3.42	3.50	3.26
17년	**3.54**	3.50	3.60	3.59	3.65	3.68	3.61	3.55	3.59	3.62	3.35	3.48	3.45	3.33	3.57	3.51	3.46	3.45
18년	**3.56**	3.53	**3.70**	3.60	**3.69**	3.64	3.61	3.65	3.62	3.58	3.44	3.46	3.58	***3.43***	3.48	***3.41***	3.56	3.50

(8) 경제영역 - ① 가정경제 만족도

긍정 응답(0~3점) 70.9%, 보통(4~6점) 24.9%, 부정 응답(7~10점) 3.9%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7.9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7.89)와 부산(7.85) 순이었으며, 전남(7.30)과 전북(7.2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정경제 만족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32, 7.44, 7.48, 7.58).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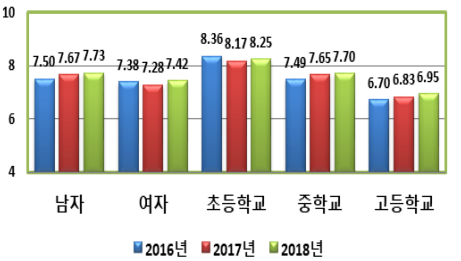


그림 Ⅲ-61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표 Ⅲ-76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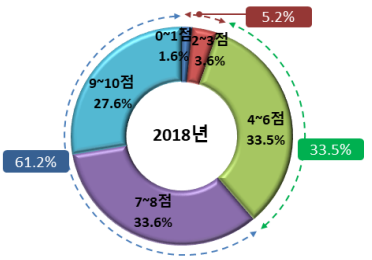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32**	7.41	7.58	7.26	7.53	7.26	7.30	7.38		7.22	7.47	6.95	7.68	7.10	6.82	7.28	7.37	7.57
16년	**7.44**	7.41	7.48	7.44	7.55	7.90	7.71	7.82	6.76	7.33	7.22	7.58	7.67	7.35	7.37	7.25	7.49	7.37
17년	**7.48**	7.45	7.61	7.82	7.82	7.41	7.63	7.56	7.62	7.57	7.15	7.19	7.53	7.24	7.46	7.13	7.18	7.89
18년	**7.58**	7.60	7.85	7.83	7.63	7.77	7.32	7.65	**7.91**	7.65	7.51	7.38	7.60	***7.22***	***7.30***	7.39	7.42	**7.89**

(9) 환경영역 - ①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긍정 응답(0~3점) 61.2%, 보통(4~6점) 33.5%, 부정 응답(7~10점) 5.2%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7.4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7.34), 부산(7.32) 순이었으며, 충남(6.64)과 경북(6.6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75, 6.84, 6.97, 7.02).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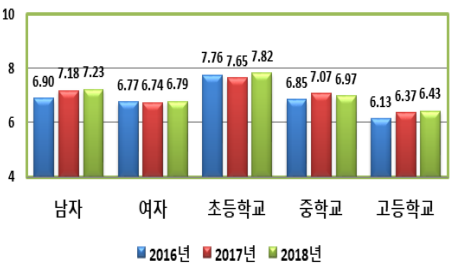


그림 Ⅲ-62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표 Ⅲ-77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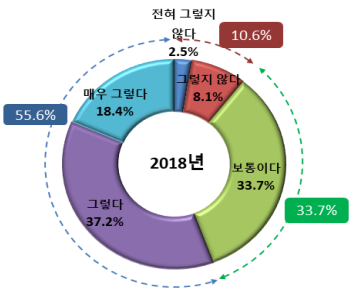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75**	6.79	7.11	6.87	6.84	6.59	6.90	6.73		6.66	6.67	6.49	6.71	6.49	6.42	6.67	6.85	7.18
16년	**6.84**	6.87	7.06	6.93	6.85	7.13	6.93	7.46	6.03	6.67	6.71	6.81	6.99	6.62	6.80	6.68	6.93	7.05
17년	**6.97**	7.01	7.21	7.32	7.05	7.08	7.00	7.16	7.21	7.03	6.68	6.79	7.00	6.62	6.85	6.57	6.64	7.48
18년	**7.02**	7.10	7.32	7.26	7.17	7.03	7.04	7.08	**7.48**	7.04	6.89	6.89	***6.64***	6.68	6.83	***6.62***	6.98	**7.34**

(9) 환경영역 - ②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긍정 응답은 55.6%, 보통 33.7%, 부정 응답은 10.6%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3.93)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3.72), 강원(3.70), 순이었으며, 충남(3.39)과 충북(3.3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4, 3.55, 3.60).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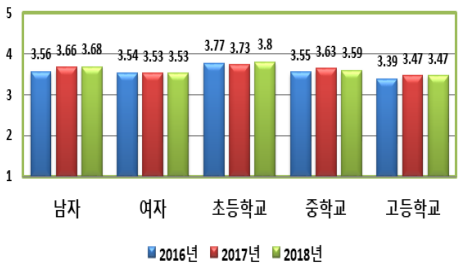


그림 Ⅲ-63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표 Ⅲ-78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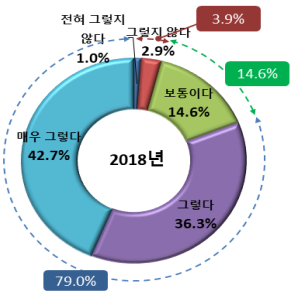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4**	3.43	3.57	3.56	3.43	3.41	3.47	3.49		3.35	3.58	3.39	3.43	3.44	3.48	3.51	3.42	3.67
16년	**3.55**	3.59	3.70	3.55	3.53	3.59	3.65	3.74	3.52	3.49	3.56	3.41	3.58	3.41	3.58	3.55	3.53	3.70
17년	**3.60**	3.56	3.70	3.81	3.69	3.54	3.72	3.70	3.76	3.59	3.57	3.45	3.61	3.56	3.67	3.47	3.45	3.77
18년	**3.61**	3.67	3.67	3.68	3.60	3.60	3.60	3.67	**3.93**	3.60	3.70	***3.37***	***3.39***	3.63	3.62	3.52	3.58	**3.72**

(9) 환경영역 - ③ 주택만족도

긍정 응답은 79.0%, 보통 14.6%, 부정 응답은 3.9%

- 성별 비교에서는 16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17년도와 18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4.3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29), 부산(4.28), 순이었으며, 전북, 전남(4.1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택만족도에 대한 4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14)에 비해 16년도와 17년도(4.19)에 크게 증가하였고, 18년도(4.20)에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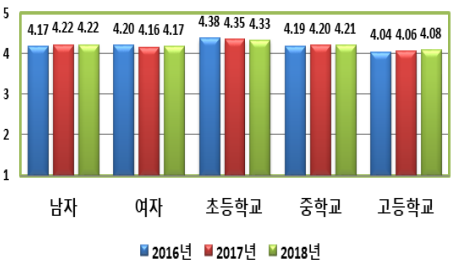


그림 Ⅲ-64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택만족도

표 Ⅲ-79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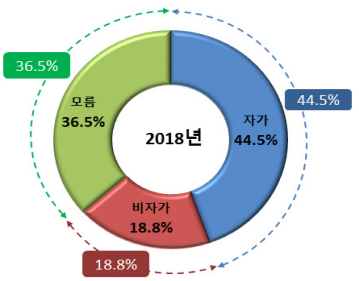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14**	4.19	4.22	4.16	4.22	4.12	4.14	4.11		4.11	4.16	3.99	4.19	4.08	4.02	4.09	4.13	4.19
16년	**4.19**	4.21	4.30	4.16	4.13	4.33	4.29	4.29	3.87	4.13	4.19	4.22	4.23	4.09	4.11	4.14	4.22	4.20
17년	**4.19**	4.18	4.23	4.33	4.27	4.28	4.18	4.14	4.26	4.20	4.02	4.11	4.23	4.03	4.16	4.11	4.17	4.29
18년	**4.20**	4.17	4.28	4.27	4.24	4.19	4.16	4.28	**4.37**	4.20	4.17	4.19	4.22	***4.12***	***4.12***	4.17	4.18	**4.29**

(9) 환경영역 - ④ 주거지 형태(자가)

자가 비율 44.5% 비 자가 18.8% 모름 36.5%

- 성별 비교는 년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큰 의미가 없었으며,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자가 주택에 관한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53.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49.9%), 전북(49.6%) 순이었으며, 대전(41.8%)과 서울(38.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거지 형태에 대한 4개년 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자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15년도(46.6%)에 비해 16년도(47.4%)는 증가했지만 17년도(46.5%)에 이어 18년도(44.5%)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6~2018년도 비교: 성별,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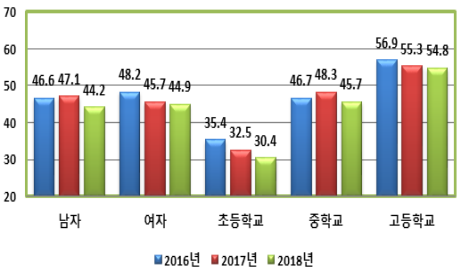


그림 Ⅲ-65 18년도 전체결과 및 16~18년도 성별, 교급별 비교: 주거지형태(자가)

표 Ⅲ-80 2015~18년도 시도별 비교: 주거지형태(자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47.4**	43.6	52.9	52.7	55.6	49.3	44.3	44.9	40.8	46.7	44.6	54.6	50.0	46.5	37.7	49.6	48.1	52.7
17년	**46.5**	41.7	45.5	51.5	48.5	48.4	49.4	53.8	54.2	44.9	43.6	46.5	44.4	49.2	51.7	49.6	49.8	49.9
18년	**44.5**	***38.3***	47.4	**53.9**	42.2	49.0	***41.8***	48.2	44.3	44.1	45.3	42.7	48.8	49.6	46.0	**49.9**	42.3	48.1

2) 객관적 지표 조사결과[21]

이 절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총 7개 영역(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계 및 환경 등), 3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14〉 참조).

객관적 지표 조사는 주관지표와 달리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 항목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지표의 형식과 특성에 따라 기존 통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시한 지표도 있고, 지표 정의서에 나와 있는 산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거나,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분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제시 방식은 각 지표에 대한 지표 정의서(정의, 단위/산식, 대상, 주기 및 구축년도, 지표의 출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 제시는 6개년(혹은 6회)의 조사주기를 기본으로 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조사주기에 따른 변화과정에 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표 산출 방식 및 지표 항목의 변화, 혹은 18년도 지표 미 산출 등 지표의 특성에 따라 1년(혹은 1회)부터 2~5년(혹은 2~5회)간의 결과만을 제시한 지표들도 있다.

한편, 18년도 각 객관적 지표에 대한 년도별(혹은 조사 주기별) 비교 분석 뿐 아니라 도시규모별(시지역/도지역)[22] 및 6개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23]현황을 재분석하여 비교 제시함으로써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와 권역별 차이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시도별 결과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1) 17년도 보고서(오해섭 외, 2017)의 객관적 지표 제시방법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22) 도시규모 구분기준(■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권역별 구분기준(■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 제주)

(1) 건강영역

① 건강상태 - 가. 청소년 비만율(BMI)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비만율(BMI)은 13.9%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5.5%)이 시지역(13.7%)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19.2%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이 17.8%, 충남이 17.2%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대전(12.8%), 경기(12.1%), 세종(9.9%)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제주와 경북(7.8%p)지역이 가장 높은 비만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경기(3.8%p), 전북(3.4%p), 세종(-0.7%p)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24)]

표 Ⅲ-81 청소년 비만율(BMI)

정의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위 / 산식	% /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연도	1년, 2005~2017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04-207.

24)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각 객관적 지표정의서의 정의, 산식, 출처 등 주요 내용은 분석결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이 연구의 2차년도(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와 3차년도 연구(성윤숙, 홍성효, 2015)를 통해 개발된 내용을 기본 틀로 하였기에 이후 지표에서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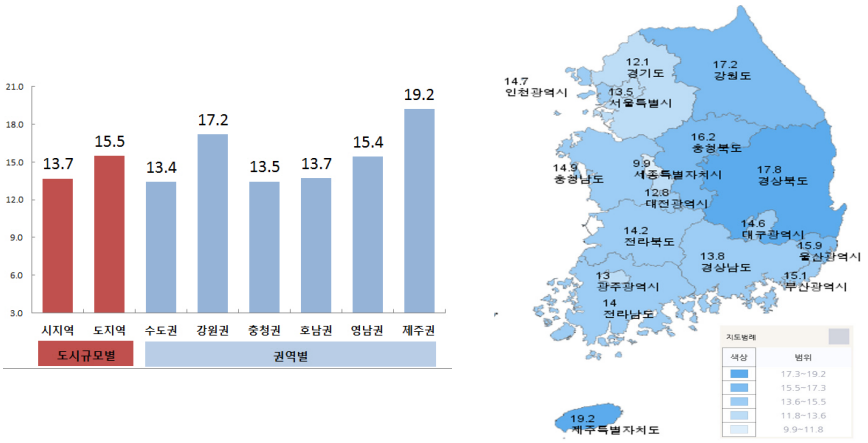


그림 Ⅲ-6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비만율 (2017)

표 Ⅲ-82 청소년 비만율(BMI)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9.2	9.8	10.1	10.9	12.8	13.9	4.7
서울	8.8	9.2	9.9	10.7	13.0	13.5	4.7
부산	9.4	9.6	10.5	11.5	13.6	15.1	5.7
대구	9.3	9.6	10.2	10.4	12.7	14.6	5.3
인천	9.3	10.6	11.1	11.5	13.9	14.7	5.4
광주	8.9	9.4	9.2	10.1	11.6	13.0	4.1
대전	8.3	10.3	9.7	9.9	12.2	12.8	4.5
울산	8.8	10.4	10.2	11.1	13.5	15.9	7.1
세종				10.6	9.5	9.9	−0.7[25]
경기	8.3	9.7	9.1	9.6	11.1	12.1	3.8
강원	12.9	10.3	11.8	12.4	15.9	17.2	4.3
충북	9.1	10.2	9.7	13.3	13.7	16.2	7.1
충남	9.8	10.1	11.3	12.1	14.4	14.9	5.1
전북	10.8	9.6	10.5	11.3	11.9	14.2	3.4
전남	9.8	7.9	9.7	12.2	14.8	14.0	4.2
경북	10.0	11.2	11.8	12.6	14.8	17.8	7.8
경남	9.1	10.0	10.0	10.9	13.2	13.8	4.7
제주	11.4	13.7	13.0	12.9	15.3	19.2	7.8

25) 세종시는 2011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17년에서 2015년도 값을 빼기하여 산출함. 이후 지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종시는 조사 시작년도와 가장 최근 조사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① 건강상태 - 나. 청소년 자살률

2016년 우리나라 10만 명 당 전체 청소년의 자살자 수는 8.3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에서는 도지역(9.0명)이 시지역(7.8명)보다 1.2명 높게 나타났고,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10.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 충북(9.9명), 충남(9.3명), 전남(9.0명)지역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북(6.8명), 울산(5.9명), 제주(5.0명)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1년에서 2016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의 감소폭(-4.7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3.8명), 대전(-3.1명)순 이었다. 반면, 서울(1.5명)과 충북(0.4명) 지역은 2011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83 청소년 자살률

정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단위 / 산식	명(10만 명 당 자살자 수) /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 ×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 ~ 2016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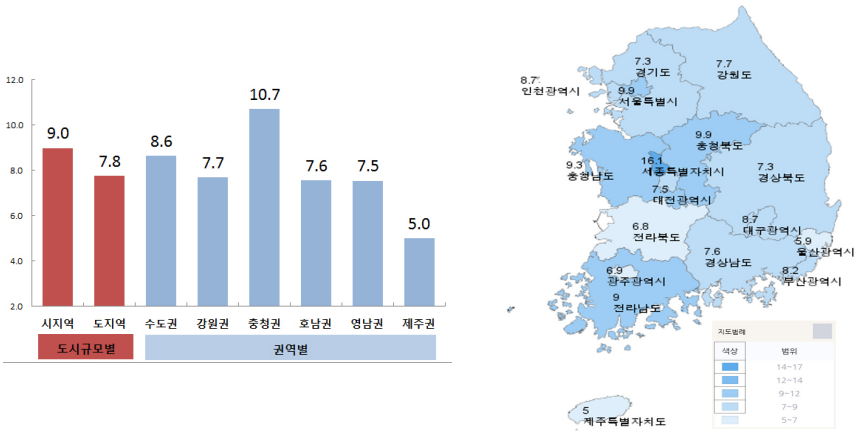


그림 Ⅲ-6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자살률 (2016)

표 Ⅲ-84 청소년 자살률 (2011~2016)

(단위: 명)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1
전국	9.4	8.4	8.2	7.8	7.6	8.3	-1.1
서울	8.4	7.9	9.4	8.6	7.3	9.9	1.5
부산	9.6	10.0	7.2	8.1	8.5	8.2	-1.4
대구	9.2	6.4	7.4	7.5	7.5	8.7	-0.5
인천	11.1	10.4	6.8	6.3	8.7	8.7	-2.4
광주	9.5	10.4	8.4	7.2	6.7	6.9	-2.6
대전	10.6	10.7	8.2	8.7	6.9	7.5	-3.1
울산	10.6	8.2	6.3	11.5	6.5	5.9	-4.7
세종		11.3	5.0	4.3	3.3	16.1	4.8[26]
경기	8.9	7.5	7.5	6.9	6.9	7.3	-1.6
강원	10.0	9.0	7.3	6.7	7.2	7.7	-2.3
충북	9.5	6.9	7.0	6.1	10.7	9.9	0.4
충남	11.6	7.8	9.2	10.7	11.7	9.3	-2.3
전북	10.6	8.2	7.0	7.9	7.8	6.8	-3.8
전남	9.6	12.0	13.1	10.0	8.1	9.0	-0.6
경북	9.9	9.5	8.8	8.6	8.2	7.3	-2.6
경남	9.1	6.1	8.7	6.1	5.9	7.6	-1.5
제주	6.8	13.6	9.3	7.6	8.4	5.0	-1.8

26) 세종시의 경우 10~24세 자살자 수가 6명에 불가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청소년 인구수가 작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상되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망.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좌측 결과분석에는 제시하지 않음.

② 건강결정요인 – 가. 신체 활동 실천율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13.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14.0%)이 도지역(13.8%)보다 더 높았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영남권이 14.5%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13.5%)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이 16.6%로 가장 높았고, 충남(15.3%), 대구(15.2%), 제주(14.3%) 순이었고, 대전(13.0%), 세종(12.8%)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신체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이 4.6%p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0.6%p)과 전북(0.5%p)지역의 증가율이 낮았다. 세종 지역은 신체 활동 실천율이 오히려 감소(-4.8%p)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85 신체 활동 실천율[27)]

정의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7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40-145.

27) 이전 연구에서는 지표명이 "평균운동 시간"이었으나, 이 지표의 데이터 출처에서는 '신체 활동 실천율'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출처의 지표명과 동일한 명칭으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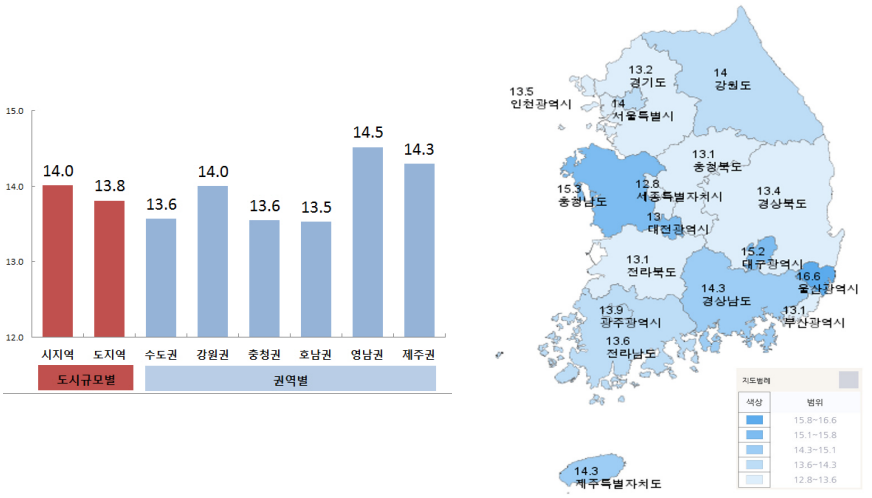


그림 Ⅲ-6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신체활동 실천율 (2017)

표 Ⅲ-86 신체활동 실천율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12.0	12.6	13.8	14.2	13.1	13.8	1.8
서울	12.5	13.1	14.9	15.3	13.8	14.0	1.5
부산	11.6	12.8	14.5	14.1	13.2	13.1	1.5
대구	12.5	12.8	14.4	14.9	13.9	15.2	2.7
인천	12.2	13.0	14.0	13.7	11.9	13.5	1.3
광주	10.8	12.1	13.9	12.6	13.0	13.9	3.1
대전	12.4	14.7	12.2	13.3	11.8	13.0	0.6
울산	12.7	12.7	13.1	13.3	11.9	16.6	3.9
세종				17.6	10.5	12.8	-4.8
경기	12.1	12.2	14.2	14.4	13.2	13.2	1.1
강원	11.6	12.2	14.1	12.8	13.5	14.0	2.4
충북	12.0	13.0	12.2	12.8	15.1	13.1	1.1
충남	10.7	12.6	12.6	12.7	13.5	15.3	4.6
전북	12.6	12.0	12.9	12.4	13.4	13.1	0.5
전남	10.6	12.2	12.5	15.6	12.3	13.6	3.0
경북	11.1	11.0	11.0	14.0	13.1	13.4	2.3
경남	12.6	12.3	14.0	14.9	12.2	14.3	1.7
제주	10.0	14.5	14.5	13.8	11.8	14.3	4.3

② 건강결정요인 – 나. 평균수면시간

2017년 우리나라 평균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4시간)이 시지역(6.2시간)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6.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6.4시간), 호남권(6.3시간), 충청권(6.3시간) 순이었고, 영남권과 수도권이(6.3시간)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과 경기가 6.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세종, 전북, 충남. 제주가(6.4시간) 동일하였다. 반면, 대전(6.0시간)과 서울(5.9시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평균수면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서울 지역이 -0.3시간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제주 지역은 오히려 0.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87 평균수면시간

정의	지난 주 주중(월 ~ 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단위	시간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7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58-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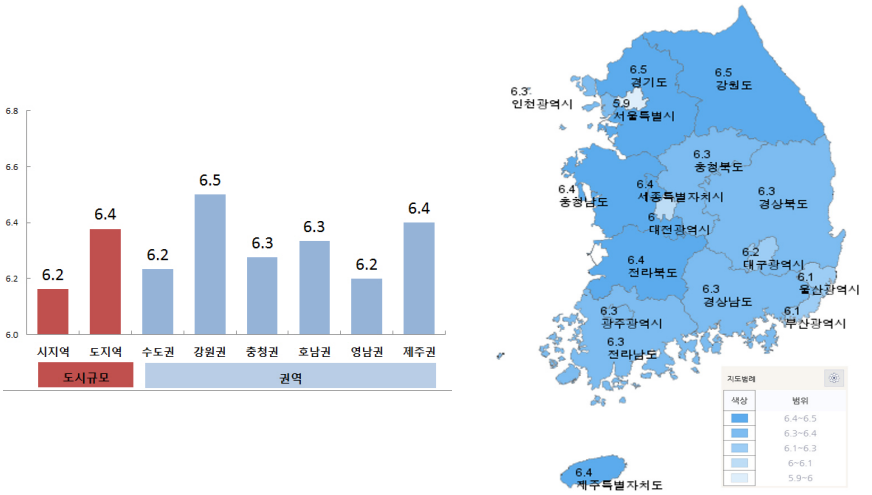


그림 Ⅲ-6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평균수면시간 (2017)

표 Ⅲ-88 평균수면시간 (2012~2017)

(단위: 시간)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6.4	6.4	6.3	6.4	6.3	6.3	-0.1
서울	6.2	6.3	6.2	6.1	6.1	5.9	-0.3
부산	6.3	6.3	6.4	6.3	6.2	6.1	-0.2
대구	6.4	6.4	6.4	6.3	6.3	6.2	-0.2
인천	6.3	6.4	6.3	6.5	6.4	6.3	0.0
광주	6.2	6.2	6.2	6.3	6.2	6.3	0.1
대전	6.2	6.3	6.2	6.1	6.0	6.0	-0.2
울산	6.3	6.3	6.3	6.2	6.1	6.1	-0.2
세종				6.6	6.4	6.4	-0.2
경기	6.4	6.4	6.4	6.6	6.5	6.5	0.1
강원	6.6	6.7	6.5	6.6	6.6	6.5	-0.1
충북	6.5	6.5	6.5	6.5	6.5	6.3	-0.2
충남	6.5	6.5	6.6	6.5	6.4	6.4	-0.1
전북	6.4	6.5	6.4	6.5	6.4	6.4	0.0
전남	6.5	6.5	6.4	6.4	6.3	6.3	-0.2
경북	6.4	6.5	6.4	6.3	6.3	6.3	-0.1
경남	6.4	6.4	6.4	6.5	6.3	6.3	-0.1
제주	6.2	6.3	6.4	6.6	6.4	6.4	0.2

② 건강결정요인 - 다. 청소년 흡연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흡연율은 6.4%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8%)이 시지역(5.9%)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호남권(7.6%), 영남권(6.3%) 순이었으며, 충청권(5.8%)과 제주권(5.0%)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남 8.0%로 가장 높았고, 전북(7.8%), 강원(7.8%), 경북(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4.9%), 제주, 부산(5.0%), 대전(5.1%)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낮았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강원(-9.9%p)지역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1.7%p)과 경북(-2.9%p)은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Ⅲ-89 청소년 흡연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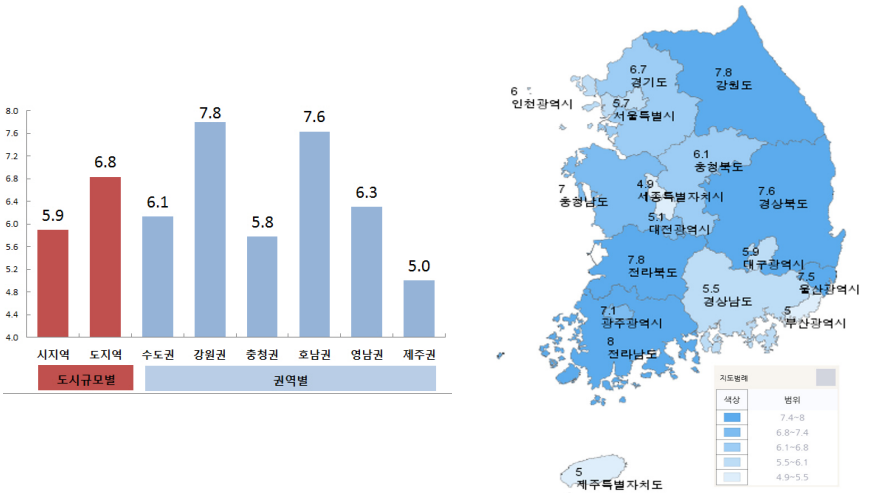


그림 Ⅲ-7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흡연율 (2017)

표 Ⅲ-90 청소년 흡연율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11.4	9.7	9.2	7.8	6.3	6.4	-5.0
서울	10.4	8.5	8.7	7.0	5.8	5.7	-4.7
부산	9.7	9.2	9.1	7.0	5.7	5.0	-4.7
대구	10.3	8.6	7.8	7.4	5.6	5.9	-4.4
인천	10.2	9.5	8.9	7.3	5.7	6.0	-4.2
광주	12.0	11.0	9.6	10.1	7.1	7.1	-4.9
대전	10.8	9.1	8.5	7.0	6.2	5.1	-5.7
울산	10.9	11.8	10.2	9.7	5.1	7.5	-3.4
세종				6.6	6.3	4.9	-1.7
경기	11.2	10.0	8.9	8.1	6.3	6.7	-4.5
강원	17.7	11.5	8.1	8.3	7.4	7.8	-9.9
충북	12.6	10.0	10.8	9.0	6.9	6.1	-6.5
충남	13.4	11.7	10.4	8.1	6.6	7.0	-6.4
전북	13.3	11.4	9.9	8.7	7.0	7.8	-5.5
전남	13.0	8.8	11.0	6.9	7.1	8.0	-5.0
경북	10.5	10.2	11.3	7.5	7.1	7.6	-2.9
경남	11.6	9.7	9.4	7.0	7.2	5.5	-6.1
제주	13.0	10.8	8.6	8.6	5.7	5.0	-8.0

② 건강결정요인 - 라. 청소년 음주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16.1%로 전년도에 비해 1.1%p 더 높아졌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6.7%)이 시지역(15.2%)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16.9%), 영남권(16.1%) 순이었으며, 수도권(15.3%)과 제주권(12.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이 19.6%로 가장 높았고, 경북(18.0%), 충북(17.6%), 경남(17.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1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강원 지역(-6.8%p)이 2012년에 비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지역(-0.1%p)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 지표정의서

표 Ⅲ-91 청소년 음주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7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0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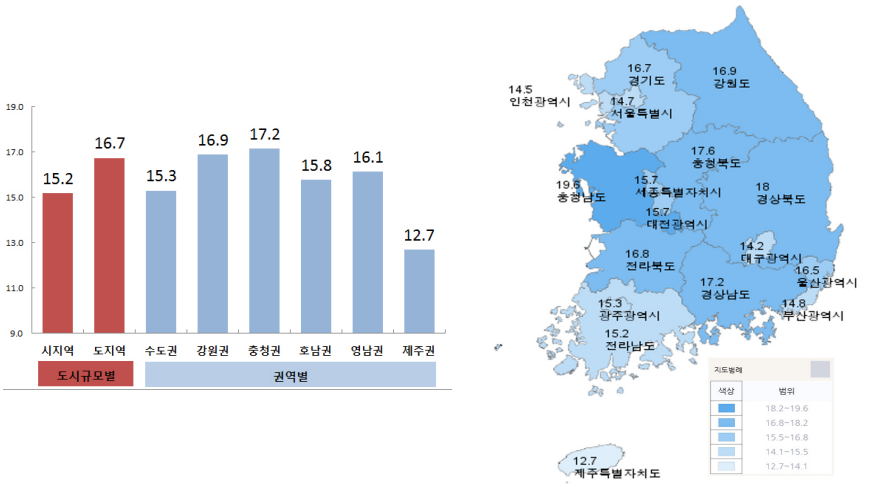


그림 Ⅲ-7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 (2017)

표 Ⅲ-92 청소년 음주율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19.4	16.3	16.7	16.7	15.0	16.1	-3.3
서울	18.3	15.1	16.7	14.9	13.7	14.7	-3.6
부산	18.3	16.1	16.9	17.6	15.0	14.8	-3.5
대구	17.9	14.6	14.7	16.7	13.0	14.2	-3.7
인천	17.7	14.6	15.2	15.0	12.6	14.5	-3.2
광주	16.2	13.5	14.8	16.7	13.5	15.3	-0.9
대전	19.4	16.0	15.8	15.4	13.1	15.7	-3.7
울산	19.2	16.7	16.4	18.3	12.8	16.5	-2.7
세종				17.3	12.5	15.7	-1.6
경기	20.3	17.0	16.7	17.3	15.5	16.7	-3.6
강원	23.7	17.8	14.4	16.2	16.9	16.9	-6.8
충북	22.1	16.2	18.6	19.6	17.1	17.6	-4.5
충남	22.1	18.9	20.8	19.4	17.7	19.6	-2.5
전북	19.1	16.8	17.9	18.5	16.1	16.8	-2.3
전남	20.6	16.4	19.4	14.4	15.8	15.2	-5.4
경북	18.1	18.6	16.3	17.3	17.0	18.0	-0.1
경남	20.3	16.6	17.6	17.5	16.9	17.2	-3.1
제주	18.7	14.4	14.7	12.7	9.5	12.7	-6.0

② 건강결정요인 - 마. 스마트폰 과의존율[28)]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16년도의 경우 30.6%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28.6%)이 도지역(27.0%)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31.2%), 영남권(27.2%) 순이었으며, 강원권(22.6%)과 제주권(20.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35.9%), 세종(35.1%), 경기(34.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14.1%), 제주(20.7%), 전남(20.8%)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17개 시도별 결과를 보며, 대구가 가장 높은 6.9%p를 나타냈고 경기(5.5%), 서울(5.0%)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과 전북(0.4%), 울산(0.5%)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Ⅲ-93 스마트폰 과의존율

정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단위	%
대상	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본 지표의 분석 대상 10~19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4~2016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원자료.

28) 2015년도까지 진행되어온 "인터넷중독 실태조사"가 2016년부터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조사명이 변경되었고, 조사척도는 기존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17년도부터는 시도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16년도 자료로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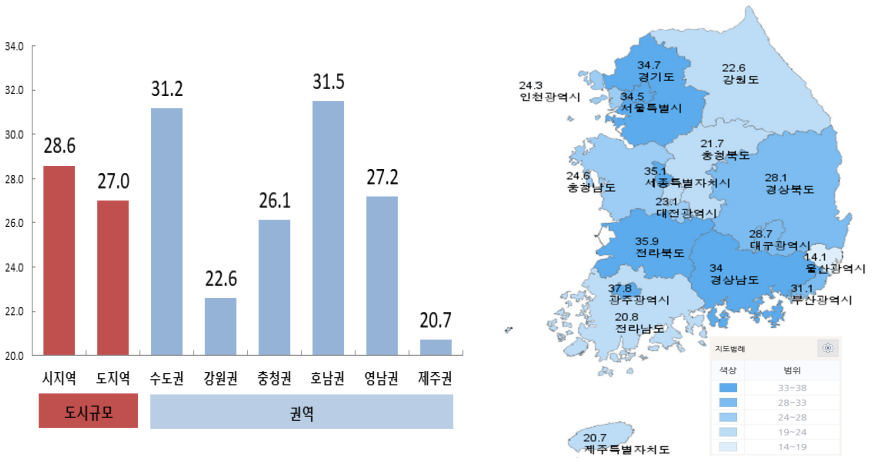


그림 Ⅲ-7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6)

표 Ⅲ-94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6)

(단위: %, %p)

시도 전국	2016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과 의존율
전국	69.4	27.1	3.5	30.6
서울	65.5	29.5	5.0	34.5
부산	68.9	29.7	1.3	31.1
대구	71.3	21.8	6.9	28.7
인천	75.7	21.0	3.3	24.3
광주	62.2	36.8	1.0	37.8
대전	76.9	21.0	2.1	23.1
울산	85.9	13.6	0.5	14.1
세종	64.9	33.8	1.3	35.1
경기	65.3	29.2	5.5	34.7
강원	77.4	22.2	0.4	22.6
충북	78.3	19.8	2.0	21.7
충남	75.4	23.6	1.0	24.6
전북	64.1	35.4	0.4	35.9
전남	79.2	19.2	1.6	20.8
경북	71.9	25.3	2.8	28.1
경남	66.0	31.7	2.3	34.0
제주	79.3	20.7	-	20.7

(2) 교육영역

① 교육기회 - 가. 학업중단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율은 0.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0.8%)이 시지역(0.7%)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강원권(0.8%) 순이었으며, 호남권(0.6%), 영남권(0.6%), 제주권(0.5%)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1.2%로 가장 높았고, 경기(0.9%), 대전(0.8%), 부산(0.8%)등이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0.5%)와 울산(0.5%)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0.4%p)이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 감소율을 나타냈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0.2~-0.3%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95 학업중단율

정의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사망, 자살 제외)**
단위 / 산식	% /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 학생 수/학생 수)×100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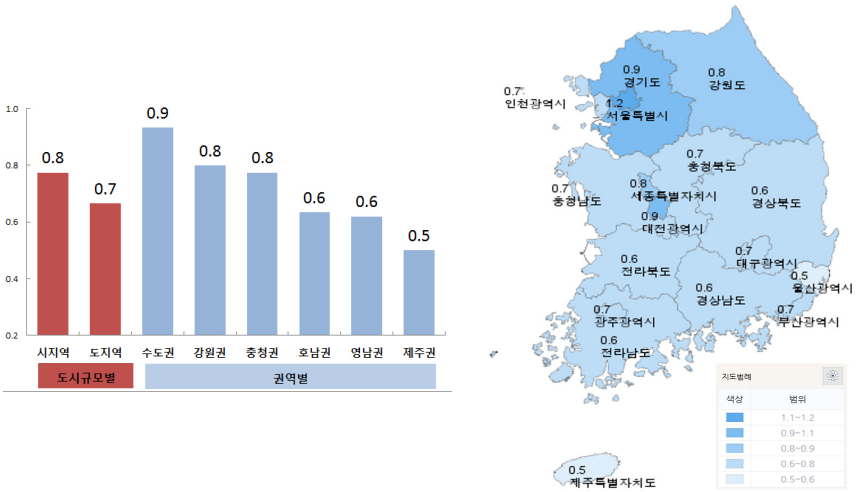


그림 Ⅲ-7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업중단율 (2017)

표 Ⅲ-96 학업중단율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1.1	1.0	0.9	0.9	0.8	0.8	-0.3
서울	1.5	1.4	1.3	1.2	1.1	1.2	-0.3
부산	1.0	1.0	0.9	0.8	0.8	0.7	-0.3
대구	0.8	0.8	0.7	0.6	0.6	0.7	-0.1
인천	1.0	0.9	0.8	0.7	0.7	0.7	-0.3
광주	0.9	0.8	0.8	0.7	0.7	0.7	-0.2
대전	1.2	1.1	1.1	1.0	0.8	0.9	-0.3
울산	0.9	0.8	0.8	0.6	0.5	0.5	-0.4
세종			0.9	0.7	0.8	0.8	-0.1
경기	1.2	1.2	1.1	1.0	0.9	0.9	-0.3
강원	1.0	1.0	0.8	0.8	0.7	0.8	-0.2
충북	0.9	0.8	0.8	0.7	0.7	0.7	-0.2
충남	0.9	0.9	0.8	0.7	0.7	0.7	-0.2
전북	0.9	0.8	0.7	0.7	0.6	0.6	-0.3
전남	0.9	0.8	0.7	0.7	0.6	0.6	-0.3
경북	0.8	0.7	0.7	0.6	0.6	0.6	-0.2
경남	0.8	0.7	0.7	0.6	0.6	0.6	-0.2
제주	0.7	0.7	0.7	0.6	0.5	0.5	-0.2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가.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7년 우리나라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평균 22.3명, 중학교는 평균 26.4명, 고등학교는 평균 28.2명으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해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25.0명)와 중학교(29.1명)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광주가 (31.6명) 가장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강원이 17.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세종이 각각 21.8명, 22.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초, 중, 고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대전이 6.4명으로 가장 많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대구와 광주(11.0명) 고등학교에서는 울산(7.3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97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정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단위 / 산식	명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학급 수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65~2017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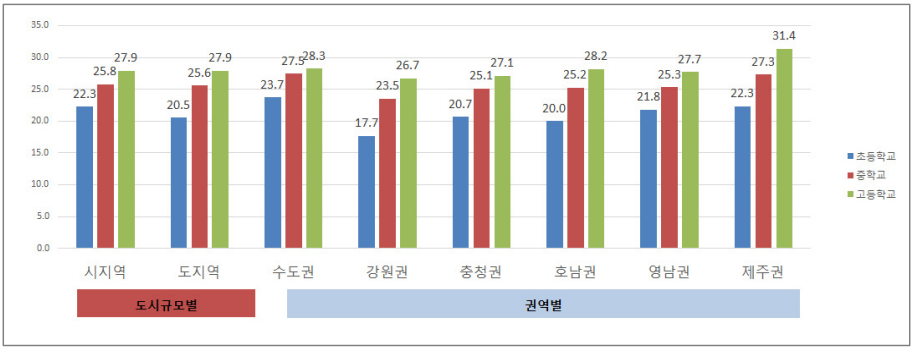


그림 Ⅲ-74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급당 학생 수 (2017)

표 Ⅲ-9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0~2017)

(단위: 명)

시도	2010			2012			2014			2016			2017			2017~2010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국	26.6	33.8	33.7	24.3	32.4	32.5	22.8	30.5	30.9	22.4	27.4	29.3	22.3	26.4	28.2	-4.3	-7.4	-5.5
서울	27.8	33.9	34.4	25.5	32.0	32.8	24.3	30.2	30.9	23.4	26.6	29.7	23.0	25.6	28.6	-4.8	-8.3	-5.8
부산	25.7	33.1	33.0	23.7	31.7	31.1	22.0	29.8	28.9	22.0	26.9	27.4	22.1	25.8	26.3	-3.6	-7.3	-6.7
대구	27.6	36.2	35.2	24.6	34.1	34.2	22.3	31.2	32.1	22.6	26.4	30.2	22.6	25.2	28.9	-5.0	-11.0	-6.3
인천	26.5	37.5	33.7	24.5	34.6	31.6	23.2	32.5	30.1	23.0	28.7	28.4	23.1	27.7	27.3	-3.4	-9.8	-6.4
광주	28.0	36.9	36.9	25.2	34.4	35.6	23.4	32.4	34.7	22.4	27.8	33.0	22.1	25.9	31.6	-5.9	-11.0	-5.3
대전	28.0	34.6	34.5	24.8	32.8	34.0	23.1	31.4	32.7	21.7	28.6	30.8	21.6	27.9	29.2	-6.4	-6.7	-5.3
울산	27.5	34.0	36.3	24.9	31.8	34.8	22.8	29.8	32.6	22.8	27.1	30.6	22.6	26.2	29.0	-4.9	-7.8	-7.3
세종							20.0	23.1	25.0	21.6	22.5	23.3	20.9	21.8	22.3	0.9	-1.3	-2.7
경기	29.5	35.9	36.1	27.0	34.6	34.3	25.2	32.1	32.0	25.0	29.7	30.1	25.0	29.1	28.9	-4.5	-6.8	-7.2
강원	22.5	30.8	29.9	20.3	29.9	29.5	18.6	28.3	29.4	17.9	24.8	28.1	17.7	23.5	26.7	-4.8	-7.3	-3.2
충북	25.5	31.8	33.2	22.3	30.6	32.6	20.8	29.0	31.5	19.7	25.9	29.7	19.8	25.0	28.5	-5.7	-6.8	-4.7
충남	23.8	31.2	31.2	21.7	30.8	31.3	20.6	29.3	30.6	20.4	26.9	29.4	20.3	25.8	28.5	-3.5	-5.4	-2.7
전북	23.1	31.1	30.3	21.3	30.4	30.1	19.7	29.7	29.3	19.3	27.4	28.2	19.3	26.0	27.2	-3.8	-5.1	-3.1
전남	21.6	30.0	28.6	19.8	29.5	28.5	18.8	27.9	27.7	18.6	24.8	26.6	18.5	23.8	25.7	-3.1	-6.2	-2.9
경북	23.3	30.0	30.4	21.8	29.1	29.6	20.7	27.8	28.5	20.5	24.0	27.0	20.6	22.8	26.0	-2.7	-7.2	-4.4
경남	25.7	32.2	32.7	23.3	31.1	31.8	21.7	30.1	30.3	21.2	27.9	29.2	21.0	26.7	28.2	-4.7	-5.5	-4.5
제주	26.3	35.5	35.0	24.0	33.7	34.8	22.1	31.9	33.3	22.0	28.4	32.2	22.3	27.3	31.4	-4.0	-8.2	-3.6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나. 학업 성취도

2016년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 이상 비율은 전체 81.3%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3.5%)이 도지역(79.3%)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영남권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84.2%), 충청권(81.0%) 순이었으며, 호남권(79.1%)과 강원권(75.4%)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이 89.1%로 가장 높았고, 대구(88.7%), 부산(85.3%), 대전(85.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77.2%), 강원(75.4%)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업성취도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울산(4.2%p)지역의 학업성취도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대구 4.1%p, 강원이 3.2%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의 경우 1.1%p만이 증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Ⅲ-99 학업성취도[29)]

정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이상 비율의 평균 결과
단위	%
대상	중3, 고2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교육부 (2016)

29) 2015년에 성취수준 재설정으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가항목이 변경되어 2015년과 2016년의 2개년 자료만 분석하였음. 2017년부터는 기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었고, 시도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하여 16년 결과로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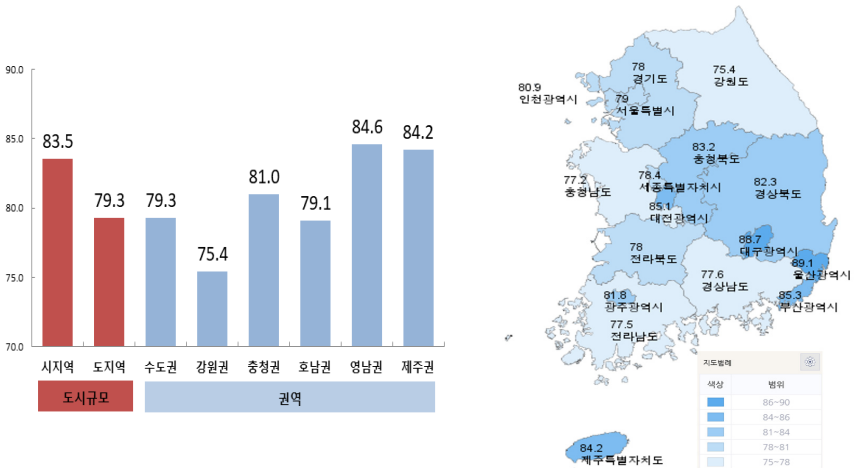


그림 Ⅲ-7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업성취도 (2016)

표 Ⅲ-100 학업성취도 (2015~2016)

(단위: %, %p)

시도	2015[30]	2016	2016~2015
전국	78.6	81.3	2.7
서울	76.5	79.0	2.5
부산	82.4	85.3	2.9
대구	84.6	88.7	4.1
인천	78.5	80.9	2.4
광주	79.3	81.8	2.5
대전	82.4	85.1	2.7
울산	84.9	89.1	4.2
세종	76.9	78.4	1.5
경기	74.8	78.0	3.2
강원	72.0	75.4	3.4
충북	82.1	83.2	1.1
충남	75.0	77.2	2.2
전북	75.3	78.0	2.7
전남	74.3	77.5	3.2
경북	80.4	82.3	1.9
경남	74.9	77.6	2.7
제주	81.1	84.2	3.1

30) 2015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 재설정으로 인해 2015년 자료부터 보고서에 작성함.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다. 사교육비 지출액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27.9만원)이 도지역(20.8만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30.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액에 관한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30.0만원), 경기(28.6만원), 부산(27.6만원)등의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18.9만원), 충남(18.9만원), 전남(15.7만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7.8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를 나타냈고, 대구(5.2만원), 경기(3.7만원)와 부산(4.6만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1.2만원), 충남, 울산, 경북(1.1만원), 경남(0.8만원) 등으로 낮았고, 전남은 -.1.5만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세종이 단기간(14~18) 동안 사교육비 지출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01 사교육비 지출액

정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만원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9~2017
출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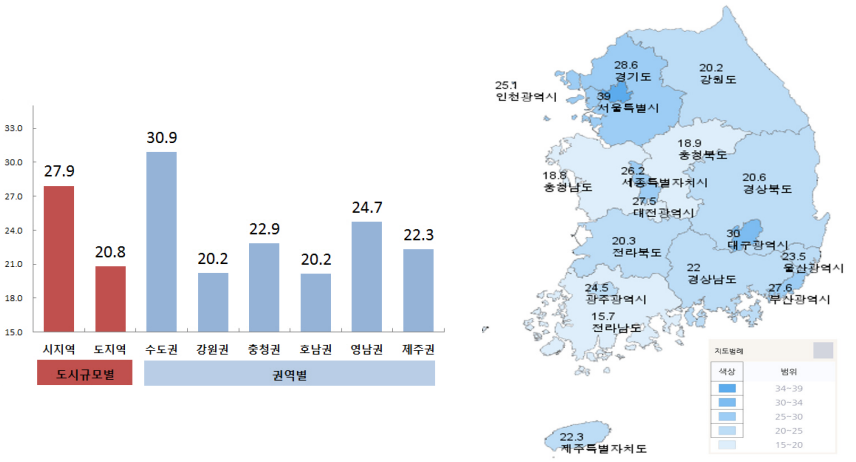


그림 Ⅲ-7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액 (2017)

표 Ⅲ-102 사교육비 지출액 (2012~2017)

(단위: 만원)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23.6	23.9	24.2	24.4	25.6	27.1	3.5
서울	31.2	32.8	33.5	33.8	35.2	39.0	7.8
부산	23.0	22.9	22.7	23.4	25.6	27.6	4.6
대구	24.8	24.2	24.2	24.4	26.5	30.0	5.2
인천	20.3	20.8	21.1	21.3	23.2	25.1	4.8
광주	23.1	23.9	23.1	22.8	22.8	24.5	1.4
대전	24.3	25.9	25.7	25.4	25.7	27.5	3.2
울산	22.4	22.4	22.2	21.9	23.9	23.5	1.1
세종			18.6	19.6	23.7	26.2	7.6
경기	24.9	25.3	26.0	26.5	27.9	28.6	3.7
강원	18.2	17.2	16.7	17.1	18.4	20.2	2.0
충북	17.7	18.8	18.8	19.0	19.7	18.9	1.2
충남	17.7	17.4	18.1	18.0	17.7	18.8	1.1
전북	17.9	17.5	18.3	18.6	19.4	20.3	2.4
전남	17.2	16.8	16.4	16.5	16.2	15.7	-1.5
경북	19.5	18.7	19.1	19.0	19.3	20.6	1.1
경남	21.2	20.8	20.3	20.4	20.9	22.0	0.8
제주	20.3	19.6	19.9	20.1	22.6	22.3	2.0

(3) 안전영역

① 사고 - 가.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7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은 2,117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296명)이 시지역(2,157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2,7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2178명)과 수도권(1,919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교통사고 사상률에 대해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가 2,820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1,771명), 세종(1,426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교통사고 사상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세종(855명)에서 가장 높은 사상자 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인천(-41명), 충북(-179명)은 교통사고 사상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정의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단위 / 산식	명(10만 명 당 사상자 수)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7~2017
출처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6월 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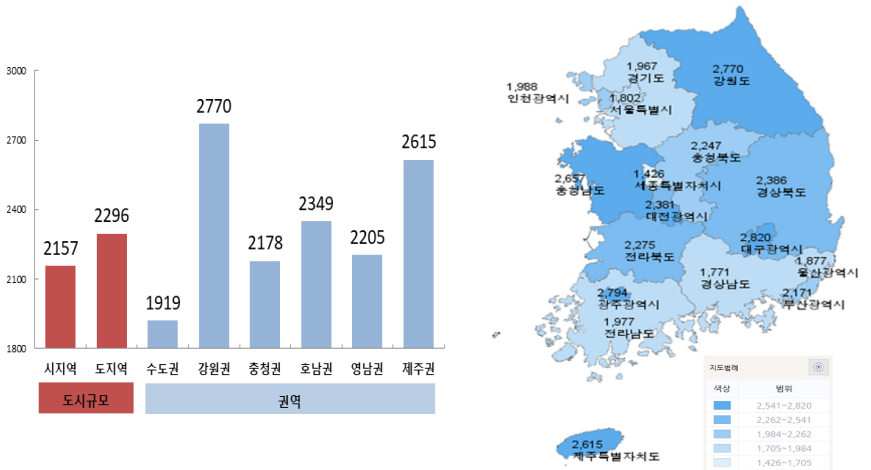


그림 Ⅲ-7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7)

표 Ⅲ-104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2~2017)

(단위: 명)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2,075	2,026	2,118	2,178	2,206	2,117	42
서울	1,711	1,619	1,733	1,749	1,821	1,802	91
부산	1,672	1,668	1,757	1,850	1,903	2,171	499
대구	2,307	2,264	2,512	2,634	2,795	2,820	513
인천	2,029	1,893	1,945	1,954	2,050	1,988	-41
광주	2,514	2,616	2,582	2,774	2,802	2,794	280
대전	2,263	2,212	2,258	2,145	2,202	2,381	118
울산	1,806	1,813	1,843	1,925	1,870	1,877	71
세종	571	586	827	1,157	1,575	1,426	855
경기	1,829	1,708	1,811	1,874	1,912	1,967	138
강원	2,695	2,634	2,694	2,686	2,776	2,770	75
충북	2,426	2,316	2,350	2,172	2,158	2,247	-179
충남	2,639	2,575	2,670	2,637	2,621	2,657	18
전북	2,230	2,210	2,306	2,219	2,262	2,275	45
전남	1,821	1,805	1,866	1,901	1,838	1,977	156
경북	2,229	2,327	2,472	2,483	2,420	2,386	157
경남	1,700	1,660	1,794	1,801	1,737	1,771	71
제주	2,117	2,015	2,329	2,502	2,459	2,615	498

① 사고 - 나.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6년도 전국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5.7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7.6명)이 시지역(5.4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1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4.6명)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3.8명), 인천(3.6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남 2011년 대비 2016년 결과에서 -7.5명으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의 경우는 오히려 1.5명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05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정의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31)]**
단위 / 산식	명(10만 명 당 사망자 수) /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6
출처	• 통계청(2017).사망원인통계 : 시도/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사망자수, 사망률(2000~) 에서 2018년 4월 4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4월 4일 인출.

31) 자살 및 타살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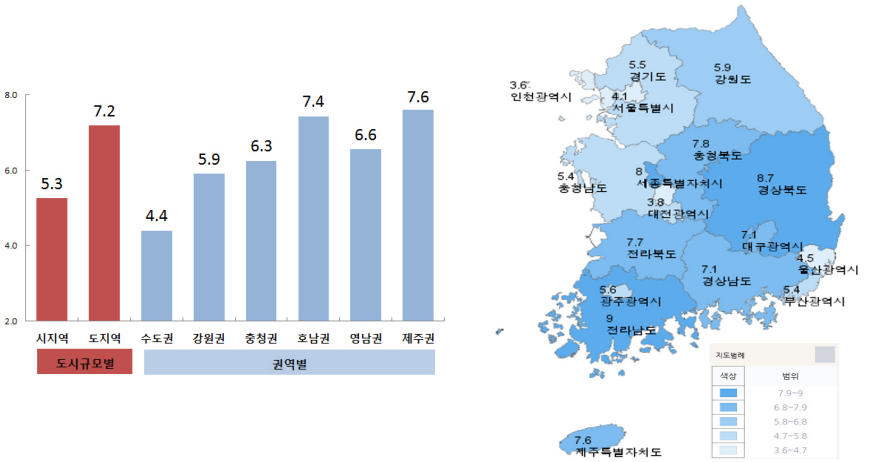


그림 Ⅲ-7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6)

표 Ⅲ-106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1~2016)

(단위: 명)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1
전국	8.2	7.3	6.6	7.1	5.9	5.7	-2.5
서울	6.0	4.6	4.0	4.8	3.8	4.1	-1.9
부산	6.0	7.8	6.3	4.9	6.7	5.4	-0.6
대구	5.6	6.8	5.4	4.7	6.5	7.1	1.5
인천	4.7	6.2	5.2	7.2	4.6	3.6	-1.1
광주	8.2	8.0	6.2	6.3	6.1	5.6	-2.6
대전	9.6	7.2	4.4	5.8	7.9	3.8	-5.8
울산	9.4	6.6	10.8	9.4	7.4	4.5	-4.9
세종		11.3	5.0	8.6	0.0	8.0	-3.3
경기	7.2	7.1	7.1	8.9	5.3	5.5	-1.7
강원	12.0	13.1	9.8	8.8	6.5	5.9	-6.1
충북	12.7	9.9	9.0	8.1	8.6	7.8	-4.9
충남	12.9	10.0	10.1	5.2	6.9	5.4	-7.5
전북	9.2	8.0	7.5	9.1	6.9	7.7	-1.5
전남	14.9	8.0	7.0	8.6	8.7	9.0	-5.9
경북	12.0	9.5	9.7	7.8	7.1	8.7	-3.3
경남	10.1	8.8	6.4	6.9	6.4	7.1	-3.0
제주	8.5	11.9	11.0	10.9	11.7	7.6	-0.9

② 범죄 - 가. 청소년 범죄 피해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3.7%로 나타났다. 2014년도와 비교해 볼 때 0.5% 증가하였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9%)이 도지역(3.6%)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4.3%), 충청권(4.2%) 순이었으며, 영남권(3.3%)과 호남권(3.1%)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이 5.2%로 가장 높았고, 제주(5.0%), 울산(4.8%)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2.9%), 경북(2.8%), 대구(2.4%)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도와 2016년 간의 비교결과를 보면, 대전 지역(3.5%p)의 증가폭이 가장 높았고, 경북 지역(-4.1%p)의 감소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07 청소년 범죄 피해율[32)]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절도, 사기, 손괴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일반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본 지표의 분석 대상 14~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6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2016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32) 범죄피해조사의 자료구축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2년도에 범죄피해유형이 대폭 변경되었고, 2014년도부터는 이전 조사와 일부 다르게 분류·조사되어 본 지표에서는 2014년도 자료부터 제시하였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조사 원자료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16개 시도별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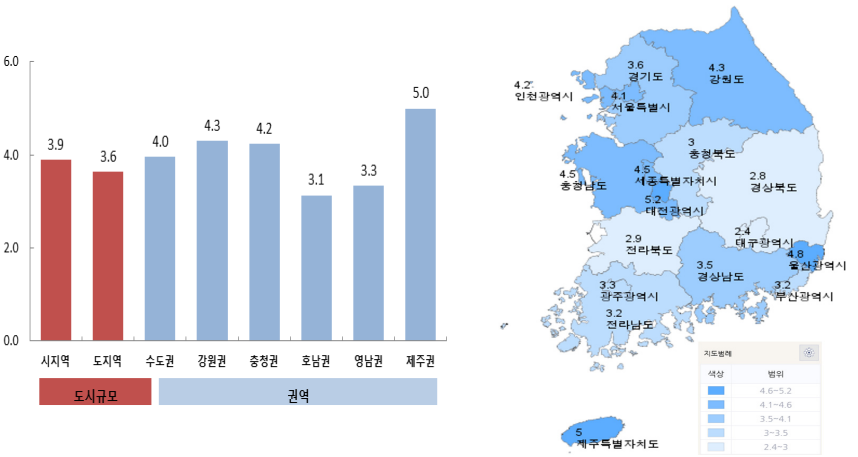


그림 Ⅲ-7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범죄 피해율[33] (2016)

표 Ⅲ-108 청소년 범죄 피해율 (2014, 2016)

(단위: %)

시도	2014	2016	2016~2014
전국	3.2	3.7	0.5
서울	6.0	4.1	-1.9
부산	5.7	3.2	-2.5
대구	0.0	2.4	2.4
인천	1.6	4.2	2.6
광주	1.7	3.3	1.6
대전	1.7	5.2	3.5
울산	2.5	4.8	2.3
경기	2.1	3.6	1.5
강원	2.7	4.3	1.6
충북	1.0	3.0	2.0
충남	3.6	4.5	0.9
전북	5.1	2.9	-2.2
전남	4.8	3.2	-1.6
경북	6.9	2.8	-4.1
경남	2.8	3.5	0.7
제주	3.1	5.0	1.9

33)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함.

② 범죄 - 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6년도 전국 아동학대 피해 경험 수는 211.6건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93.8건)이 시지역(189.1건)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393.0건으로 가장 높았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이 451.3건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20.0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북에서 353건으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311.6건)과 강원(290.4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대전(76.2건)과 세종(75.2건)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 지표정의서

표 Ⅲ-10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34]**
단위 / 산식	10만 명 당 건수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6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3월 27일 인출.

34) 연앙인구는 年央인 7.1일의 인구를 의미하며 캘린더의 7.1일 인구가 아닌 연초(1.1일)와 연말(12.31) 인구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여 계산된 인구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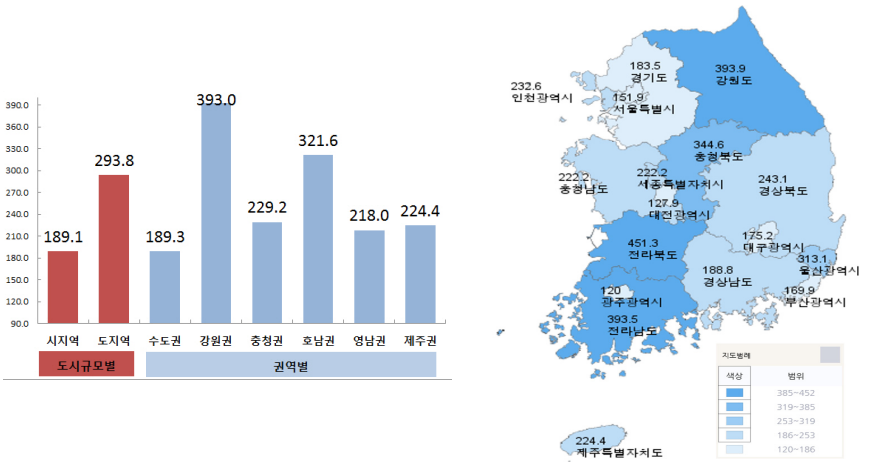


그림 Ⅲ-8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6)

표 Ⅲ-11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2~2016)

(단위: 건수)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65.4	71.2	107.9	129.3	211.6	151.2
서울	41.6	48.8	59.2	75.9	151.9	105.1
부산	59.3	52.1	71.6	98.7	169.9	121.8
대구	37.2	40.9	80.5	79.9	175.2	147.9
인천	60.1	62.3	92.6	84.5	232.6	189.9
광주	30.4	36.9	52.9	97.5	120.0	80.3
대전	46.2	66.4	94.0	112.8	127.9	76.2
울산	60.2	62.2	151.2	151.4	313.1	228.6
세종				147.0	222.2	75.2
경기	58.8	60.6	101.9	123.3	183.5	128.4
강원	97.1	85.9	136.8	214.3	393.9	290.4
충북	141.9	128.7	155.8	227.5	344.6	215.0
충남	84.1	88.7	125.7	147.0	222.2	148.2
전북	109.9	181.5	272.4	268.3	451.3	353.0
전남	100.1	108.5	193.3	235.4	393.5	311.6
경북	100.3	101.0	135.7	184.0	243.1	150.4
경남	76.1	88.4	118.2	120.0	188.8	141.4
제주	114.6	109.6	232.5	202.9	224.4	104.5

② 범죄 - 다. 학교폭력 발생률[35]

학교폭력 발생률에 대한 2016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기준 8.6%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규모에 따른 비교 결과를 보면, 도지역(9.2%)이 시지역(7.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10.5%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영남권(7.8%)과 수도권(7.8%)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 지역이 13.0%로 높게 났으며, 다음으로 강원(10.5%), 전북(9.5%), 서울(9.2%) 등의 지역 순이었다. 반면, 인천(5.4%), 부산(6.2%), 충북(7.1%), 경북(7.9%), 울산(7.9%)등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1 학교폭력 발생률[36]

정의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욕설, 폭행, 왕따, 괴롭힘 등을 당한 학생의 비율
단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12년
출처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35) 조사주기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관계로 18년도 결과는 16년도 자료로 대신함.

36) 학교폭력 발생률은 2014년 지표 개발 당시 활용하였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16년부터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통합되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조사명과 내용이 일부 개편되었음)를 활용하였음. 그러나 조사 개편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항목의 추가 및 내용의 변경으로 본 지표에서는 2016년 데이터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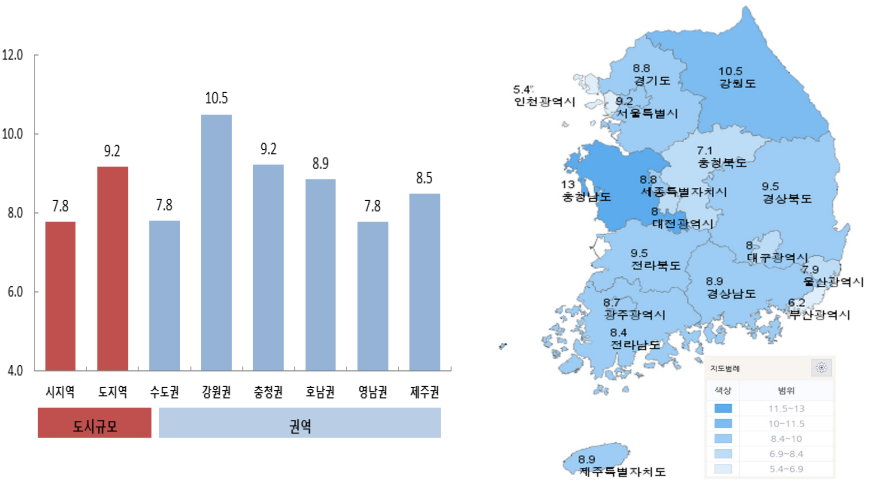


그림 Ⅲ-8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률 (2016)

표 Ⅲ-112 학교폭력 발생률 (2016)

(단위: %)

시도	2016
전국	8.6
서울	9.2
부산	6.2
대구	8.0
인천	5.4
광주	8.7
대전	8.0
울산	7.9
세종	8.8
경기	8.8
강원	10.5
충북	7.1
충남	13.0
전북	9.5
전남	8.4
경북	9.5
경남	8.9
제주	8.9

(4) 참여영역

① 사회참여 - 가. 자원봉사 참여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국 자원봉사 참여율은 17.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9.3%)이 시지역(17.8%)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25.8%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2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21.5%), 세종(21.1%), 전남(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15.9%). 부산(15.4%)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경북이 -7.9%p로 나타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3.6%p)와 강원(1.5%p)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3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37]
단위	%
대상	13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7
출처	• 통계청(2017). 2017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 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37) 응답 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 예방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 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평균 시간으로 조사되었음(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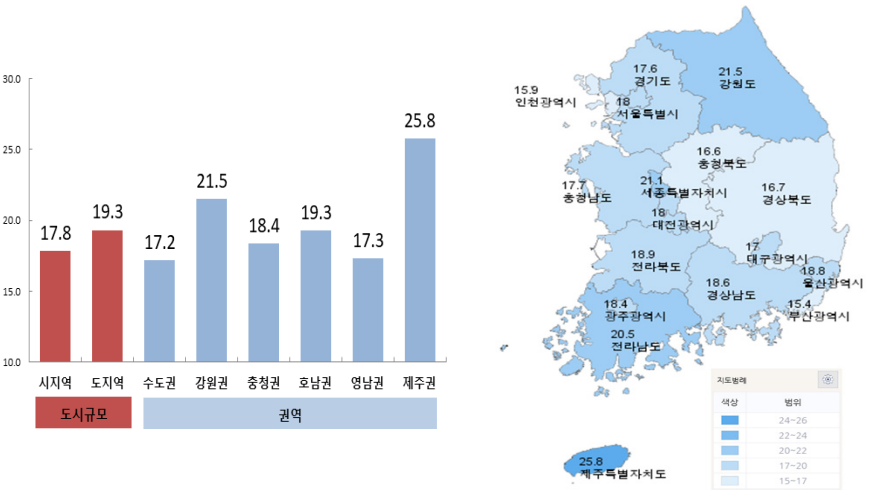


그림 Ⅲ-8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2017)

표 Ⅲ-114 자원봉사 참여율 (2011~2017)

(단위: %, %p)

시도	2011	2013	2015	2017	2017~2011
전국	21.1	19.9	18.2	17.8	-3.3
서울	19.3	17.7	17.9	18.0	-1.3
부산	19.9	18.7	15.5	15.4	-4.5
대구	20.1	19.0	17.2	17.0	-3.1
인천	19.4	18.6	15.8	15.9	-3.5
광주	24.9	23.5	18.9	18.4	-6.5
대전	20.3	24.8	19.8	18.0	-2.3
울산	23.9	21.5	16.8	18.8	-5.1
세종			20.3	21.1	0.8
경기	20.8	19.7	17.3	17.6	-3.2
강원	20.0	19.4	21.2	21.5	1.5
충북	19.1	21.7	21.0	16.6	-2.5
충남	22.9	23.0	20.2	17.7	-5.2
전북	18.3	18.0	17.8	18.9	0.6
전남	22.4	22.1	24.4	20.5	-1.9
경북	24.6	18.5	16.3	16.7	-7.9
경남	22.5	23.4	20.4	18.6	-3.9
제주	22.2	24.2	24.9	25.8	3.6

(5) 활동영역

① 활동상태 - 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7년도 전국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86.1%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7.4%)이 도지역(85.3%)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87.3%), 영남권(86.4%) 순이었으며, 강원권(83.8%)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세종과 광주(88.8%), 울산(88.3%)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83.5%), 경북(81.5%)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충북(16.0%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부산(14.8%p)과 울산(12.7%p)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오히려 2.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5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정의	**지난 1년 동안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13~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7
출처	• 통계청(2017). 2017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index.do 에서 2018년 6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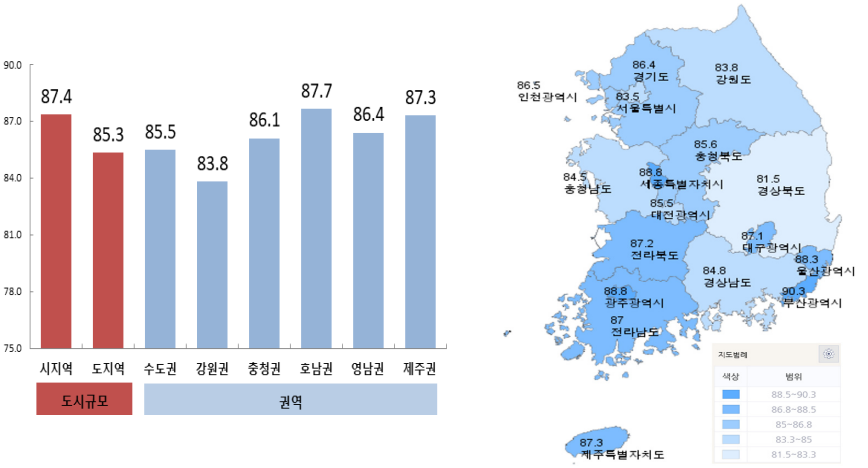


그림 Ⅲ-8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7)

표 Ⅲ-116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2017)

(단위: %, %p)

시도	2011	2013	2015	2017	2017~2011
전국	79.2	84.0	84.9	86.1	6.9
서울	86.1	86.9	86.8	83.5	-2.6
부산	75.5	86.9	86.9	90.3	14.8
대구	76.9	83.9	81.5	87.1	10.2
인천	77.1	81.1	87.3	86.5	9.4
광주	83.6	85.5	87.8	88.8	5.2
대전	73.6	92.7	84.2	85.5	11.9
울산	75.6	83.0	82.0	88.3	12.7
세종			86.4	88.8	2.4[38]
경기	81.3	84.5	84.7	86.4	5.1
강원	73.3	78.3	79.5	83.8	10.5
충북	69.6	75.1	86.7	85.6	16.0
충남	73.0	81.2	82.5	84.5	11.5
전북	80.4	84.9	83.7	87.2	6.8
전남	77.2	73.2	75.4	87.0	9.8
경북	76.0	84.9	85.7	81.5	5.5
경남	75.6	82.4	86.7	84.8	9.2
제주	75.1	78.1	83.8	87.3	12.2

38) 15년도와의 비교결과임.

① 활동상태 - 나. 문화여가 지출비용[39)]

2016년도 전국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평균은 14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만 2천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44,600원)이 시지역(138,300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188,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 지역이 20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92,000원), 충북(94,000원)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여가 지출비용이 증가하였는데, 경북 지역(98,000원)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대구(49,000원)와 강원(37,000원)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33,000원), 충남(-32,000원)등은 문화여가 지출비용이 감소한 다른 지역보다 감소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7 문화여가 지출비용

정의	한 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천원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6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240.

39) 조사주기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관계로 16년도 자료로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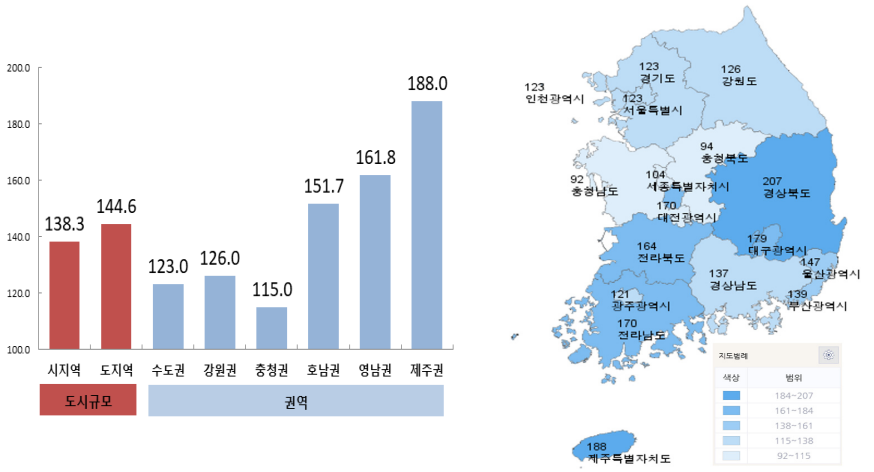


그림 Ⅲ-84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6)

표 Ⅲ-118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2~2016)

(단위: 천원)

시도	2012[40]	2014	2016	2016~2012
전국	134	130	142	8
서울	134	123	123	-11
부산	141	113	139	-2
대구	130	141	179	49
인천	112	144	123	11
광주	128	129	121	-7
대전	147	146	170	23
울산	224	163	147	-77
세종		112	104	-8
경기	108	133	123	15
강원	89	138	126	37
충북	127	131	94	-33
충남	124	127	92	-32
전북	139	131	164	25
전남	143	89	170	27
경북	109	148	207	98
경남	116	124	137	21
제주	175	121	188	13

40) (지난 1년) 한 달 평균 여가활동 지출비용

① 활동상태 - 다.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국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51.2%)이 도지역(46.9%)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충청권(58.5%), 수도권(48.9%) 순이었으며, 강원권(45.7%)과 영남권(42.5%)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이 77.6%로 가장 높았고, 충남(58.4%), 제주(56.8%)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39.5%), 경북(37.6%), 경남(37.2%)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과 2017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전(58.2%p)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경북(9.1%p)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9 동아리활동 참여율

정의	**종교단체를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9~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3년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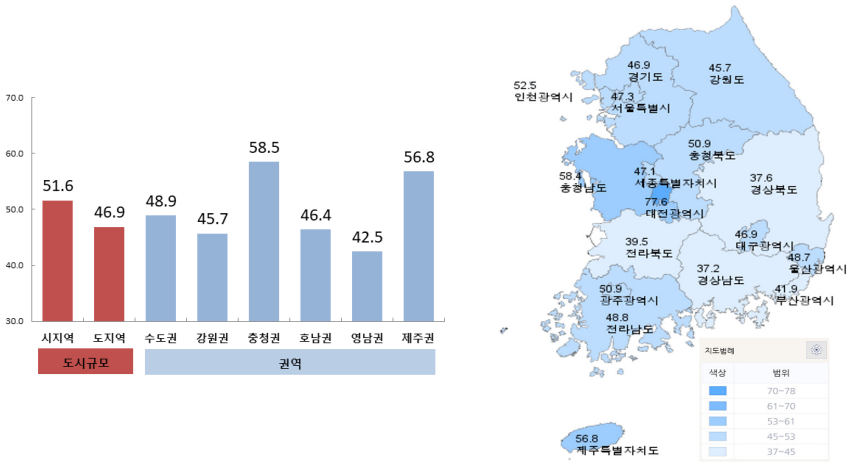


그림 Ⅲ-8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7)

표 Ⅲ-120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1~2017)

(단위: %, %p)

시도	2011	2014	2017	2017~2011
전국	24.2	52.3	47.6	23.4
서울	28.8	53.3	47.3	18.5
부산	16.5	53.0	41.9	25.4
대구	22.7	50.6	46.9	24.2
인천	23.6	48.4	52.5	28.9
광주	21.9	49.4	50.9	29.0
대전	19.4	83.1	77.6	58.2
울산	22.1	68.8	48.7	26.6
세종	-	39.2	47.1	7.9[41]
경기	26.0	55.3	46.9	20.9
강원	29.6	57.8	45.7	16.1
충북	18.4	45.3	50.9	32.5
충남	21.1	51.9	58.4	37.3
전북	28.7	40.3	39.5	10.8
전남	20.9	44.6	48.8	27.9
경북	28.5	50.6	37.6	9.1
경남	16.8	46.8	37.2	20.4
제주	18.4	64.7	56.8	38.4

41) 세종의 경우 2017년도와 2014년도 간 비교결과이며, 좌측 비교분석 해석에서는 제외함.

① 활동상태 - 라.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6년도 전국 문화예술시설 비율은 33.3개소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48.7개소)이 시지역(29.7개소)보다 문화예술시설 비율이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61.8개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이 61.8개소로 가장 높았고, 부산(25.3개소)과 인천(24.0개소)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4.4개소)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남(2.5개소)과 부산(2.4개소)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세종(-4.4개소)은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1 문화예술시설 비율

정의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42)]**
단위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산식	문화예술 시설 수=(문화예술 시설 수/인구수)×100,000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79~2016
출처	• 통계청(2017), 한국의 사회지표, pp.384-385.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42) 공연장 수는 모름과 무응답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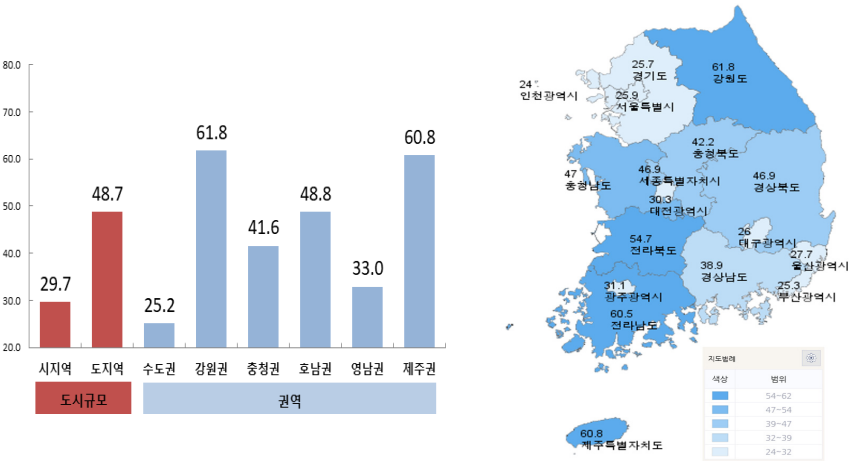


그림 Ⅲ-8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6)

표 Ⅲ-122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1~2016)

(단위: 개소)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5~2011
전국	33.0	33.2	32.2	33.1	33.2	33.3	0.3
서울	26.4	27.3	25.3	25.9	26.2	25.9	-0.5
부산	24.1	24.4	23.8	24.5	25.0	25.3	1.2
대구	25.4	25.4	24.7	25.1	25.7	26.0	0.6
인천	24.5	24.7	23.9	23.9	24.1	24.0	-0.5
광주	29.9	29.5	28.9	30.4	31.1	31.1	1.2
대전	31.5	31.8	28.3	28.7	29.3	30.3	-1.2
울산	27.2	26.8	26.2	28.0	27.8	27.7	0.5
세종		51.3	45.4	60.8	49.3	46.9	-4.4[43]
경기	26.0	26.1	25.2	25.8	25.7	25.7	-0.3
강원	60.8	59.7	59.4	61.4	61.5	61.8	1.0
충북	43.5	42.2	41.0	42.5	42.3	42.2	-1.3
충남	48.1	47.4	46.9	47.0	47.2	47.0	-1.1
전북	50.3	50.5	50.6	53.2	53.7	54.7	4.4
전남	58.0	60.2	60.1	59.8	60.4	60.5	2.5
경북	46.9	46.6	46.1	47.1	47.5	46.9	0.0
경남	37.8	38.1	37.3	38.3	38.3	38.9	1.1
제주	60.5	60.9	59.9	66.1	63.0	60.8	0.3

43) 12년도와 15년도 간의 차이임.

① 활동상태 - 마.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7년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은 9.0개소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9.1개소)이 시지역(4.1개소)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41.3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30.9개소), 호남권(12.7개소) 순이었으며, 영남권(8.3개소)과 수도권(4.3개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41.3개소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3.9개), 전남(17.6개) 순이었으며, 세종(3.9개소), 대구(2.9개소), 인천(2.3개소) 등의 지역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5.0개소)과 제주(4.8개소)지역이 가장 많이 활동시설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세종(-1.1개소)과 인천(-2.3개소)지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3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정의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단위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산식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대상	9~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1~2017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6청소년백서, pp.467-468.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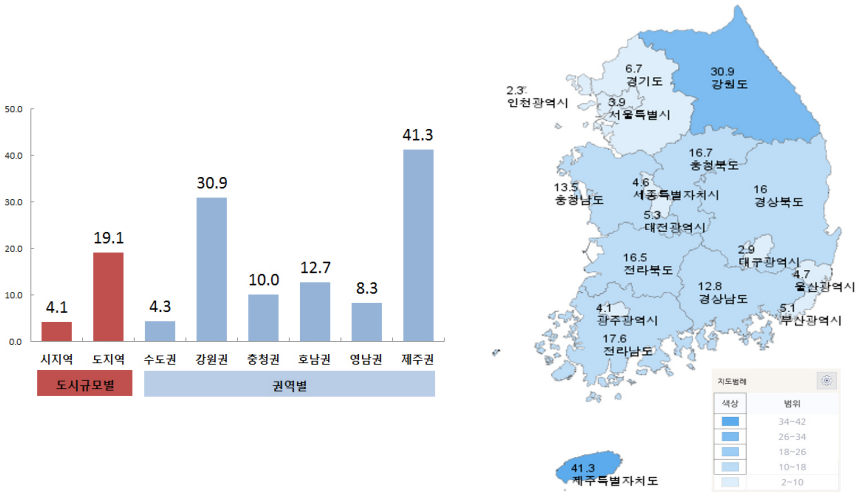


그림 Ⅲ-87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7)

표 Ⅲ-12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2~2017)

(단위: 개소)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7.7	8.1	8.2	8.4	8.7	9.0	1.3
서울	3.3	3.6	3.6	3.6	3.8	3.9	0.6
부산	3.7	3.8	3.9	4.3	4.7	5.1	1.4
대구	2.5	2.8	2.8	3.1	3.2	2.9	0.4
인천	4.6	5.2	5.2	4.8	4.9	2.3	-2.3
광주	3.4	3.4	3.4	3.8	3.9	4.1	0.7
대전	4.1	4.1	4.2	4.0	4.4	5.3	1.2
울산	3.7	3.3	3.4	3.9	4.1	4.7	1.0
세종	5.7	5.0	4.3	3.3	5.4	4.6	-1.1
경기	6.0	6.2	6.2	6.5	6.7	6.7	0.7
강원	28	30.3	30.7	29.8	30.6	30.9	2.9
충북	15.2	15.7	16.0	15.9	16.6	16.7	1.5
충남	13.2	13.0	13.2	13.6	13.3	13.5	0.3
전북	14.8	15.3	15.6	16.2	16.0	16.5	1.7
전남	12.6	13.9	14.2	15.4	16.4	17.6	5.0
경북	13.0	14.1	14.4	15.0	15.5	16.0	3.0
경남	11.1	11.3	11.4	11.5	12.3	12.8	1.7
제주	36.5	38.1	37.9	39.4	40.3	41.3	4.8

① 활동상태 - 바.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지도사 수는 4.4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6.4명)이 도지역(2.9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7.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4.8명), 호남권(3.8명) 순이었으며, 제주권(1.7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12.9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8.9명), 광주(6.2명), 경기(6.0명), 부산(5.7명)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2.3명), 제주(1.7명), 경북(1.4명) 등이 상대적으로 청소년 지도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와 17년도의 변화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약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그 증가폭이 5.7명으로 가장 컸고, 전남, 울산, 경북, 전북, 충북, 제주, 경남 등의 지역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5 청소년 지도사 비율[44)]

정의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단위	명
산식	청소년 지도사 비율 =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45)] • 여성가족부(2017). 2017청소년백서, pp.467~468.

44) 연도별로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기준이 다르고 15년도 이전년도의 경우 시도별 청소년지도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2016년도 자료만 지표에 제시함.

45) 한국수련시설협회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 지도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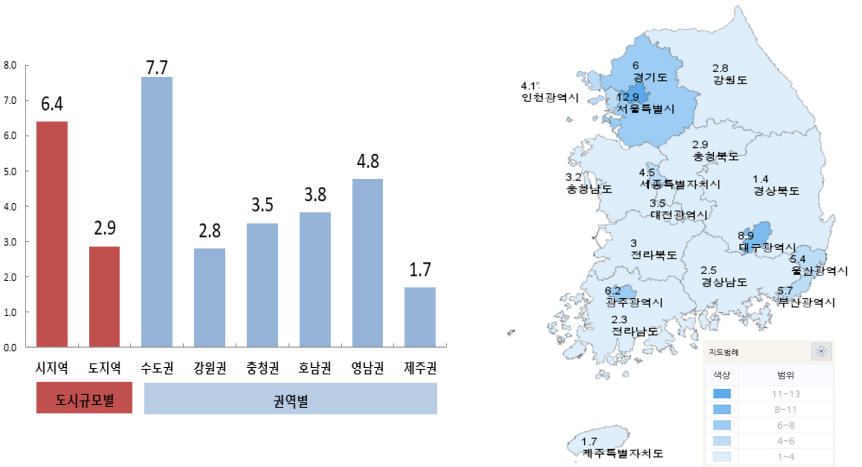


그림 Ⅲ-88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7)

표 Ⅲ-126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6~2017)

(단위: 명)

시도	2016	2017	2017~2016
전국	2.9	4.4	1.5
서울	7.2	12.9	5.7
부산	3.4	5.7	2.3
대구	5.3	8.9	3.6
인천	2.9	4.1	1.2
광주	5.0	6.2	1.2
대전	2.2	3.5	1.3
울산	4.6	5.4	0.8
세종	2.0	4.5	2.5
경기	4.2	6.0	1.8
강원	1.7	2.8	1.1
충북	2.4	2.9	0.5
충남	2.2	3.2	1.0
전북	2.4	3.0	0.6
전남	1.5	2.3	0.8
경북	0.7	1.4	0.7
경남	2.1	2.5	0.4
제주	1.2	1.7	0.5

(6) 경제영역

① 소득/소비 - 가.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전국 평균의 경우 31.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백 2십 만원 증가하였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33.5백만 원)이 시지역(30.6백만 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36.1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이 61.0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22.4백만 원)와 대구(20.2백만 원)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7.5백만 원)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고, 울산은 오히려 0.9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7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정의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단위	백만 원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3~2016
출처	• 통계청(2018).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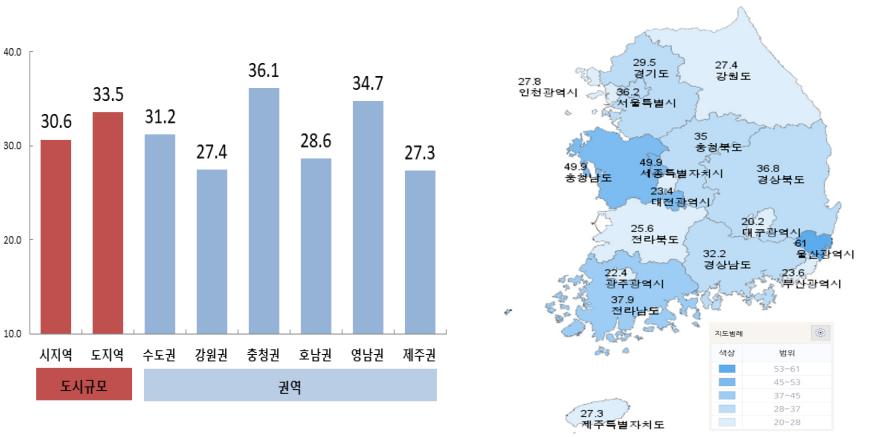


그림 Ⅲ-89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46] (2016)

표 Ⅲ-128 지역경제수준 (2011~2016)[47]

(단위: 백만 원)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1
전국	26.7	27.4	28.4	29.3	30.7	31.9	5.3
서울	30.2	31.2	31.9	33.0	34.7	36.2	6.1
부산	19.2	19.6	20.4	21.3	22.7	23.6	4.4
대구	16.7	17.3	18.1	18.8	19.8	20.2	3.5
인천	22.5	22.3	22.9	24.3	26.3	27.8	5.4
광주	18.5	19.2	19.8	20.8	21.6	22.4	3.9
대전	19.4	20.1	20.4	21.1	22.1	23.4	4.0
울산	61.8	62.9	60.1	58.2	59.9	61.0	-0.9
경기	23.4	24.1	25.9	26.8	28.4	29.5	6.2
강원	21.7	22.5	23.5	24.6	26.1	27.4	5.8
충북	27.5	28.0	30.2	31.4	33.0	35.0	7.5
충남	43.6	44.6	45.6	47.4	48.7	49.9	6.3
전북	22.1	22.3	23.4	24.2	24.9	25.6	3.5
전남	35.3	36.3	34.9	34.9	36.4	37.9	2.7
경북	31.1	32.2	33.5	34.7	35.5	36.8	5.7
경남	28.1	29.3	30.4	30.6	31.2	32.2	4.1
제주	21.4	22.7	23.2	24.2	25.6	27.3	6.0

46)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함.
4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로 산출되었음(통계청),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

① 소득/소비 - 나. 지니계수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0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0.295)이 도지역(0.289)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0.305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0.283)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0.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도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심함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0.272), 인천(0.270), 충남(0.26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니계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0.017)이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대구(0.034)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9 지니계수

정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단위 / 산식	점 / Gini = 1 + (1 / N) - [2/(m . N^2)] [SUM (N - i + 1) y_i]
대상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근로자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분기/반기, 2012~2017
출처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48]

48) Stata SE 버전 13에서 "ineqdeco"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였음.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 중 2012년은 4분기, 2013년~2017년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고, 18-65세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근로자) 중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및 전국가중치를 사용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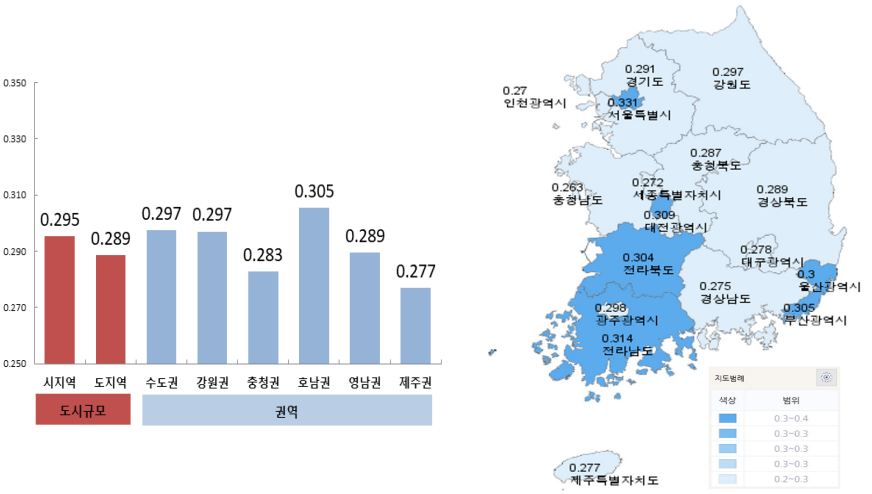


그림 Ⅲ-90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및 17개 시도별 지니계수 (2017)

표 Ⅲ-130 지니계수 (2012~2017)

(단위: 점)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0.311	0.313	0.308	0.306	0.305	0.300	- 0.011
서울	0.328	0.329	0.319	0.322	0.334	0.331	0.003
부산	0.316	0.322	0.313	0.310	0.310	0.305	- 0.011
대구	0.312	0.311	0.309	0.306	0.303	0.278	- 0.034
인천	0.283	0.282	0.273	0.271	0.271	0.270	- 0.013
광주	0.292	0.291	0.302	0.299	0.293	0.298	0.006
대전	0.312	0.334	0.325	0.322	0.323	0.309	- 0.003
울산	0.298	0.306	0.308	0.304	0.302	0.300	0.002
세종						0.272	
경기	0.308	0.308	0.307	0.300	0.295	0.291	- 0.017
강원	0.304	0.317	0.309	0.315	0.303	0.297	- 0.007
충북	0.274	0.266	0.282	0.272	0.267	0.287	0.013
충남	0.277	0.284	0.277	0.282	0.269	0.263	- 0.014
전북	0.311	0.313	0.302	0.301	0.289	0.304	- 0.007
전남	0.297	0.297	0.298	0.291	0.302	0.314	0.017
경북	0.312	0.313	0.302	0.301	0.304	0.289	- 0.023
경남	0.281	0.275	0.281	0.283	0.283	0.275	- 0.006
제주	0.301	0.311	0.307	0.284	0.274	0.277	- 0.024

② 복지 - 가.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7년도 우리나라 전국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1.3%)이 도지역(23.2%)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31.1%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20.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37.0%로 가장 높았고, 대전(36.1%), 대구(34.8%)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20.5%), 강원(20.4%)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10.4%p) 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제주(9.0%p)와 광주(8.9%p)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의 경우 오히려 (-1.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1 사회복지지출 비율

정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49]
단위 / 산식	% /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 예산 규모) X 100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8~2017
출처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49) ① 적용회계 : 일반회계 / ②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③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김지경 외 2014) / ④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김지경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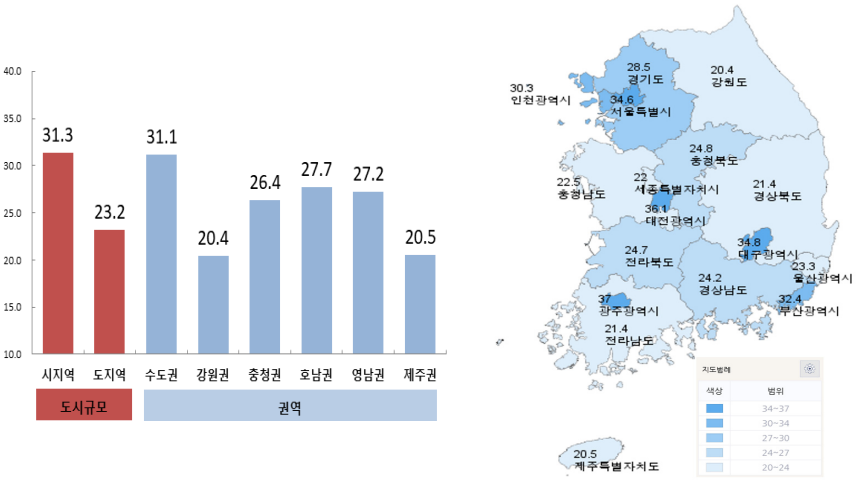


그림 Ⅲ-91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7)

표 Ⅲ-132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2~2017)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21.3	23.1	26.1	27.5	27.7	27.3	6.0
서울	24.2	29.7	31.8	34.1	35.9	34.6	10.4
부산	25.9	26.9	30.5	32.0	32.7	32.4	6.5
대구	27.7	28.4	32.8	34.6	35.1	34.8	7.1
인천	26.7	27.3	29.2	32.2	30.1	30.3	3.6
광주	28.1	28.6	32.5	36.3	38.5	37.0	8.9
대전	28.7	31.7	35.5	37.4	36.9	36.1	7.4
울산	19.1	20.8	23.7	25.7	24.6	23.3	4.2
세종		23.4	23.6	23.0	23.2	22.0	-1.4
경기	22.4	25.0	29.5	28.6	28.6	28.5	6.1
강원	17.5	17.8	19.8	20.1	20.3	20.4	2.9
충북	20.0	21.0	23.8	24.3	24.6	24.8	4.8
충남	17.7	18.1	20.9	22.9	22.7	22.5	4.8
전북	19.9	20.8	23.3	24.7	25.1	24.7	4.8
전남	16.3	17.0	19.5	21.5	21.6	21.4	5.1
경북	17.6	18.3	20.4	21.9	21.6	21.4	3.8
경남	19.2	20.6	23.7	24.8	24.9	24.2	5.0
제주	11.5	13.5	14.9	20.7	21.0	20.5	9.0

② 복지 - 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7년 전국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4,178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4,684명)이 시지역(4,349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6,36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이 3.73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이 7,235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6,353명), 대구(5,529명)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2,248명), 울산(1,730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2,040명)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오히려 95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3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정의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단위 / 산식	인구 10만 명 당 수혜자 수 /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대상	10세~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7
출처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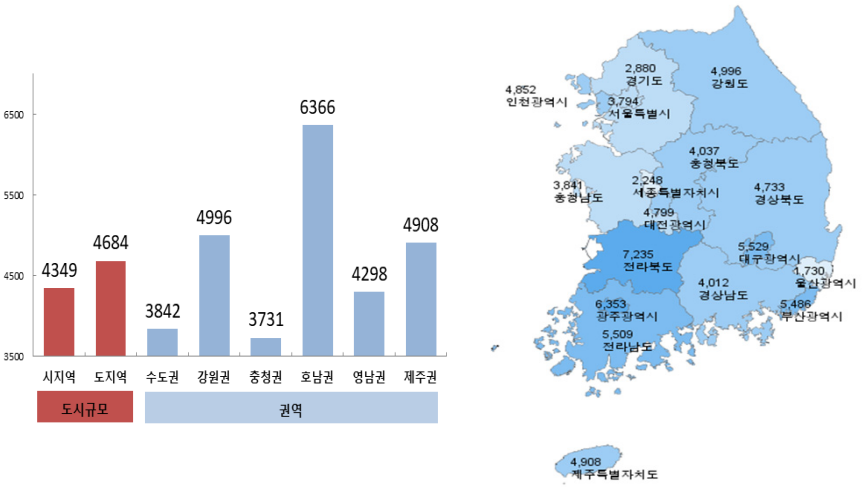


그림 Ⅲ-92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7)

표 Ⅲ-13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2~2017)

(단위: 명)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3,065	2,886	2,731	4,565	4,555	4,178	1,113
서울	2,197	2,154	2,124	3,742	4,076	3,794	1,597
부산	4,330	4,107	3,851	6,275	6,026	5,486	1,156
대구	4,813	4,602	4,307	6,698	6,130	5,529	716
인천	2,812	2,704	2,644	4,874	5,190	4,852	2,040
광주	5,521	5,404	5,197	7,234	6,990	6,353	832
대전	3,563	3,405	3,249	5,047	5,255	4,799	1,236
울산	1,322	1,244	1,188	2,763	1,914	1,730	408
세종	3,199	2,711	2,278	3,044	2,583	2,248	-951
경기	1,625	1,533	1,455	3,002	3,094	2,880	1,255
강원	4,282	3,969	3,754	5,175	5,334	4,996	714
충북	3,197	2,832	2,612	4,491	4,400	4,037	840
충남	3,117	2,861	2,657	4,322	4,217	3,841	724
전북	6,229	5,806	5,468	8,134	7,937	7,235	1,006
전남	5,241	4,652	4,256	6,360	6,091	5,509	268
경북	4,181	3,877	3,608	5,391	5,246	4,733	552
경남	2,875	2,653	2,494	4,496	4,364	4,012	1,137
제주	4,725	4,392	3,954	5,768	5,618	4,908	183

③ 고용 - 가. 경제활동 참가율

2017년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2%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4.3%)이 시지역(61.7%)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72.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도권(64.1%), 충청권(63.0%) 순이었으며, 강원권(61.8%)과 호남권(61.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72.3%로 가장 높았고, 인천(64.7%), 경기(64.6%)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전북(60.1%)을 비롯하여 부산(59.0%)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4.6%p)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4.3%p)과 충북(4.0%p)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의 경우 오히려 0.1%p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5 경제활동 참가율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50]
단위 / 산식	% /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9. 3/4 ~ 2018. 1/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50)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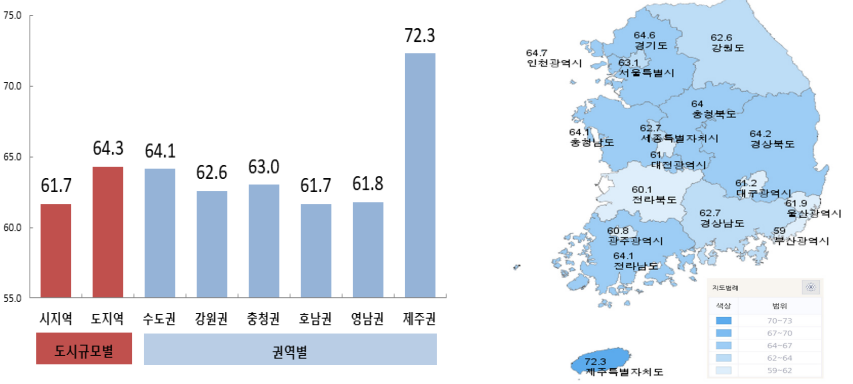


그림 Ⅲ-93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2017)

표 Ⅲ-136 경제활동 참가율 (2012~2017)[51]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61.6	61.7	62.7	62.8	62.9	63.2	1.6
서울	62.6	62.3	63.3	62.6	62.6	63.1	0.5
부산	58.2	58.4	59.0	58.7	58.5	59.0	0.8
대구	60.4	59.9	61.0	61.6	61.9	61.2	0.8
인천	64.5	63.9	64.3	64.4	64.9	64.7	0.2
광주	57.9	58.9	60.5	60.3	59.9	60.8	2.9
대전	59.5	59.3	61.2	61.7	61.7	61.0	1.5
울산	61.3	60.3	59.9	60.8	61.3	61.9	0.6
세종[52]						62.7	-
경기	61.8	62.1	63.7	64.2	64.2	64.6	2.8
강원	58.3	57.6	58.7	59.8	59.9	62.6	4.3
충북	60.0	61.2	63.9	64.0	63.7	64.0	4.0
충남	63.0	64.4	64.5	64.5	63.7	64.1	1.1
전북	58.7	59.8	59.8	60.2	61.2	60.1	1.4
전남	64.2	64.0	64.0	64.4	64.6	64.1	-0.1
경북	63.8	64.1	65.1	64.3	64.4	64.2	0.4
경남	61.3	61.6	61.7	62.2	62.7	62.7	1.4
제주	67.7	67.7	68.7	69.8	70.8	72.3	4.6

51) 통계청 2015년 인구 총 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52)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분리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년 대비 비교 시 주의 필요.

③ 고용 - 나. 실업률

2017년의 우리나라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7%)이 도지역(2.8%)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강원권(2.8%)과 제주권(1.9%)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 부산이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4.5%), 대구(4.0%)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충북(2.2%)과 제주(1.9%)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대체로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남이 1.6%p로 실업률 증가폭이 컸고, 대전의 경우 오히려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7 실업률

정의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산식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단위	%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분기, 1999·3/4 ~ 2018·1/4
출처	• 통계청,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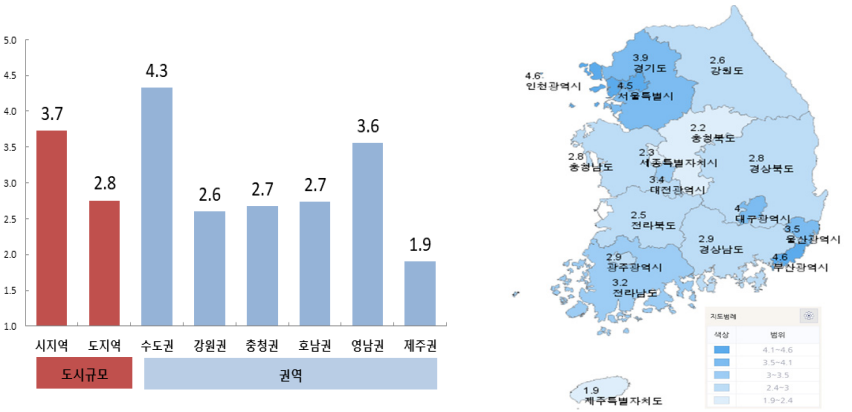


그림 Ⅲ-94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실업률 (2017)

표 Ⅲ-138 실업률 (2012~2017)[53]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2012
전국	3.2	3.1	3.5	3.6	3.7	3.7	0.5
서울	4.2	3.9	4.4	4.2	4.2	4.5	0.3
부산	3.9	3.8	3.8	4.1	3.9	4.6	0.7
대구	3.3	3.3	3.8	3.5	4.1	4.0	0.7
인천	4.5	4.1	4.7	5.0	4.9	4.6	0.1
광주	2.7	2.8	2.8	2.9	3.1	2.9	0.2
대전	3.7	3.0	3.4	3.4	3.2	3.4	-0.3
울산	2.6	2.1	2.7	2.9	3.8	3.5	0.9
세종[54]						2.3	-
경기	3.3	3.0	3.3	3.9	3.9	3.9	0.6
강원	2.5	2.3	3.1	3.2	2.8	2.6	0.1
충북	2.0	2.0	3.0	2.6	2.6	2.2	0.2
충남	2.3	2.8	3.3	3.5	3.2	2.8	0.5
전북	2.0	2.0	2.5	1.7	2.1	2.5	0.5
전남	1.6	2.1	2.9	2.5	3.0	3.2	1.6
경북	2.5	3.1	2.9	3.0	3.2	2.8	0.3
경남	1.8	2.1	2.5	2.6	3.3	2.9	1.1
제주	1.5	1.8	2.0	1.9	2.2	1.9	0.4

53) 통계청 2015년 인구 총 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54)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분리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년 대비 비교 시 주의 필요.

(7) 환경영역

① 주거기반 - 가. 통학 소요시간

통학 소요시간에 대한 2015년도 조사결과는 32.8분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1.9분)이 도지역(26.3분) 보다 더 길었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39.0분으로 통학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충청권(25.4분)과 강원권(22.9분)은 다른 권역에 비해 통학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이 41.2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22.9분), 전남(23.5분), 세종(24.2분)등의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통학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편, 2010년과 2015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학 소요시간은 모든 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3.0분)의 통학 소요 증가가 가장 컸고, 전남(0.1분)과 경북(0.1분)은 통학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9 통학 소요시간[55]

정의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56]
단위	분
대상	12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2010~2015
출처	• 통계청(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 소요시간 및 각급 학교별 통학 인구(12세 이상)-시도 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55) 이 지표는 조사주기가 5년인 지표로 2015년 결과에 대한 전년도 내용으로 대신함.

56) 통학/통근시간은 자료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각 계급값의 중간값을 계산하였음.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하였음. 단, 통학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하였음(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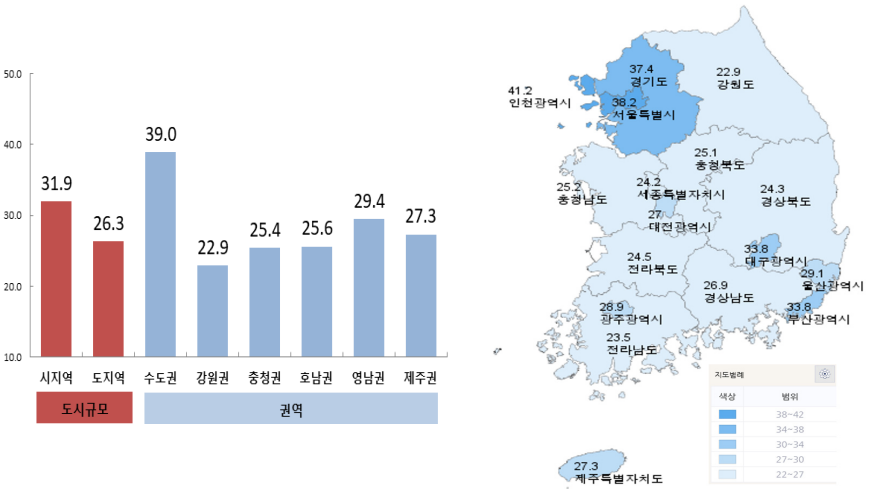


그림 Ⅲ-95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통학 소요시간 (2015)

표 Ⅲ-140 통학소요시간 (2010, 2015)

(단위: 분)

구분	2010	2015	2015~2010
전국	31.5	32.8	1.3
서울	36.3	38.2	1.9
부산	31.9	33.8	1.9
대구	30.3	33.1	2.8
인천	38.2	41.2	3.0
광주	27.1	28.9	1.8
대전	26.0	27.0	1.0
울산	27.1	29.1	2.0
세종		24.2	-
경기	36.0	37.4	1.4
강원	22.1	22.9	0.9
충북	24.1	25.1	1.0
충남	24.7	25.2	0.6
전북	24.1	24.5	0.4
전남	23.4	23.5	0.1
경북	24.2	24.3	0.1
경남	25.9	26.9	1.0
제주	25.4	27.3	1.9

① 주거기반 - 나. 녹지 접근성

2017년 우리나라 전국 녹지 접근성은 14.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1.9㎡)이 시지역(17.0㎡)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변, 제주권(6.3㎡)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이 96.0㎡로 가장 높았고, 전남(27.4㎡), 충북(19.2㎡)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7.8㎡), 제주(6.3㎡)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녹지 접근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남이 11.7㎡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9.1㎡)과 경북(8.6㎡)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0.4), 제주(-1.3), 세종(-99.4)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41 녹지접근성

정의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단위 / 산식	㎡ / 도시 공원 조성면적/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인구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 ~ 2016(결정면적), 2012~2017(조성면적)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7년말 도시공원현황 2018년 9월 7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8년 9월 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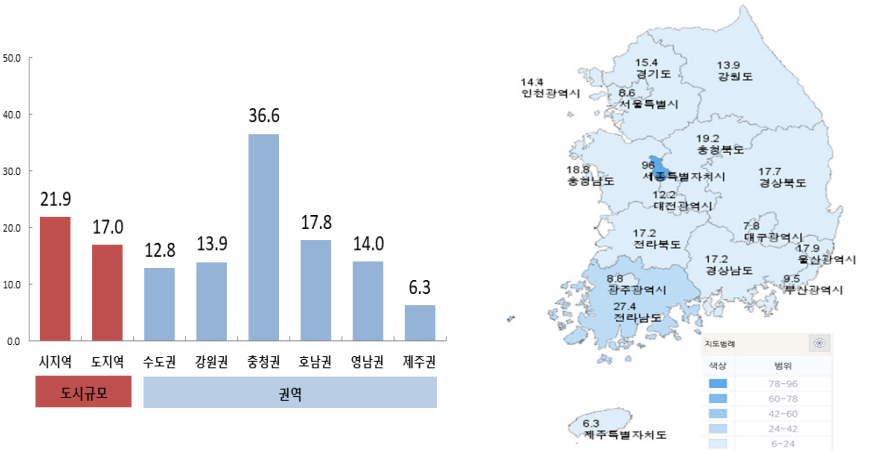


그림 Ⅲ-96 도시규모별, 권역별 및 17개 시도별 녹지접근성 (2017)

표 Ⅲ-142 녹지접근성 (2012~2017)

(단위: ㎡)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6~2012
전국	10.3	11.0	11.0	11.4	11.9	14.2	3.9
서울	9.0	8.8	8.8	8.7	8.5	8.6	-0.4
부산	7.0	7.0	7.9	7.8	7.2	9.5	2.5
대구	6.0	6.4	6.4	6.4	6.8	7.8	1.8
인천	11.7	6.9	9.0	10.9	14.0	14.4	2.7
광주	7.5	7.5	7.8	7.9	7.9	8.8	1.3
대전	9.2	11.6	11.5	9.8	9.9	12.2	3.0
울산	15.2	16.4	16.5	16.8	14.7	17.9	2.7
세종	195.4	227.7	176.5	137.4	115.5	96.0	-99.4
경기	10.5	10.6	9.6	11.0	11.7	15.4	4.9
강원	7.9	9.5	10.2	11.0	11.7	13.9	6.0
충북	10.1	12.6	12.4	14.3	15.2	19.2	9.1
충남	11.3	15.7	15.4	15.7	17.2	18.8	7.5
전북	11.1	14.2	14.2	15.0	14.8	17.2	6.1
전남	15.7	21.7	26.1	22.4	21.6	27.4	11.7
경북	9.1	12.1	12.2	12.5	13.7	17.7	8.6
경남	12.0	13.8	14.1	13.7	14.8	17.2	5.2
제주	7.6	8.2	5.2	4.1	4.0	6.3	-1.3

7. 소결

3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행복 수준을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에 대한 정량적 측면을 행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관적 지표의 결과제시 방식은 18년도 결과 뿐 아니라 15년(지표항목에 따라 1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지표는 3개년 결과만 제시)부터 4개년에 걸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지표에 대해 3개년 간의 성별 및 교급별 비교·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 역시 각 지표에 대해 5개년 간(지표의 특성에 따라 1년 혹은 2~6개년 간의 결과를 제시한 지표들도 있음)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주관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도시규모별 및 권역별 비교를 함으로써 각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았고, 각 시도별 결과의 제시와 함께 17개 시도별 현황을 지도에 시각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지표는 크게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웰빙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상태, 유데모니아, 성격특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삶의 만족도, 편안한, 즐거운 등의 긍정정서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불안한, 슬픈, 우울한 등의 부적정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데모니아 지표에서도 전년도의 평균에 비해 상승하였다.

한편,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는 이전년도와 비슷하게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부적정서는 높고, 정적정서 등의 평균 점수는 더 낮았다. 그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지고 정적정서나 삶의 만족도 등의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관계 만족도(전반적 관계 만족도, 가족, 부모, 교우, 교사, 이웃 등)는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하지만, 전반적 인간관계나 교우관계 만족도는 조금 하락했다.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학교선생님, 이웃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종교단체, 대중매체,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 및 중앙정부) 역시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단체, 대중매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신뢰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높았다. 가족과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의 면담 횟수와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영역(전반적 건강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아침 식사율, 질병 유무 등)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주관적 건강만족도, 건강상태, 아침식사율 등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고카페인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좋지 않았고, 교급이 증가할수록 건강영역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전반적 건강 만족도 기준으로 시·도별 결과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높게 나타났고, 강원과 전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 만족도 등)을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평균 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교육·체험 참여정도를 제외한 다른 지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영역의 지표들과 같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직업교육·체험 참여 지표에서는 중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유학기제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과 제주 지역이 높았고, 전북, 충북 등의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전영역(전반적 안전 만족,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범죄피해 위험 인식, 위기상황 대처, 사회안전망 시설 구축 인지정도 등)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전반적 안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 사회안전망시설 구축 등 전반적 안전영역 지표가 상승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다른 지표에서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기준으로 세종과 제주가 높았고, 전북과 경북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참여영역(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아동권리, 인지, 징계 소명권, 학칙개정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에 비해 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학교나 사회의 인식과 환경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 못함을 나타낸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과 제주가 높았고, 강원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활동영역(전반적 청소년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공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놀이친구 접근성 등), 경제영역(가정경제만족도), 환경영역(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등)등 3가지 영역 모두 해가 거듭될수록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남학생들의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의 경우 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영역 중 주거지 형태에 관해서는 자가 비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관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전 년도와 마찬가

지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결과가 여러 지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정책과 사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지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인식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 인권과 권리, 활동,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교급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추진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별 결과에서는 작년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부산, 인천, 대구, 제주 지역 등 광역시 지역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반대로 강원, 전북 경북 지역들은 대체로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지표와 지역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비교결과를 보면, 청소년 행복 관련 지표들에서 해가 거듭됨에 따라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들에서는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표(예컨대, 주관적 웰빙, 신뢰도, 참여, 활동영역 등)들의 경우 타 지표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 지표는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및 환경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건강영역(비만율, 자살률, 신체 활동 실천율, 흡연, 음주, 스마트폰 과의존율 등)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관련 각종 통계자료에도 보고되고 있지만,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12년 대비 17년도 4.7%p 증가)한 점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작년에 비해 0.8%p 증가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살률, 흡연률, 음주율 등 청소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작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율의 비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의 영향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영역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사상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활동과 강화된 정책의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활동영역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의 양적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주관적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활동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경제영역과 관련된 지표 결과에서는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실업률 등에서는 낮아지거나 유지되는 형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영역과 관련하여 통학 소요시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녹지 접근성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1인당 녹지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국제비교

1. 연령-기간-코호트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
2.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 비교
3. 소결

4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국제비교[57)]

제4장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 때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연령의 효과, 조사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른 기간 효과, 그리고 출생년도를 바탕으로 한 코호트 효과를 각각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주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다른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주제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1. 연령-기간-코호트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

1) 연구개요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행복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 연령, 기간, 코호트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57) 이 장은 염유식 교수(연세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부 수정·보완 하였음.

연령 효과는 학생들이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나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행복수준과 한창 사춘기를 경험할 중학생들의 행복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시기인 고등학생들의 행복수준 또한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행복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연령 효과'라고 한다.

기간 효과는 조사 기간에 따른 차이를 뜻한다. 2015년과 2018년 사이에는 사회, 문화, 경제, 정책적 환경 등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조사할 때의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과 2018년에 조사할 때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호트 효과는 출생년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똑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96년생이 중학교 2학년일 때의 행복 수준과 04년생이 중학교 2학년일 때의 행복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 정도가 차이를 낼 수 있다(Yang, 2008). 혹은 생애주기를 거쳐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독특한 특징을 가짐으로써 서로 다른 코호트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

연령, 기간, 코호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 연구를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조사해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연구는 바로 그런 점에서 연령, 기간, 코호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4개년도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관적 웰빙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에 해당하는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응답을 하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5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차이 각각을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평균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기간과 코호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연령의 효과,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기간의 효과, 연령과 기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코호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개 요소 간에 다음과 같은 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코호트 = 기간 - 연령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코호트, 기간, 연령 등 세 개 변수를 하나의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하여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면 완전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모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Wooldridge, 2013). 따라서 본 분석을 위해서 Intrinsic Estimator를 활용한 연령-코호트-기간 모델을 사용하였고(Yang, Schulhofer-Wohl, Fu, and Land, 2008; Yang, Fu, and Land 2004), STATA의 apc-ie 커맨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Yang and Land, 2016).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추적한 뒤,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도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경제, 권리, 활동 영역에서의 만족도 역시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만족도 변화가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성별과 학업성적이다. 성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애 주기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령 변화에 따른 만족도 변화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이나 코호트에 따른 변화에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각각을 분석할 때 이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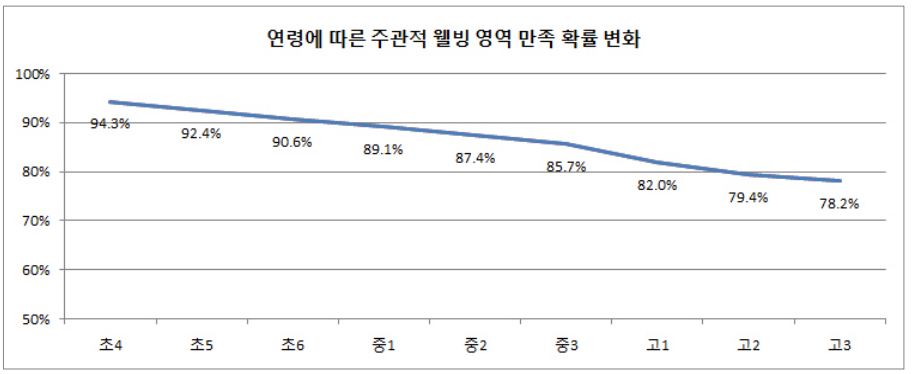
본 분석을 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연구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연도별로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표 Ⅳ-1 분석 대상자 특성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5,289	50.29	5,034	50.96	4,506	50.79	4,675	51.82
	여	5,229	49.71	4,844	49.04	4,366	49.21	4,346	48.18
학년	초4	977	31.04	1,193	34.32	862	33.29	944	10.46
	초5	1,046	33.23	1,164	33.49	876	33.84	893	9.9
	초6	1,125	35.74	1,119	32.19	851	32.87	1,044	11.57
	중1	1,043	30.87	1,068	32.03	917	33.66	864	9.58
	중2	1,149	34.00	1,121	33.62	903	33.15	894	9.91
	중3	1,187	35.13	1,145	34.34	904	33.19	967	10.72
	고1	1,283	32.15	1,002	32.66	1,164	32.71	1,142	12.66
	고2	1,379	34.55	1,090	35.53	1,207	33.91	1,069	11.85
	고3	1,329	33.30	976	31.81	1,188	33.38	1,204	13.35
계		**10,518**		**9,878**		**8,872**		**9,021**	

4) 심층 분석 결과

아래의 세 개 그래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분석의 중점이 되는 요소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나머지 두 개 요소의 효과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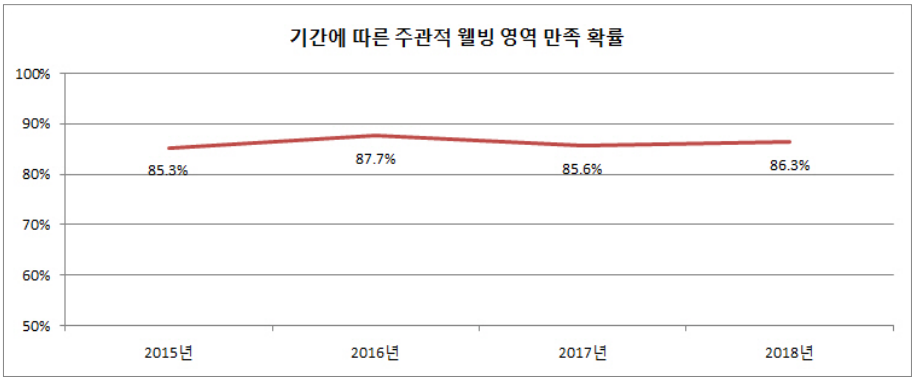


*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11점 척도 중 5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다른 변수는 통제하지 않음.

그림 Ⅳ-1 연령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그림 IV-1을 보면, 연령이 높아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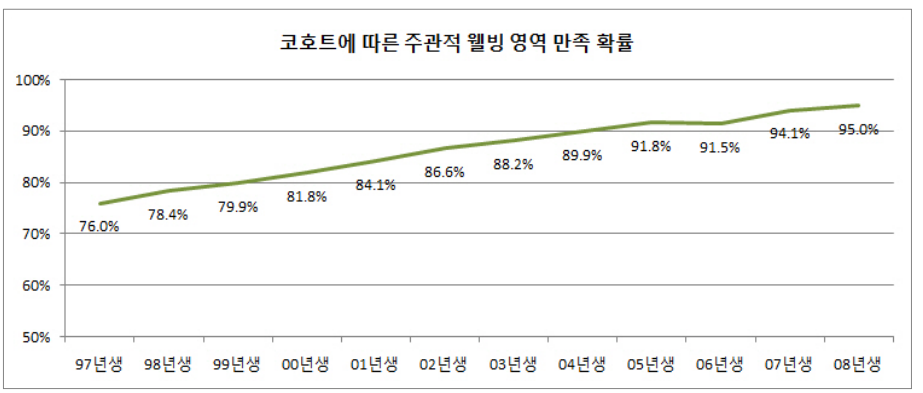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은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94%에 이른 반면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게 되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16%p 이상 차이나는 78.2%로 나타났다.



*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11점 척도 중 5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다른 변수는 통제하지 않음.

그림 Ⅳ-2 기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 만족 확률

[그림 Ⅳ-2]는 조사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의 경우 최대 16%p까지 차이가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11점 척도 중 5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다른 변수는 통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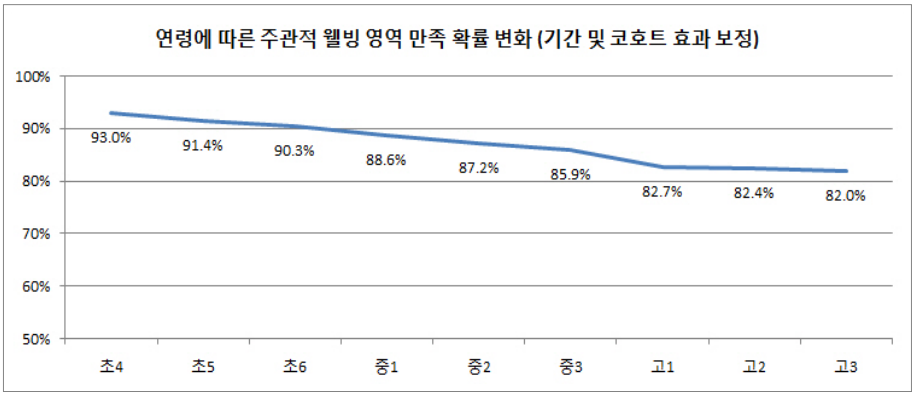
그림 Ⅳ-3 출생 코호트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위에 제시한 [그림 Ⅳ-3]은 출생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데, 97년생들의 경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76.0% 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08년생의 경우에는 9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20%p 가까이 증가한 변화로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보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즉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0% 밖에 되지 않았던 97년생의 경우 2015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인 반면, 9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 08년생들은 2018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20%p의 차이에는 코호트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2015년과 2018년의 차이,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차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97년생과 08년생들이 만약 같은 기간, 같은 학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두 그룹이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나 기간에 따른 차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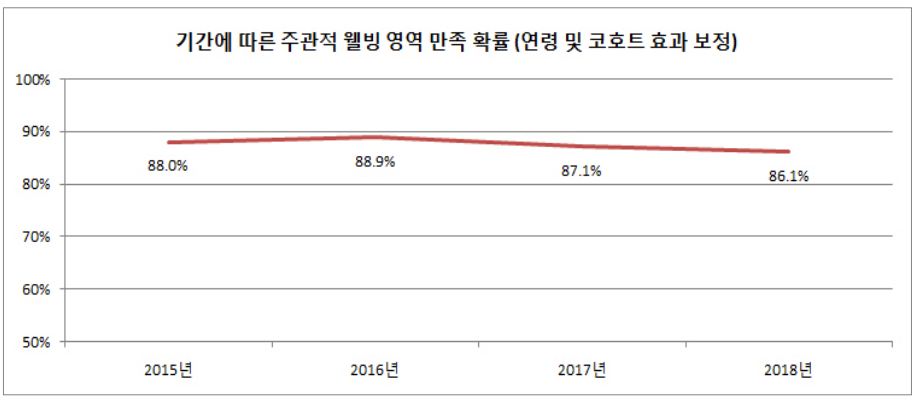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과 코호트를 보정했을 때의 연령의 차이, 연령과 코호트를 보정했을 때의 기간의 차이, 그리고 연령과 기간을 통제했을 때의 코호트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바로 아래의 세 개 그래프이다. 먼저 [그림 Ⅳ-4]는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정했을 때 연령의 차이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Ⅳ-1]에서 기간과 코호트의 효과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변화의 폭이 대략 16%p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효과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에 만족할 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5]는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보정했을 때의 기간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림 Ⅳ-2]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4년 간 기간에 따른 변화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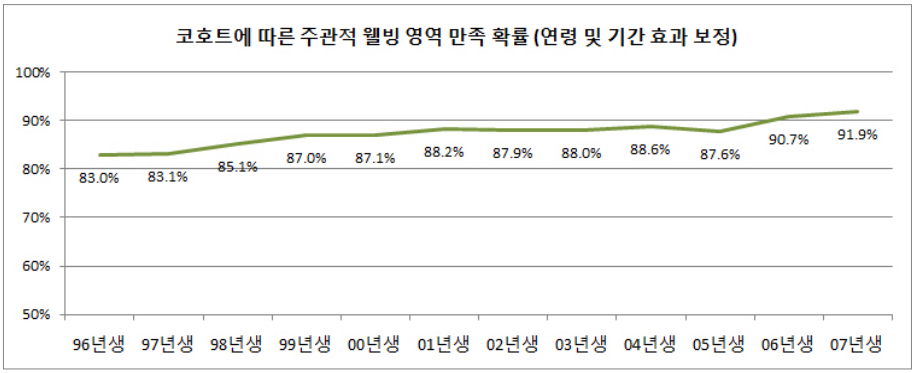
*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서 Intrinsic Estimator를 사용하여 기간과 코호트 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의 연령 효과의 계수를 추정한 후, 기간과 코호트를 평균으로 가정했을 때 연령의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만족의 확률

그림 Ⅳ-4 연령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기간, 코호트 효과를 보정)



*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서 Intrinsic Estimator를 사용하여 연령과 코호트 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의 기간 효과의 계수를 추정한 후, 연령과 코호트를 평균으로 가정했을 때 연령의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만족의 확률

그림 Ⅳ-5 기간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연령, 코호트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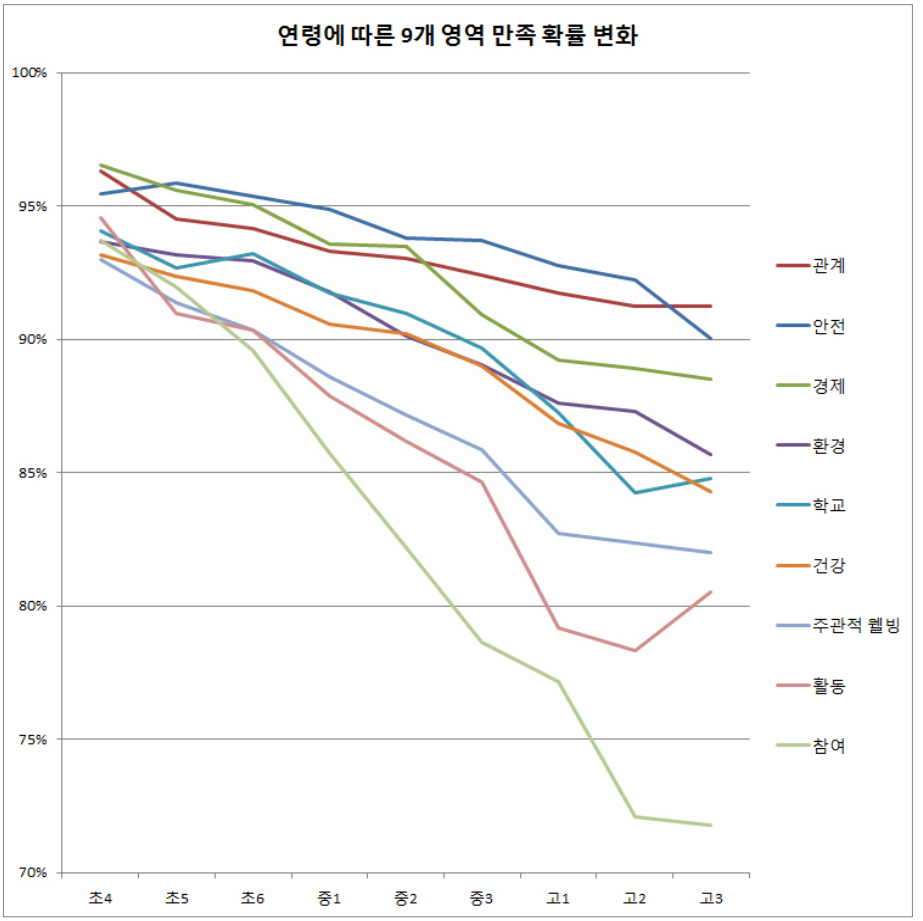
*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서 Intrinsic Estimator를 사용하여 연령과 기간 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의 코호트 효과의 계수를 추정한 후, 연령과 코호트를 평균으로 가정했을 때 연령의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만족의 확률

그림 Ⅳ-6 코호트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확률 변화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그림 Ⅳ-6]은 연령과 기간의 효과를 보정했을 때의 코호트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3]에서 연령과 기간의 효과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변화의 추이가 비슷하여 나중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삶에 만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의 크기는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코호트에 따른 차이도 9%p 가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나중 세대의 경우 삶에 만족할 확률이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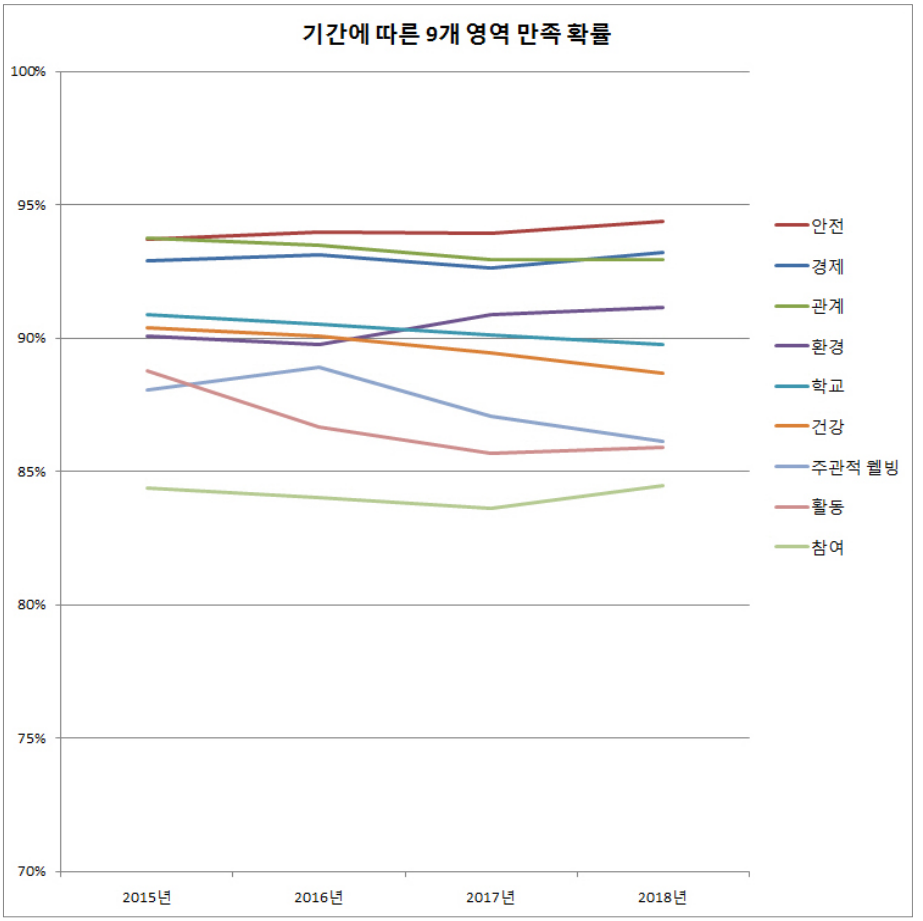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웰빙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세대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웰빙 영역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그림 Ⅳ-7~Ⅳ-9]는 주관적 웰빙 영역을 포함하여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경제, 활동, 환경 총 9개 영역에 대한 만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할 확률이 감소하고, 나중 코호트일수록 만족할 확률이 증가하며, 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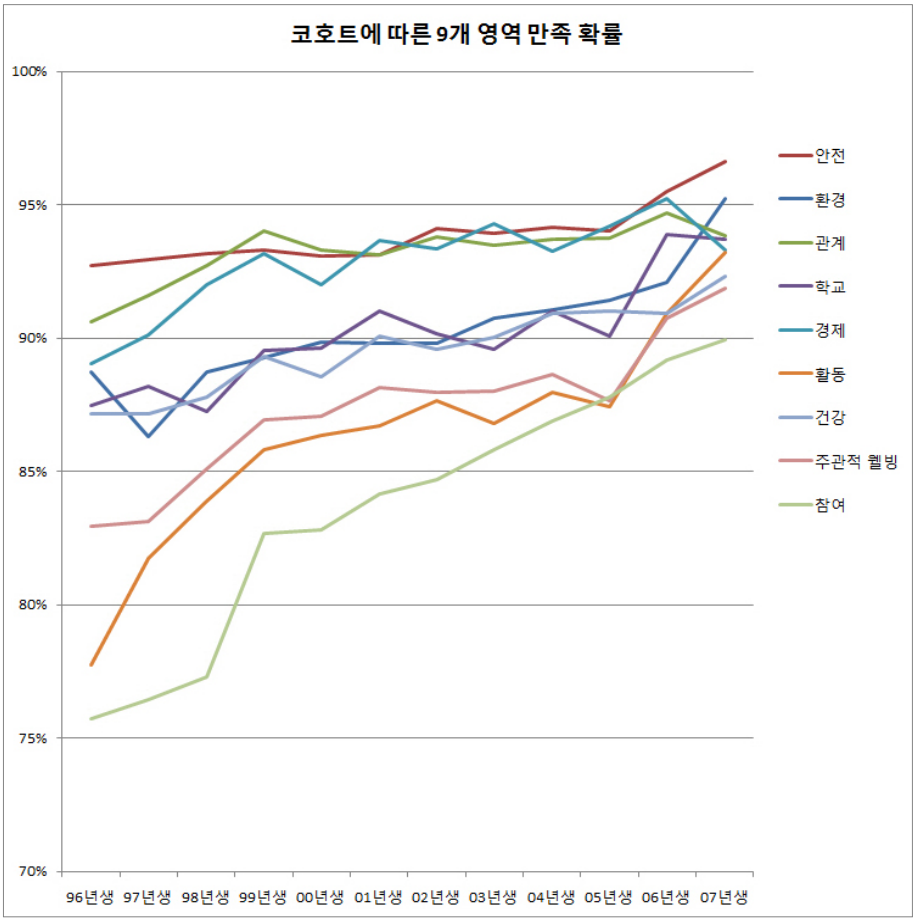
*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 관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 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
* 학교: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 안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
* 환경: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
* 참여: 사회에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
* 활동: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
* 경제: 가정형편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
* Intrinsic Estimator를 활용한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 결과

그림 Ⅳ-7 연령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기간, 코호트 효과 보정)



*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 관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 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
* 학교: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 안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
* 환경: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
* 참여: 사회에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
* 활동: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
* 경제: 가정형편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
* Intrinsic Estimator를 활용한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 결과

그림 Ⅳ-8 기간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연령, 코호트 효과 보정)



*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 관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 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
* 학교: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 안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
* 환경: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
* 참여: 사회에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
* 활동: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
* 경제: 가정형편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
* Intrinsic Estimator를 활용한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 결과

그림 Ⅳ-9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 만족 변화 (연령, 기간 효과 보정)

마지막으로,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때,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두 변인인 성별과 학업성적이 각각 연령, 기간, 코호트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Ⅳ-10], [그림 Ⅳ-11], [그림 Ⅳ-12]와 같다. 첫째로 [그림 Ⅳ-10]은 연령효과를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해서 따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삶에 만족할 확률이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경향에서 두 그룹 사이에 조금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중학교 3학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삶에 만족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좀 더 일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삶에 만족할 확률이 높은데, 특히 중학교 2학년 즈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은 기간에 따른 변화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본인들의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에는 2%p 차이에서 2018년에는 5%p 차이로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 좀 더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2]는 코호트에 따른 변화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눈 결과이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모두 나중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크게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Ⅳ-13], [그림 Ⅳ-14], [그림 Ⅳ-15]는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좋지 못한 학생들로 나누었을 때,

연령, 기간, 코호트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서, 조사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태어난 세대인가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좋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가 연령, 기간, 코호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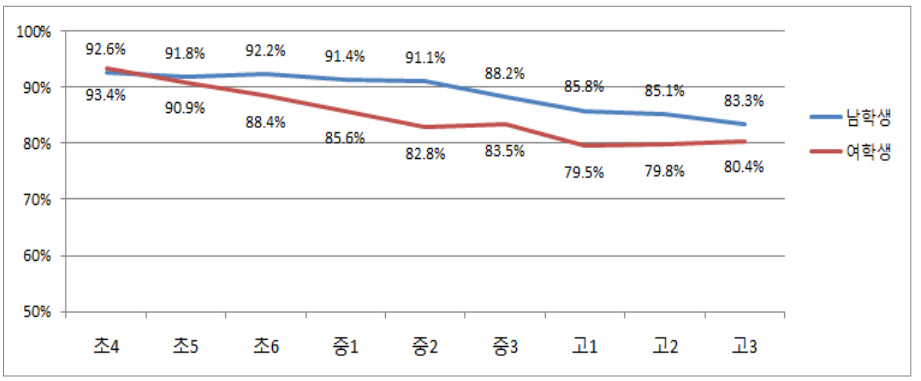


그림 Ⅳ-10 성별에 따른 연령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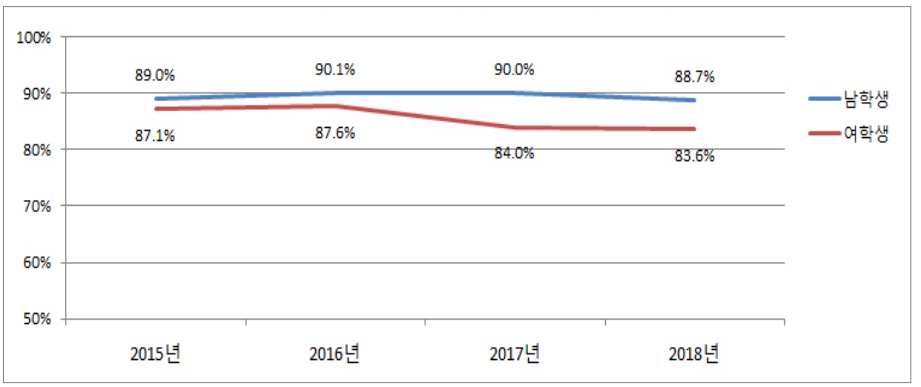


그림 Ⅳ-11 성별에 따른 기간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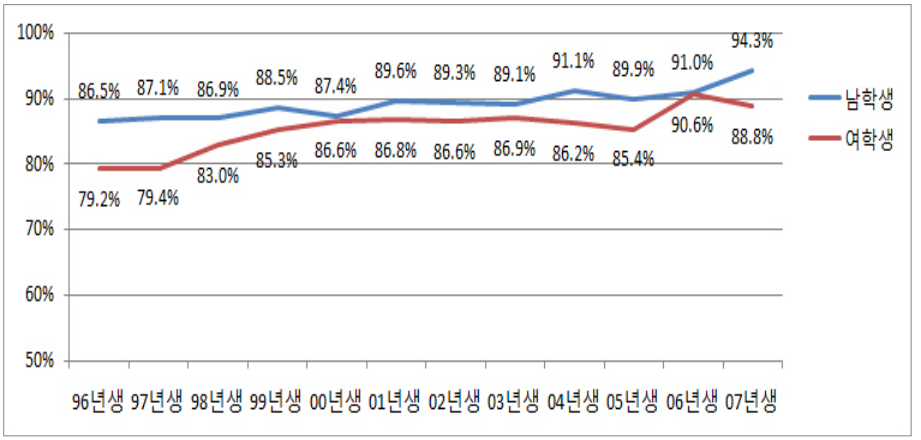


그림 Ⅳ-12 성별에 따른 코호트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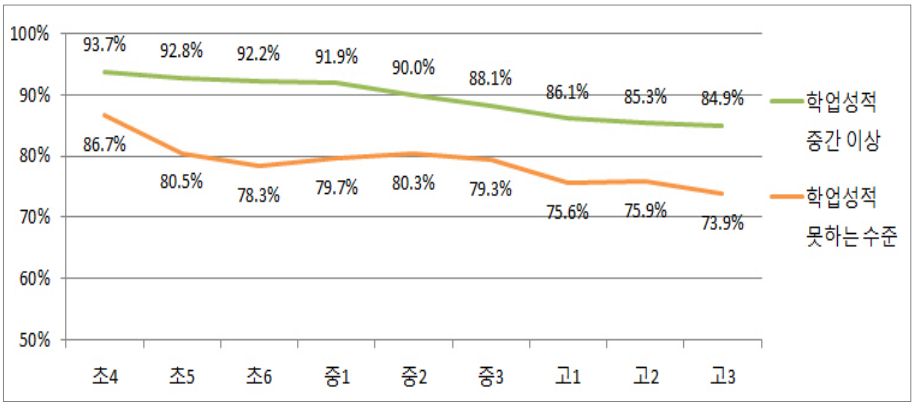


그림 Ⅳ-13 성적에 따른 연령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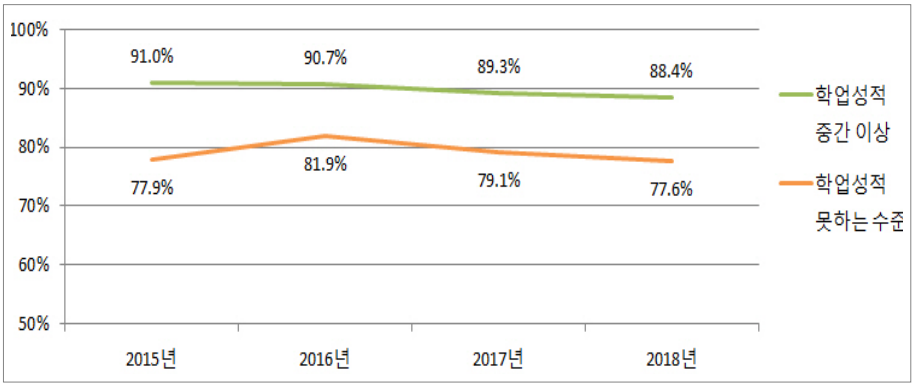


그림 Ⅳ-14 성적에 따른 기간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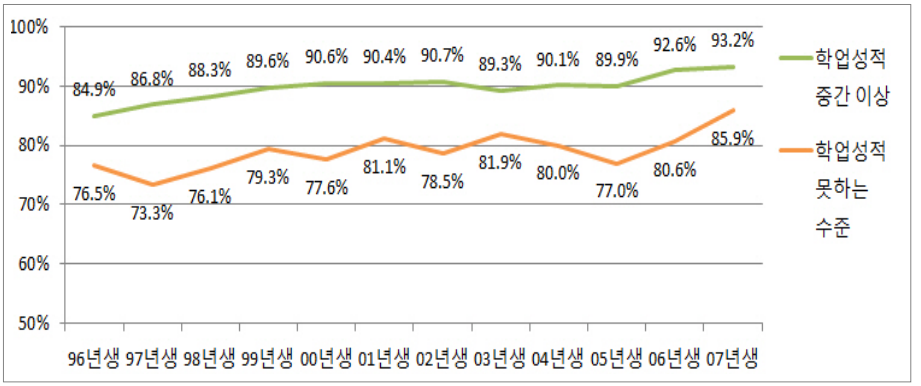


그림 Ⅳ-15 성적에 따른 코호트 효과 차이 (연령, 기간 효과를 보정)

2.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1) 연구개요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위험 행동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주관적인 행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첫째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 수준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등 여섯 가지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중 특히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단순히 평균적인 만족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만족 수준의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때, 1) 매우 행복한 학생들이 꽤 있지만 매우 불행한 학생들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낮은 경우와 2) 매우 불행한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매우 행복한 학생들이 적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게 된다. 전자의 경우라면 매우 불행한 학생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매우 불행한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

국제비교를 위해 총 3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는 Jacobs 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Children's World 연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였다. Children's World의 경우 2013~2014년에 16개 국가에 거주하는 9세, 11세, 1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복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연구의 경우 Children's World에서 사용하는 설문을 일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Children's World는 2013년에서 2014년인 반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연구는 2018년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 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의 기간효과는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고, 한국 청소년들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같은 코호트라고 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로는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HBSC는 2002년부터 매 4년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총 48개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1, 13,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 웰빙, 사회적 환경, 그리고 건강 행동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국제 비교 연구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HBS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에 조사한 데이터와 한국 청소년들의 조사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2000년부터 시작되어 매 3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데이터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PISA에는 총 7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인데,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국제 비교를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는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PISA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 2015년 자료와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Children's World, HBSC, PISA 데이터에서 비교 분석을 위해 활용된 국가 및 대상 연령은 다음 표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Ⅳ-2 국제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 국가, 대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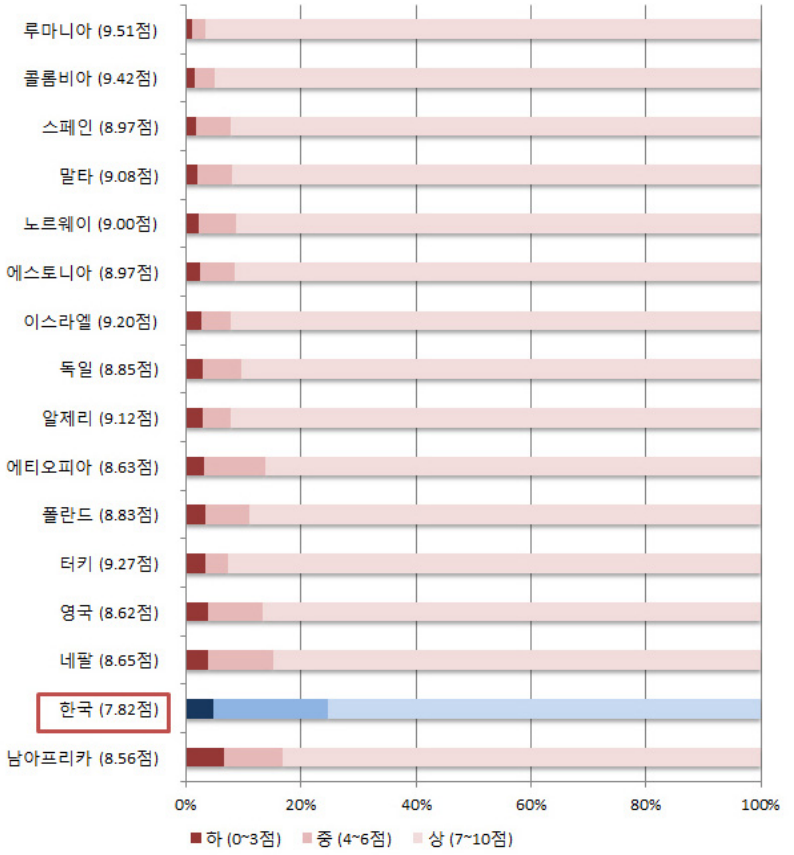
	데이터	포함 국가	대상 연령
1	Children's World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노르웨이, 독일, 루마니아, 말타, 스페인,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이스라엘, 콜롬비아, 터키, 폴란드	11세 13세
2	HBSC	그리스, 그린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잉글랜드,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1세 13세 15세
3	PISA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15세

Children's World, HBSC, PISA 등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된 문항은 다음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먼저 Children's World의 문항들은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과 관련된 총 6개 문항이며, HBSC의 문항들은 주관적 웰빙, 건강, 학교생활과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PISA 문항들은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3 국제 비교에 사용된 영역 및 설문 문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연구 설문 문항	국제 연구 설문 문항
Children's World	1	주관적 웰빙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2	관계	학생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general"
	3	건강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health"
	4	학교 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chool experience"
	5	안전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about how safe you feel"
	6	환경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area where you live, in general"
HBSC	1	주관적 웰빙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ere is a picture of a ladder. The top of the ladder '10' i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0' i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In general, where on the ladder do you feel you stand at the moment?
	2	건강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Would you say your health is?
	3	학교 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PISA	1	소속감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I feel like I belong at school.
	2	어울림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I feel awkward and out of place in my school.
	3	외로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I feel lonely at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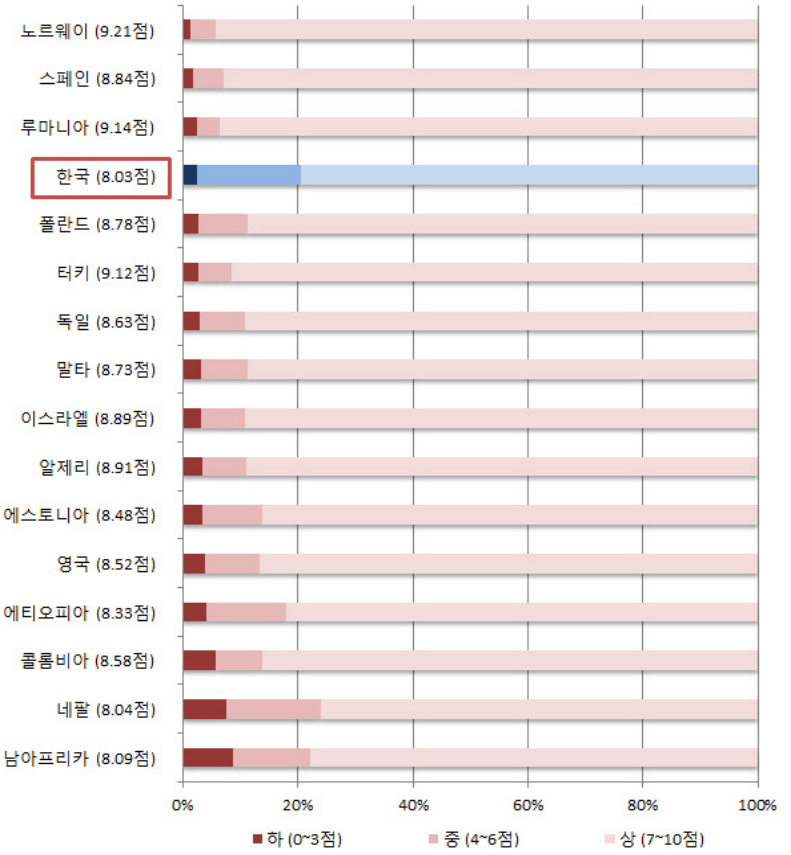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8.91	0.39	루마니아 (9.51)	한국 (7.82)

*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에서 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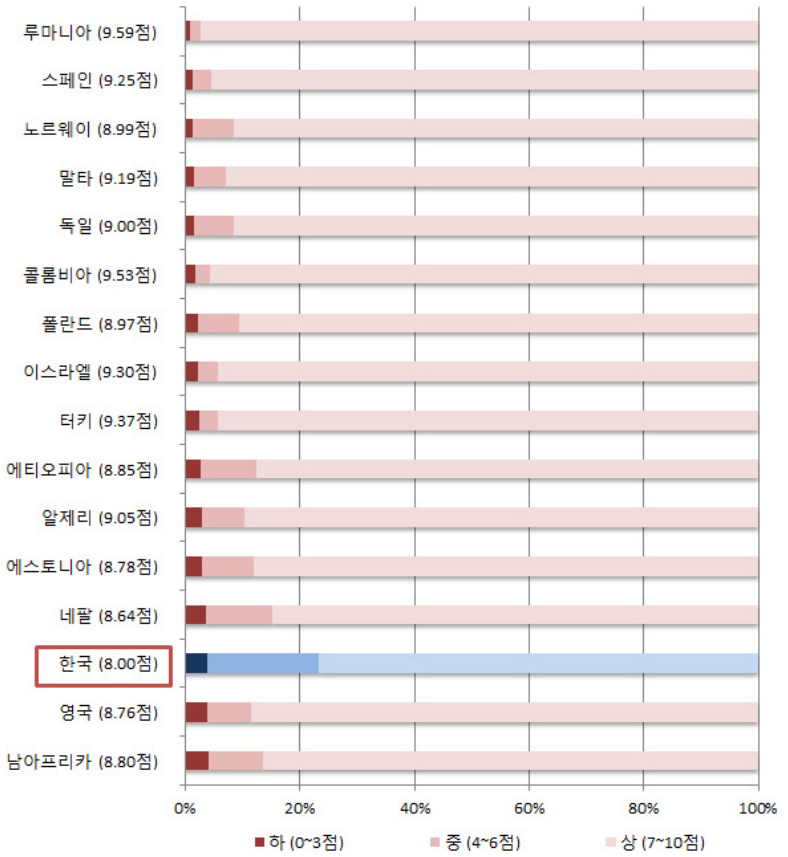
그림 Ⅳ-16 주관적 웰빙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8.64	0.37	노르웨이 (9.21)	한국 (8.03)

* "학생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에서 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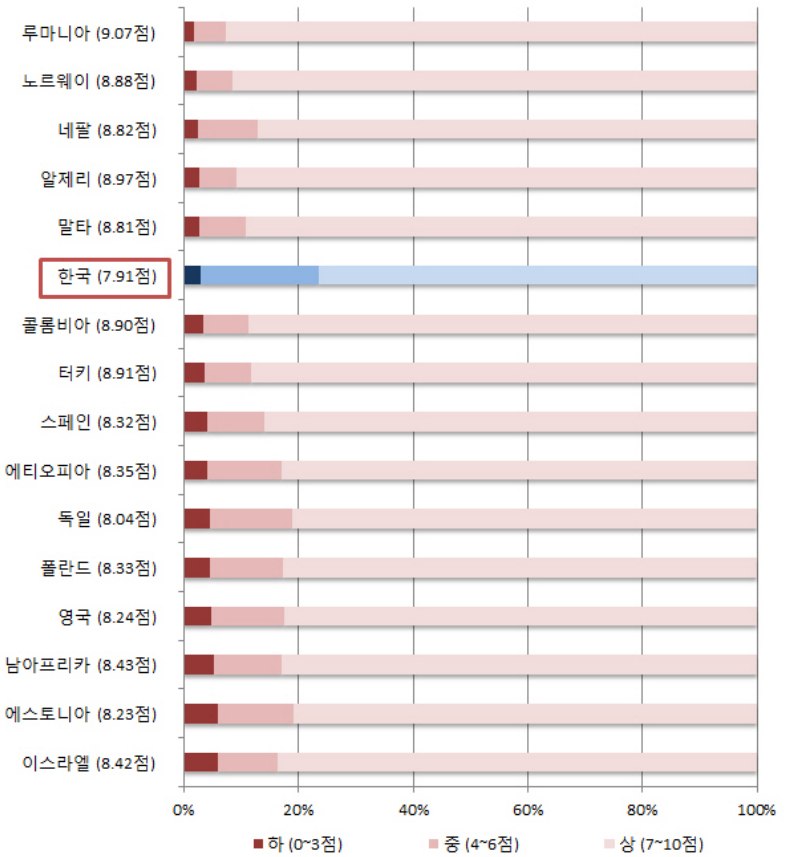
그림 Ⅳ-17 관계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9.00	0.37	루마니아 (9.59)	한국 (8.00)

*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에서 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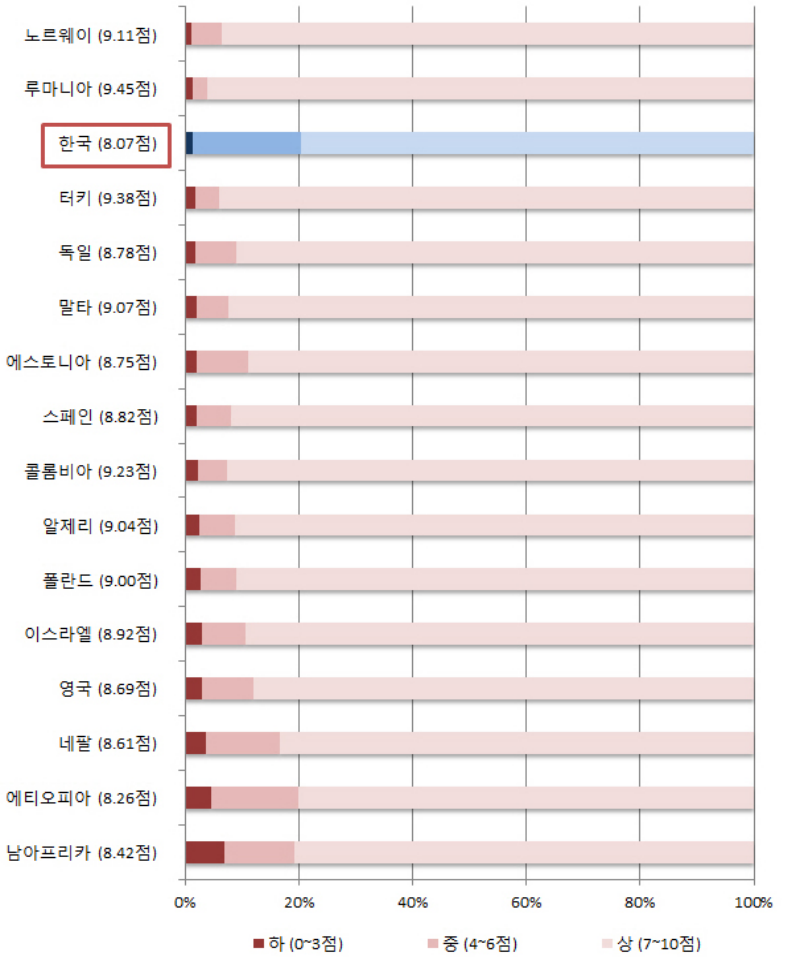
그림 Ⅳ-18 건강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8.54	0.35	루마니아 (9.07)	한국 (7.91)

*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에서 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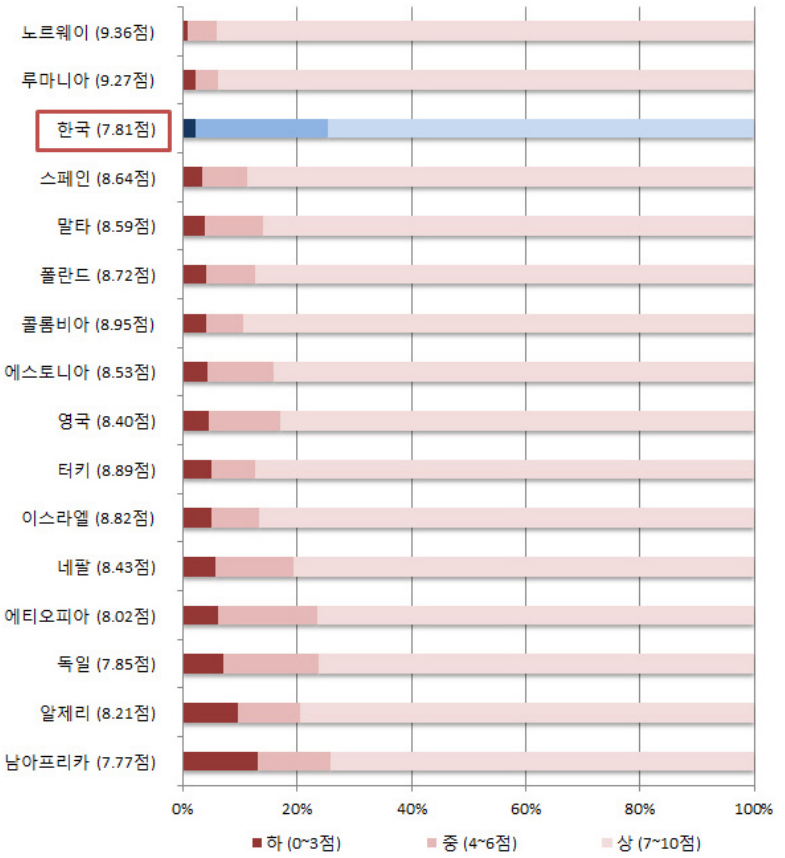
그림 Ⅳ-19 학교생활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8.85	0.37	루마니아 (9.45)	한국 (8.07)

*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에서 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그림 Ⅳ-20 안전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M	*SD*	최고 평균점수	최저 평균점수
8.52	0.48	노르웨이 (9.36)	남아공 (7.77)

*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각 국가 명 옆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나타냄.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있는 국가 순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은 순서, 즉 하 (0점~3점)의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제시함.

그림 Ⅳ-21 환경 영역 만족도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Children's World)

[그림 Ⅳ-16]부터 [그림 Ⅳ-21]까지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각각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영역에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에는 국가명과 그 옆에 평균점수, 그리고 점수의 분포가 그려져 있다. 평균점수는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점수의 분포는 총 11점 척도 중에서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나누었을 때 상, 중, 하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에서 국가들이 나열되어있는 순서는 각 영역에서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비중에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순서로 정리하여 배열하였다.

첫째로는 모든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이 다른 조사 대상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여섯 개의 영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만족 수준이 16개 국가 중 꼴찌인 영역이 다섯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꼴찌를 면한 환경영역에 있어서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뒤에는 남아공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ECD 국가 중에서 주관적 행복 수준이 최저 수준이라는 기존의 논의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6년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의 거의 1/40 수준이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에티오피아의 청소년들보다도 모든 영역에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각 영역에서의 만족 수준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에는 그나마 희망적이다. 각 영역에서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역에 따라서 한국이 모두 최악의 상황은 아님을 볼 수 있다. 안전과 환경 영역을 보면 노르웨이와 루마니아 다음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경우에는 16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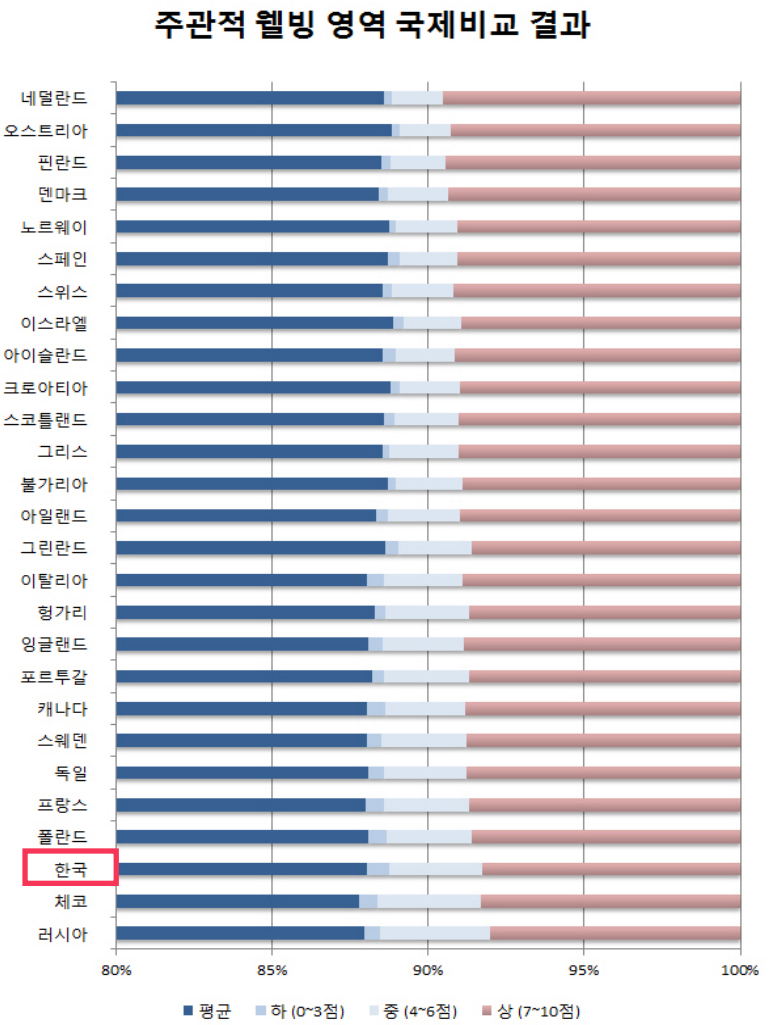
한편, 주관적 웰빙 영역이나 건강 영역에 있어서는 평균만 낮은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경우 남아공, 영국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를, 주관적 웰빙의 경우 남아공의 뒤를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 수준에 있어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점수 분포를 볼 때, 이 두 영역은 보통수준이라 응답한 결과도 많았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안전, 환경, 관계 영역은 위 두 영역과 같이 전체 평균 점수는 낮은 영역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중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는 영역이다. 즉 이들 영역들은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영역에 대해 다른 국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에서는 아주 불만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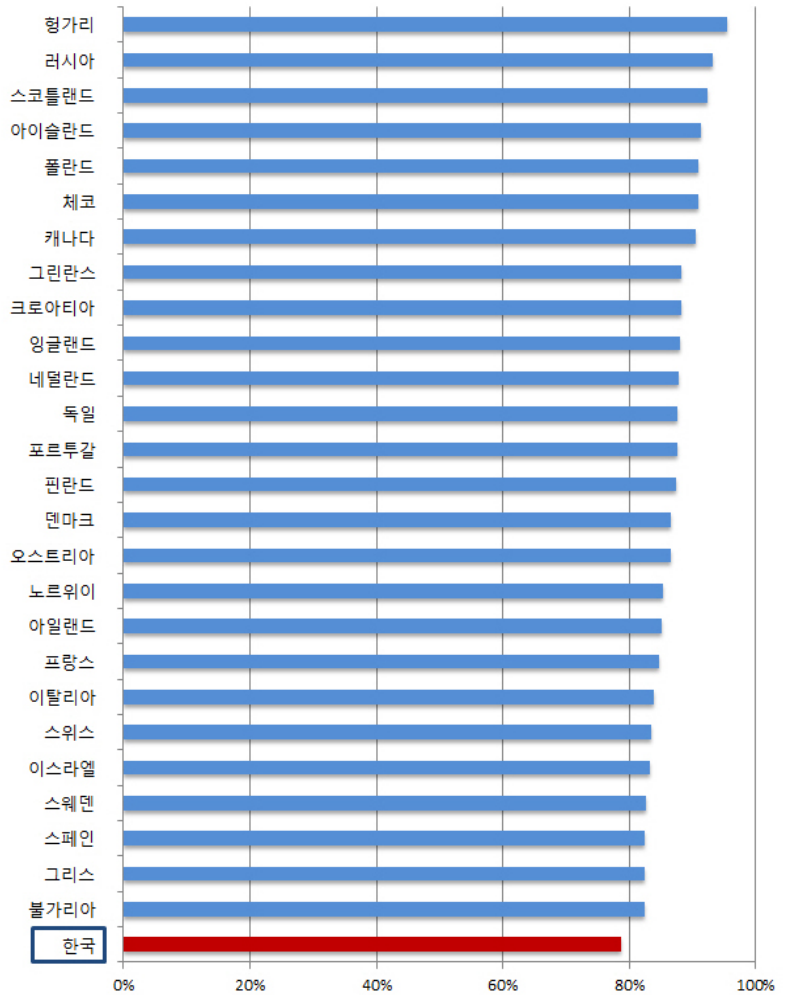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이들을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 Ⅳ-22~Ⅳ-24]는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를 한 결과이고, [그림 Ⅳ-25~Ⅳ-27]은 PISA 자료를 활용하여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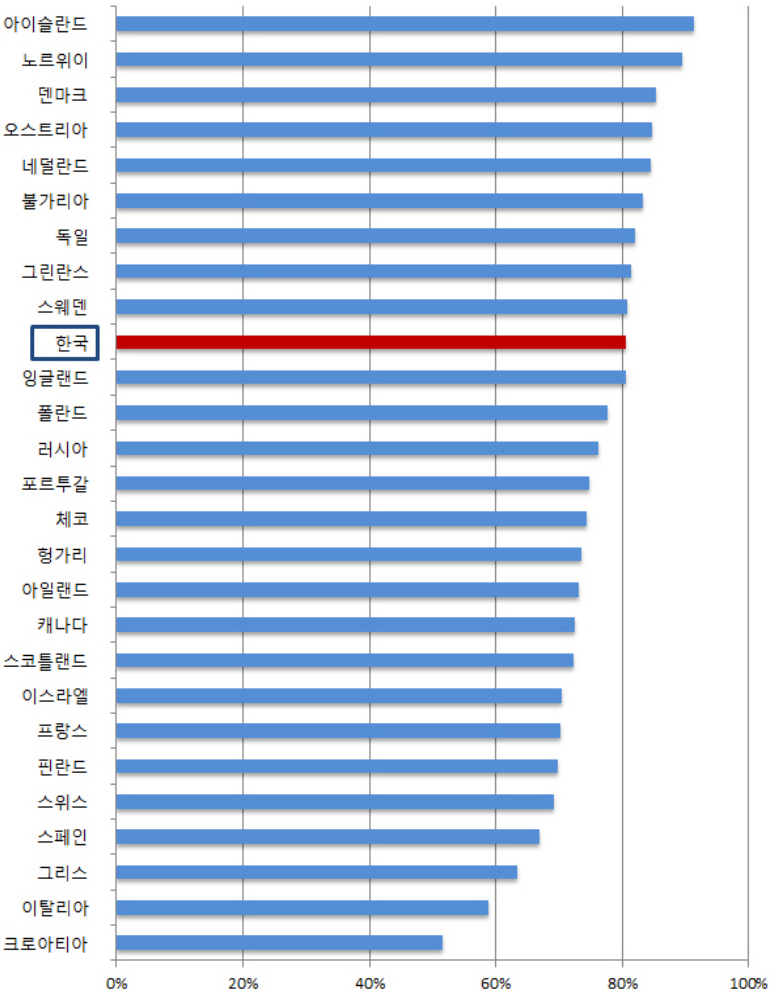
* "학생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총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 가로 누적 그래프는 0점에서 3점은 하, 4점에서 6점은 중, 7점에서 10점은 상으로 구분함.
* 제시되어 있는 국가 순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 함. 즉 상(7~10점)의 비율이 높은 순임.

그림 Ⅳ-22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HB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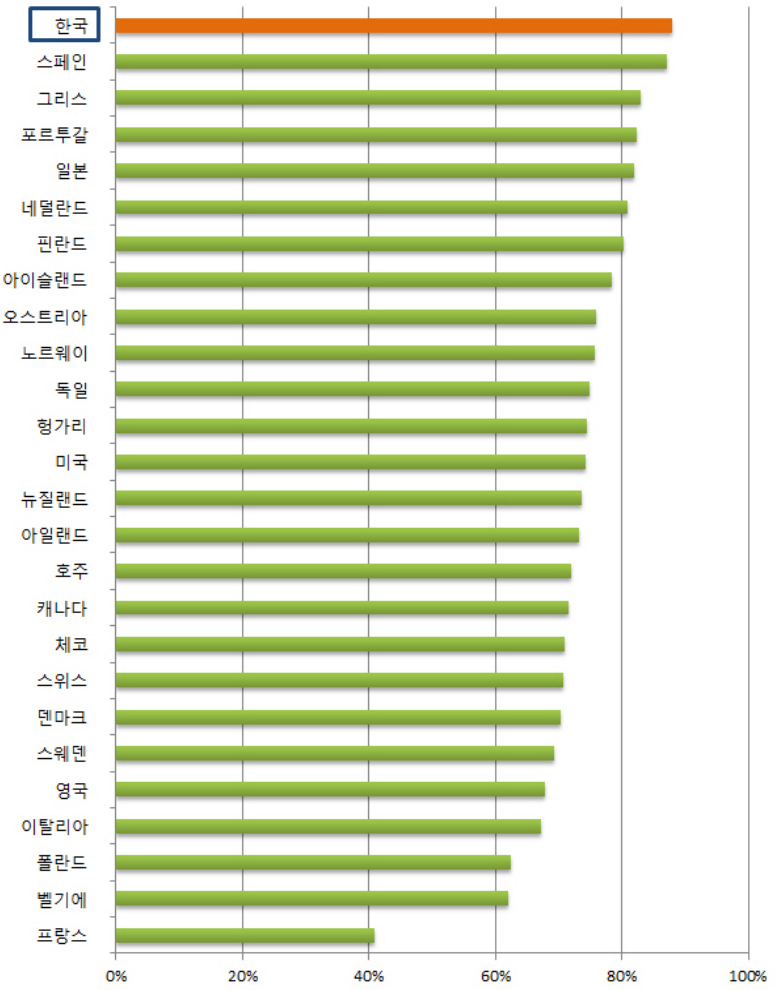
* 한국: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만점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
* HBSC: 본인의 건강이 “Excellent” 혹은 “Good”이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Ⅳ-23 주관적 건강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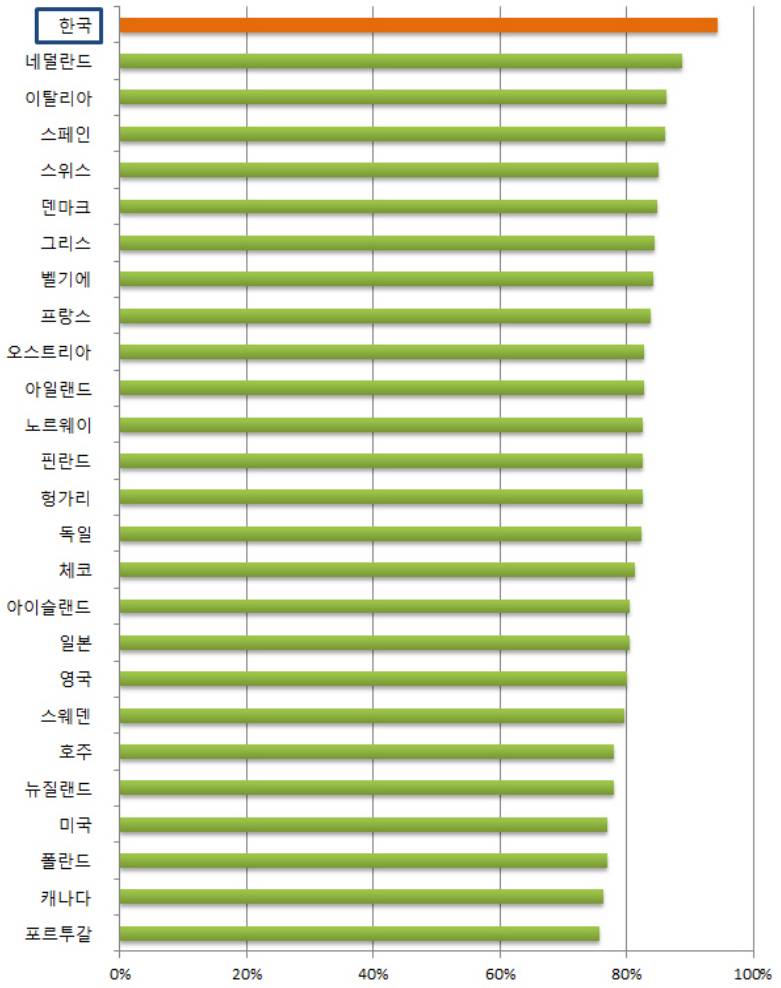
* 한국: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
* HBSC: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질문에 대해 “like a lot”, “like a bit”, “not very much”, “not at all” 중 “like a lot” 혹은 “like a bit”이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Ⅳ-24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HB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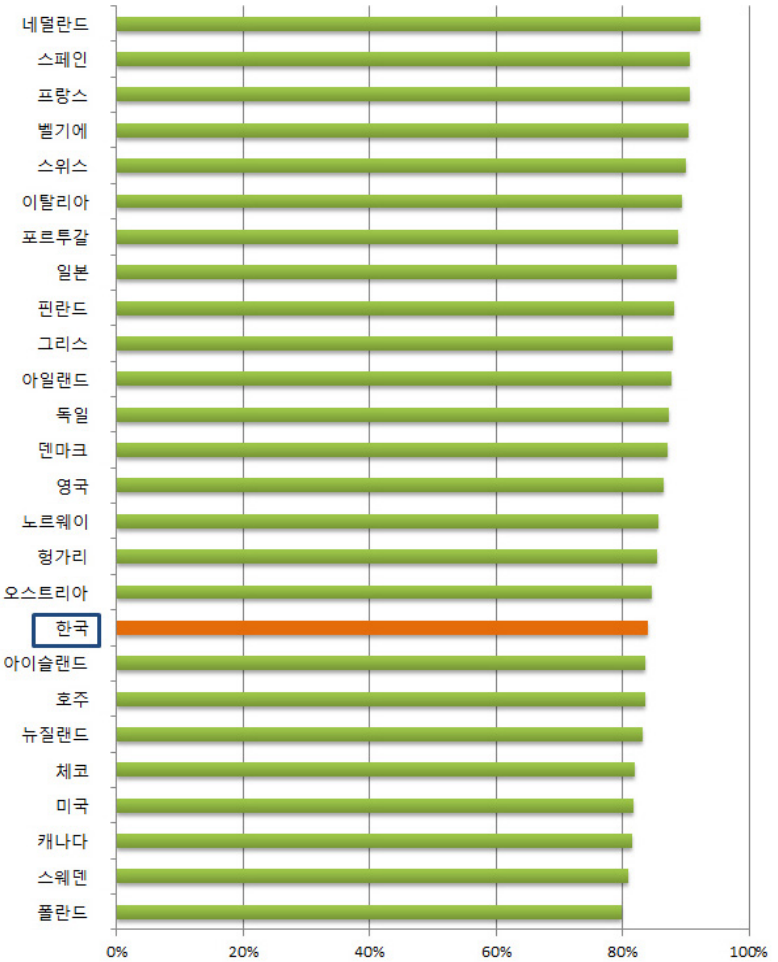
* 소속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항에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

그림 Ⅳ-25 소속감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PISA)



* 주변사람과 잘 어울리는가에 대한 문항에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Ⅳ-26 어울림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PISA)



*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운가에 대한 문항에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Ⅳ-27 외로움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PISA)

먼저 [그림 Ⅳ-22~24] HBSC 데이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Ⅳ-22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로, Children's World에서 측정한 것과 같은 설문 워딩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Children's World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만족 수준이 낮았던 것과 유사하게 HBSC 데이터와 비교할 때도 한국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3]은 주관적 건강과 관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만점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측정했으며, HBSC에서 조사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이 "Excellent", "Good", "Fair", "Poor" 중에서 "Excellent" 혹은 "Good"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앞서 Children's World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림 Ⅳ-24]는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11점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HBSC의 경우에는 "How do you feel about school at present?" 질문에 대해 "like a lot", "like a bit", "not very much", "not at all" 중 "like a lot" 혹은 "like a bit"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HBSC의 경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연구와 측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순위라고 보기는 힘들고, 앞서 Children's World에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25~27]은 PISA 자료로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소속감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높았고, 외로움 수준은 비교적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지난 4년간 수행되어 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연구 데이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령, 기간, 코호트라는 상호 연관된 변수들의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주제에서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더 일찍 태어난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삶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작동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이른 나이에 만족도가 감소하는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와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 첫째,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학교생활, 안전, 환경 영역 모두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만족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영역에서의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는 불만족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하는 청소년들이 비율이 낮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환경, 안전, 관계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주관적 웰빙, 건강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자신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할 것이다. 특히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나이에는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이후로는 남학생들의 만족도 감소가 두드러졌다. 연령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집단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각 영역 별로 정책적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러한 결과가 1)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2)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건 아니고 대부분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불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에 집중하여 이들을 최소한 보통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불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동시에 보통 수준인 학생들을 높은 만족 수준으로 올리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주관적 웰빙, 건강 영역이 있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안전, 환경, 관계 영역이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 웰빙과 건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매우 만족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 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 안전, 관계 영역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 접근과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평가

1. 2018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2. 서울시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3.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4. 전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내용 및 논의
5. 시범사업 효과 분석

5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평가

1. 2018 시범사업 운영 개요 및 설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도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2016년~2017년에는 2개 지역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형(행정기관 주도, 민-관 연계 협력, 시민단체중심 및 협동조합 형태)과 지역특성(농산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등을 고려하였고,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한편, 2018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내용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 특성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 영역의 하나로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였다. 모집방식도 기존의 공모과정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기 개발된 설문지를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시범사업 지역에 전달하고, 사업 운영진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 연구진이 회수하여 참여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와 효과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국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사업 진행 절차는 [그림 V-1]과 같으며, 사업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와 참여효과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사전사후 인식변화에 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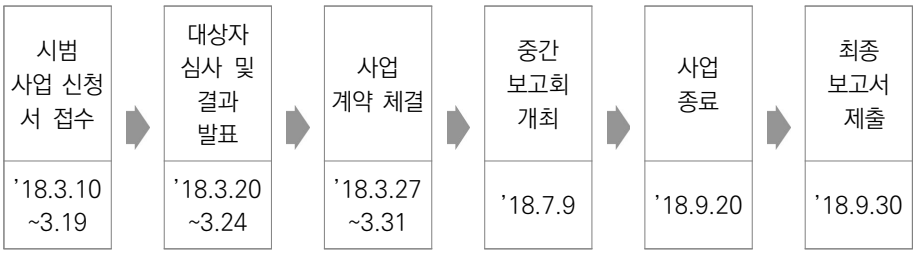


그림 V-1 시범사업 운영 절차

2015~2017년도 시범사업 6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 건강·복지, 활동)과 연관된 단위 프로그램을 〈표 V-1〉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별 3개 이상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제안하였다. 사업 및 프로그램 명칭은 지역과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작명 가능하도록 하고, 권고사항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기획 및 운영을 유도하도록 명시하였다.

표 V-1 2015~2017년도 시범사업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청소년 상상행복마을 [역사, 문화, 스포츠] 만들기 동아리	•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의견과 아이디어 수집 안내 및 아카데미 운영 •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올해의 상상마을[도시]'로 선정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유사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읍면동 단위 마을 수준에서 실시 • 성남시: '상상지 프로젝트' [청소년 클라우드 펀딩으로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개발 및 창업 등을 실천]
청소년 프리마켓과 문화활동 연계 동아리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지역의 유무형의 자원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봉사활동과 연계방안 모색)	• 물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문화행사 병행 추진 •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판매 적극 권장 •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공간 협조와 운영 노하우 공유
청소년 옴부즈맨 (기자단, 영상 제작, 방송) 동아리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	• 청소년들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기구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자율성 부여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활동 동아리	• 마을 단위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통합의 공간 및 활동 실시	•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벼운 프로그램부터 시작 (예: 봉사활동, 장기자랑 등) • 적극적인 활동팀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다문화·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동아리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기초학습지도를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정체감과 또래관계 등의 발달과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 기간은 6개월~1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와 봉사기회를 제공함 • 중·고등학생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 사전교육실시 및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 필요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및 창업동아리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함양과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교육 실시, 나아가 창업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함	• '청소년 일자리 은행' 및 '상설프리마켓운영' 등과 연계 •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 지역 내 기업체와 후원계약 체결 및 현장교육과 인턴제도 운영

* 참조: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공모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 서울시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Ⅴ-2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꿈마을 청소년동아리 응원프로젝트	공릉동 꿈마을에 살고 있는 청소년동아리가 마을을 기반으로 자율적, 창의적,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동아리 지원프로그램

2) "꿈마을 청소년동아리 응원프로젝트"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추진개요

- 청소년동아리 모집 및 홍보
-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를 찾기 위해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기관 및 단체, 인근 중고등학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홍보지를 게시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
- 7개 동아리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 서류전형을 거쳐 마을과 융합된 활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발적 참여의사가 강한 7개 동아리 최종 선정(활동분야의 다양성 및 예산활용능력도 함께 검토함)
-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지원금 지급
- 본 사업의 취지와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활동 양식을 배포함
- 월 1회 동아리지도자 회의 진행
- 동아리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더 나은 지원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매월 정기회의 진행

- 청소년동아리대표 중간 공유회 진행(중간보고서 및 사전설문조사지 취합)
- 청소년동아리대표(팀별 2~3명)와 지도자가 모여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5, 6월 두 달간의 활동과정과 내용을 나누는 자리 마련
- 꿈청응 발표회 및 식사 진행(결과보고서 및 사후설문조사지 취합)
- 7개 동아리원이 모여 5월부터 9월까지 활동한 내용을 영상, 사진, PPT 등으로 발표하고 프로그램 참여소감을 이야기하며 성취감을 나눔
- 동아리지도자 평가 및 최종회의
- 평가회의를 통해 지역 내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고민, 정책제안 논의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프로그램 목표

마을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청소년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해, 청소년의 생각과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한다.

② 기대효과

- 마을 안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만난다.
-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동네 다양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한다.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해 청소년과 함께 궁리하고 제언을 듣는다.

③ 세부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영역	세부 사업	시행 일정
꿈마을 청소년동아리 응원프로젝트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4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5월
	• 7개 동아리활동 지원금 지급	5월
	• 월 1회 동아리지도자 정기회의	5~9월
	• 청소년동아리 중간 공유회 (20명 참석)	6월
	• 청소년동아리 활동 발표회 (40명 참석)	9월
	• 사업담당자 및 동아리지도자 평가회의	9월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상반기 모니터링 및 간담회	센터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발전적 대안제시	• 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동아리 7팀과 인터뷰 • 6월 9일(토) 기관장 간담회	• 지역주민동아리와의 만남, 교류, 협업의 가능성 모색 • 모니터링의 새로운 방식 경험
지스타그램	그린나래 홍보 및 마을 주민과 청소년에게 추억 제공	• 6월 2일(토) 경춘선철길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 홍보 활동 진행 • 두 팀으로 나눠 옛날교복을 입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활동	• 2시간동안 약 60명의 지역 주민이 이벤트에 참여함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안내문 제작	센터를 처음 이용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문 제작	• 센터 안내문 제작 • 꿈나르샤 축제 때 1차 배포 진행 • 추후 수정을 거쳐 완성 후 2차 제작 및 배포 예정	• 센터 지하 1층~7층까지에 대한 소개를 그림으로 그린 센터 안내문 제작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센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곳곳을 살펴보는 시간이 됨
제8회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부스운영	꿈나르샤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 의견수렴 꿈나르샤를 주제로 카카오톡 방탈출게임 진행	• 9월 8일(토) 활동 진행 • 축제관련 퀴즈를 만들어 카카오톡 방 탈출 게임을 진행하고, 추후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해 모든 참여자에게 간식 증정 •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기프트콘 증정	• 축제에 참여하는 팀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의 부스 운영이 신선했고 재밌었다는 평을 받음 • 구글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꿈나르샤 축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②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다드림교실 청소년밴드 “다드림밴드”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밴드 연습	악기를 배워 건전한 취미 만들기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연주 기본교육 진행	• 악기 연습활동 23회 진행 • 청소년들의 담당 악기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음악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집단 활동을 통한 청소년 간의 관계성 향상
마을축제 공연	지역 청소년 축제에서 무료로 공연해 자신감과 성취감 찾기	• 9월 지역 청소년 축제 (꿈나르샤) 참여를 통한 밴드 공연 진행	• 지역 청소년 축제 공연 1회 진행 • 무대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 • 동아리 내 결속력 및 관계성 향상 • 동아리 활동 지속에 대한 동기부여

③ 성인마을활동가 든든한이웃X청소년기자단 프로젝트동아리 “백인백색”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5/26	• 백인백색 • 프로젝트 이해 • 청소년기자단과 든든한이웃 친해지기 • 인터뷰 주제 • 공유 및 실습	• 백인백색 프로젝트와 든든한 이웃 소개 • 아이스브레이킹 • 2018년 인터뷰 주제와 질문 공유 • ‘덕후의 상상은 이루어진다’: 1인 멘토와 청소년 한팀으로 구성하여 5개 조로 편성, 팀별로 인터뷰 시연, 멘토 피드백	• 마을주민으로 이루어진 멘토(든든한이웃) 6인과 청소년 20명이 결합된 기자단 구성 • 2018년 백인백색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내용을 이해하고 공유 • 오리엔테이션 이후 수행해야할 인터뷰를 시연하여 질문의 수정 및 보완점 발견
인터뷰 진행 및 원고 마감 5월~6월	• 청소년이 친구 및 주변인을 인터뷰해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 넓히기 • 청소년이 인터뷰 내용을 스스로 정리	• 청소년기자단 1인이 3인의 친구 및 주변인을 인터뷰하고 내용을 정리 • 정리된 원고를 멘토에게 파일형태로 전달	• 청소년이 직접 주제에 맞는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고 진행 •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덕질’에 대해 친구 및 지인을 인터뷰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지며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중간 모임 6/9	• 든든한이웃과 청소년기자단의 중간모임을 통해 인터뷰 내용 공유 • 추가 인터뷰 판단할 내용 점검	• 팀별로 각 인터뷰 내용을 읽고 공유 • 수정, 보완할 부분을 체크 • 잘된 사례 세가지를 발표 • 인터뷰 시 느꼈던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공유	• 자신의 인터뷰와 친구들의 인터뷰를 서로 비교한 후 수정할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음 • 인터뷰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됨 • 인터뷰 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나눔으로써 다음 프로젝트시 반영할 수 있음
디자인 회의 6/14 리플렛 제작 6월~7월	• 디자이너와 프로젝트 공유 • 리플렛 디자인 • 컬러,접지방식 결정 • 리플렛 제작	• 리플렛 초안 6.30일까지 마감 • 4차에 걸쳐 리플렛 디자인 수정 및 내용 수정 진행 • 리플렛 제목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우리들의 세계, 덕후의 하루' 선정	• 리플렛 전체 디자인과 글 내용 배치가 결정됨 • 리플렛이 제작됨
출판 기념회 7/21	• 리플렛 확인 • 서로의 활동을 격려, 축하하는 자리 마련 • 함께 소감 나눔	• 리플렛에 담긴 내용 중 의미 있었던 기사를 읽고 함께 공유 • 덕질하는 친구들과 함께 참석해서 의미를 나눔 • 소감을 이야기함	• 약 3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가 리플렛의 형태로 결과물이 나옴 •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됨 • 기자단 또래의 마을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음

④ 꿈마을 청소년 야구동아리 "블루나인"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정기적인 야구연습 (주1회)	체계적 안전장비를 갖춰 수비, 피칭, 타격 등 제대로 된 야구 활동 진행	• 스트레칭 및 캐치볼, 내야, 외야 펑고 및 피칭, 타격연습, 청백전 및 자유연습	• 매주 토요일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함으로써 야구에 필요한 팀워크, 단결력, 집중력을 키우고 배움
야구시합 VS 공릉레미스 일산백석엘리트	타 팀과 야구시합을 해 경기경험 쌓기	• 시합장소 집합, 경기 소개 및 양팀 인사, 야구경기 진행(6이닝), 경기 마무리	• 타팀과 야구시합을 함으로써 실력을 점검하고 다른 팀에게서 배울점을 찾으며 야구인으로서 한단계 성장 계기 마련
제 1회 공릉동꿈마을 청소년 야구대회	공릉동에 있는 야구팀들이 모여 경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9월 총 4팀이 대회에 참가해 2회씩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선수에게 리그 후 특별한 상장을 수여함	• 대회준비부터 시상식까지 잘 마침 • 공릉동 청소년 야구팀을 만나 교류하는 의미 있는 활동 진행

⑤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교육봉사동아리 “쭈쭈빵빵”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와글와글 청소년 부스 운영활동 (5월)	중국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중국문화 관심과 흥미 유발, 꿈을 키워나가도록 함	• 와글와글 어린이축제에서 체험부스 운영 • (오전 활동) 페이스페인팅 • (오후 활동) 캘리그래피 • 이벤트 : 포춘쿠키 + 젤리	• 많은 지역 청소년이 부스에 참여하였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재밌게 부스활동을 즐김 • 페이스페인팅 부스가 인기가 많았으며, 캘리그라피 부스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캐릭터와 함께 간단한 중국어 회화도 배울 수 있어 부모님들에게 인기 있었음
중국어 교육 봉사활동 계획 (6월)	교육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전공어에 대하여 자신의 진로 적합/연계성 파악	• 한 달간 총 4번을 모여서 중국어 교육봉사활동(지구마을탐방 중국) 오리엔테이션 진행 •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에 따른 책임감 및 전공어에 대한 자신의 진로 적합/연계성 파악을 위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 교육자의 자질을 기르고, 전공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함 •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됨
중국어 교육 봉사활동 계획 및 진행 (7~8월)	4주간 중국어 교육봉사활동을 언어, 예술, 스포츠, 음식에 맞춰 주제별로 교육봉사 진행	• 4주간 중국어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함 • 참가 학생들의 중국어 흥미 유발 • 다문화 사회의 공존성 이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와 시각을 넓힘	• 자신의 중국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중국어를 알려주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 발견 •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양성
꿈나르샤 청소년 축제 준비 및 진행 (9월)	중국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 저렴한 가격으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중국음식을 제조 및 판매	• 수익금 152,850원 •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⑥ 원묵중학교 문화예술창작동아리“창작Q”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페미니즘 전시회	주변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 바꾸기	• 미술작품 준비 및 제작 • 전시회 기획 및 준비 • 첫 번째 “페미니즘” 전시회 개최	• 전시회를 통해 관람자가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 갖는 계기 마련 • 동아리원도 페미니즘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됨
꿈나르샤 페이스페인팅	청소년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페인팅 해주기	• 제8회 청소년축제 꿈나르샤에서 페이스페인팅 부스 운영 • 어린 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도안의 그림이나, 원하시는 그림을 얼굴이나 손에 그림	• 페이스페인팅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많은 마을사람들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줘 힘이 남
꿈나르샤 공간꾸미기	청소년축제 공간예쁘게 꾸미기	• 청소년축제 컨셉에 맞춰 부직포를 이용하여 수박 가랜드와 수박모양의 데코용품을 직접 만들어 장식	• 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공간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었음
유스카페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놀러오는 동생들에게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진행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입구와 3층 유스카페에서 사람들에게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진행 • 어른이나 선생님,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많이 와서 꽃이나 하트 모양의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함	• 어린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두 번째 하는 활동이라 처음 할 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게 됨

⑦ 공릉동 놀이자치동아리 “팔딱팔딱”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놀이워크숍 ‘놀러 가즈아’	놀이워크숍 진행 후 동아리원모집	• 공동체 놀이 진행 및 동아리 가입홍보	• 10명의 신규 회원 모집 • 다양한 청소년들과의 만남 • 놀이워크숍을 통한 놀이문화 확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신규가입자 10명과 동아리의 가치 및 활동계획 수립	• 동아리 소개 및 관계형성 놀이 진행	• 신규가입 회원들과의 친밀감 형성 및 1년 활동계획 수립
와글와글 축제 놀이부스 운영	지역 어린이축제인 와글와글 축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겹게 만들기	• 마을축제 와글와글에서 ‘움직이는 놀이터(놀이부스)’ 운영	• 축제에서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진행 • 성인 놀이동아리 가치놀자 선생님들과의 협업 완성
놀이터는 우리가 접수한다!	동네 어린이들을 초대해 놀이터에서 뛰어 놀며 놀이터 문화 확산	• 사전 모임을 통해 함께 진행할 놀이를 선정, 의논하고 홍보지 제작 • 사전홍보를 통해 센터에서 모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놀이터 놀이 진행 •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록을 글로 정리	• 20명 아동청소년 참여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정리 •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동아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진행함
2018 팔딱팔딱하게 1박2일 같이 놀자! (놀이캠프)	-청소년에게 건강한 놀이문화 홍보 -지역 놀이시설, 공동체 놀이를 통해 협동과 배려를 몸으로 학습	• 친구를 초청해 1박2일 놀이캠프 진행 • 지역에 있는 협동놀이, 모험놀이 활동을 진행 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협동놀이들을 구상(불암산더불어숲) • 노원숲속의집에서 구조화 된 놀이 프로그램 진행	• 친구들을 초대해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홍보함 • 지역에 있는 모험, 협동 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 구상 • 1박 2일 동안 놀이를 통해 더욱 친밀해지고 단합하게 됨
제8회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놀이단 활동	동아리원이 아닌 다른 청소년과의 만남 및 활동으로 폭넓은 관계형성 및 교류	• 청소년 사서와 동아리원들이 함께 참여 • 봉사자를 추가 모집해서 새로운 청소년이 함께 준비함	• 15명의 새로운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 • 꿈나르샤 축제에서 많은 인원들이 놀이부스에 참여함 • 2번의 사전모임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잘 준비된 활동을 진행

활동명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노원 탈축제 준비모임 진행	주민놀이동아리 가치놀자와 협업하여 축제운영	• 근황공유 및 소개 • 탈축제에 대한 설명 및 역할 안내 • 탈축제에서 진행할 놀이 선정	• 와글와글 축제에 이어 주민(성인) 놀이동아리 가치놀자 선생님과 협업하여 진행 • 축제를 준비하며 관계를 유지 •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됨

(4) 자체평가 및 보완점

동아리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그린나래	• 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른 청소년자치 활동단과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교류할 수 있어 유익했음 • 센터 공간과 역할에 대해 구석구석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함 • 마을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었음	• 청소년동아리가 서로 교류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야 함 • 제작한 안내문이 정식 리플렛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센터와 어른들의 지원 필요
다드림밴드	• 하계1동주민센터 공간을 대관해 연습 공간을 확보했고, 기상상황이나 인솔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공릉복지관 강당에서 연습을 진행함 • 지원금을 이용해 밴드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해 청소년의 만족도를 높임 • 청소년의 배우려는 욕구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지역축제 공연기회가 활동 동기를 유발함	• 악기분실을 방지하고, 자율적 밴드연습이 가능하도록 전용 연습공간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들이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강사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필요
백인백색	• 성인동아리 '든든한이웃'과 청소년동아리 '백인백색 기자단'의 협력활동이 잘 진행됨 • '덕질'이라는 콘텐츠로 또래 청소년을 인터뷰하며 우리마을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생각을 알아가는 계기가 됨 •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됨	• 프로젝트 동아리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고 편집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동아리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블루나인	• 마을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찾아내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장 마련 • 공릉동 야구대회를 열어 취미를 건강한 스포츠문화로 확산시킴	• 야구대회는 청소년들의 자체적인 힘만으로 열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야구연습과 대회 등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연습장 제공, 안전장비 마련, 응급상황 대처교육 동반이 필요함
쭈쭈빵빵	•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중국어와 음식, 문화에 대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마련 • 학교 동아리 활동이 지역과 연계되는 긍정적 사례가 됨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거점으로 교육활동과 축제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청소년 동아리가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간기관 및 조직이 지역사회에 많아져야 함
창작큐	• 축제참여,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많은 동아리원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게 됨 • 미술활동이나 페이스페인팅 같은 이벤트는 미술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할 수 없었는데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어 유익했음	• 동아리활동을 끌어주고 청소년들의 갈등을 조율할 성인 지도자나 대학생 멘토의 필요성을 느낌
팔딱팔딱	• 또래 청소년에게, 그리고 지역에 놀이의 긍정적 영향력을 알리고 신나는 놀이문화를 퍼뜨리고자 놀이, 워크숍, 캠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 지역에서 같이 놀이활동을 펼치는 성인 활동가와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어른-청소년 사이 간격을 좁히고 더욱 풍성한 활동이 가능해짐	• 여름철 야외놀이와 활동을 위해 공원과 놀이터에 그늘막, 음수대가 설치되도록 지역과 지자체의 관심 필요 • 사라져가는 놀이터문화, 골목놀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놀이동아리의 지속적인 활동지원 필요

(5) 종합 논의

① 그린나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모니터링, 의견을 제안하는 기관장 간담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다.

청소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센터를 소개하는 새로운 리플렛 제작 등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마을의 환경특색(경춘선공원)을 이용한 주민대상 옛날교복 이벤트, 청소년자치활동단과의 교류활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경험했다.

② 다드림밴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내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으로 운영되는 다드림교실 청소년들이 만든 밴드 동아리로, 음악활동과 교육으로 건전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자 참여했다.

악기를 처음 배우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금을 강사비로 잘 활용하였으며, 악기연주 및 공연이라는 건전한 취미활동이 지역축제 공연으로 이어져 성취를 거두었다.

③ 백인백색

성인동아리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동아리로, 마을 주민과 청소년이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하고자 모였다.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인 멘토들에게 인터뷰 및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며, 주제선정, 인터뷰 섭외 및 인터뷰, 기사작성과 퇴고 등의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마을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쇄물을 출간하였다.

④ 블루나인

야구를 좋아하는 아동, 청소년이 동네에서 건전한 취미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정기적인 야구연습과 더불어 타 팀과의 연습경기, 공릉동 야구대회 등을 개최하며 새로운 성장점을 모색했다. 스포츠분야는 비용과 공간 문제로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기 쉬운데, 이 팀은 동아리활동지원금으로 안전장비와 야구소모품을 구입해 큰 도움을 받았다. 지역에 야구를 연습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⑤ 쭈쭈빵빵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 교육봉사동아리로, 지역 청소년에게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거점공간으로 두고 마을 아동, 청소년을 모집해 4차시 교육콘텐츠를 직접 기획, 진행하며 스스로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대표축제인 와글와글, 꿈나르샤에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⑥ 창작큐

미술 및 공예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동아리로, 함께 그리거나 완성한 미술작품,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사업에 참여했다.

처음 계획처럼 판매 등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진행하지 못했으나, 페미니즘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인식개선을 이루었다. 또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해 축제장을 꾸미고, 페이스페인팅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경험을 통한 학습을 체험했다.

⑦ 팔딱팔딱

청소년 놀이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하고 마을에 놀이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모인 청소년 자치활동 모임이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마을축제 놀이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을 초대한 놀이 워크숍,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공릉동에 놀이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스스로 놀이를 찾아내고, 규칙을 정하고, 타인과 함께 노는 과정을 통해 학업 및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⑧ 전체 운영

- 동아리지도자 정기회의: 활동 진행상황 공유,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추후 일정논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 중간 공유회: 7개 청소년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동아리활동 내용이 건강한 자극이 되어 활동 의욕을 고취시켰다.
- 최종 발표회: 다함께 모여 5개월간의 활동을 영상, 사진,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고, 소감을 나눔으로써 본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3.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 내용 및 논의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Ⅴ-3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온통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및 청소년이 상호 협력하여 마을 변화 사업을 진행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을 구성하고 청소년 자기 주도력을 향상 하고자 운영한 프로그램

2)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추진개요

- 청소년 기획단 구성 및 운영: 자치조직 및 동아리로 구성된 청소년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한 기획단 모집
- 마을 변화 어벤저스 구성: SKN테크노파크 입주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문화예술협동조합 플랫폼 이음 등 5개기관 마을 변화 어벤저스 구성
- 사업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기관, 관련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3회 온통행복한마을 만들기 행사 진행: SKN테크노파크에서 3회 재능나눔 공연, 체험부스, 벼룩시장 진행
- 꽃길만들기 사업 진행: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으로 마을 변화 사업 - 꽃길 만들기 진행
- 평가회: 청소년 기획단, 마을변화 어벤저스 등 단위별 평가회 진행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프로그램 목표

- 청소년 기초경제 교육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청소년 자기주도력 향상
- 지역 주민 및 공단 업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재능 나눔 행사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 구성

② 기대효과

- 상대원 공단의 어두운 이미지 제거로 긍정적인 공단 이미지로 변화
-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마을 변화 사업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청소년 행복 마을 구성수련관 대외 홍보 및 지역자원과의 긍정적 연계·협력 기틀 마련
- 청소년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청소년 주체성 확립

③ 세부프로그램 내용

일정	추진단위	세부프로그램 내용
4월 ~ 6월	사전준비	• 공모사업계획 및 사전 조사 – 지역사회 문제점 인식, 조사, 분석, 해결방안 모색 – 공모사업 기획, 제출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단체와 공감대 형성 및 토의, 협력도출 – 운영방법: 유관기관과 수시 회의 진행
		• 청소년 기획단 선정 및 운영
		•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을 위주로 한 공단·청소년·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운영방법: 주 1회 회의 진행

일정	추진단위	세부프로그램 내용
4월 ~ 10월	사전준비	• 사업홍보 -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기관, 관련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운영방법: SNS, 인쇄매체, 지역언론 및 언론미디어, 관련기관 공문발송 월 1회
4월 ~ 8월		• 참가자 접수(기업·청소년) - 홍보를 통한 참가 기업, 청소년 모집(1, 2차)
5월 ~ 6월		• 행사장 섭외 -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에 있는 공단 기업으로 우선 섭외 - 운영방법: 어벤저스단 적합 장소 발굴 및 섭외
6월 ~ 7월		• 자원봉사자 모집 -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1365를 통한 자원봉사자 선착순 모집(20명) • 청소년 사전경제교육
7월	운영	• 1차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 및 평가
8월		• 2차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 및 평가
9월		• 3차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 및 평가
9월		• 마을 변화 사업 - 꽃길 만들기 -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으로 진행
10월	종료	• 최종 평가 -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 및 행사 참가자 대상
		• 홍보영상제작 - 행사 중 촬영한 영상물 기록 및 편집, 정리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주요성과
청소년 기획단 선정 및 운영	청소년 자기주도성 향상	청소년을 위주로 한 공단·청소년·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중원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 동아리 학생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한 청소년 기획단 20명 선정 및 운영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및 공단과의 파트너십 설정	공모사업활동 진행을 위한 청소년을 위주로 한 공단·청소년·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SKN테크노파크(상대원공단),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아이를사랑하는엄마들의모임, 문화예술플랫폼이음협동조합 등 4개기관 연계
사업홍보	행사 취지 설명 참여자 확대	-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기관, 관련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SNS, 인쇄매체, 지역언론 및 언론미디어, 관련기관 공문발송 월 1회 지역신문 및 블로그 5회이상 게제	- http://seongnamdiary.com/221348211583 https://blog.naver.com/snyouth_mony/221361124117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28617&sid1=001
청소년 사전경제교육	기업가 정신함양	경제교육 강사를 통한 청소년 기초경제 교육	- 기초경제교육 이해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 (3회)	청소년 자기주도성 강화, 지역파트너십 강화	청소년 재능나눔공연 체험부스진행 벼룩시장 운영	- 청소년재능나눔공연 14팀 60명 참여 - 체험부스 27개 135명 참여 - 벼룩시장 42개 품목 84명 참여 - 행사 1,200명 참여
마을 변화 사업- 꽃길 만들기	지역연대 강화, 상대원공단 이미지 제고를 통한 청소년활동지 확대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으로 상대원공단내 꽃길 만들기 진행	- 청소년 15명, 지역주민 5명 참여 상대원 공단 내 꽃길, 화단 조성
평가회	단점 보완 및 차후 행사 진행시 참고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 및 청소년 기획단 대상으로 단위별 평가회 진행	- 마을어벤저스단 5명 - 청소년기획단 20명 - 평가회 참석

(4) 자체평가 및 보완점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기획단 선정 및 운영	• 중원청소년수련관 내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단 선정 및 운영 → 다양한 지역내 청소년 참여 부족	학교, 지역기관을 통한 홍보방안 다양화
마을 변화 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 온통행복한마을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하는 기관으로 마을변화어벤저스단 구성 및 운영 → 차후 더 다양한 지역기관 참여 필요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기관 참여 유도
사업홍보	• 각종 언론 미디어, 포스터 부착을 통한 홍보 → 수련관과 행사장 근처에만 포스터 부착	지역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지역 전반적인 장소에 포스터 부착 필요
청소년 사전경제 교육	• 경제교육강사 초빙하여 청소년 사전경제교육 1회 진행 → 1회 진행으로 기초경제를 이해하기에 역부족	1회를 최소 3차 진행으로 확대
온통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진행 (3회)	• 공단과 연계를 위해 평일에 행사를 진행함으로 청소년 참여를 위한 학교 협조 필요 →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필요	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지역 교육청, 학교등 유기적인 연계로 협조시템 구축
마을 변화 사업 - 꽃길 만들기	• 벼룩시장수익금으로 상대원공단 내 꽃길 조성 → 주변 상인 협조 필요	장소 선정 및 꽃길 차 후 관리를 위해 입주자협회 및 각 동 통반장을 통한 주변상인 협조 필요
평가회	• 마을변화어벤저스단, 청소년기획단 평가회 진행 → 일정 조율에 어려움	선정 단계에서부터 평가회 일자 확정

(5) 종합 논의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는 2017년에 성남시에서 발간된 성남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원구내 성남산업단지(상대원공단) 이미지 제고와 청소년활동지로서 상대원공단 지역 네트워크로의 합류 등을 목표로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이 활동은 크게 청소년기획단구성을 시작으로 마을변화어벤저스단, 사전경제교육, 온통행복한마을 만들기 행사 3회, 꽃길조성, 평가회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청소년 사전 경제 교육은 최소 3회 이상 시행

기초 경제 관념을 익히기 위한 청소년 사전 경제 교육은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 행사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1회 진행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최소 3회 이상 경제 교육에 관한 탄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전반적인 사업 수행 시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

둘째, 공단, 지역, 학교의 유기적 연계 필요

공단지역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공단직원들이 출근하는 주중에,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학생들이 쉬는 주말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1차는 여름방학 기간에(청소년 참여도 증진) 공단 점심시간을(공단 직원 참여도 증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2, 3차는 화요일과 금요일(공단 직원 참여도 증진)에 퇴근시간(청소년 참여도 증진)에 진행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하고자하는 지역기관과 공단 내 기업들, 학교들이 많았지만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차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수련관, 공단 내 업체들, 지역기관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역량을 증진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장기적 계획 필요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 3차 진행, 사전경제교육 1회, 꽃길만들기 1회 진행으로 청소년자기주도력을 높이고 상대원 공단으로 청소년활동지를 확대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유의미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고 지역과 공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네트워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전북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시범사업 활동내용 및 논의

1)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표 Ⅴ-4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참여기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소개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내가 사는 동네, '쉼'지도 만들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정보공유를 위한 지도 제작 활동 (안전 정보, 쉼터, 교육기관 등)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고, 권익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버스정류장(통학버스) 조성사업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주변 통학버스 승강장을 개선하기 위함

2) 활동 내용

(1) 추진개요

사업영역	추진개요
내가 사는 동네, '쉼'지도 만들기	•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공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통한 지도를 제작(안전 정보, 쉼터, 교육기관 등)하고, 지역사회의 관련자원을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 청소년 참여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환경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 •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에 필요한 자료(설문지, 안내책자, 홍보물 등)를 제작하여 현장에 나가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조성사업	• 학교주변 통학버스 정류장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관련시설을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버스정류장 시설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만들어가고자 함 • 버스정류장(통학버스) 조성활동은 지역 내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가는 활동에 중점을 둠 • 참여자 모집 및 홍보는 공문발송, 학교 및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함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내가 사는 동네, '쉼'지도 만들기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홍보: 공문발송, SNS 공유, 학교 및 관련기관 방문, 전단지 배포	4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 공동체 활동 및 아이스브레이킹 •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안내, 아이템 구상 등) • 만남과 소통(아이템 회의)	4~5월
	활동 기획 및 발표	• 모임 구성(팀 내 역할 부여) • 지도 제작을 위한 활동 및 모니터링 • 지도 제작 선진지 견학(마을탐방) 지도 및 제안문 제작	5~9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간담회	• 월1~2회 진행 • 사업 참여자 회의(담당, 자문위원, 대학생 서포터즈)	4~5월
	홍보	• 학부모 및 지역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대 및 협력	
	워크숍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프로그램 기획 및 일정논의(청소년활동가, 자문위원, 대학생서포터즈, 담당자)	
	분야별 활동	• 참여활동실행(실태조사 및 자료수집/검색, 관련자료, 영상자료 등) • 설문조사(청소년) • 자문 및 모니터링 • 지역자원연계 캠페인활동(인식개선 및 정보 공유)	6~8월
	발표	• 참여활동발표 준비 및 발표 • 보고서 제출	10월
	평가회	• 사업평가 회의 • 결과보고서 작성	

① 프로그램 목표

사업영역	프로그램 목표
내가 사는 동네, '쉼' 지도 만들기	•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해 나가는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 •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도모 •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마을학교, 지역사회를 청소년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 촉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 •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조성사업	•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범주 내에서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을 찾고, 새롭게 개선해봄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촉진 •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낸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정류장 설계 및 조성

② 기대효과

사업영역	기대효과
내가 사는 동네, '쉼' 지도 만들기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분석을 통한 지원 네트워킹 및 맵핑 제공 • 청소년의 기획·실천 과정을 통한 주체성 함양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조성사업	• 학교주변 통학버스 승강장 안전고취 및 지역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③ 세부프로그램 내용

사업영역	프로그램	세부 사업	시행 일정
내가 사는 동네, '쉼'지도 만들기	동아리 정기모임	• 지도 만들기 원리, 고산 현황조사(자연, 농업, 시설 등) • 청소년 관련 자료 조사(교육기관, 놀거리, 아지트 공간 등) • 쉼 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구성안 작성	2018. 5월~9월
	마을탐방 (선진지 견학)	• 지도가 있는 마을 탐방(선진지 견학) •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 근대문화유산지역, 송정1913시장 등 • '쉼'지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2018. 5. 21.
	마을 '쉼' 지도 제작 및 배포	• '쉼'지도 제작(1,000부) • 학교 및 마을 내 관련 기관, 관광서 등에 배포	2018. 9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홍보: 공문발송, SNS 공유, 학교 및 관련기관 방문, 전단지 배포, 발대식	2018. 4월
	워크숍	• 공동체 활동 및 아이스 브레이킹 • 오리엔테이션 •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 인권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워크숍(3회)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모의 실습 • 분과 구성과 분과별 역할 정하기(설문지, 홍보자료 만들기 등)	2018. 5월~7월
	활동 및 발표	• 고산지역 업주와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 • 삼례지역 업주와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 • 삼례공고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발표 및 결과책자 제작	2018. 8. ~ 10월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조성사업	동아리 정기모임	•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진행상황 보고	2018. 5~9월 (10회)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진행 및 사업 장소 답사	•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진행 (3회) • 버스정류장 사업을 위한 장소 답사(3회) • 워크숍: 설문조사, 체험프로그램 진행(그림, 만들기) • 자문위원회	2018. 6월 (3회)
	버스정류장 시공	•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버스정류장을 용진면 (용봉초등학교), 이서면 (에코르 2단지 앞), 상관면(남관초등학교) 3곳에 설치	2018. 9월
	최종발표회	• 사업 결과보고를 위한 최종발표회	2018. 10월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성과

사업영역	목표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청소년 '쉼' 지도 제작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 정보 공유를 위한 지도 제작 활동 (안전정보, 쉼터, 교육기관 등)	• 지도 제작을 위한 지역 이해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의견 나눔(마을 지도) • 마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도 제작에 대한 이해와 구상을 해보는 중요한 경험이 됨(광주 역사문화마을) • 팀 구성을 통해 지역을 돌아보며 현장 조사를 실시함(정류장, 기관, 맛집 등) • 현장 조사 및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지도 제작(기호, 재질, 구성 등)	• 활동횟수 - 정기모임 8회 / 24시간 - 견학 1회 / 12시간 - 팀별활동 3회 / 9시간 • 참여인원 - 청소년활동가 8명 - 지도강사 2명 • 활동결과 - 지도 제작 1,000부(학교, 마을, 관련 기관, 관공서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	• 기간: 2018. 04 ~ 2018.10 • 장소: 완주군청소년수련관, 고산미소시장, 삼례시, 삼례공업고등학교 • 내용 - 워크숍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알기 -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청소년 스스로 자료 제작 - 사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통한 홍보 활동 - 발표회 및 결과물 제작	• 활동횟수 - 정기모임 5회 / 10시간 - 인권(노동)워크숍 3회 / 9시간 - 캠페인준비 4회 / 10시간 - 길거리캠페인 참여 3회 / 10시간 • 참여인원 - 청소년활동가 30명 - 자문위원 3명 - 캠페인 참여인원 40명 • 활동결과 - 청소년아르바이트 안내서 300부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개선사업 아동워크숍	아동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 관련시설 분석을 통한 버스정류장 설계 및 조성	• 기간: 6월7일, 6월8일, 6월18일 • 장소: 용진면 용봉초등학교, 이서면 에코르 2단지앞, 상관면남관초등학교 • 내용 - 아동친화도시 소개 - 버스정류장 사례 교육 - 버스정류장 설계 및 디자인 활동(설계팀-버스정류장 모형 제작, 디자인팀-내가 꿈꾸는 버스정류장 그리기) - 활동 발표(내가 만들어본 버스정류장 소개하기) - 평가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	• 활동횟수 - 정기모임 4회 / 10시간 - 아동워크숍 준비 4회 / 8시간 - 시공관련회의 5회 / 10시간 - 아동워크숍 3회 / 10시간 • 참여인원 - 대학생 활동가 10명 - 아동 110명 - 관계자 5명 • 활동결과 - 버스정류장 3곳 시공

(4) 자체평가 및 보완점

사업영역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쉼' 지도 제작	• 지도 제작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지도 제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 지도 제작에 필요한 사진/드로잉 기술 습득 • 팀별활동을 통한 주제와 지도 제작 구성에 대한 의견 나눔 •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에 대한 의견 및 소감 나눔을 통한 지도 제작	• 지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영상 및 사진으로 보여주며 흥미를 갖게 함 • 당일 이동에 대한 부담으로 견학에 내용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시간을 적절히 안배함 • 습득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지도에 넣고 싶은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임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 인권과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워크숍 진행으로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움 •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정하고 역할에 따라 분과를 나누어 준비를 함 • 중학생과 대학생이 함께 활동하며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음 • 홍보활동에 필요한 설문지와 자료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였음 • 현장에 나가 활동하는 기회를 통해 활동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활동이 더 필요함 • 청소년활동가들 중 고등학생 참여가 없어서 아쉬움 •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버스정류장 (통학버스) 개선사업 아동워크숍	• 워크숍 진행 시 청소년의 참여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직접 버스정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에 더 적극적이었고, 의견도 다양했음 • 워크숍 내용에 맞는 장소 선택으로 발표와 활동을 하는데 효과적 • 워크숍을 통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지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음 •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조별활동을 할 때, 각 구역별로 지원이 잘 이루어짐 • 실제 시공관계자분들과 만나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 대학생과 시공업체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	• 사업 시작에 앞서서 대략적인 일정이 잡혀있었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좋았을 것임(예: 5월-발대식, 6월-아이디어 회의, 7월-대상지조사) • 청소년이 더 다양한 버스정류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준비물을 준비했다면 더욱 효과적 • 대학생과 시공업체가 자주 만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면 더욱 좋았을 듯 • 워크숍 참여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에게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

(5) 종합 논의

① 내가 사는 동네, ‘쉼’ 지도 제작

내가 사는 동네 ‘쉼’ 지도 활동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참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도 제작을 위한 마을이해와 사례조사, 선진지 견학, 팀별 주제선정과 마을 현장조사, 지도제작에 대한 전문기술 습득의 활동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중심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찾고, 해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실질적 참여와 기획·실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정보를 담은 지도는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협소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지도 제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와 기획·실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활동은 청소년과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에 필요한 준비들을 스스로 하며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부터 현장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청소년의 노동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완주군 관내 청소년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

③ 버스정류장(통학버스) 개선사업 워크숍

버스정류장(통학버스) 개선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범주 내에서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을 찾고, 새롭게 개선해봄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버스정류장 시안, 제작활동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직접 낸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노선이 다소 복잡하고 또한 버스정류장이 매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 모색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시범사업 효과 분석

1) 조사개요

금년도 시범사업 활동 효과 분석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사전·사후 조사를 하였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 지역에서 기관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는 2018년 4월-5월 중에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9월말 경에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2017년도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원용하였으며,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조사항목과 세부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대상 및 분석결과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조사도구 개발 절차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오해섭 외, 2015)', '청소년 활동역량 검사지(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를 조사 및 검토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 설문지는 전문가의 문항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사후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만족도 문항은 '청소년 글로벌 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오해섭 외, 2008)'을 활용하여 문항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활동역량의 측정요소는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이었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78).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분석영역은 배경변인,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사업 효과분석에 활용된 설문 세부내용은 〈표 V-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5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영 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신뢰도 α
배경변인		학교 급별 수준, 성별, 거주 지역	3	
행복 지표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의 가치성,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인 자기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 사고	4, 5, 6, 7	.86
	인간관계	청소년의 미시체계(가족, 부모, 친구) 에 대한 만족도	8, 9	.90
활동 역량 지표	문제해결 역량	문제해결의 적극성,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 분쟁 발생 시 조정능력	11, 12, 13, 14	.84
	성취동기 역량	자신의 성취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확한 목표 지향성, 내재적 동기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력	15, 16, 17, 18,	.75
	리더십 역량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성, 명료한 의사 결정 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자신감	20, 22, 23	.72
	시민성 역량	지역사회 구성원의 호혜적 협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력, 지역사회 참여 자발성, 자신의 사회적 권리 표현	24, 25, 26, 27	.84

① 배경변인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으로 문항 1~3번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부 문항으로는 학교 급별 수준, 성별, 거주지역 등의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② 청소년의 행복지표

청소년의 행복지표 문항은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설문지에서 일부 인용 및 재구성하였다(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삶의 만족도 문항(4~7번)은 OECD(2013)의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 중 현재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을 추출하였다(김지경 외, 2014). 세부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성,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를 세부내용으로 한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0). 문항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86)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문항(8~10번)은 가족, 부모님, 친구 관계와 같은 미시체계에 대해 청소년이 느끼는 만족도를 세부내용으로 하였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0). 신뢰도 분석에서는 항목 간 상관행렬이 적은 10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거 후 문항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90)는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③ 청소년의 활동역량지표

청소년 활동역량지표는 2009년 '청소년 활동역량 지표 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청소년활동역량검사지'의 8개 역량 중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4개의 역량을 인용 및 재구성하였다(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0 재인용).

문제해결 역량 문항(11~14번)은 문제를 인식 및 직면하였을 때 인과관계의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해결과정에서 자기 생각과 입장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측정한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0). 문항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84)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역량 문항(15~19번)은 무엇을 하려는 의지의 발현능력, 자신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능력, 학습된 내용을 통해 자신의 지적인 부분에 적용하려는 능력을 측정한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280). 신뢰도 분석에서는 항목 간 상관행렬이 적은 19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거 후 문항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90)는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리더십 역량 문항(20~23번)은 신뢰도 분석에서는 항목 간 상관행렬이 적은 21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거 후 문항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72)는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시민성 역량 문항(24~27번)은 문항 내적일관성의 Cronbach's α(.84)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중학교 학생은 60명(49.6%), 고등학교 학생은 42명(35.5%), 대학교 학생은 18명(14.9%)이고, 대학생은 전북 완주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성별에서 남자는 39명(32.2%), 여자는 82명(67.8%)이며, 지역분포에서 중소도시인 성남 중원지역은 19명(15.7%), 읍면지역인 전북 완주지역은 25명(20.7%), 대도시인 서울 공릉지역은 77명(63.6%)이다. 효과분석에 활용된 참여자의 분포는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Ⅴ-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실험 집단	학 교	중학교	60	49.6
		고등학교	42	35.5
		대학교	18	14.9
	성 별	남자	39	32.2
		여자	82	67.8
	지 역	성남중원	19	15.7
		전북완주	25	20.7
		서울공릉	77	63.6
	전 체		121	100

3) 지표 영역 분석 결과

(1) 삶의 만족도(주관적웰빙)

청소년들이 자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실험집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4.01), 사후검사(M = 4.25)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음(0.24)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Ⅴ-7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중학교	3.89	.71	4.25	.66	-3.35***
		고등학교	4.15	.78	4.25	.56	-.92
		대학교	4.11	.57	4.25	.55	-1.27
	성별	남자	4.24	.75	4.33	.58	-.71
		여자	3.90	.68	4.21	.61	-3.85***
	지역	성남중원	4.01	.91	4.51	.51	-3.06*
		전북완주	4.01	.61	4.37	.57	-2.44*
		서울공릉	4.01	.71	4.14	.62	-1.49
	전 체		4.01	.72	4.25	.61	-3.42***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89), 사후검사(M = 4.25)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사업 참여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음(0.36)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학급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차이가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을 보면, 여자의 사전검사(M = 3.90), 사후검사(M = 4.2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31)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자는 사전·후에 차이가 미미하였다.

지역별을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01), 사후검사(M = 4.5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50)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완주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01), 사후검사(M = 4.37)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완주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36)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감지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는 중학생, 여학생, 성남과 완주지역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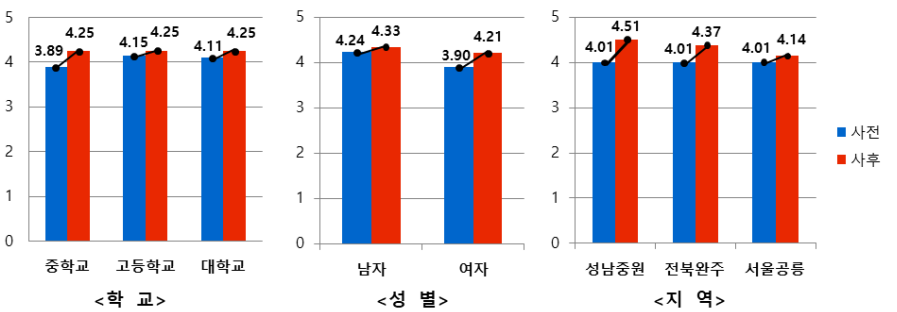


그림 Ⅴ-2 학교, 성별, 지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2) 인간관계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4.11), 사후검사(M = 4.33)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인간관계가 발전하였음(0.22)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8 인간관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중학교	4.02	.66	4.40	.72	-3.72***
		고등학교	4.26	.82	4.31	.58	-.41
		대학교	4.08	.80	4.16	.72	-.64
	성별	남자	4.24	.81	4.37	.68	-1.09
		여자	4.06	.77	4.31	.68	-3.07**
	지역	성남중원	3.89	.95	4.47	.51	-4.32***
		전북완주	4.12	.82	4.36	.71	-1.62
		서울공릉	4.17	.74	4.29	.70	-1.49
	전 체		4.11	.79	4.33	.68	-3.16***

* $p < .05$, ** $p < .01$, *** $p < .001$

학년을 보면,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02), 사후검사(M = 4.4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관계가 사업 진행 후에 높아짐(0.38)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 형성의 측면을 보면, 사업 참여 후에 변화는 대학생,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았다.

성별을 보면, 여자는 사전검사(M = 4.06), 사후검사(M = 4.3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인간관계가 높아짐(0.25)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적지만, 여학생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으로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89), 사후검사((M = 4.47)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인간관계 형성이 향상됨(0.5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가족과 부모 간에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중학생, 여학생, 성남지역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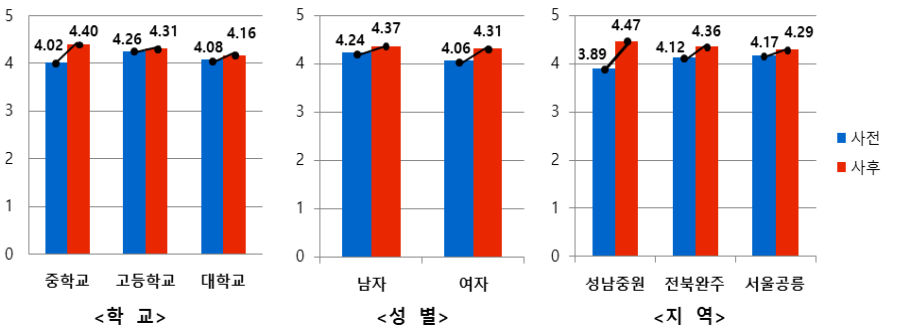


그림 V-3 학교, 성별, 지역별 인간관계 변화 추이

(3) 문제해결 역량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73), 사후검사(M = 4.01)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졌음(0.2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Ⅴ-9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중학교	3.55	.61	3.94	.71	-4.34***
		고등학교	3.87	.72	4.16	.51	-2.64*
		대학교	4.01	.54	3.90	.75	.74
	성별	남자	3.99	.67	4.02	.63	-.16
		여자	3.61	.73	4.30	.45	-5.50***
	지역	성남중원	3.76	.73	4.30	.45	-4.50***
		전북완주	3.88	.56	3.97	.77	-.59
		서울공릉	3.68	.68	3.96	.65	-3.36***
	전 체		3.73	.66	4.01	.66	-4.33***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55), 사후검사(M = 3.94)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39)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87), 사후검사(M = 4.16)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0.29)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여자의 사전검사(M = 3.61), 사후검사(M = 4.3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69)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사업 후에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76), 사후검사(M = 4.3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54)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68), 사후검사(M = 3.96)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2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남지역 청소년이 완주, 서울지역보다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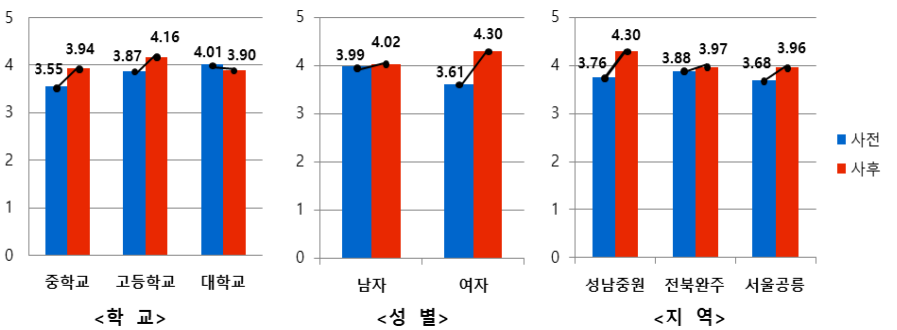


그림 V-4 학교, 성별, 지역별 문제해결 역량 변화 추이

(4) 성취동기 역량

청소년들이 성취동기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85), 사후검사(M = 4.10)는 '그렇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성취동기가 높아짐(0.25)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0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학교	중학교	3.71	.61	4.07	.71	-4.27***
		고등학교	4.02	.64	4.15	.53	-1.32
		대학교	3.88	.57	4.06	.70	-1.18
	성별	남자	4.15	.59	4.23	.61	-.68
		여자	3.70	.69	4.04	.66	-3.90***
	지역	성남중원	3.96	.77	4.34	.44	-2.50*
		전북완주	3.91	.60	4.16	.71	-1.84
		서울공릉	3.80	.70	4.02	.66	-2.40*
	전 체		3.85	.69	4.10	.64	-3.64***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71), 사후검사(M = 4.07)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졌음(0.36)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동기부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참여 후의 성취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생,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여자의 사전검사(M = 3.70), 사후검사(M = 4.04)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34)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을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96), 사후검사(M = 4.34)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은 사업 참여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3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80), 사후검사(M = 4.02)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사업 참여 후에 삶의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22)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취동기 역량은 중학교, 여학생, 성남, 서울지역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업 참여 후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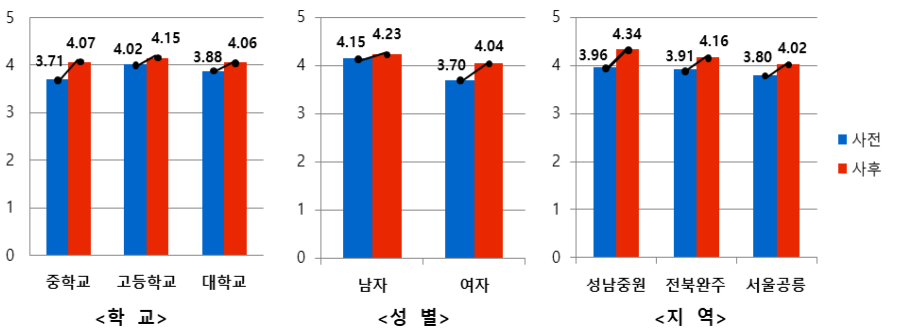


그림 V-5 학교, 성별, 지역별 성취동기 역량 변화 추이

(5) 리더십 역량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98), 사후검사(M = 4.24)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리더십이 강화됨(0.26)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Ⅴ-11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학교	중학교	3.82	.62	4.18	.59	-4.16***
		고등학교	4.13	.58	4.37	.46	-2.42*
		대학교	4.16	.53	4.14	.52	.15
	성별	남자	4.09	.66	4.26	.52	-1.74
		여자	3.93	.65	4.23	.55	-4.15***
	지역	성남중원	4.05	.71	4.49	.46	-3.84***
		전북완주	4.05	.57	4.16	.53	-.89
		서울공릉	3.94	.61	4.21	.55	-3.41***
	전 체		3.98	.61	4.24	.54	-4.43***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82), 사후검사(M = 4.18)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이 강화됨(0.36)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13), 사후검사(M = 4.37)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0.24)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보다 리더십 역량 변화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여자의 사전검사(M = 3.93), 사후검사(M = 4.23)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의 강화(0.30)를 보이고, 통계적 유의하였다.

지역을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05), 사후검사(M = 4.49)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이 높아짐(0.44)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94), 사후검사(M = 4.2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이 높아짐(0.27)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리더십 역량은 중, 고등학생, 여학생, 성남, 서울지역 청소년은 사업에 참여한 후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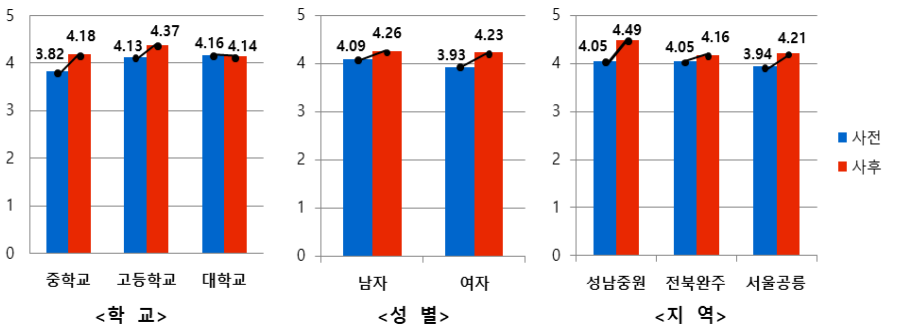


그림 Ⅴ-6 학교, 성별, 지역별 리더십 역량 변화 추이

(6) 시민성 역량

청소년들의 시민성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4.01), 사후검사(M = 4.3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후 시민성이 강화됨(0.30)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2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중학교	3.80	.67	4.28	.69	-3.63***
		고등학교	4.19	.57	4.40	.45	-2.20*
		대학교	4.25	.43	4.22	.65	.22
	성별	남자	4.19	.55	4.35	.54	1.37
		여자	3.93	.65	4.29	.62	-3.81***
	지역	성남중원	4.01	.72	4.61	.38	-3.64***
		전북완주	4.15	.50	4.26	.57	-.81
		서울공릉	3.97	.65	4.25	.63	-2.83**
	전 체		4.01	.63	4.31	.59	-3.98***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80), 사후검사(M = 4.28)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사업 참여 후에 시민성 역량이 강화됨(0.48)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19), 사후검사(M = 4.4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0.21)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을 보면, 여자의 사전검사(M = 3.93), 사후검사(M = 4.29)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시민성 역량이 강화됨(0.36)을 보이고, 통계적 유의였다.

지역을 보면 성남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01), 사후검사(M = 4.61)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남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시민성 역량이 높아짐(0.60)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97), 사후검사(M = 4.25)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시민성 역량이 높아졌음(0.2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민성 역량의 강화는 중, 고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성남, 서울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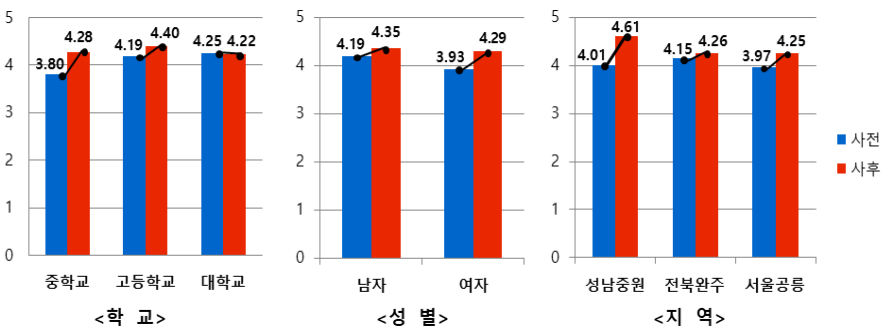


그림 V-7 학교, 성별, 지역별 시민성 역량 변화 추이

(7) 프로그램 만족도

청소년 활동 시범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적합성(M = 4.40), 운영방식(M = 4.35), 사전교육(M = 4.40)는 '전체평균(4.34)' 보다 높고, 홍보 활동(M = 4.23), 성과 효용성(M = 4.30)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높은 반면에 홍보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별로 보면, 중학교(M = 4.42), 고등학생(M = 4.42), 남자(M = 4.35), 성남중원(M = 4.66)는 '전체평균(4.3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교(M = 3.87), 여자(M = 4.33), 전북완주(M = 4.07), 서울공릉(M = 4.3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중원은 모든 영역에서 높은 반면에 전북완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3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구 분			홍보 활동	성과 효용성	적합성	운영 방식	사전 교육	전체
실험 집단	학교	중학교	4.27	4.35	4.49	4.52	4.45	4.42
		고등학교	4.41	4.39	4.46	4.34	4.48	4.42
		대학교	3.66	3.88	4.00	3.77	4.05	3.87
	성별	남자	4.30	4.28	4.35	4.30	4.53	4.35
		여자	4.19	4.30	4.43	4.37	4.34	4.33
	지역	성남중원	4.57	4.63	4.68	4.57	4.84	4.66
		전북완주	3.92	4.04	4.16	4.00	4.24	4.07
		서울공릉	4.25	4.30	4.42	4.40	4.35	4.34
	전 체		4.23	4.30	4.40	4.35	4.40	4.34

4) 시사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성남 중원·전북 완주·서울 공릉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사업 수행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급별, 성별, 지역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학교 분류로 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업 전과 비교하면 사업 후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리더십 및 시민성 역량 등 모든 영역에서 사전보다 사업 진행 후에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등학생들은 문제해결 역량, 리더십, 시민성 역량 등의 영역에서 사후에 향상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성취동기의 변화는 미미한 차이로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성취동기 사전에 비해 사후에 미미한 차이로 향상되었지만, 문제해결, 리더십, 시민성은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하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서 여학생은 모든 영역에서 사전과 비교하면 사후에 향상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며, 남학생보다는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중원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사업 시행 전보다 사업 시행 후 변화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북 완주는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인간관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리더십과 시민성에서는 변화가 미미하게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서울 공릉지역은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리더십 및 시민성 역량에서 사업 시행 후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와 인간관계는 소폭으로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업의 시사점은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 사업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사전점수는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낮았으

나, 사업 후는 오히려 다른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냐의 문제는 추적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중학교 시기가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방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성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사전점수에서는 높았지만, 사후검사 결과에서 여학생들보다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변화에 더 소극적이며 사업 효과가 떨어짐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비교에서는 성남 중원 지역이 전북 완주와 서울 공릉보다 사업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 참가자 구성, 지역 간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북 완주 지역에는 대학생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중학생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 것과 전북 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서 보여준 성과 효용성, 홍보활동, 운영방식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 시범 지역 FGI 분석
2. 청소년참여 마을공동체 현장 사례조사
3.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6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 시범 지역 FGI 분석

1)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의 참여 동기를 포함하여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기획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조사 내용은 2017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가이드'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아리활동 시작 계기, 활동의 애로사항, 활동과정에서 보람을 느낀 순간, 활동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 동아리활동의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다.

조사대상은 2018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3개 운영 기관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다. 인터뷰 참가 학생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8명으로 〈표 Ⅵ-1〉과 같다.

청소년들에 대한 FGI는 연구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별 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2018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3회 방문 실시하였다.

표 Ⅵ-1 시범사업 참가자 FGI 실시 지역 및 대상

대상	지역 및 기관	참가자(15명)		조사 일시
		중학생	고등학생	
'18시범 사업 기관	전북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이00 이00 김00	안00 정00	'18. 9. 8
	중원 청소년수련관	김00 문00	박00 유00 방00	'18. 9. 14
	공릉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김00 탁00	강00 김00 오00	'18. 9. 18

2) FGI 실시 결과 분석

(1) 동아리 선택의 동기 및 활동에 대한 느낌

금년도 3개 기관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FGI 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별 응답 유형과 빈도에 따른 1순위 응답을 〈표 Ⅵ-2~4〉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동아리활동 유형과 선택 동기, 동아리활동에 대한 느낌 등에 관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가입한 동아리는 '댄스동아리'이고, 동아리활동 시작의 계기는 '관심 있는 동아리를 직접 선택하였음'이라고 응답하였다.

> 댄스나 노래와 같은 활동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웃을 때 보람을 느껴요. 관객들이 저희 무대를 보고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쳐주거나... 다양한 반응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드린다는 거에 보람을 느껴요. (중원청소년수련관 문00)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소년활동의 관심분야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선택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도자

혹은 구성원과의 의견 불일치'이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함께 활동을 완수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라고 응답하였다.

> 처음에는 의견이 잘 안 맞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며 따라가고 있어요. 동아리 원과의 교우관계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점차 서먹서먹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 박00)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 구성원 간의 의견불일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요인으로 응답한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의 동아리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Ⅵ-2 청소년 동아리 선택 동기와 활동에 대한 느낌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1. 동아리명	• **해피니스: 댄스동아리(5명)** • 청소년아르바이트환경개선: 캠페인(2명) • 여행인문학(2명) • 놀이알리기(1명) • 창작Q: 그림 전시 및 판매(1명) • 그린나래: 청소년운영위원회(1명) • 쭈쭈빵빵: 중국문화알리기(1명) • 다드림: 악기연주(1명) • 봉사활동(1명)	• 댄스 동아리
2. 동아리활동 시작 동기	•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가 있어서 직접 지원(3명)** • **친구 권유(3명)** • 우연한 계기로(2명) • 지역 어린의 권유(1명) • 봉사활동(1) • 동아리 공연을 본 후 하고 싶어서 지원(1명) •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1명) • 더 낳은 삶을 위하여(1명)	• 관심있는 동아리에 직접 지원 혹은 친구의 권유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3. 가장 어려웠던 점	• **지도자 혹은 구성원과의 의견 불일치(6명)** • **내용이 어려워서(해보지 않은 일이라), 직접 계획을 세우는 일(4명)** • 학원과 방과후로 인해 동아리 부원간 시간 조율이 어려움(1명) • 활동비 부족(1명) • 신규 멤버모집(1명) • 날씨(2명) • 홍보(1명)	• 지도자 혹은 구성원과의 의견 불일치
4. 보람을 느꼈던 순간	• **함께 활동을 완수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7명)** • **칭찬을 받을 때(4명)** •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3명)** •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할 때(1명)	• 어떤 활동을 완수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

(2) 동아리활동의 영향과 활동 후 생각의 변화

동아리활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아리활동 전과 후의 생각의 변화를 포함하여 주변의 반응에 관한 질문을 요약한 결과는 〈표 Ⅵ- 3〉과 같다.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15명의 응답자 중 14명이 동아리활동 후에 자신감이 향상되고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부모님들의 지지와 주변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는 청소년놀이동아리인데 요즘 애들이 노래방, PC방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 놀이동아리는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다보니 제 성격도 활발하고 매우 밝아졌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도 좋을 것 같구요(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김00).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무기력증과 의사결정 장애와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기제로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학부모들이 청소년동아리활동에 찬성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Ⅵ-3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영향과 활동 후 변화에 대한 생각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5. 본인에게 미친 영향	•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 활동적으로 변함(5명) •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4명) •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함(3명) • 진로 탐색의 기회(3명) •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1명)	•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 활동적으로 변함
5.1. 활동 전/후 변화 (긍정, 부정)	**(긍정: 14명)** • 자신감 향상(4명) • 미래(진로) 도움(2명) • 보람, 재미(2명) • 긍정적 생각(1명) • 체력 향상(1명) • 실력 향상(1명) • 교우관계가 좋아짐(1명) • 일찍일어남(자기관리 향상(1명)) • 잘못되고 부정을 바로잡음(1명) **(부정: 1명)** • 조금 어려웠다. 힘들어도 참는다.	• 자신감 향상
5.2. 주변 부모, 친구)에서의 반응	• 설문에 응한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은 좋게 생각하고 지원해주신다고 하였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고 대답함	• 적극적 지지

(3) 동아리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동아리활동 과정에서 개선과 지원 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표 Ⅵ- 4〉와 같이 응답하였다. 먼저 동아리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원 내용은 '활동에 따른 일정한 보상'을 꼽았으며, '활동 공간과 활동 예산 부족 및 홍보필요' 등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 그림 그리는 친구들끼리 같이 그리고 전시하는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동아리활동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구요,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어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강00, 중원청소년수련관 박00)

향후 동아리활동 지속성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면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현하였다. 계속하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아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정의 물질적 보상과 시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활동 공간은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설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성장단계에 따른 동아리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연계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Ⅵ-4 청소년동아리활동의 개선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생각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6. 개선 및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 **6.3. 활동에 따른 보상 (6명)** • 6.1. 활동 공간 (5명) • 6.2. 활동비 (4명) : 예산 부족 • 6.4. 동아리지도자 • 기타(자유롭게 작성) 학교의 반응 및 지원	• 활동에 따른 보상

질문 항목	응답 결과(빈도)	1순위 응답
7. 향후 동아리 활동 지속에 대한 의견	**응답자 모두가 향후 동아리 활동에 계속 참가하고 싶다고 하였음** •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_2학년까지 할 것이다(3명) • 기회가 되면 계속 하고 싶다(2명) • 규모를 키워나가고 싶다(1명)	• 대부분의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의견을 표현함
7.1.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이유	•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임(3명)** • 성격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준다(1명) • 보람(1명) • 다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1명)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1명) • 새로운 경험(1명) • 청소년들의 혜택이 많아지고 권리가 향상되었으면(1명)	•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

(4) 소결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는 춤과 노래를 주제로 하는 문화 활동이며, 동아리 선택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리더십, 협동심, 자신감 향상'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무기력증과 의사결정 장애와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동아리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역 내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설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직접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청소년참여 마을공동체 현장 사례조사

1) 사례조사의 목적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학교와 마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사례를 방문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특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년도 현장사례조사는 청소년 대상 집단면접 기법을 통한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사업별 공통점과 특이사항을 분석하고 특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역과 마을공동체별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모형 정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2) 사례 선정의 기준 및 조사내용

금년도 현장사례조사는 2017년 실시한 '청소년활동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6개 지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6개 지자체의 분석 내용과 연속선상에서 실시하였다. 더불어 2018년도에는 3개 지역에서 운영될 시범사업기관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목적과 선정기준은 〈표 Ⅵ-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Ⅵ-5 사례 분석의 선정 기준 및 조사내용

구분	지역 및 기관	선정기준	조사 내용
마을 공동체	홍성 문당리 마을활력소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환경농업과 생태체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지역학교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지도자와 마을활력소의 역할
	의정부 몽실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청소년주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몽실학교 운영 체계 청소년주도 프로그램 내용 지역 기관 연계 사업
	삼각산 재미난 마을	대안학교 중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과 청소년 마을배움터	재미난 학교 운영 시스템 지역 내 청소년활동 기관 지역주민과 청소년 연계 활동
	부산 반송 청년카페/ 놀이문화센터	청년가치협동조합 청소년놀이문화센터	청년카페 운영과 주요 활동 해운대놀이문화센터 운영시스템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직업체험

먼저 청소년활동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조사는 지역적 특성, 공동체 특성화 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2018년도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동아리 활동'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을공동체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7년도에 사용한 내용을 원용하였다. 마을공동체 조사 내용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5)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요인들이다. 구체적으로 주민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 노력, 지도자의 헌신적 역할,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채널 가동, 지역 내 자원 활용,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발굴,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등이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

3) 조사 기간 및 방법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고, 조사 방법은 사전에 해당 기관과 일정 및 면담 참석자 등을 협의한 후 질문 내용을 메일로 미리 전달하였다. 이후 2-4명의 연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사전에 전달된 질문지를 토대로 1-2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부대시설과 활동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개인 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현장 면접조사 결과

(1)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공동체

① 면접조사 결과 분석

사례 1	**홍동면 문당리 홍동마을공동체 / 마을활력소 대표 주0노 / 2018.3.14.11:00**
사례개요	• 풀무학교 설립을 기점으로 50여개의 조직들이 마을공동체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동과 연대를 실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공동체 모형 • 홍동공동체의 특징 : 지역교육, 협동조합,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마을교육, 협동과 연대, 마을공동체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 내 학교와 학생을 위한 특화 사업	전통적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부 학교에 닭, 염소 동물농장과 텃밭을 없애고 대신 컴퓨터실을 짓는 등 학생들의 생명체험을 위한 기반이매우 취약한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가는 농업교육을 실시해야 할 시점이고, 그 역할을 직접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벼 화분 재배 위주로 실시하는 ‘논학교’를 처음에 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아 홍성에 3개 학교를 시도해보니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10개로 늘려보자고 해서 3천만원을 지원받았죠. 또 다시 성공해서 100개 하면 안 될까하여 결국했어요. 지금은 시군구별로 10개씩, 12개씩 160개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MBC에서 인터뷰를 나왔는데 참가학생에게 “이걸 통해 뭐를 느꼈니?”라고 물으니 그 학생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시골에서 고생하는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이러한 반응에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벼 화분 재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체감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 또한 교실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관심을 받지만 밖에선 실질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큰 용기를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다. 이렇게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균형감각이 형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형식적 체험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자원이 배움터이고 주민 모두가 스승이 되는 자생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할	마을공동체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기존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보다는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 혹은 선배 역할이 훨씬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를 닮아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삶이 그러니 닮아가고 기름만 부어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하지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순환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적극 활용	지역 내 물적 자원은 단연 유기농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서관, 빵집, 학교, 관공서 등의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자원으로는 정년퇴임 교장선생님들, 퇴임 후 3년을 마을에서 마을 교사가 되도록 텃밭을 만들고 (가이드투어를 위해)스쿨버스도 쓰도록 해주면서 마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풀무학교 출신들이 성인이 되어 지역의 일꾼이 되고 또한 귀농한 사람들도 지역사회 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지원하고 있다. • **“귀농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문당리 와 있다고 현직 선생님들에게 전화해서 “나 문당리 왔어 한 번 올껴 안올껴?” 하면 선생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전국 인성학교들, 이를테면 산천자원활용형, 친환경농업육성형, 폐교활용형, 도시근교형, 어촌자원활용형, 민속자원활용형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문당리는 친환경농업육성형에 해당되며, 주로 사회적 농업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 내 학교들과 마을 간의 밀접한 연계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50여개의 자생적 조직과 100여개의 결사체가 있다.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문당리를 비롯하여 홍동면에는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영농에 정착하는 경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이 홍보되면서 최근에 귀농 혹은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10가구 단위 새로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홍동에 요즘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태학교 한다고 하니 홍성 시내에서 여기로 아이들을 보내요. 교육청에서 교사도 여기로(문당리)는 아무나 안 보내요. 교육이념을 받아들여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로 보내죠. 그렇게 학교가 3위 일체(교육, 농업, 협동)가 되다 보니 장학기금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선배가 후배들 교복을 맞춰주는 전통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홍동중) 졸업생들이 신입생들 교복을 전원 47명 다 맞춰주었어요. 잘 되다 보니 서로가 돈을 내려고 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그 애들이 커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홍동마을이 잘 되는 비결	홍동은 교육, 유기농업, 협동조합이 3위 일체 되어 있다. 교육의 마지막은 협동, 농업의 마지막은 유기농. 그게 홍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풀무의 교육(철학)은 잘하는 사람을 채워주는 게 아닌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이끌어 주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며 살아야 해요. 소외된 사람들이 뭉쳐있으면 안돼요. 곧은 나무라고 해서 가까이 가보면 옆에 꺾어진 나무, 부러진 나무 다양해요. 강남은 잘 사는 사람들이 주지만... 그래서 사람은 분리되면 안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야 해요.”**

② 홍동마을공동체 협력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

주요 조직	활동 내용
마을활력소	• 2011년 설립(대표 주형로) • 마을과 지역 일을 돕고 거드는 지역 밀착형 중간지원조직(주요기능: 마을안내, 마을설계, 마을주민 단체 부화소)
밝맑도서관	• 관청 및 지역 주민들의 후원 자금을 모아 2011년 10월 개관 • 도서열람이나 대출 뿐 아니라 각종 전시, 공연, 워크숍, 세미나, 소모임, 평생교육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간
풀무농업기술 고등학교	• ‘그리스도인, 농촌 수호,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1958년 개교 이후 학교의 교훈인 ‘위대한 평민’을 양성해왔고 이것이 이후 시대흐름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수정 • 협동조합, 구판장, 어린이집, 도서조합, 신문만들기 등 작은 실험을 학교 안에서 진행 후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파급효과를 불러옴 • 일본 ‘애농회’와 교류하며 유기농법을 시작했고 오리농법도 풀무학교에서 처음 시도하였음 • 지역기관, 단체 및 공립학교까지 학교와 지역의 협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큰 주축
홍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주민을 위한 농업 관련 기술지도 및 상담 운영

홍성 우리마을 농협, 생협, 신협	• 조합원 등록 및 농자재 보급, 위탁, 수매, 보관, 유통자금 확보 등의 기능
햇살배움터 네트워크	• 홍동-장곡 지역 간 배움터와 일터가 힘을 모아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네트워크 •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지원사업 운영(교사 역량강화, 마을 교육 안전망 구축, 마을 작업장 학교를 통한 진로탐색, 농촌 소외지역 문화정서 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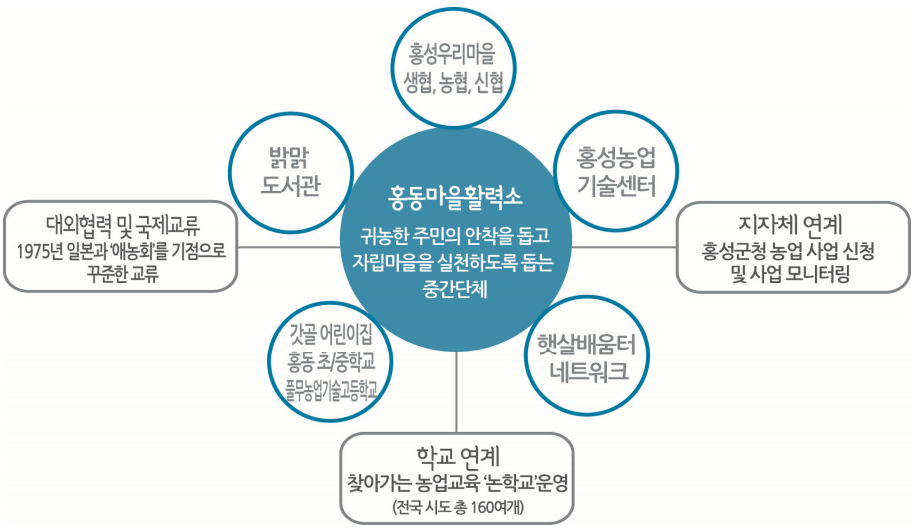


그림 Ⅵ-1 홍동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홍동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그림 Ⅵ-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홍동마을활력소'가 지역의 거점공간이 되어 각각의 네트워크를 위한 중간단체로써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홍동마을활력소 설립(2011년) 이전에는 풀무고등학교가 마을의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의 물적 인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홍동마을은 현재도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농업교육', '유기농법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지자체 연계 사업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③ 홍동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징 및 시사점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홍동마을공동체의 운영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학교와 마을 간의 밀접한 연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홍동면에는 갓골어린이집부터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특히 풀무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유기농업 전파와 협동조합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행사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의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과 학교가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 선배, 추억,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동지역과 학교의 네트워크 사례 중 풀무학교의 교육이념인 '위대한 평민'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로 확대시키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지역화'에 힘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송두범, 김기흥, 박경철, 이관률, 2017).

둘째,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홍동 지역에는 영농조합, 풀무신협, 풀무생협, 홍동농협, 환경농업교육관 등을 포함하여, 50여개의 자생적 조직 및 100여개의 크고 작은 결사체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여러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간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각 조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조직과 결사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직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운영상의 내실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당리는 '마을발전 백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농업교육관은 지역의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교육의 메카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원을 공유하는 마을학습망 구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핵심 기조를 "마을이 존속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야 농촌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넷째,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활동가, 학교 교사, 어린이와 청소년, 각 분야 지도자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역할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홍성 풀무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저는 '각성된 주체의식'을 통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확고한 인식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 과제에 대한 주체적인 학습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체적인 역량을 함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마실이학교', '밝맑도서관', '우리마을발표회' 등에서는 주민 스스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교육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강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학습의 주체자로 활동한다. 이러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교육과 경험 공유를 통해 주민들을 교육과 활동의 주체자로 성장시키며, 마을의 교육과 공동체 문화가 작동하게 만드는 마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송두범, 김기흥, 박경철, 이관률, 2017:76).

(2) 경기 의정부 몽실학교

① 면접조사 결과 분석

사례 2	2018 마을공동체 사례조사 문항 (몽실학교 / 자치활동기획 담당 파견교사 김0주, 길잡이교사 이0솔 / 2018.3.21.11:00)
사례개요	• 몽실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문화공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몽실학교의 특징 :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 기획, 추진하는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주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몽실학교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 중에는 '그들만의 리그' 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있다. 따라서 지역 행사 때 몽실학교 선생님들이 거꾸로 마을행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몽실학교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좌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	몽실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길잡이 교사들은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드러난 성과로 보자면 문서화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기간 있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말 한마디 안하던 친구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제안을 한다 던지 '이 공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제안을 하는 것, 그러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듣고 조정하거나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	몽실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길잡이 교사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공유하고 있었다. 진정한 배움이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는 자기주도성이 중요함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는 배움이 점점 확산되는 방향과 이 공간에서 했던 방식을 지역과 나누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의 목표는 학교에 국한된 배움이 아닌 지역에서 넘나들며 배움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죠, 저도 (교육청) 파견교사로 들어와 있으면서 지역 교사, 주민들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간자원 확보) 대안학교 학부모로서 지역의 공동체나 마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며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아이들만의 공간들을 상상하고 꿈꾸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모인 어른들이 의정부 교육장님을 찾아가고 시장님과 시의장님을 찾아가고 하면서 지역 안에 청소년들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같이 만나면서 그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활동이 올해로 6년차인데 약 200개 정도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동아리 대표자들이 축제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청소년들의 활동들을 묶어보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초 5부터 고 2까지 23명이 모여 우리가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공간을 꿈꾸는데 너희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마침 그때 경기도 교육청의 화두가 마을교육동체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해서 원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쓰일 공간을 청소년공간으로 쓰도록 된거죠.."**
지역 내 자원 활용	**(인적자원)** 길잡이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매우 많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처음에는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하여 이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을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월요일마다 길잡이교사 회의가 진행되고, 예산집행 해주면 주말에 아이들과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길잡이교사들이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해 첫 해, 십여명, 청년들이 들어오며 30명, 올해는 50명으로 늘었어요. 그 안에는 마을 주민들, 학부모, 교사들도 있어요. 교사들(일반학교)도 주말에 (나와서 함께하고),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계셨었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있고... 프로젝트 하나당 한명씩 50개 프로젝트에 50명의 길잡이 교사가 있는 거죠."** **"지역주민 평균연령이 20세에서 55까지고 직업도 목사, 컨설턴트, 교사 등 다양해요. 모집은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데 두 달간 인턴프로그램도 진행해요. 지금은 길잡이교사 수당을 한 달에 20여만원 정도 드리는데 청년들은 주말에 알바 대신 여기 와서 (활동) 하기도 하고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서로 합의하에 길잡이교사 수당을 줄여요. 어른들은 받지 말고 청년들을 주자라고. 예산이 없으면 열달만 하기도 하고요 그것들도 다 합의가 된 거에요."**
사업의 운영의 특징	몽실학교의 사업 추진은 주로 프로젝트 방식이다. 이미 기존의 틀에 짜여진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과정 자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들은 말 그대로 보조와 안내 등 길잡이 활동이 주요 역할이다. **"공간 운영에 대한 주체성, 교육과정의 주체성, 그래서 혁신학교의 경험들은 사실 교사들이 주체로 들어가서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짜는, 이 공간과 교육과정도 교사의 역할이 길잡이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교사가 길잡이로 바뀌는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여기도(청년 길잡이 교사를 가리키며) 지역에서 함께 자라난 청년이에요. 이런걸 만든다 할 때 결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 길잡이 교사 중 3분의 1은 청년들이에요.."**
기타 (앞으로의 포부)	**"성미산 마을 변화도 성미산 학교였잖아요. 이 지역도 몽실학교가 될 것 같아요. 지역의 관이 되는 바람에 더 큰 효과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② 몽실학교 운영의 특징과 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용
몽실학교 (청소년자치배움터)	• 다양한 역량을 가진 지역 주민이 청소년을 위해 길잡이 교사로 활동하고 공동체 책임감, 도전, 배려, 나눔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음 •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 과정 • 학교 밖 배움터 과정 • 학생 주도 교육 확산을 위한 연수 및 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및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행정적 지원(행·재정 지원, 파견교사 지원 등) • 학교 운영 협력방안 공동 모색
'느슨한 연대'	• 인근 마을공동체 및 기관연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조사 및 연구	• 한국 외대(사전·사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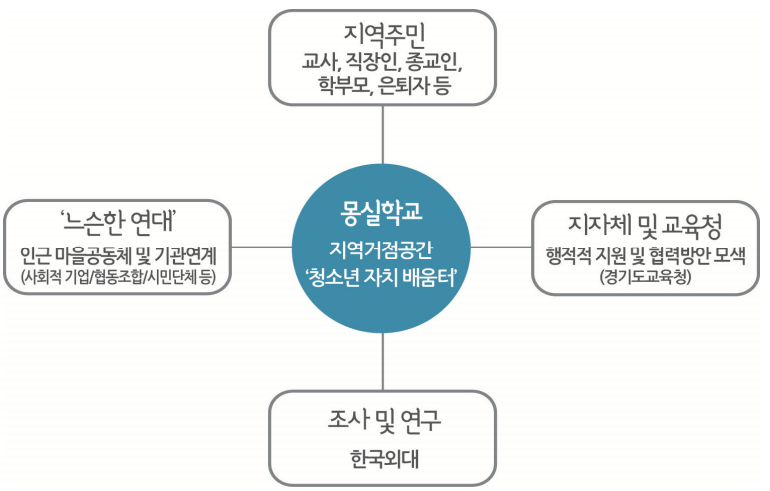


그림 Ⅵ-2 몽실학교 협력네트워크

몽실학교(청소년자치배움터)는 [그림 Ⅵ-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자치공간'으로써 지역에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길잡이 교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세대 간 통합의 역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본 관 주도 모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자체(경기도교육청)의 공간 지원 및 교사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인근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구조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③ 몽실학교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과제와 대응 방안

본 내용은 현장 방문 인터뷰 내용과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토론회'(2018) 자료집을 참고로 몽실학교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몽실학교는 교육청이라는 관주도의 탑다운(Top-down)식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 교사,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지역 변화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아동청소년시설, 지역의 민간단체들,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몽실학교가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길잡이교사의 빈번한 교체 및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길잡이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거나 쉬었다가 다시 나오거나 해서 자리 변동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강사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수익을 드리려고 하고 길잡이 교사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한 몽실학교 운영 및 청소년들의 배움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참가학생과 길잡이교사, 교육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토론회, 2018:36).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길잡이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 89.6%, 학생 58.5%가 공감하였으며, 프로젝트 심화과정의 필요성에는 성인 82.3%, 학생 5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에 비해 길잡이 교사 스스로가 질 높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책임감과 부담감, 역량 소진까지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원활동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길잡이 교사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학교의 인식 개선 및 지역을 넘나들며 배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는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 형태로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일반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의 몽실학교와 같은 거점공간들을 교육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공간을 넘나들며 배우는 지역사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3) 서울시 은평구 삼각산 마을공동체

① 면접조사 결과 분석

사례 3	**마을속 학교공동체 (삼각산 재미난학교 중심 / 행정교사 이0영, 교장 조0진 / 2018.3.21.15:00)**
사례개요	• 서울시 은평구 삼각산 마을공동체는 대안학교인 삼각산 재미난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꿈꾸는 어린이집, 청소년문화공간, 마을공작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삼각산 재미난 학교의 특징: 따뜻한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속 학교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마을학교를 실천하고 있음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마을배움터 사업이 있어서 마을 주민 중 전문가가 있으면 강좌를 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인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일정 예산(2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	오후 1시 반 이후로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역주민이자 학부모들이 품앗이로 도서관 사서를 대체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체 형성이 계기	삼각산 마을공동체는 꿈꾸는 어린이집,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시발되어 입시위주의 무한 경쟁이 아닌 생태, 환경, 인권,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꿈꾸는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비인가(초등)대안학교인 삼각산 재미난학교 외 재미난 까페, 마을목수공작단, 마을배움터 사업, 마을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과는 축제(추락) 기획시 마을아이들,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활성화된 마을공간은 까페, 후원금(월 일인당 최소 1만원) 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까페에는 상근자가 없는 상태로 작년부터 소정의 활동비를 주며 자원봉사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5명의 매니저가 요일별로 돌아가며 활동하다가 현재는 10명의 매니저가 품앗이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목공소, 사롱드 B(아버지들을 위한 공간, 주점에서 책도 읽고 밴드공연도 즐기며,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	'수유리 콜라보'라고 20대 청년들이 만든 공간이자 악기 다루는 단체로 문화공동체 음악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공동체인 '품'에서 서울시로부터 공간을 위탁받아 덕성여대 앞 근처에 건물하나를 개조할 예정이다. 거기가 정식 오픈하면 저학년 아이들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마을에서 유치부터 초등, 청년의 나이까지 자라면서 재밌게 활동하고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꿈꾸게 하는 거죠, 실제로 네트워크는 많이 되어있는 편이에요. 목공소, 지역라디오 밴드, 여러 가지가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어서 중고등과정과 연계 고리도 있고 청년이 되어 활동이나 일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 품 출신들이 나와서 기획 회사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을 관계된 것을 기획하고 동네형들이라고..." -삼각산 재미난 학교 교장 조0진**
기타	• 지역의 인근 NPO기관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의 주요사업 - 강북청소년문화축제'추락'(1998년~) / 강북청소년문화존(2008년~) - 주말형 대안학교 무늬만학교(2011년~) / 네팔마을공동체지원사업(2007년~)

② 삼각산 재미난 마을 공동체 운영의 특징과 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용
삼각산 재미난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 1998년 공동육아를 고민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꿈꾸는 어린이집' 설립 • 이후 학교설립의 뜻을 같이 하여 2004년 초등과정 대안학교 '재미난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개교 •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속 학교공동체 지향
마을 속 작은 도서관 (지역주민 사서 품앗이)	• 학교 뒷마당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마을배움터사업 (주민재능기부로 배움나눔)	•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타로, 사진, 풍물, 명상, 연기, 목공, 자녀 상담 등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되며 이후 동아리모임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지역주민의 결속력을 다짐
마을문화사랑방	• 재미난 까페: 까페, 바리스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원활동가로 돌아가며 까페를 운영. 마을주민들의 동아리활동, 배움터 등 복합공간의 기능 • 살롱드 B: 아버지들을 위한 콘서트 공연 및 교류의 공간
마을목수공작단	• 목공을 좋아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작업장 • DIY 가구만들기, 재활용, 재사용가구 만들기 교실, 어린이 목공교실 등 운영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 부모교육 및 동아리 지원사업
기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 지역 축제 기획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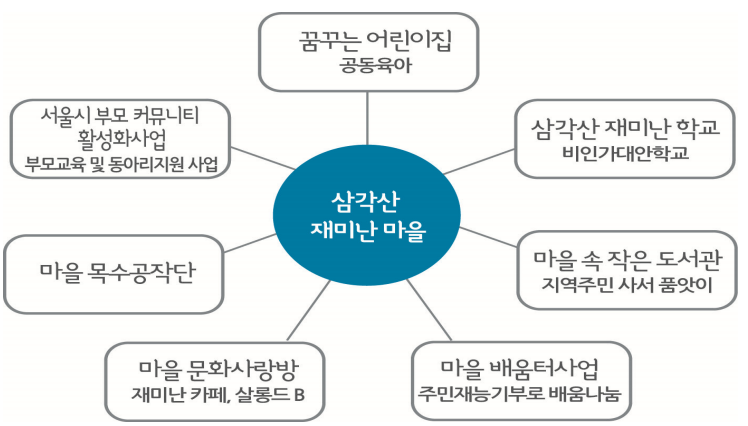


그림 Ⅵ-3 삼각산 재미난 마을 네트워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시초는 공동육아의 인식을 공유하는 지역주민 모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림 Ⅵ-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안학교(삼각산재미난학교), 도서관, 배움터, 사랑방, 서울시 공모사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네트워크를 지역주민들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을배움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들이 지역장터, 축제 등에 녹아들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③ 재미난 마을 공동체 운영의 과제와 발전 방안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삼각산 재미난 마을공동체는 앞서 정리한 협력네트워크에서와 같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마을문화사랑방, 마을목수공작단,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등 다양한 공간들이 어우러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난한 주민들이 모여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하고 싶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로 발전하였다. 그 시작은 1992년 '품'이라는 청소년들이 모여 연극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문화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들고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마을카페, 밴드연습실, 목공소를 만들어 2011년 '사단법인 삼각산 재미난 마을'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산 마을공동체의 운영상의 특징과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양한 조직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면서 협력네트워크를 실천하고 있다. 실례로 5월부터 10월까지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연중장터는 50-60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터기획은 품, 축제 기획은 장돌뱅이, 부스는 각 동아리, 배움터 부스는 사무국 등이 함께 모여 각자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지도자나 마을활동가

들은 가급적 보조 역할 정도만 관여하고 대부분은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이 마을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인 소통과 공감과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특히 젊은 세대인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삼각산 마을공동체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 '부모교육 및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원받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필요한 지원을 최소화 한다는 생각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원리로 판단된다.

삼각산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징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상충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지속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잘 소화하고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현지인과 귀농 혹은 귀촌한 외지인과의 갈등양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접근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부산시 반송동 청년카페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① 면접조사 결과 분석

사례 4	2018 마을공동체 사례조사 문항 (부산 반송 청년까페 / 대표 김영준 / 2018.6.21.13:00)
사례 개요	• 청년카페의 탄생은 원래 마을의 어머니들이 사랑방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공간인데 활동하면서 마을에 청년들이 없다는 인식에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청년들이 운영하게 됨 • 까페나무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활동이 제약이 있고 상점, 회사처럼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년가치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음 현재 청년운영위원이 8명이고 130명 정도가 후원해 주고 있고 (하는 활동은) 마을 안에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정치적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음
지도자의 역할	현재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 명으로 지도자는 까페 업무도 보고 주로 외부 네트워크와 접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표자 말에 따르면 지도자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을 조직하는 일이라고는 하나 실제 이러한 것들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해왔지만 청년들이 먼저 다가가는 분위기는 다소 어색하고 소통의 벽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자치단체장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반송의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의 어른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동의를 얻은 정도입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지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청년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다가는 시도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청년카페는 먼저 지역사회를 위한 마을소식을 전하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알기 활동, 멘토링 활동, 자유학기제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수업과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공간적 제약과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 축제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끊기면 못하니까 일회성 사업밖에 안되더라고요. 지역의 청년들이 필요한 것. 이를테면 대학생들을 위해 시험기간에 까페 밤샘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충당을 위해 기본적으로 까페를 운영하고, 인터뷰나 강의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청년들이 만든 것들을 분양해서 분양비(를 벌거나), 마켓에 나가기도 하고, 신문에 광고비를 받기도 합니다."**

	“주민센터랑 같이 해서 신문도 내지만 영상도 만들고 마을소식도 SNS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과 마을기사를 썼거든요. 마을에 반송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볼 것도 많이 없고 성장하면 반송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마을에 애정을 갖도록 기사도 쓰고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젊은이들과 연계를 위한 노력	반송지역과 청년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기존에는 지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마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나아가 부산 일원의 전반적인 청년들로 관계망을 확대할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일단 많이 만나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두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선거 끝나고 깊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향점이 예전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청년가치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조건은 저희와 활동을 같이 하고 회비도 내고 동의가 있어야 내부적인 활동을 같이하고. 협동조합은 외부에서 볼 때 형태이고 내부적으로는 사무국 체제와 유사합니다.”**

② 부산 반송동 청년카페 운영의 특징과 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용
희망세상네트워크 (반송주민공동체)	• 1998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반송사람들 신문 간행)’부터 시작 • 좋은 아버지 되기 모임 •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 청소년들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말벗되어주기 진행
느티타무 도서관	• 2007년 지역주민들의 기부로 설립 • 문화공간, 공부방, 쉼터, 급식장소 등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
청년가치협동조합 (청년까페 ‘나무’)	• 2011년 마을기업(주) 까페나무 설립 • 2015년 청년가치협동조합 설립 • 청년들을 위한 ‘한뼘가게[58]’ 운영 • 인근 학교(반송중, 운송중)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운대 놀이문화센터 (문화거점공간)	• 국토부 및 해운대구 지원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 일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3월 개소 • 문화공연장, 다목적연습실, 놀이까페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거점공간 역할
명성지역아동센터	• 만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58) 까페나무 내의 한뼘가게 선반을 손재주 있는 청년들에게 한 칸씩 분양하여 용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후원제도(With Value 브로쉐어 참조)

희망세상네트워크는 주부 모임이 주축이 되어 1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 주부들은 '뿌리' 회원이 되어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은 '줄기' 회원이 되어 현재의 반송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마을 까페에서는 교육, 홍보, 한뼘가게 수익사업 운영 등 인큐베이터 및 실험실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림 Ⅵ-4]와 같이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진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개소한 해운대 놀이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원들을 모우고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가 반송마을의 발전 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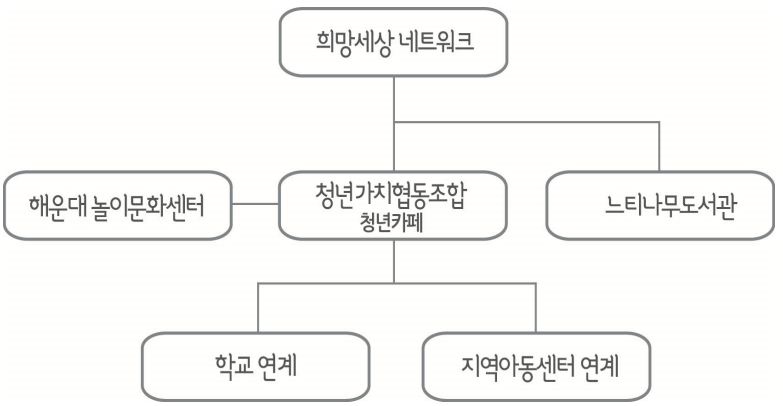


그림 Ⅵ-4 부산 반송마을 운영 네트워크

③ 반송마을과 청년카페의 현안 과제와 대응 방안

반송마을과 청년카페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을 묻는 질문에 "고민은 많이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온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현재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체가 마을 내에 있어 관심을 가진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들을 조율해서 지향점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카페가 잘 운영되려면 주변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나면서 카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 어디가면 누구 청년이 운영하는 뭐가 있고 저기 가면 청년 누가 하는 활동이 있고... 얼마 전에 미디어 하는 애들이 방을 하나 구하고 싶다 하더라. 청년카페는 여기 있고 미디어는 저기 가면 있다더라 하는... 마을지도를 만들어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반송마을 내에서 청년카페가 주축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사업과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기초의회 의원 및 주민들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시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건의해야 한다. 청년카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행정기관과 주민 혹은 사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청소년들로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대화광장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후원과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카페와 청년가치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력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너무 의존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성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마을공동체에서는 젊은이들이 '소풍가는 고양이(박진숙, 2017)'라는 도시락 관련 사업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셋째, 반송지역을 비롯하여 부산의 타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합하여 청년유니온과 같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미래세대로만 간주될 수 없는 심각한 현실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취업, 주거, 결혼 등등 당면한 문제들을 기성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책임을 다하려는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조직화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이 강화되고 나아가 정치활동 참여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5) 청소년 참여 마을공동체 운영 특징 비교

금년도 청소년 참여와 마을공동체 운영 연계를 알아보기 위한 4개 지역에 대한 현장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성을 비교한 내용을 〈표 Ⅵ-6〉에 요약하였다.

먼저 주민이해와 소통 채널을 위하여 '홍동마을공동체'의 경우 주민과 함께 '마을발전 백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각성된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몽실학교는 학부모 대상 프로

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삼각산마을공동체는 '마을주민 전문가를 초청하는 강좌 개설' 등을 특이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지도자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지역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홍동마을공동체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역할모델과 지역사회 선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은 지역의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특히 몽실학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학습과 동아리활동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길잡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타 지역에 권장할 만한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판단된다.

결국 마을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시도들과 사업에 지역의 젊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기관과 기업체에서 이들을 유치하여 지역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표 Ⅵ-6 청소년참여 마을공동체 특성 비교

구 분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공동체'	경기 의정부 '몽실학교'	서울시 은평구 '삼각산마을공동체'	부산시 반송동 '청년카페와 놀이문화센터'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주민과 함께 **'마을발전 백년계획'** 수립·실천 • 주민들에게 주체적 역할 **'각성된 주체의식'**	• 몽실학교 교사들이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 • **학부모 대상 강좌,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	• **마을 주민 전문가 초청 강좌 개설** •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배우는 학교공동체 운영	• 지역주민과 청년까페 운영에 관한 간담회 • 주민 사랑방과 청년 사업 동시 진행
지도자의 역할	• **청소년들의 역할모델 지역 선배 역할 중시** • 친환경농업교육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청소년들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 최대한 인정** • **공무원과 길잡이 교사간의 다양한 협업 시도**	• **마을학교 및 마을공동체 사업 기반 조성**	• **청년까페 운영 및 외부 네트워크 관리** • **청년협동조합 조직 시도**

구 분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공동체'	경기 의정부 '몽실학교'	서울시 은평구 '삼각산마을공동체'	부산시 반송동 '청년카페와 놀이문화센터'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	•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기획·실행**	• **학생+길잡이교사+주민이 함께 성장 목표** • **배움을 지역사회에 확산 하기 위한 노력**	•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마을주민 적극 참여**	•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노력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 친환경 농업 단지 • 귀농귀촌 인구 유입 • 도서관, 빵집, 학교, 관공서, **마을활력소** • **농협, 신협, 생협**	• **길잡이교사, 자원봉사자활동에 지역주민 적극 참여 기회 부여** • **지역교육청 파견 근무** •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 어린이 집, 청소년 문화공간(품), 마을공작소 • 재미난 대안학교와 작은 도서관 • **마을문화사랑방** • **마을목수공작단**	• 희망세상네트워크 • **해운대놀이문화센터** • 느티나무도서관 • 지역아동센터
지역 네트워크 연계	• 다양한 자생·비자생적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 전국친환경농업 연대 • 햇살배움터 네트워크	•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지자체+종교기관+학교 등이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내 대안학교, 까페, 마을동아리, 청소년문화공동체가 지역축제 기획 운영	• 청년카페와 지역 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 시·교육청·교사 협치 네트워크
특성화 사업	• **친환경 농업 단지** • **협동조합** • **생태학교, 마을학교**	• **청소년 자치 기획 운영 프로젝트 중심** • **다양한 동아리 운영** •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 **재미난 대안학교** • **마을속 작은 도서관** • **마을배움터** • **마을문화사랑방** • **축제기획 및 운영**	• **청년협동조합** • **청년창업프로그램 시도** • **자유학기제와 협업**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 풀무학교 졸업생들의 영농정착 증가 • 젊은 귀농 인구 유입 • 마을공동체 형성 증가	• 청년 길잡이 교사 채용 • 평생교육사 채용 • 자원봉사자 활용	• 수유리 콜라보에 20대 공연시설 운영 • 다양한 네트워크에 청소년 참여 증가	• 청년협동조합 내 인력 자원 발굴 및 활용 노력

3.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동아리활동은 각자의 흥미와 관심에서 시작되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자신의 진로와 직업과 연관된 체험들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FGI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 및 진로탐색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활동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정보와 지식을 특성화된 동아리활동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각자가 관심 있는 동아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관계 향상 및 자신감, 자존감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동아리 구성원, 동아리 지도자,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의견충돌도 있지만 조율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향상되고 협동심과 리더십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들 앞에서 활동하거나 가르치고 봉사하는 동아리, 또한 스스로 기획해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보람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셋째,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된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PC방이나 놀이방 등이 아닌 건전한 놀이문화의 방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과 형제들에게도 동아리활동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여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넷째,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애착심을 갖게 된다.

지역 내 다양한 유적지와 협력 기관 및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실시할 수 있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기업체들과 연계하여 장소 제공과 물품 후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갖게 되었다.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동아리활동에 어머니회를 비롯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완주군의 경우 지역 시장과 연계하여 홍보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변의 동네 또래 및 상급생, 어른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은 지역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에 대한 더욱 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제7장 연구 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 과제 제언

1. 정책추진 방향
2. 정책과제 발굴 및 활용방안

7 연구 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 과제 제언

1. 정책추진 방향

2018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Ⅵ'는 청소년 행복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과 지난 4개년(2015~2018)간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3개 지역의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대상으로 현장면접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활동 운영의 특성화 요인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8년도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실시되는 첫해임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그 중 정책과제 1-1 '청소년 참여 확대'의 세부과제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정책과제를 17개 시·도의 지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고려한 타당성 검토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모델 개발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과제 발굴 및 활용방안

시범사업과 현장 사례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활동' 중심의 세부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추진절차, 추진근거, 추진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발굴절차는 [그림 Ⅷ-1]과 같이 연구과정에서 정책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영역별 연구 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부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는 공무원, 시범사업 담당자, 청소년활동지도자 등이 포함된 정책연구협의회를 거쳐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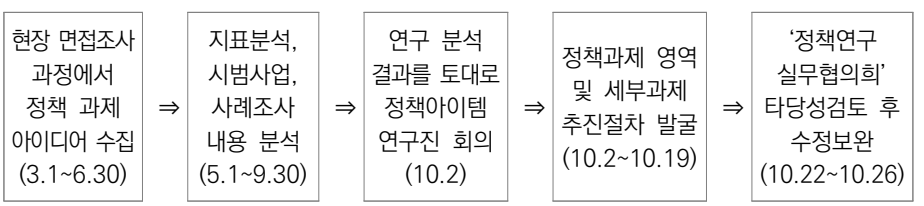


그림 Ⅷ-1 정책과제 발굴 절차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을 통한 실천과제를 포함하여 금년도 정책과제를 〈표 Ⅷ-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민간청소년활동지도자'와 지역단위 청소년(청년)을 위한 '일자리지원 멘토단네트워크'를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Ⅶ-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분석과 관련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 정책과제	발굴 근거
대분류	중분류		
청소년 행복증진 기반구축	1.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1)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강화 및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2)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 제고 3)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여건 조성	주관적 지표 및 객관적 지표 조사 결과
제도 및 시스템 구축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 운영 활성화 방안	1) 지역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인증제 도입 2) 청소년진로탐색활동과 지역 사업체 연계 협력망 구축 3) 지역 생활권 청소년동아리 교류활성화 플랫폼 구축	3개 시범 사업/ 면접조사
시설, 공간, 프로그램 개발	3. 마을공동체 청소년활동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1) 읍·면·동 단위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 설치 확대 2)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젝트 기획·운영 기반 구축 3)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연계	4개 마을 공동체 면접조사/ 정책포럼
지원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4. 지역사회 '민간청소년 활동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	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2) 청소년(청년)의 지역사회 **'일자리지원 멘토단 네트워크'** 운영 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지원 **'마을청소년 돌보미'** 운영 4) 시군구(동)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센터(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지정운영	시범사업/ 정책포럼/ 콜로키움

영역1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추진

추진개요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정책 실수요자들이 경험하는 정도를 면밀히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향후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Ⅶ-2〉와 〈표 Ⅶ-3〉은 청소년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직접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표이다.

표 Ⅶ-2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주: ◉: 평균점수 상위 1~5위 시·도 / ○: 평균점수 중위 6~12위 시·도 / ▲: 평균점수 하위 13~17위 시·도

청소년 행복 관련 지표를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몇몇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도의 조사결과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3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정책과제에 대한 영역명은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으로 명명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강화 및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②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 제고 ③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여건 조성 등의 3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Ⅷ-3 조사대상의 일반 현황에 따른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전체		**7.00**	**7.51**	**7.31**	**7.14**	**7.29**	**6.42**	**6.85**	**7.58**	**7.02**
성별	**남**	7.23	7.73	7.54	7.31	7.54	6.60	7.16	7.73	7.23
	여	6.75	7.27	7.06	6.94	7.02	6.23	6.51	7.42	6.79
교급별	**초**	7.82	8.03	7.92	7.94	8.07	7.54	7.89	8.25	7.82
	중	7.00	7.48	7.39	7.17	7.27	6.46	6.86	7.70	6.97
	고	6.36	7.13	6.76	6.47	6.70	5.51	6.01	6.95	6.43
지역 규모	**대도시**	7.05	7.57	7.40	7.17	7.42	6.53	6.94	7.64	7.12
	중소도시	6.95	7.47	7.25	7.11	7.20	6.33	6.77	7.55	6.95
	읍면	7.09	7.51	7.25	7.12	7.26	6.44	6.86	7.48	6.93
학업 성적	**상**	7.61	8.01	7.80	7.79	7.82	6.93	7.28	8.20	7.57
	중	7.07	7.52	7.33	7.19	7.31	6.50	6.96	7.56	7.03
	하	6.09	6.83	6.63	6.18	6.57	5.63	6.09	6.80	6.27
종교 유무	**없음**	6.93	7.45	7.25	7.07	7.22	6.28	6.76	7.55	6.95
	있음	7.12	7.61	7.41	7.24	7.41	6.65	6.98	7.64	7.13

* 주: 1) 무응답 결과는 제외하였음. 2) 코호트별 분석결과는 4장의 내용을 참조 바람.

정책 과제: 1-1)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강화 및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진단	•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는 물론 각종 건강관련 객관적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지표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 • 청소년 건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청소년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내실화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효과	• 청소년 건강 증진을 통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수준 제고 • 청소년 건강 행태에 관한 면밀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가능 •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추진절차	■ 1단계 :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관련부처의 정책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2단계 : 청소년, 현장 활동가, 건강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으로 '(가칭) 청소년 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3단계 : 각 부처의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 진단 및 평가 ■ 4단계 : 각 정책별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개발 및 시계열 자료 수집 ■ 5단계 : 주기적인 환류(feed-back) 체계를 통한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 1: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의 4항, 제7조(사회의 책임)의 3항 등 청소년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책임 명시 ▣ 추진근거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등 운영 ▣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3년에 1회씩 실시) 및 Wee센터 등의 운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운영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30,000	매년	여성가족부
국비	30,000	매년	교육부
국비	30,000	매년	보건복지부

정책 과제: 1-2)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 제고

현황 및 진단	•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 중 참여영역에 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음 • 연령별 비교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참여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청소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청소년 스스로도 참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청소년 참여 역량의 제고와 권리 의식의 확대를 위한 참여권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정책효과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참여 역량의 실질적 제고 • 지역 특화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지역 단위 청소년 참여 활성화 도모 • 청소년 권리 인식 제고를 통한 권리 효능감 및 시민의식 증진
추진절차	■ 1단계 : 국내 청소년 참여, 인권 실태 및 관련자료 수집·연구 ■ 2단계 : 지자체 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관련 조례 제정 ■ 3단계 : 청소년 참가자 모집 및 참여와 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4단계 : 전국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과 보급 ■ 5단계 : 지역 내 청소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관련 특화사업 운영 ■ 6단계 : 청소년 참여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1-2-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사례 1: • 사업: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시작된 변화), 금천구(청소년의회), 군산(달그락달그락),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및 청소년정책토론회('18.10.24.) 시·구의원, 시청, 교육청, 청소년활동가 등 참여 ▣ 사례 2: • 조례: 경기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청소년자치 권 확대를 위한 조례」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20,000	5년	여성가족부
	도비	10,000	5년	여성청소년과
	시비(구비)	5,000	5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1-3)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여건 조성

현황 및 진단	• 청소년활동 시설, 시간, 공간 등에 대한 만족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나아지고 있음 • 하지만,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 중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참여 영역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 저하가 두 번째로 큰 영역임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 결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 행복지표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과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기반 한 청소년 활동 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정책효과	• 청소년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역량 개발 가능 •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제공을 통한 정책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
추진절차	■ 1단계 : 4차 산업혁명 기반 청소년활동 컨텐츠 개발 및 활동 인프라 구축 연구 ■ 2단계 : 청소년시설 및 학교 등 개발된 컨텐츠의 시범적용 ■ 3단계 :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공간(인프라) 구축 및 재구조화(지역사회 내 시설 연계) ■ 4단계 :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및 체험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 ■ 5단계 :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적 확산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국가 및 지자체) ▣ 추진근거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2-1-4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2-2-2 청소년 스포츠활동 활성화 ▣ 사례: 부산 해운대 놀이문화센터, 청소년 활동의 허브(청소년센터) 추진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50,000	7년	여성가족부
국비	30,000	7년	교육부
시·도비(구비)	50,000	7년	지자체

영역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개요

우리나라 청소년동아리 정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민간조보사업 형태로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018년 현재 2,495개 동아리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10).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동아리연합회'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도, 관리, 컨설팅 및 예산과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11).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 지원 정책은 17개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2018년 시도별 청소년동아리활동 국고 배정 현황은 〈표 Ⅶ-4〉과 같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Ⅶ-4 2018년 시도별 청소년동아리활동 국고 배정 현황

구분	지자체	지원 개수	총 개수
지자체별 청소년동아리 국고배정 현황	경기도	534	2,495개
	서울시	440	
	특광역시(6개)	587	
	강원도	158	
	충청도	173	
	전라도	183	
	경상도	305	
	특별자치시(2개)	115	

금년도는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운영 시범사업과 연계한 청소년동아리(서울시 공릉동 7개, 경기도 성남시 6개, 전북 완주군 3개)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도에 확대·적용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 과제: 2-1) 지역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인증제도 도입

현황 및 진단	• 청소년동아리 지역활동 인증제(활동수료증발급)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청소년정책을 평가하듯, 지역 공공기관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동아리 우수활동사례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마을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마련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지역동아리활동을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인증제도 마련(혹은 생기부 등재 가능한 활동수료증 발급) •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제공, 우수동아리 장학금 지원제도 도입
정책효과	• 청소년의 지역기반 동아리활동을 독려하고 인간관계의 폭 확대 • 청소년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동기부여, 활동의욕 및 자신감 고취
추진절차	■ 1단계: 지역청소년기관, 지자체 청소년주무부서,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학교 특별활동 담당 교사, 청소년동아리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역청소년동아리 활동인증제 및 우수동아리 장학금 수여제도 논의, 시범사업 모델 구상 및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벤치마킹 ■ 2단계: 전문가회의를 통한 문제점 검토 및 관련 제도 마련 ■ 3단계: 지역기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사례 안내 및 홍보물 제작.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분야별(봉사, 예술, 문화, 교육, 운동 등) 활동사례 안내 ■ 4단계: 청소년동아리 활동 우수사례를 선정할 전문 심사위원회 구성 ■ 5단계: 대회진행 및 장학금을 위한 예산편성, 사회적기업 및 재단 MOU 체결, 후원모색 ■ 6단계: 마을 속 청소년동아리활동 대회진행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발표대회) - 예선통과팀 지역청소년동아리활동 수료증 발급 - 본선통과팀 장학금 수여기회 제공 / 자료집 제작 ■ 7단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지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 추진사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도서관 **'어린이 독서인증제'**(참가자 모집-독서기록장 배부-독후내용 작성-독서인증서와 문화상품권 수여-학교에 공문 발송)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5,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3,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2-2) 청소년진로탐색활동과 지역 사업체 연계 협력망 구축

현황 및 진단	• 성남지역의 상대원 공단은 약 4천개의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음 • 온통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상대원공단과 연계 설정 완료 • 성남 인재 개발 및 청소년 진로탐색 및 취업 기회 제공 가능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과 학교, 공공기관, 수련관이 함께 청소년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진로탐색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정책효과	• 청소년수련시설을 주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들 간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인프라 확대 • 지역의 미래 인적자원 관리 및 청소년 진로체험 경진대회 개최 시 장소와 후원 제공
추진절차	■ 1단계 : 상대원 공단 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취업 가능한 업체 파악 ■ 2단계 : 지역청소년기관, 지자체 청소년주무부서,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학교 진로활동 담당 교사와 공동으로 상대원 공단 내 진로 탐색 프로그램 구상 ■ 3단계 : 전문가회의를 통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 4단계 : 지역사업체에 공간 및 후원 여부에 대한 공문발송 및 관련 예산 편성 ■ 5단계 :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해 상대원공단 내 청소년 희망 취업 업체 견학, 상담, 실습 진행 ■ 6단계 : 견학, 상담, 실습 진행 후 업체와 청소년 모두 만족 시 취업절차 진행 ■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2-3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 추진사례1; 군산시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및 체험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체결(2015.9.9.)'** ▣ 추진사례2: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과 상대원공단 SKN테크노파크+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아이사랑엄마모임+문화예술협동조합 연계구축(2018 시범사업)**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3,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	-	-

정책 과제: 2-3) 지역 생활권 청소년동아리 교류활성화 플랫폼 구축

현황 및 진단	• 평소에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 하지만 학교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충분치 않음 • 이에 지역 내 청소년시설이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취미가 비슷한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역 내 학교들 간의 동아리활동 허용 요일과 시간을 가급적 일치시키고 생활권 단위로 활동 공간을 지정하여 청소년들 간의 연계가 활발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유투브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여 건전한 동아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와 지원 정책이 요구됨
정책효과	•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인간관계를 통한 진로탐색 및 사회성 고취 •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성 향상과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기회 제공
추진절차	■ 1단계 : 지자체 청소년담당, 학교, 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간의 협의회 구성 ■ 2단계 : 지역 내 초·중·고 학교 간의 동아리활동 요일 및 시간 협의 ■ 3단계 :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 청소년시설에서 동아리활동 홍보 ■ 4단계 : 지역 내 청소년동아리활동 공간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구성 ■ 5단계 : 지자체와 교육청은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 제공 ■ 6단계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경진대회 및 동아리 축제 개최 ■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추진근거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에 근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사례1: 서울시 송파구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 협의체**(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몽실학교)**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1년	교육청
	시비	3,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3,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영역3 마을공동체 청소년활동 공간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추진개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있고, 청소년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다(청소년백서, 2017:466).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79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표 Ⅶ-5〉와 같이 경기도가 15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단위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어려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문화와 여가활동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 휴카페, 작은도서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표 Ⅶ-5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지자체	지원 개수	총 개수
지자체별 청소년동아리 국고배정 현황	경기도	154	799개
	서울시	62	
	특광역시(6개)	107	
	강원도	81	
	충청도	93	
	전라도	109	
	경상도	142	
	특별자치시(2개)	51	

금년도 4개 마을공동체(충남 홍동마을, 의정부 몽실학교, 부산 반송동마을공동체, 서울 삼각산마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단위 청소년활동 시설 인프라 및 활동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과제: 3-1) 읍·면·동 단위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 설치 확대

현황 및 진단	• 청소년이 과다한 학습시간 등으로 여가와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 유형도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일 여가시간 2시간 미만인 청소년 54.3%('16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정한 수준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OECD 평균 78점에 비해 한국은 68점으로 10점 정도가 낮음(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자체의 읍·면·동 단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를 설치 운영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 놀이·여가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정책효과	• 평소에 학교와 학원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 • 겨울이 긴 우리의 계절적 현실을 감안할 때, 상시적인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놀이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추진절차	■ 1단계 : 어린이·청소년들의 놀이·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문화 확산과 관련법 제정 ■ 2단계 : 어린이와 청소년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놀이·여가 프로그램 개발 ■ 3단계 : 읍면동 단위 놀이·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유휴시설 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 4단계 :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 운영 기관 공모 ■ 5단계 : 놀이·여가센터의 안정성 확보 및 놀이문화 프로그램 경진대회 실시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2 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사례1: 부산 반송동 **해운대 놀이문화센터: 국토부와 해운대구 지원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개소(문화공연장, 다목적 연습실, 놀이카페 등 운영으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문화거점공간의 역할)** ▣ 사례2: 서울시 송파구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 협의체**(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백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3,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1,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5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3-2)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젝트 기획·운영 기반 구축

현황 및 진단	• 청소년들은 방과 후 학습, TV시청 등으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참여 희망 활동: 문화/예술 39.3%, 모험/개척 14.8%, 국제교류 11.2%) • 청소년이 삶의 질 향상과 진로탐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상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지원기반 마련 •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관한 전문가 사전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효과	•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의 창의·융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추진절차	■ 1단계 : 지자체 청소년담당, 시의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 구성 ■ 2단계 : 지역 내 전문 인력 풀과 물적 자원 조사를 통한 자원맵(Resource Map)작성 ■ 3단계 : 「청소년기본법」과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 주도 관련 내용 고찰 ■ 4단계 :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기획·운영을 명기한 지자체 조례 혹은 시행령 제정 ■ 5단계 :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한 교육 시스템 구상 ■ 6단계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활동 지원단 구성 ■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추진근거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사례1: 전북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2016)**' ▣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몽실학교)**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1년	교육청
시비	3,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3,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3-3)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연계

현황 및 진단	• 「작은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 2016.02.0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함 *2018년 5월 현재 6,514개 운영 중[59)] • 지역단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충남 홍동마을 사례와 같이 '작은도서관'에 농촌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 작은도서관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활동가'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대 간 연계와 통합서비스 구축
정책효과	•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토크콘서트, 만들기 체험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 • 마을단위 상시적인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 및 전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추진절차	■ 1단계 :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 논의를 위한 주민, 전문가, 청소년 대표가 참여한 '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 구성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 ■ 3단계 : 도서관 등록에 따른 운영 규정과 시설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및 활용방안 검토 ■ 4단계 : 작은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 5단계 :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자원활동가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 ④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사례1: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밝맑도서관(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사례2: 서울시 공릉정보문화센터 **화랑도서관(청소년 상담 및 활동프로그램 진행)**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1,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1,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5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691&efYd=20160504#0000

영역4 지역사회 '민간청소년활동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추진개요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7년까지 총 45,971명, 청소년상담사는 11,453명이 배출되었다(여성가족부, 2017:476).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자외에도 청소년 시설과 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일반지도자와 청소년자원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명칭은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자'와 '청소년전문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청소년활동가', '청소년길잡이교사', '청소년멘토',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청소년퍼실리테이터, 마을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배치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운영상 재정적 여건으로 인하여 법정 인원 배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으며, 배치 기준을 준수한 시설들도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을 제대로 지도하기에는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사)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를 비롯하여 부산시, 전북 완주군, 인권재단 등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60]. 이러한 시의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마을공동체(의정부 몽실학교, 서울 삼각산마을) 면접조사와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0) http://cafe.daum.net/2003Youth/A2Vg/444?q=%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A%B0%80

정책 과제: 4-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진단	•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이들을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과 시민청소년지도자로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라는 명칭과 자격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임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지하고 조력하고 있는 일반 주민과 대학생 등을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로 명명하고 역할을 규명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 •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에 대한 일정한 연수 후 이수증과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위한 지자체 단위 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효과	• 직장인들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 나눔 기회 제공 • 대학생 혹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자격부여와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턴십과 경력 관리 기회 제공
추진절차	■ 1단계 : 청소년대표, 청소년담당, 청소년시설, 시의회, 주민대표로 협의체 구성 ■ 2단계 : 지역주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 3단계 : '시민청소년활동가' 명칭과 역할을 규명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 ■ 4단계 : '시민청소년활동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 5단계 : '시민청소년활동가' 사전 연수 및 이수증과 자격 부여 기관 지정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④ 돌봄, 역량개발,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청소년아카데미' 실설 추진 4-2-②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 ▣ 사례1: (사)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활동가' 공모, 면접 후 채용** ▣ 사례2: 의정부 몽실학교 지역주민과 청년들을 **'학생길잡이교사'** 채용 운영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1,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1,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4-2) 청소년(청년)의 지역사회 '일자리지원 멘토단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진단	• '우리나라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들의 실업 감소와 일자라 창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17년 1/4분기 10.8%(KOSIS),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업 기반도 정보 및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일자리지원 멘토 확보와 협력네트워크 운영이 시급한 과제임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역단위 다양한 기업과 사업체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멘토단 구성 및 협력네트워크 운영 • 지자체가 지역사회 '일자리지원멘토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정책효과	• 청소년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취·창업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 • '일자리지원 멘토단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역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의 거점 확보 • 지역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기여의식 고취
추진절차	■ 1단계 : 지역 내 기업 및 사업체 운영자, 지자체 청소년담당, 청소년시설, 시의회, 청소년 및 주민대표로 '일자리멘토단 추진위원회' 구성 ■ 2단계 : 지역주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 3단계 : '일자리지원멘토단'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관한 협약식 개최 ■ 4단계 : '일자리지원멘토단'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실시 ■ 5단계 : '일자리지원멘토단'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지정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3-4 청소년(청년) 취·창업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2-3-2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 ▣ 추진사례1: 군산시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및 체험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체결(2015.9.9.)'** ▣ 추진사례2: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과 상대원공단 SKN테크노파크+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아이사랑엄마모임+문화예술협동조합 연계구축(2018 시범사업)**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5,000	1년	고용노동부
	시비	3,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1,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4-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지원 '마을청소년돌보미' 운영

현황 및 진단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구, 요보호아동(학대, 부모이혼, 미혼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님 • 특히, 가출과 같은 위기청소년들은 개인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또는 '여성청소년쉼터'에서 단기, 중장기로 거주하면서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나 그 수가 전국 단위 111개(2017, 청소년백서)로 매우 제한적임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지역 혹은 마을단위에서 취약계층 특히 조손가정 및 청소년가장 등 성장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기술을 배우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 제공 • 마을단위 주민 혹은 자원봉사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연수 후 이수증과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과 연계 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효과	•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기술 지원과 관심제고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 혹은 '마을단위 위기청소년 돌봄시스템 구축'** •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청소년돌보미' 자격부여와 멘토링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턴십과 경력 관리 기회 제공
추진절차	■ 1단계 : 청소년담당, 청소년시설, 시의회, 청소년 및 주민대표로 협의체 구성 ■ 2단계 : 지역주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 3단계 : '마을청소년돌보미' 명칭과 역할을 규명하는 자자체 조례 제정 ■ 4단계 : '마을청소년돌보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 5단계 : '마을청소년돌보미' 사전 연수 및 이수증과 자격 부여 기관 지정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④ 돌봄, 역량개발,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청소년아카데미' 실설 추진 4-2-②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 ▣ 사례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서비스' 운영** ▣ 사례2: 의정부 몽실학교 지역주민과 청년들을 **'학생길잡이교사'** 채용 운영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1년	여성가족부
시비	1,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1,000	매년	교육청소년과

정책 과제: 4-4) 시·군·구(동)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센터(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지정 운영

현황 및 진단	• 지자체 단위 사회경제적 여건과 단체장의 청소년정책 관심도에 따라 지역격차가 심하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사업 중복과 분절적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사각지대 발생 • 전국 광역지자체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 주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구 단위에 '마을만들기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 시·군·구 혹은 광역시는 동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센터(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 운영 • 주요 기능은 행정기관+지역사업체+아동청소년시설+학교+교육청+지역주민 협력네트워크 관리 및 민간 청소년활동 지원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정책효과	• 지역단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위기청소년 서비스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추진절차	■ 1단계 : 청소년담당, 청소년시설, 시의회, 청소년과 주민대표로 '추진위원회' 구성 ■ 2단계 : '청소년성장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 ■ 3단계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 4단계 : '청소년성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 5단계 : '청소년성장지원센터' 운영 규정 정비 및 개소 ■ 6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추진근거 및 사례	▣ 추진근거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4-2-2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 ▣ 사례1: 서울시「마을만들기 혹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012」 ▣ 사례2: 충청남도「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소요예산 및 주관부서

재원	예산액(백만원)	기간	주관부서
국비	10,000	3년	여성가족부
시비	10,000	1년	여성청소년과
구비	100	매년	교육청소년과

표 Ⅶ-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제, 추진기관 및 관련 부처

과제영역	세부과제	기간	관련 부서
1.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1-1.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강화 및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단기/중장기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1-2. 청소년 참여 역량 및 권리 의식 제고	중장기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1-3.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여건 조성	중장기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2-1. 지역기반 청소년동아리 활동인증제 도입	중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2-2. 청소년진로탐색활동과 지역 사업체 연계 협력망 구축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2-3. 지역 생활권 청소년동아리 교류활성화 플랫폼 구축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학교
3. 마을공동체 청소년활동 공간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3-1. 읍·면·동 단위 어린이·청소년 놀이·여가센터 설치 확대	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행안부
	3-2.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젝트 기획·운영 기반 구축	단기	여가부 지자체
	3-3.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연계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부
4. 지역사회 민간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4-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4-2. 청소년(청년)의 지역사회 '일자리지원멘토단 네트워크' 운영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부
	4-3.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지원 '마을청소년돌보미' 운영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부
	4-4. 시군구(동)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센터(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지정 운영	단기/중장기	여가부 지자체 교육부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교육부 (2016.11.30.).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조간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64988 에서 2018년 6월 30일 인출.

교육부 (2018.3.23.).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교육부 (2018.3.26.).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교육부(2017.11.30.).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658&lev=0&m=0503 에서 2018년 6월 30일 인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36-39, 102-105, 140-145, 204-207, 258-261). 세종: 교육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3. 23). 2017 교육통계연보.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3. 23). 2017 **교육통계연보.** 학업중단율.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2017). **2017 해외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8. 3. 23).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8. 3. 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8. 3. 25). **2015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8. 3. 25).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8. 3. 25). **2017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8년 3월 25일 인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18.9.7). **e-나라지표 2017년말 도시공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8년 9월 7일 인출.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 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상철(2014).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 질서경제저널, 17(2), 1-26.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4). **'행복을가꾸는 우리마을 이야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성공비범을 나누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 '**행복을가꾸는 우리마을 이야기'**.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사례집.

달그락 청소년과 정건희, 김민, 김세광, 이용교, 정은균 (2018).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마을.** 도서출판 진포.

도로교통공단 (2017).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 송인영, 박지은 (201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V):**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의 활동역량 지표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09-01).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몽실정책마켓 추진위원회 (2018).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토론회.** 몽실학교(경기도교육): 경기도.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박진숙 (2017).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사계절.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서용선, 김아영, 김용련, 서우철, 안선영, 이경석, 임경수, 최갑규, 최탁, 홍섭근, 홍인기. (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살림터.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행복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서정아, 김희주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홍성효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두범, 김기흥, 박경철, 이관률 (2017). **우리는 왜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충남: 그물코.

양준호, 최길재, 최선정, 박경수, 양지혜, 강철구 (2016). **학교와 지역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 (2015).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서울: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서울: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 2018년도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운영과 추진전략.**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V: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형택 (2017). **10대의 속마음.** 도어북.

작은도서관진흥법 (2018.10.1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691&efYd=20160504#0000에서 2018년 10월 17일 인출.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혜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2018.6.7). **사회복지지출 비율.**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에서 2018년 6월 7일 인출.

청소년활동가 모집공지 (2018.10.17.). http://cafe.daum.net/2003Youth/A2Vg/444?q=%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A%B0%80 에서 2018년 10월 17일 인출.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pp.384-385.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7.4.4.). **사망원인통계** : 시도/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사망자수, 사망률(2000~) 에서 2018년 4월 4일 인출.

통계청 (2017.5.29). **2017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 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통계청 (2017.7.26).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 소요시간 및 각급 학교별 통학 인구(12세 이상)-시도 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통계청 (2018.6.5.).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통계청 (2018.6.5.). **시·도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4S&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통계청 (2018.6.5).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에서 2018년 6월 5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08).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8).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서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016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文部科学省 (2017). 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 2017ー地域とともにある学校づくりを目指してー.
文部科学省 (2016). 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 2016. 地域とともにある学校づくりのために.
Checkoway, B. and Gutierrez, L.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August. available at: https://www.taylorfrancis.com/books/e/9781136449246/chapters/10.4324%2F9780203051726-4 [accessed 24 April].
Holt Youth Project. available at: https://www.holtyouthproject.org.uk/activities [accessed 5 April].
Kibèd, M. V. (2013). Beratungskonzept – Hellingskampschule-
쾰른시 홈페이지. https://www.bildung.koeln.de/ausbildung_studium/artikel/artikel [accessed 3. May. 2018].
커뮤니티 스쿨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schools.org [accessed 20. April. 2018].
커뮤니티 스쿨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schools.org/aboutschools/national_models.aspx#1. [accessed 3. May. 2018].
커뮤니티 스쿨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schools.org/;Case Study: Sustaining Our [accessed 2. May. 2018].
청소년개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ydinstitute.org/history [accessed 2. May. 2018].

Michelle OReily, Nisha Dogra 공저, 김동렬 역(2017). **질적연구에서 아동·청소년면담 조사방법**. 경기도: 학지사.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OECD (2017). PISA 2012.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pisa2012database-downloadabledata.htm.

Prince Trust House. available at: https://www.princes-trust.org.uk/help-for-young-people/programmes [accessed 5 April].

Quinn, J. (1999). Where need meets opport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for early teens, *The Future of Children*, Vol. 9, No. 2, pp. 96-1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Youth Program). available at: https://www.doleta.gov/youth_services/discretionary.cfm [accessed 26 April].

Wooldridge, J. M. (2015).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Nelson Education.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Yang, Y., & Land, K. C. (2016).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Chapman and Hall/CRC.

Yang, Y., Fu, W. J., & Land, K. C. (2004).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age-period-cohort models: the intrinsic estimator and conventional generalized linear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34*(1), 75-110.

Yang, Y., Schulhofer-Wohl, S., Fu, W. J., & Land, K. C. (2008). The intrinsic estimator for age-period-cohort analysis: What it is and how to use i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6), 1697-1736.

Youth. Gov. available at: https://youth.gov [accessed 2 May]. East Rochester, New York. available at: http://eastrochester.org [accessed 2 May].

부 록

1. 청소년 행복지표조사 설문지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 효과분석 설문지

부록

1. 청소년 행복지표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044-415-2167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044-415-2102	Hankook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4)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5) 슬픈	①	②	③	④	⑤
6)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만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나라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믿을 수 있다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믿을 수 있다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믿을 수 있다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10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을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1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PART Ⅲ. 건강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먹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매우 많이 먹는다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0일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①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있다

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Ⅳ.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Ⅶ.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Ⅷ.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을 의미합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 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⑥ 잘 모르겠음

배경문항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 년 □□ 월

배문2 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면)

배문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혹은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문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신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시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신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⓪	①	②
2) 어머니	⓪	①	②

배문6 학생의 학업 성적(2018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 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배문7-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효과분석 설문지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 조사(사전)

(초·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복과 활동역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연구책임자: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ohs@nypi.re.kr)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아래의 문항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직접 답을 작성해주십시오.

Ⅰ. 일반적인 배경

1.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3. 거주 지역 : _____시(도)

※ 아래의 문항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Ⅱ.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인간관계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에 부모님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Ⅳ. 문제해결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복잡한 문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성취동기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비슷한 경험들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Ⅵ. 리더십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동협력과제에서 구성원들을 도와가며 일을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시민성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 조사(사후)

(초·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복과 활동역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연구책임자: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ohs@nypi.re.kr)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아래의 문항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직접 답을 작성해주십시오.

Ⅰ. 일반적인 배경

1.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2.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3. 거주 지역 : _____시(도)

※ 아래의 문항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Ⅱ.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인간관계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에 부모님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Ⅳ. 문제해결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복잡한 문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성취동기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비슷한 경험들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Ⅵ. 리더십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동협력과제에서 구성원들을 도와가며 일을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시민성역량 영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Ⅷ.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프로그램 참가 홍보 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프로그램 활동의 성과와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프로그램 진행자의 리더십과 운영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사전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where the Youth is Happy and Youth Happiness Index Survey VI』 is aimed at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and accumulating time-series data on the previous four years of Youth Happiness Index as well as to analyze local characteristics and make policy proposals based on a pilot project of running "Youth Club Activities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on-site case study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study mainly covers ① study, analysi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Youth Happiness Index, ② analysis of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a pilot project, "Youth Club Activities Based on Local Resources (3 local communities)," ③ analysis of main factors and implications based on Village Community Project (4 local communities) related to youth activities, ④ identification of policy challenges in each area.

The methodology included literature, pilot project, questionnaire survey, on-site interview, colloquium, policy forum, and working-level consultative meeting on policy research, among others. The following policy challenges were identified from the study findings.

First, there should be a system to support and manage youth health; measures to improve the youth capacity to participate and their awareness of rights; and an adequate environment for youth activities.

Second, there should be measures, network, and system to promote local community-based "Youth Club Activities."

Third, there should be expanded facilities, space, infrastructure, and play·leisure programs at the Village Community level to support youth activities.

Fourth, there should be an expanded system to manage and foster various types of "Private Youth Activity Leaders" in local communities.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 황여정·김승경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Ⅰ / 정은주·김정숙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헌·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헌·김인규

18-R24 청소년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헌·김태성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헌·이윤주·최정원·유설희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헌·하형석·유민상·조성호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 · 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Ⅲ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Ⅳ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보고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인 쇄 2018년 12월 26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04-9 9333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3330
9 791156 542049
ISBN 979-11-5654-204-9